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7호 2010. 3

차례

특집 발해 상경성 불교 유적·유물 연구

최성은 | 발해 상경성의 불상 - 동아시아 불교조각과의 비교연구 7

양은경 | 渤海 上京城 佛教寺院址의 建立年代와 佛像 奉安의 復原 65

이승란 | 발해 상경성 출토 사리구의 구성과 특징 121

논문

조영광 | 초기 고구려 종족 계통 고찰 - 예맥족을 중심으로 167

임석규 | 石山寺 所藏 加句靈驗佛頂尊勝陀羅尼記에 대한 一考察 219

방광석 | 德富蘇峰의 동아시아 인식 - 청일전쟁부터 한국병합 시기를 중심으로 253

최혜주 | 小田省棼의 교과서 편찬활동과 조선사 인식 279

계승범 | 영어권 중국사 개설서에 보이는 한국 관련 지도의 실태 분석 315

자료 소개

황용순 | 1998~2007년도 고고 발굴조사 보고 『발해상경성』 387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400

Contents

Special Issue **A study on the Buddhist Sites and Remains at Sanggyong, the capital of Balhae**

- Choe, Songeun | Buddhist Sculpture at Sanggyong, the Capital of Balhae 7
- Yang, Eungyeng | A building history into Buddhist temple sites and restoration of Buddhist images enshrinement in Sanggyongsong of Balhae 65
- Lee, Songran |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Excavated Buddhist Reliquaries from Balhae Sanggyongsong 121

Articles

- Jo, Yeongkwang | A Study on the Racial Origin of Early Koguryo 167
- Lim, Seogyu | A study on *Gaguyunghumbuljeongjonseungdaranigi* in Ishiyama temple 219
- Bang, Kwangsuk | Tokutomi Soho's Views on East Asia: Focused on era from the Sino-Japanese War to the annexation of Korea 253
- Choi, Heajoo | Compilation of textbooks and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by Oda Shogo 279
- Kye, Seungbum | An Examination of Korea-Related Maps Seen in the Survey Books of Chinese History Written in English 315

Introduction to Historical Sources

- Hwang, Yongsoon | The Sanggyong Site of Balhae State 387

특집

발해 상경성 불교 유적·유물 연구



발해 상경성의 불상

- 동아시아 불교조각과의 비교연구 -

최성은 | 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I. 머리말

발해 역사상 최후의 수도였던 上京 龍泉府는 성왕(794~795)이 즉위한 794년에 천도하여 발해가 멸망하는 926년까지 도읍하였던 곳으로 지금의 黑龍江省 寧安市 남쪽의 渤海鎮에 위치한다.¹⁾ 이곳 상경성 일대는 1930년대부터 최근까지 발굴을 통해 다양한 불교 유물이 출토되었다.²⁾ 여기서 출토한 불상들은 재

※ 투고일: 2010년 1월 27일, 심사일: 2010년 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0년 2월 28일.

- 1) 王承禮 저, 宋基豪 역, 1987, 『발해의 역사』,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16쪽; 林相先, 1988, 「渤海의 遷都에 대한 考察」, 『淸溪史學』 5.
- 2) 상경성은 東亞考古學會에서 1933년과 1934년에 2차에 걸쳐 대규모 발굴을 실시하였다. 당시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고고학과의 原田과 駒井, 교토제국대학의 水野清一이 참여했고 2회 조사 때는 도쿄대학의 三上次男도 참여했다. 이때 발견된 절터는 9개소로 보고되었는데, 이후 중국 측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절터의 수는 더 추가되었고 새로 조사된 彫像들도 여러 점에 달한다. 東亞考古學會, 1939, 『東京城-渤海國上京龍泉府址の發掘調査』, 東京: 東方考古學叢刊; 陳顯昌, 1980, 「唐代渤海上京龍泉府遺址」, 『文物』 제9기, 87쪽; 부경만·관금천·왕림안·황림계 저, 방학봉 역, 1992, 「발해국의 서울 상경성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발해사연구』 3, 연

료가 다양할 뿐 아니라 양식과 도상에서도 中·晚唐期の 불상 양식과의 연관성이 발견된다. 상경출토 불교조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동아고고학회에서 발굴하고 취득한 불상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³⁾ 그러나 1960년대 이래 다시 조사가 시작되어 여러 점의 불상이 새로 알려지게 되었다.⁴⁾ 이 가운데는 과거의 출토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상도 있고, 이미 조사된 상들과 동일한 형태의 불상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상경출토의 불상을 중심으로 발해 후기 불교조각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唐과 신라, 일본의 동아시아 불교조각과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발해 불교조각이 지닌 국제성과 독자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상경성 불교조각의 현상과 형식 분류

발해 상경성의 절터에서 출토한 불상들은 현재 서울대학교박물관과 도쿄대학, 흑룡강성박물관, 발해상경유지박물관에 나뉘어 소장되어 있는데, 앞의 두 곳의 소장품들은 1933~1934년 東亞考古學會의 조사 때 출토한 유물들이고, 중

변대학교출판사·서울대학교출판부, 23쪽; 張慶國·李濟瑩, 2001, 「渤海上京寺廟遺址調査」, 『渤海上京文集(第一集)』, 渤海上京遺址博物館, 63~65쪽 참조.

- 3) 상경출토 불교조각에 대한 최근의 논고로는, 林碩奎, 1998, 「東京大博物館 소장 渤海 佛像」, 『高句麗研究』 6, 386~393쪽; 文明大, 1999, 「渤海 佛像彫刻의 流派와 樣式研究」, 『講座美術史』 14-발해미술특집 고구려·발해연구, 11~25쪽; 崔聖銀, 1999, 12, 「渤海(698-926)의 菩薩像 樣式에 대한 考察」, 『講座美術史』 14, 55~65쪽; 姜熺靜, 2003a, 「발해후기의 불교조각과 신앙」, 『東岳美術史學』 4, 23~38쪽; 崔聖銀, 2007, 「渤海 佛教彫刻의 새로운 考察-中國, 日本 고대조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26-동아시아와 발해Ⅱ, 136~142쪽 참조.
- 4) 1963~1964년에는 북한과 중국의 공동조사팀인 朝中공동고고학발굴대가 上京遺址를 조사하고, 1970~1980년대에는 흑룡강성 고고학연구소가, 1989~1990년에는 발해상경유지박물관에서 상경유지 일대의 발굴·정리사업을 시행하였다. 부경만·관금천·왕림안·황림계, 1992, 앞의 글, 204쪽.

국에 있는 유물들은 그 이후에 발굴·수습된 불상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수량이 많은 불상은 단연 소조불상이다. 소조불상은 크기가 작은 소형상들이지만 수량이 많아서 상경 불상을 대표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음으로는 금동상들인데, 이 상들은 출토품도 있지만 조사단이 현지에서 구입한 것도 있다. 금불상은 1구로 출토품이고, 철불은 개인소장품으로 현재 소장처를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건칠불은 불에 탄 파편의 일부만 조사되었으나⁵⁾ 동아시아에서 8, 9세기에 선호하던 건칠불상이 발해 지역에서도 조성되었던 것을 말해 준다. 석조, 소조, 금동, 금, 철조, 건칠 등 여러 종류의 재료로 제작된 상경성의 불상들은 재료에 따라 사찰에서의 봉안용도와 위치가 달랐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우선 재료별로 분류하여 그 현상과 형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소조불상

1930년대에 일본 학자들이 조사한 상경성 주작대로 서쪽의 제4·5호 절터에서는 많은 소조불상을 비롯하여 불전의 내벽을 장식했던 벽화편들이 수습되었다.⁶⁾ 여기서 발견된 다량의 소조불상은 지금까지 발해 상경 불교조각을 대표하는 유물로 알려지게 되었다. 상경성 출토품 이외에도 동경으로 비정되는 八連城(吉林省 琿春市)에서 사실적인 조각기법이 보이는 코나 손가락 등의 파편 등이 출토된 바 있고,⁷⁾ 또한 吉林省박물관 소장의 도제 불두편 등 사실적인 조각기법을 보여주는 소조불상들을 통해서 발해 지역에서 소조상의 제작기법이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⁸⁾

5)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74쪽.

6) 상경성출토 소조불상에 대해서는 文明大, 1999, 앞의 글, 18~21쪽; 林碩奎, 1998, 앞의 글, 388~393쪽 참조.

7) 『해동성국 발해』, 서울대학교박물관·도쿄대학문학부, 2003, 47쪽 도 16, 도 17 참조.

8) 이것은 평양 元五里사지 소조불보살상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구려의 소조불상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梁銀景, 2008, 「北韓의 불교사원지출토 高句麗, 渤海 佛像의 출토지문제와 계승관계」, 『高句麗渤海研究』 31, 179~210쪽 참조.

또한 상경성 토대자촌 사지에서 출토한 귀부분과 불상의 일부로 생각되는 파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等身大나 그보다 큰 소조상들이 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 파편들은 불상의 나발, 옷주름, 보살상의 보계와 영락장식, 신장상의 갑옷장식의 일부로 생각되며 아래에서 살펴볼 소형 불상들처럼 소성하지 않은 것들이었다.⁹⁾ 상경 제1사지의 금당에도 규모가 큰 소조상이 봉안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당지 內陣의 佛壇에 놓여 있는 9개의 석조대좌[도면]는 중앙의 팔각대좌와 그 좌우와 앞쪽에 대칭으로 배열된 방형과 장방형의 대좌가 8개 있는데, 이 대좌 위에 봉안되었던 조각들 역시 소조상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¹⁰⁾ 또한 제9사지의 금당지 내진에서 발견된 5개의 석조대좌도 소조상의 대좌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¹¹⁾

현존하는 상경성출토 소조불상들은 몸통이 두껍고 표면에 채색을 하거나 유약이 발려 있기도 하고 어떤 상은 금분을 입혔던 흔적이 있다.¹²⁾ 소조상의 대좌 바닥에는 깊은 구멍이 뚫려 있거나 철심이 꽂혔던 흔적이 있어 벽에 감실을 만들어 안치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³⁾ 동일한 상을 천불, 삼천불로 대량 제작하기 위해 거푸집으로 눌러 틀빼기 기법¹⁴⁾으로 성형하여 소성하여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테라코타 조각들인 셈인데, 이 때문에 이 소조상들을 塼佛 또는 陶佛이라고도 부른다.¹⁵⁾ 이 불상들로 장엄된 불당의 내부는 벽화와 소조불상으로 장식되고 화려한 보상화문전이 깔린 장려한 모습이었을 것으

9)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75쪽 및 도판 111, 112; 朱榮憲, 1979, 『渤海文化』, 東京: 雄山閣, 133쪽 도판 112 참조.

10) 방학봉, 1998, 『渤海の佛教遺蹟과 遺物』, 50~51쪽.

11) 방학봉, 1998, 위의 책, 52~53쪽.

12)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37~38쪽; 駒井和愛, 1977, 「渤海國の二佛并座石像」, 『中國都城·渤海研究』, 東京: 雄山閣, 169~174쪽; 車玉信, 1991, 「渤海 佛像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46쪽.

13)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72~73쪽.

14) 발해 소조상들의 제작기법에 대해서는 林碩奎, 2005, 「발해 소조불상의 성격과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북방사논총』 7, 273~305쪽 참조.

15) 틀에 찍어서 구웠다고 하여 塼佛 또는 陶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급지 않은 塑造佛과 구분하기도 한다. 朱榮憲, 1978, 앞의 책, 133쪽. 전불이나 도불이 모두 흙을 재료로 한 것으로 소조불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소조불로 부르도록 하겠다.

로 생각된다. 소조불상들 가운데는 같은 틀[范]에서 찍어낸 동일 형식의 상들이 많다. 지금부터 이 상들을 형식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불상

(1) 소조불좌상 I · II

상경성에서 출토한 소조불상들은 크기가 조금씩 다른데, 대의 착의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볼 때, 먼저 대의 좌우 깃이 수직으로 내려와 앞가슴이 넓게 드러나는 불상이 있다. 이 형식의 소조불상들은 상경성 內城의 동남쪽에 위치한 土臺子村에서 출토한 상들로 서울대학교박물관과 발해상경유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토대자촌은 사찰 유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사찰이 여럿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이곳에서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서북 모퉁이의 불전지에서 소형의 소조불상들이 출토되었고, 토대자촌에서 서남으로 200m 되는 곳에 위치한 한 절터의 불전지에서도 일찍이 적지 않은 소형의 소조불상이 출토된 바 있다. 또한 토대자촌 남쪽 약 100m 가량 떨어진 경작지에서 뒤에서 살펴볼 사리함(도 43)이 출토되기도 했다.¹⁶⁾

토대자촌에서 출토된 이 첫 번째 형식의 소조불상들은 온전하게 남아 있는 상이 없고 대부분 깨지고 손상을 입은 상들뿐이지만 높은 조각 수준을 보인다(도 1). 이 상들은 채색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신 광배에, 머리에서 이어지는 육계가 높으며, 자비한 미소를 머금은 원만한 相好를 보여준다. 대의를 입은 가슴이 넓게 파이고 내의가 수평으로 보이며 두 손은 마주 포개어 배 위에 올려 놓았는데, 측면에서 보면 입체적인 고부조의 조형감이 느껴진다. 양 어깨에서 내려오는 옷주름은 일정한 간격으로 층단을 이루고 다리를 덮은 두꺼운 옷자락에는 넓은 弧形의 주름이 새겨져 있으며 2단으로 이루어진 單瓣 연화대좌 위에 앉아 있다.

앞의 불상과 매우 유사한 형식이면서 크기가 조금 작은 제2형식의 불좌상

16) 朱國忱·朱威, 2002, 『渤海遺迹』, 文物出版社, 118쪽.



〈도 1-1〉 소조불좌상(Ⅰ형식), 상경 토대자촌 사지출토, 서울대학교박물관



〈도 1-3〉 소조불좌상(Ⅰ형식), 상경 토대자촌 사지출토, 서울대학교박물관

〈도 1-5〉 소조불좌상(Ⅰ형식), 발해상경유지박물관



〈도 1-2〉 소조불좌상(Ⅰ형식), 상경 토대자촌 사지출토, 서울대학교박물관



〈도 1-4〉 소조불좌상(Ⅰ형식), 상경 토대자촌 사지출토, 서울대학교박물관



이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도 2). 이 상은 광배부분이 많이 손상되었는데, 얼굴은 양감이 풍부하고 대의를 입은 앞가슴이 넓게 열려 있으며 가슴에 수평으로 내의가 보인다. 두 손은 마주 포개 잡았고 양 어깨에서 내려오는 대의가 소매처럼 늘어져 있다.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기운 자세로 몸통의 두께가 두꺼운 高淨彫를 보인다.



이 상들처럼 두 손을 맞대어 포개 선정인 불좌상은 삼국시대에 유행했던 古式 선정인 불좌상과 유사한 형식으로 연해주 크라스키노 사원지에서 출토한 금동불좌상과 석불좌상에서도 보인다.¹⁷⁾ 그러므로 이 고식의 선정인 불좌상 형식이 발해 초기부터 상경 도읍기까지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도 2) 소조불좌상(II형식), 상경 토대자촌 사지출토, 서울대학교박물관

(2) 소조불좌상Ⅲ

위의 불상들처럼 얼굴 표현이 사실적이나 대의 표현이 약간 다른 소조불좌상이 토대자촌의 절터와 제4사지에서 출토하였다. 이 상들은 서울대학교와 도쿄대학, 흑룡강성박물관에 각각 소장되어 있는데,¹⁹⁾ 머리 중앙에 가르마가 있는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 머리 좌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점이 특징적이다(도

17) 林碩奎, 1999, 「크라스키노 사원지의 불상」, 『講座美術史』 14-高句麗·渤海 研究Ⅱ, 74쪽 도 3, 도 6 참조.

18) 같은 형식의 고구려 불상의 예로는 평양 元五里사지출토 소조불좌상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남궁련 舊藏의 금동불좌상을 들 수 있다. 『三國時代佛教彫刻』, 국립중앙박물관, 1990, 11~12쪽 참조.

19) 林碩奎, 1998, 앞의 글, 389~392쪽 참조.



〈도 3-1〉 소조불좌상(Ⅲ형식), 상경 토대자촌 사지출토, 도쿄대학박물관



〈도 3-2〉 소조불좌상(Ⅲ형식)의 부분(바닥면)



〈도 6〉 석조아미타불좌상, 唐 太和 2년(828), 상해박물관



〈도 3-3〉 소조불좌상(Ⅲ형식), 흑룡강성박물관

3). 두 눈은 반개하였으며, 양 뺨이 통통한 사실적인 표정의 얼굴, 통견식으로 입은 대의 안에 사선으로 표현된 내의와 옷 밖으로 나온 대의자락, 다리를 덮은 대의의 U자형 옷주름, ‘표주박형’ 광배, 삼엽으로 이루어진 단판 대좌 등에서 단순하지만 세련된 모습을 보이며 대의 위에는 붉은 채색이 남아 있다.²⁰⁾ 이 불상에서처럼 가르마로 앞머리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양쪽으로 머리가 볼록하고 동그랗게 튀어나온 표현은 상해박물관의 唐 太和 2년(828) 석조삼존불상의 본존상(도 6)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당 조각 양식과 발해 조각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엿볼 수 있다. 흑룡강성박물관에 소장된 상(도 3-3)에는 광배의 테두리와 머리 연화대좌의 가장자리에 검은 먹선이 둘러져 있는데, 서울대학교와 도쿄대학에 있는 상과 비교해 볼 때, 이 채색이 처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불상들의 형식은 앞의 토대자촌 사지출토 불상들과 다른 부분이 보이지만 제작 시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소조불좌상Ⅳ

상경성 제4사지에서 출토한 불상의 형식(제4형식)은 뒤에서 살펴볼 소조관음보살입상들과 함께 출토한 상들로, 불상의 하부에 뚫린 구멍에 철정이 붙어 있던 흔적이 있다(도 4).²¹⁾ 이 불상은 두 개의 틀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하나는 앞의 제3형식 불상처럼 옷자락이 안쪽에서 밖으로 나뭇잎 모양으로 늘어진



〈도 4〉 소조불좌상(Ⅳ형식), 상경 제4사지출토, 도쿄대학

20)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72쪽; 林碩圭, 1998, 앞의 글, 389~392쪽 참조.

21) 林碩奎, 1998, 앞의 글, 392~393쪽 참조.

상인데, 내의를 묶은 띠매듭까지 표현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옷자락이 늘어지지 않고 왼쪽 팔 위에 얹혀 있으며 내의가 수평이고 띠매듭이 없다. 두 유형 모두 정상이 뾰족한 擧身光背에 두 손을 마주 포개고 앉은 불좌상으로 머리 중앙에 가르마가 수직으로 홈처럼 파여 있고 육계는 높으며 얼굴이 둥글고 이목구비는 큼직한 편이나 턱 부분이 짧다. 통견식으로 입은 대의에 새겨진 세로 주름과 다리 위를 덮은 弧形 옷주름은 가늘고 촘촘하며, 상의 크기로 보아 같이 출토한 소조관음보살입상의 본존상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형식의 불상은 도쿄대학에만 소장되어 있는데, 1930년대 조사에서 거의 대부분을 수습해서 가져간 것으로 생각된다.

(4) 소조불좌상 V

다음으로 大衣가 목 가까이 올라오는 通肩式 착의법을 보이는 형식은 상경성 제4사지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크기 6.7cm 정도의 소형 불상(제5 형식)으로 역시 서울대학교와 도쿄대학, 흑룡강성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도 5).²²⁾ 불상의 모습은 거신광의 광배를 뒤로 하고 두 손을 옷 속에 가린 채 2단으로 올려진 단순한 형태의 단판 연화대좌 위에 앉아 있는데, 불신의 전체 비례가 三等身 정도 되는 아담한 短軀形의 비례를 보인다. 세부를 살펴보면, 육계가 뾰족하게 높고 머리가 크며 얼굴에는 살이 많고 통통하다. 이목구비는 사실적으로 표현되었고, 목부분과 대의 앞자락의 옷



〈도 5-1〉 소조불좌상(V 형식), 서울대학교박물관

22) 林碩奎, 1998, 앞의 글, 388~389쪽 참조.



〈도 5-2〉 소조불좌상(V형식), 서울대학교박물관
 〈도 5-3〉 소조불좌상(V형식), 흑룡강성박물관

주름이 가늘고 섬세하다. 이 불상들의 특징은 육계가 높고, 체구비례가 단구형이라는 점인데, 一見 전체적으로 古式을 따르고 있으나 높고 뾰족하게 올린 육계의 표현은 唐末五代의 양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측면에서 볼 때, 입체감이 丸彫를 방불케 하여 조각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5) 소조아미타불좌상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소조불상 가운데는 아미타불좌상이 한 구 있다(도 7).²³⁾ 이 상은 현재 크기가 7.7cm의 소형의 상으로 상경에서 출토했다고 전하는데, 광배가 깨지고 불상의 얼굴부분이 훼손되어 상호를 알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상경성출토 소조상들처럼 단판의 연화좌 위에 앉

23) 상경성출토 소조아미타불좌상에 대해서는 姜煥靜, 2003b, 「발해 불교미술의 신 해석」, 『발해 고고학의 최신성과』(「해동성국-발해」 특별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요지), 서울대학교박물관, 67~71쪽; 姜煥靜, 2003a, 앞의 글, 24~30쪽; 林碩奎, 2005, 앞의 글, 277~278쪽 참조.



〈도 7-1〉 소조아미타불좌상, 서울대학교박물관



〈도 7-2〉 소조아미타불좌상 반측면



〈도 7-3〉 소조아미타불좌상의 수인부분

아 있고 부드러운 弧形의 주름을 이루는 옷자락이 무릎 위를 덮고 있다. 육계가 높고 가름한 얼굴에 대의 깃이 양 어깨에서 내려오며 가슴에는 내의가 비스듬히 사선으로 보인다. 다른 어느 부분보다 손은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는데, 양 손을 포개어 배꼽 앞에 놓고 양쪽 검지손가락을 구부려 그 끝을 엄지손가락의 끝과 맞댄 수인, 즉 阿彌陀定印(妙觀察智印)을 결하고 있다.²⁴⁾ 상경출토의 다

24) 아미타정인(묘관찰지인)에 대해서는 不空이 譯한 「금강정경관자재왕여래수행법」(『新修大藏經』, 19卷 73頁)에 “次結三摩地印。二羽仰叉。進力相背而堅。禪指捻推力頭。置於跏上。訟密言曰”이라고 說해져 있다. 관자재왕여래는 아미타불을 가리키므로 이 경전은 아미타불의 本軌를 설한 것인데, “禪定印(三摩地印)을 結하고

른 소조상들이 대체로 갈색을 띠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아미타불상은 주황색을 띠고 있다. 또한 양쪽 팔에 새겨진 옷주름의 일부가 선각되어 입체감이 떨어지고, 어깨와 몸통의 폭이 좁아졌으며 상체가 약간 길어졌다. 이와 같은 표현은 다른 소조상들에 비해 조성시기가 다소 내려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2) 보살상

(1) 소조관음보살입상

1930년대에 上京城의 제4호 절터에서 다량 출토한 소조보살입상들은 크기가 11.2cm 가량되는 소형의 상들로 현재 도쿄대학 문학부에 대다수의 상이 소장되어 있고, 약간은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보살상들(도 8)은 같은 기법으로 제작된 불좌상들(제4형식)과 함께 출토하였는데, 상들의 대좌 밑에는 구멍이 뚫려 있거나 철못이 꽃혀 있어 벽에 설치된 감실에 안치했던 상들로 추정되고 있다.²⁵⁾ 대부분은 황갈색을 띠고 있으며 어떤 상은 채색을 하거나 유약을 발랐고 어떤 상은 금분을 입혔던 흔적도 있다.²⁶⁾

보살상들은 비교적 단구형의 신체비례를 보여주고 보주형 광배에 높은 三花寶冠을 쓰고 있으며 보관의 중앙에 化佛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상도 있어 관음보살임을 알 수 있는데, 하나의 틀로 찍은 듯이 거의 똑같은 모습이다. 얼굴은 동그랗고 살이 많아 양 뺨이 통통하며 부드러운 표정이다. 목에는 구슬목걸이를 하고 오른손은 들어서 가슴부근까지 올리고 왼손은 내려서 천의를 잡은 자세인데, 천의는 U자형으로 두 가닥이 늘어지는 이른바 ‘2단천의 형식’이다.

양손(二羽)을 교차시켜 손바닥을 위로 올리고, 검지손가락(進力)의 등을 맞대어 그 위에 양손의 엄지손가락(禪指)을 올려 결가부좌한 무릎 위에 올리는” 수인을 설명하고 있다.

25) 관음보살입상에 대해서는 林碩奎, 1998, 앞의 글, 386쪽; 文明大, 1999, 앞의 글, 21~22쪽; 崔聖銀, 1999, 앞의 글, 56~58쪽 참조.

26)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37~38쪽; 駒井和愛, 1977, 앞의 글, 169~174쪽; 車玉信, 1991, 앞의 글, 45~46쪽.



〈도 8-1〉 소조관음보살입상, 상경 제4지출토, 도쿄대학 문학부



〈도 8-2〉 소조관음보살입상들



〈도 8-3〉 소조관음보살입상의 뒷면



〈도 8-5〉 소조관음보살입상의 반측면



〈도 8-4〉 소조관음보살입상, 상경 제4지출토, 서울대학교박물관

치마[裊]는 다리를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져 U자형의 옷주름이 양 다리 위에 새겨졌고 중앙에는 허리띠 자락이 아래로 길게 내려오고 있다. 두발은 單瓣蓮화 대좌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는데, 약간 배를 앞으로 내민 듯한 動的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이 보살상들에서 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보주형 광배나 2단천의 형식의 표현, 신체의 비례감 등은 古式의 양식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2단천의 형식의 보살상은 中國에서는 齊周부터 隋代 조각에서 특히 유행했고 당대 조각에까지 이어졌던 보살상 유형이다.²⁷⁾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지역에서 7세기 전반부터 삼국통일기까지 특히 유행했던 표현으로 仙桃山삼존불의 좌우협시보살입상, 삼양동 금동보살입상, 영월출토 금동보살입상 등 여러 例가 전하며 통일신라 조각에까지 이어졌다. 형식 면에서는 고식을 띠고 있으나 양식 면에서는 세속적인 자세와 비만한 신체에서 중만당기 조각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2) 소조사유보살입상

앞의 소조보살입상들과 함께 출토한 소조보살입상은 허리 아래의 하체를 잃은 상으로,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오른손을 뺨에 대고 무언가 생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사유보살상이라고 불리고 있다(도 9-1).²⁸⁾ 이 상과 함께 사유보살상으로 생각되는 또 한 구의 상이 출토하였으나, 머리와 광배 부분을 잃은 상태이다(도 9-2). 두 구의 상을 조합해 보면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보주형의 광배에 보계를 높이 올리고, 동그랗고 통통한 얼굴의 이목구비, 천의를 2단 늘어뜨린 형식, 신체의 비례감 등 기본적인 도상과 양식이 앞의 소조보살입상과 같다. 다만 사유보살상들은 허리를 틀어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린 자세를 표현하고 있으며, 정면향의 자세인 앞의 관음보살입상이 다량으로 출토한 것에 비해서 사유보살상은 2구만 발견되어, 이 상들이 불전 벽

27) 2단천의 보살상 형식에 대해서는 金理那, 1992, 「三國時代의 佛像」, 『韓國美術史의 現況』, 도서출판 예경, 54~55쪽 참조.

28) 이 상에 대해서는 崔聖銀, 1999, 앞의 글, 58~59쪽 참조.



〈도 9-1〉 소조사유보살입상, 상경 제4지출토,
도쿄대학 문학부



〈도 9-2〉 소조사유보살입상 하체부분

면의 장식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매우 흥미롭다.

(3) 소조공양보살좌상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소조공양보살상(도 10-1·2)은 높은 보계 위에 삼각형 보관을 쓰고 양감이 느껴지는 동그랗고 예쁜 얼굴에 어깨에는 천의를 걸치고 두 손으로 화반을 받쳐 들고 있다.²⁹⁾ 현재 남아 있는 상반신의 높이가 7.3cm 정도이므로 전체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공양보살상(도 10-3)은 앞의 상에 비해 크기가 작고 얼굴도 가름하며 반측면향으로 앉은 모습이다. 합장한 보살상(도 10-4)은 상체부분만 남은 상과 머리를 잃은 상의 2구가 전하는데, 얼굴이 둥글고 입체감이 나타나며 정면향으로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

29) 『해동성국 발해』, 45쪽, 도 13.



〈도 10-1〉 소조공양보살상 I, 서울대학교 박물관



〈도 10-2〉 소조공양보살상의 뒷면



〈도 10-3〉 소조공양보살상 I · II, 서울대학교 박물관



〈도 10-4〉 소조합장보살상, 서울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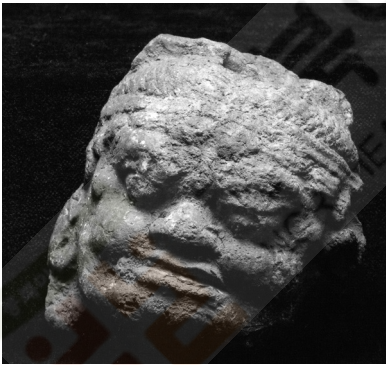


〈도 10-5〉 소조합장보살상의 하체부분

다. 하체부분이 남은 상을 보면 결가부좌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앉은 듯한 자세(도 10-5)이며 그 바닥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불전의 벽을 장엄하기 위해서는 불보살상뿐 아니라 이와 같은 공양보살상과 합장보살상도 필요했을 것이다. 여러 종류의 經變相圖에서 흔히 보이는 화반을 들거나 합장을 한 공양상들이 불전의 벽면에 부조 형태로 붙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인물상

토대자촌 사지에서 출토한 소조상들 가운데 머리부분만 남아 있는 인물상이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³⁰⁾ 이 상(도 11)은 신장상으로 소개되었는데, 머리에 띠를 두른 넓직한 얼굴에, 튀어나온 눈과 광대뼈, 커다란 입, 짧은



〈도 11〉 소조인물상, 상경성 토대자촌 사지출토, 서울대학교박물관



〈도 12〉 곤륜노, 만당, 돈황 제156굴 서벽북측 문수변상도

30) 『해동성국 발해』, 47쪽, 도 19.

턱의 표현에서 볼 때, 문수보살의 사자를 이끄는 崑崙奴³¹⁾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곤륜노의 얼굴생김과 표정은 돈황 막고굴 제156굴 서벽북측의 '문수변상도'에 묘사된 곤륜노상³²⁾과 흡사하다(도 12). 그러므로 이곳의 사찰에는 문수보살과 이에 대응하는 보현보살의 소조상이 봉안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발해 승려들의 빈번한 오대산 왕래를 통해 오대산의 문수신앙이 발해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하겠다.

2. 석불상

상경성에서 출토한 불상들 가운데는 석불이 드물다. 東京용원부가 있던 팔련성, 中京 德新鄕의 仲坪寺址, 연해주 크라스키노 사원지에서 출토한 석불들은³³⁾ 크고 작은 조각이 용이한 사암이나 석회암 계통의 석재로 만들어진 것에 비해서, 상경성 일대의 석재는 입자가 크고 표면이 거친 현무암과 같은 화산암이다. 이는 상경성 일대에서 조사된 절터와 고분의 礎石, 불단의 대좌는 모두 현무암으로 제작되어 그 표면의 입자가 거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³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경성 일대에는 흥륜사에 석불좌상을 비롯하여 거대한 석등과 석조연화 대석이 전해 오고, 상경성 내원에서 서쪽으로 약 200m 지점인 오늘날의 白廟子村 일대의 절터에서 거대한 석불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고 하며, 성 남쪽의 발해진 소화교가 있는 자리에서 발해 龜趺가 발견된 점 등에서 볼 때,³⁵⁾ 상경도읍기에 석조미술이 위축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예로서 1930년대에 상경성 제1궁전지에서 출토한 석사자상은³⁶⁾ 부릅뜬 눈

31) 곤륜노에 대해서는 허형욱, 2006, 「崑崙奴 도상에 관한 연구-법주사 석조인물상을 중심으로」, 『佛敎美術史學』 4, 69~106쪽 참조.

32) 敦煌文物研究所 編, 1987, 『敦煌莫高窟』 4, 文物出版社, 도판 141 참조.

33) 방학봉, 1998, 앞의 책, 24~25쪽; 文明大, 1999, 앞의 글, 27쪽 도 19·20, 29쪽 도 22, 32쪽 도 25 참조.

34)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도 58, 도 60의 1, 도 61의 2, 도 72의 2 참조.

35) 朱國忱·朱威, 2002, 앞의 책, 118~119쪽.

36)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62~64쪽 및 도판 98~100; 『해동성국 발해』,

과 이빨을 드러내고 포효하는 입, 휘날리는 눈썹 등의 표현에서 당시 석조미술의 우수함을 느낄 수 있다.

1) 상경 제2사지 석불좌상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해 오는 대형의 석불은 상경성의 제2사지, 오늘날의 興隆寺에 봉안된 석불좌상(도 13)이다. 흥룡사는 清代에 와서 발해 사원지 위에 세운 사찰로 상경 內城의 남쪽 1.5km, 朱雀大路의 동쪽에 위치하는데, 원래 발해시대의 사찰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⁷⁾ 이곳에 봉안되어 있는 석불좌상은 상 높이가 2.35m이고, 대좌를 포함하면 크기가 3.5m에 달하며, 없어진 중대석의 높이를 계산하면 장육상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³⁸⁾ 이미 완전히 보수되어 봉안 당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이 불상의 규모를 통해 봉안되었던 불당의 크기와 사찰의 규모 등을 엿볼 수 있다.

이 불상에 대한 문헌기록 가운데, 清代에 楊賓이 撰한 『柳邊紀略』에 따르면 석불의 머리는 이미 강희연간에 떨어져 훼손되었으며 코끝도 약간 손상을 입었다고 한다.³⁹⁾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친 보수로 인해 현재는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현재의 모습으로 보수되기 이전의 사진(도 13-2)을 보면 성당 조각의 영향이 반영된 체구가 장대한 불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⁰⁾ 석불상의 대좌부분(도 13-3)은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판의 양련좌로서 뒤에서 살펴볼 소조불상(佛)들의 연화대좌와 매우 유사하다. 이 석불의 尊名은 과거 사진에 보이는 양팔의 형태로 보아서 降魔觸

56~57쪽 도 32, 33 참조.

37) 朱國忱·朱威, 2002, 앞의 책, 119~1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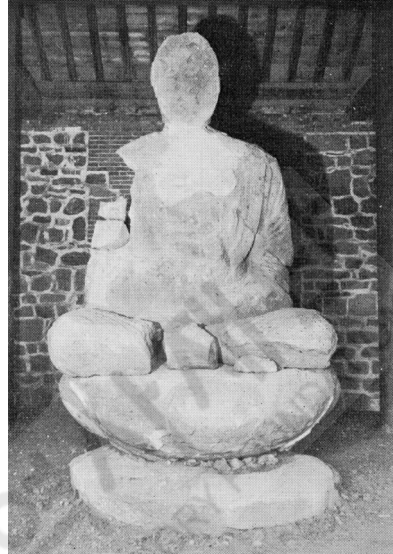
38) 이 불상에 대해서는 朱榮憲, 1979, 『渤海文化』, 雄山閣, 131쪽 도 53; 방학봉, 1998, 앞의 책, 169~171쪽; 趙哲夫, 2001, 「興隆寺渤海石佛損毀考」, 『渤海上京文集』, 渤海上京遺址博物館, 59~62쪽; 文明大, 1999, 앞의 글, 23쪽; 趙哲夫, 2001, 앞의 글, 59~62쪽 참조.

39) 朱國忱·朱威, 2002, 앞의 책, 211쪽.

40) 朱榮憲, 1979, 앞의 책, 131쪽 및 도판 52 참조.



〈도 13-1〉 흥릉사 석불좌상,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도 13-2〉 흥릉사 석불좌상(보수 이전)

地印을 결한 석가불로 이곳 사찰 금당의 본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⁴¹⁾ 상의 표면이 거친 현무암 계통의 돌이어서 예배상으로 봉안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불상의 표면을 다듬고 그 위에 채색을 하거나 금을 입혀 장엄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도 13-3〉 흥릉사 석불좌상의 대좌부분

2) 함화 4년명 석조아미타불비상

발해 석불상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작품이 일본 大原美術館 소장의 咸和 4년명 碑像이다.⁴²⁾ 이 비상(도 14)은 1959년 尙雅堂이라는 골동상에서 구입한

41) 文明大, 1999, 앞의 글, 23쪽 참조.

42) 이 비상의 명문은 黃壽永, 1976,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276~277쪽; 宋基豪,



〈도 14〉 함화 4년명 석불비상, 발해 833년 추정, 倉敷大原美術館

것으로 전하는 높이 64cm의 아미타 불비상이다.⁴³⁾ 함화 4년(833) 윤5월에 제작된 이 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함화 4년에 윤달이 없다는 점,⁴⁴⁾ 양식 및 도상의 측면에서 9세기 불교 조각의 특징을 보이지 않고 1세기 반 이전의 초당 양식을 보이는 점, 명문 내용에 정토사상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 '지장보살'이라고 명문이 새겨진 측면에 지장보살의 도상이 아닌 일반적인 모습의 정병을 든 보살상이 새겨진 점 등이 지적되었다.⁴⁵⁾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추가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 불비상의 上部인 螭首부분의 중앙에 생긴 오각형의 공간은 중국 남북조와 수·당대의 불비상에서와는 달리 비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수가 있는 불비상에서 이수의 중앙부분의 공간은 결코 비어 있는 경우가 없으며 불·보살상이나 단층탑 등이 새겨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⁴⁶⁾

1992a, 「咸和四年銘 佛像 銘文」, 『역주 韓國古代金石文』, 가락국사전개발원구원, 467~470쪽 참조. 이 비상에 대해서는 宋基豪·全虎兌, 1992, 「咸和四年銘 渤海碑像 檢討」, 『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亞細亞文化社, 377~396쪽; 文明大, 1999, 앞의 글, 31~34쪽 참조.

43) 구입처가 尙雅堂이라는 것은 미술관의 유물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調査의 편의를 봐주고, 자료 제공에 협조해 준 大原美術館의 孝岡睦子 學藝員께 감사드린다.

44) 宋基豪, 1992a, 앞의 글, 467쪽 참조.

45) 文明大, 1999, 앞의 글, 33쪽 참조.

46) 松原三郎, 1995, 『中國佛教彫刻史論』, 圖版編 Ⅲ, 吉川弘文館, 605쪽, 614쪽 b, 626쪽 b, 710쪽 참조.

다음으로 본존 아미타불좌상과 좌우 협시상들의 주요 존상이 새겨진 방형 감의 공간구성을 보면, 본존 아미타불좌상의 좌우에 2제자입상, 그 좌우에 2보살입상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다. 그러나 불비상에서 불상을 본존으로 2제자, 2보살의 5존상을 배치할 경우, 본존상의 좌우에 가까이, 또는 제자상들보다 더 비중 있게 협시보살상을 배치하고, 제자상 2구는 약간 뒤로 물러난 위치에서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어떤 경우는 제자상의 크기를 보살상보다 작게 표현하기도 한다.⁴⁷⁾ 보살상이 입고 있는 띠는 밖으로 접어내려 커다란 V자의 곡선을 이루며 늘어져 있는데, 그 아래로 내려오는 띠이 다리에 달라붙어서 다리 사이의 선이 드러나는 것이 원래 의도된 모습이라면, 이 불비상의 협시보살입상의 다리에는 마치 바지를 입은 듯이 양다리 사이가 깊어 패여 있다. 이 밖에도 이수부분의 용의 발톱과 같은 세부표현이 미숙하고 인왕상의 조각수법이 떨어져 생동감이 없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편, 재료면에서 볼 때, 이 상은 고대부터 중국 불비상 제작에 흔히 사용되는 석회암이다. 명문에 쓰여 있는 ‘許王府’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 수 없으나 현존하는 발해의 석조상 가운데 석회암제가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비상의 제작을 위해 당에서 발해 지역까지 석재를 운반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불비상에 대한 분석에는 명문의 내용이나 불상의 양식, 도상과 함께 석재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_ 금속제 불상

1) 불상

상경성 제4사지 불단 앞에서 1930년대에 금동불두가 발견되었는데,⁴⁸⁾ 앞서 살펴본 소조상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얼굴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금동불상은 뒤

47) 金申, 1995, 『中國歷代紀年佛像圖典』, 文物出版社, 350쪽 도 265 참조.

48)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74쪽 및 도판 109의 11 참조.



〈도 15〉 금동불좌상, 遼·金代, 발해진 顔家街 출토

에서 살펴볼 보살상의 경우, 우수한 몇 예가 전해 오고 있어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발해 금속제 조각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밖에 상경성 일대에서 1960년대에 발견된 금동불좌상들이 있다. 그 가운데 상경성 외성의 서쪽, 오늘날의 顔家街 부근의 한 절터에서 소형의 소조불상과 동제향로 등의 유물과 함께 출토한 금동불좌상(도 15)은 동반 출토품의 편년에 따라 지금까지 발해 불상으로 소개되어 왔다.⁴⁹⁾ 그런데 이 불상의 세부를 살펴보면, 얼굴의 相好는 앞에서 살펴본 소조불상들과도 一見 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나, 나발의 표현기

법과 착의형식, 결가부좌한 다리의 坐高가 낮은 빈약한 하체, 양감이 부족한 발의 표현, 도식화된 옷주름 등, 여러 면에서 宋代 조각의 영향을 받은 遼·金代の 불상으로 판단된다. 발해상경유지박물관에 전시 중인 양손을 잃고 두껍게 도금된 금동불좌상과 승려입상들 역시 이 금동불좌상과 같은 시기로 편년되는 조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흑룡강성 박물관에 전시 중인 오른손을 잃고 왼손을 무릎 위에 올려 놓은 금동불좌상과 두 손을 마주 포개 동불좌상도 발해 조각의 전통을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으나 넓은 띠 형태로 도식화된 옷주름과 위축된 하체표현 등, 조형적인 면에서 볼 때, 앞의 금동불좌상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불상들로 생각된다.

49) 朱國忱·朱威, 2002, 앞의 책, 120쪽 참조.

(1) 철불좌상

철불은 당대에는 8세기부터 많이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신라에서는 하대인 9세기부터 활발하게 불상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상경성의 절터에서도 철불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 불상(도 16)은 조사단이 발굴한 것이 아니고 1930년대에 조사단이 갔을 때, 그곳에 거주하던 어느 일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불상이다.⁵⁰⁾ 불상은 12.1cm로 그 모습은 앞에서 살펴본 소조불좌상 가운데 머리 중앙에 가르마가 있고 대의 자락이 밖으로 늘어진 제3형식의 소조불좌상(도 3)과 매우 유사하다. 이 불상들의 형식은 머리 중앙에 가르마가 있는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 좌우가 볼록하게 보이는 두부와 반개한 두 눈, 사실적인 얼굴, U자형 옷주름을 이루며 다리를 덮은 대의자락, ‘표주박형’ 광배의 형태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함이 발견되어 앞의 소조불상을 범본으로 제작한 철불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와 같은 철불이 소조불상처럼 천불상을 나타내기 위해 다량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⁵¹⁾



〈도 16〉 철불좌상, 和久井吉之助 舊藏(『東京城』, 도판 110의 2)

(2) 금제보살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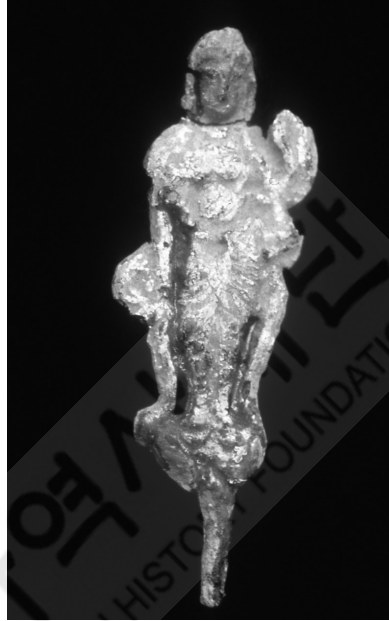
1988년 발해진 西地村에서 높이 5cm 크기의 금제보살상(도 17)이 발견되

50) 당시 하얼빈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和久井吉之助의 소장품이었다.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74쪽 도 110의 2; 朱榮憲, 1978, 앞의 책, 140쪽; 文明大, 1999, 앞의 글, 16쪽 참조.

51)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74쪽 도판 110의 2 참조.



〈도 17〉 금불입상, 발해진 西地村 출토



〈도 18〉 금동보살입상, 연해주 크라스키노 사원지 출토

었다.⁵²⁾ 출토지는 상경 용천부 內城의 서남쪽 약 1km 떨어진 곳으로 얼굴은 코와 입 등 얼굴의 이목구비가 큼직하고 옷주름은 촘촘하다. 두 발은 2cm 정도의 가늘고 긴 꼭지가 달린 둥근 대좌축 위를 딛고 있다. 이처럼 꼭지가 긴 대좌축은 1994년 연해주 크라스키노 사원지에서 한국·러시아 합동발굴조사단이 발굴한 금동보살입상⁵³⁾(도 18)에서도 보이는 형식이어서 주목된다.

이 금제보살상의 조사자는 이 상이 머리에 보계가 있고 보병을 들고 있어

52) 孫元吉·樊万象, 1991, 「渤海故都上京龍泉府發現金佛」, 『北方文物』, 黑龍江省文物管理委員會, 17쪽; 『黑龍江區域考古學』, 1991, 中國社會科學出版社, 93쪽.

53) 崔聖銀, 1999, 앞의 글, 61쪽 참조.

관음보살상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착의형식을 보면 대의를 왼쪽 어깨에 걸쳐 편단우견식으로 입고 오른쪽 어깨에는 안으로 울타라스승(혹은 편삼)을 입었으며 대의 아래로 길게袴이 발까지 늘어져 있어 보살상의 일반적인 착의형식과는 다르며 불상의 착의형식을 보인다. 또한 보병을 들었다는 점 외에는 보살로서 단정할 만한 특징이 없다.

이 상을 불상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지물인데, 오른손은 올려서 수인을 결하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서 정병의 목을 잡고 있다. 그런데 솔빈부에 속했던 우수리스크에서 보병을 지물로 들고 있는 불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⁵⁴⁾ 불상의 지물은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조형화되어 예배대상으로 봉안되는 고대 불상들의 지물은 흔히 보주(석가, 약사), 약합(약사), 법륜(치성광불) 정도를 생각할 수 있으며 보병을 들고 있는 경우는 보살상이므로 이 상의 존명은 단정하기 어렵다.

2) 보살상

(1) 금동보살입상I

상경성에서 전해 오는 불상들이 대부분 출토품인 데 반해서 도쿄대학 소장인 금동보살입상(도 19)은 1930년대에 동아고고학회 조사단이 현지에서 구입한 것으로⁵⁵⁾ 앞에서 살펴본 소조관음보살입상들과 같은 제5사지에서 출토했다고 전한다. 삼면보관의 각 면 정상에 다이아몬드형의 장식이 달린 높은 보관을

54) 메드베제프, 1983, 『고대문화의 그림과 조각품—우수리스크 섬에서 발견된 조각유품』, 노보시비르스크, 도 3; 孫永文, 2002, 「高麗時代 彌勒圖像의 研究—契印形佛·菩薩像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1쪽 참조. 근래 요대의 불궁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전적 가운데 10세기 후반의 법상계 전적류가 발견되어 회창 폐불 이후 이미 쇠퇴한 것으로 알려졌던 법상종이 북중국에서 여전히 맥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법상계열의 전통도 발해 불교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5)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74쪽 및 도판 110의 1; 朱榮憲, 1979, 앞의 책, 132~133쪽.



〈도 19-1〉 금동보살입상 I (高冠形), 도쿄대학 문학부



〈도 19-2〉 금동보살입상(高冠形)의 측면



〈도 19-3〉 금동보살입상(高冠形), 도쿄대학 문학부

쓰고 왼손으로는 정병의 목을 쥐고 오른손은 올려서 검지와 중지를 편 보살 입상은 정면관의 자세이다. 보관의 冠帶에는 垂飾이 길고 무겁게 어깨 아래로 내려오고, 살이 많은 方形의 얼굴은 세속적인 면이 느껴진다. 조백은 가슴을 가로지르고 균의는 밖으로 접어 입어 마치 腰布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발등까지 내려오는 긴 裙의 옷주름은 양 다리 위에 U자형으로 새겨져 있는데 그 위로 영락이 X자형으로 걸쳐져 있고 그 교차점에서 다시 한가닥의 영락이 수직으로 대좌 위까지 늘어져 있는 모습이다.

이 보살상에서는 북제에서 隋末·唐初 무렵의 고식적인 요소와 중·만당기의 새로운 요소가 함께 보이고 있다. 보관 형태는 북제의 보살상에서 더러

보이는 형식이고, X자형 영락표현과 착의형식 등은 隋代와 唐初에 유행하던 것으로 산동성 陀山석굴 2호굴의 보살상이나 하남성 龍門石窟 潛溪寺洞의 보살상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얼굴과 가슴에 양감이 나타나고, 현실화된 상호와 천의 대신 조백을 걸치고 있는 점, 팔이 굽고, 오른손을 올려 '변설'을 의미하는 듯 검지와 중지를 곧게 뺀 수인을 결한 점 등은 새로운 중만당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금동보살입상Ⅱ(X자 영락)

앞에서 살펴본 금동보살입상 못지않게 古式의 요소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



〈도 20〉 금동보살입상Ⅱ(X자영락形), 도쿄대학 문학부



〈도 21〉 금동보살입상, 신라 7세기 중엽, 경북 선산출토, 대구국립박물관

경성출토 금동보살상(도 20)이 전하고 있다. 이 보살상은 한쪽 다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움직임을 표현하고, 오른손으로 옷자락을 잡고 왼손을 올려서 엄지와 검지를 가까이 맞대 수인을 결하고 있는데, 혹 보주를 잡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머리에는 항아리같이 동그란 형태의 역삼각형 寶髻를 올리고 얼굴 이목구비의 표현이 매우 사실적이며, 목에는 삼국 말에서 통일기 사이에 유행했던 길게 구슬이 매달린 목걸이를 하고 영락이 배 위에서 X자로 교차되고 있으며 천의가 2단으로 늘어지는 2단천의 형식을 이루며 군의 뒷자락은 밖으로 접혀져 있으며 다리에 붙어 각 다리 위에서 U자형의 주름을 이루고 있다.

이 보살상은 영월출토 동조보살입상이나 선산출토 금동보살입상(도 21)과 같은 삼국통일기의 보살상이나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수대 보살상 형식의 전통을 보이고 있으나 얼굴에서 나타나는 세속화되고 인간적인 면모와 자연스럽게 늘어진 옷자락과 옷주름은 중·만당기 조각의 요소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 시대의 흐름이 드러난다.



(도 22) 금동보살입상Ⅲ(2단천의形), 흑룡강성 박물관

(3) 금동보살입상Ⅲ(2단 天衣形)

흑룡강성박물관에 전시 중인 상경성출토 금동보살입상(도 22)은 앞의 X자형 영락이 늘어진 보살상에서 영락을 제외한 형식이다. 머리 위에는 작은 왕관 형태의 보관을 쓰고 중앙에 구슬이 늘어진 목걸이를 했으며 천의가 배와 다리에 2단으로 늘어져 있는 이른바 ‘2단천의 형식’의 보살상이다. 왼손으로는 옷자락을 쥐고 있다. 살이 많은 얼굴과 굵은 팔뚝, 가슴과 아랫배가 볼록 나온 신체에서 양감이 느껴진다.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구부려 운동감을 표현하였고

천의자락이 바다까지 대칭적으로 늘어졌으며, 둥근 대좌축 위에서 서 있는데, 원 대좌에 끼워 넣기 위한 연결선이 붙어 있다. 필시 삼존불의 협시상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성당 양식의 이상화된 신체의 표현이 과장되고 세속화된 단계로 넘어간 이후인 중·만당기 불상의 양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금동보살입상Ⅳ(持寶瓶)

앞의 금동보살입상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면서도 왼손으로 보병의 구연부를 잡고 왼손은 올려서 수인을 결한 표현은 3번의 고관 금동보살입상과 같다. 머리에는 마치 작은 왕관처럼 보이는 동그란 球形에 가까운 보계를 올리고 얼굴은 온화하고 여성적이며 가슴에는 조백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걸치고 있다. 목걸이·팔찌 등의 장신구를 하였고 袴의 윗자락을 밖으로 접어내려 허리띠를 리본형으로 묶어 늘어뜨린 모습은 앞·뒤의 다른 금동보살상들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표현이다. 무릎을 살짝 구부려 움직임의 나타내려 한 점도 흥미롭다. 이 보살상은 당이나 통일신라 조각에서 흔히 보이는 일반적인 보살상 형식이라고 하겠는데, 다만, 보계의 표현에서는 대해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보계와 같은 중당조각의 요소를 보여준다.



〈도 23〉 금동보살입상Ⅳ(持寶瓶形), 발해상경유지박물관

(5) 금동육비보살입상

상경성에 발견된 보살상들 가운데 조각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상은 금동육비보살입상(도 24)이다. 이 상은 밀교적 요소를 강하게 보이는 변화관을



〈도 24〉 금동육비보살입상, 발해상경유지 박물관

음의 도상일 것으로 짐작된다.

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적인 얼굴표현이나 섬세하고 화려한 세부의 조각이 뛰어나다. 보살상의 팔 여섯 개 중에서 오른쪽 팔 하나를 잃었고 앞의 두 손은 합장을 하고 있다. 머리에는 정면이 높은 삼산형 보관을 쓰고 보관의 정상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해와 달 모양의 일월 장식이 달려 있다. 양 뺨에는 살이 많고 얼굴표정이 사실적이며 목에는 여러 가닥으로 늘어진 화려한 목걸이를 걸치고 상체에는 조백을 걸쳤으며 그 위에 다시 어깨에서부터 장식적인 치레가 늘어져 있다. 가는 허리에 비해 팔이 굵어 양감이 느껴지며 옷은 앞의 금동보살상에서처럼 밖으로 접어 입었고 그 위에 허리띠를 묶어 리본매듭을 늘어뜨렸다. 이 일면육비의 관음보살입상은 이와 꼭 일치하는 도상을 중국이나 일본 조각에서 찾기 어렵지만 십일면 관음과 불공견삭관음의 도상에 발해의 독자적인 요소가 덧붙여진 변화관

Ⅲ. 상경성 불교조각의 양식과 도상에 보이는 특징과 당·일본 조각과의 관계

상경 도읍기에 발해 불교조각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唐 元和 9년(814)에 당에 조공 갔던 高禮進 등 37명의 발해 사신이 당 조정에 금은불상을 바쳤다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⁵⁶⁾ 이것은 발해 불교가 융성함에 따라 불교미술의 수준도 높아져서 당 조정에 선물로 가져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수한 불상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발해와 당·신라·일본 사이에서 이루어진 문화교류에 불교미술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불정존승다라니』가 발해인에 의해 일본에 전해지고 발해의 승려들이 중국 오대산을 빈번하게 왕래하였던 기록에서 발해와 당, 발해와 신라·일본의 동아시아 불교계의 긴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⁵⁷⁾ 이 문제는 다음에 살펴볼 발해 불교조각과 당·일본·신라 조각의 관계를 통해 파악될 것으로 생각된다.

1. 상경성 불교조각의 양식에 보이는 특징

상경성출토 불상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재료와 크기와 관계없이 사실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의 인간적인 상호 표현은 八連城출토의 발해전기 조각(도 25, 26)에서도 나타나며, 이는 평양 원오리출토

56) 『冊府元龜』 972 外臣部 朝貢 第5 참조.

57) 일본에 전해 오는 「佛頂尊勝陀羅尼經」의 발문에 이 다라니를 발해 사신 李居正이가 가져왔다고 적혀 있다. 이거정은 860년 발해를 출발하여 이듬해 정월에 일본에 도착하였다. 稻葉岩吉, 1915, 『滿洲發達史』, 大阪屋號出版部, 419~420쪽; 田島公, 1991, 『古文書の語る日本史』 2, 「제6장 海外との交渉」, 筑摩書房, 256~258쪽; 宋基豪, 1992b, 「불정존승다라니경 跋文」,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신라2·발해편, 韓國古代社會研究所, 510~512쪽; 宋基豪, 1992a, 앞의 글, 709~713쪽 참조.



〈도 25〉 소조불두, 발해 전기, 팔련성출토, 도쿄대학 문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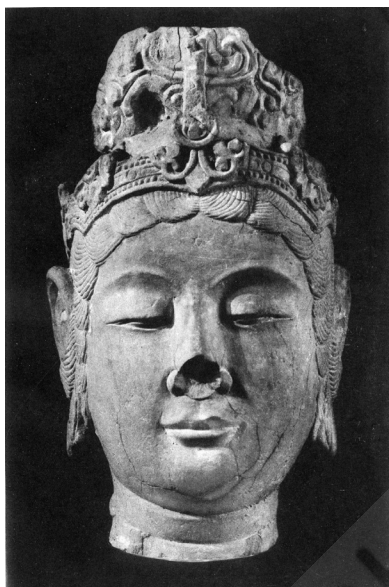


〈도 26〉 석조이불병좌상(부분), 발해 전기, 팔련성출토, 도쿄대학 문학부



〈도 27〉 석조천왕보살입상, 당 820년, 河南省 滎陽 大海寺址출토, 河南省博物館

소조불보살상들과 같은 고구려 소조상의 제작기법과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경성출토 불상들에서는 현실 속의 인간의 모습에 더욱 근접하여 사실적인 단계로 발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형태의 소형 소조불상들은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온화하고 자비한 相好에서 팔련성 불상들의 조형성을 잇는 듯 하면서도 양감이 훨씬 증대되었고, 소조보살입상(도 8)이나 1



〈도 28〉 석조보살두, 당 9세기, 四川省 成都 萬佛寺址출토, 사천대학박물관



〈도 29〉 성주사지출토 소조불두, 羅末麗初

면6비 금동보살입상(도 24), X자 영락형 금동보살입상(도 20) 등, 여러 보살상 들에서는 현실 속의 여성의 모습 같은 지극히 세속적인 형태의 상호표현이 나타난다. 이 점은 발해전기 조각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요소로서 中·晚唐期 불교조각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남성 형양 大海寺 석조 보살입상들(820년경, 도 27)과 사천성 成都 萬佛寺址와 郫峽 龍興寺址에서 출토한 불보살상들(도 28)⁵⁸⁾에서는 현실 속의 여성과 같은 세속적인 표현이 보이는데, 이와 같은 중만당기의 조각경향이 발해 불교조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유사한 표현이 신라하대 9세기에서 1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의 조각에서도 보인다. 보령 聖住寺址 삼천불전에서 출토한 소조불두의 인

58) 唐 武宗(r. 841~846)의 폐불 때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宣宗 연간(r. 846~859)에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復佛이 일어났다. 唐代 廢佛과 復佛期의 불교미술에 대해서는 崔聖銀, 1992, 「唐末五代 佛教彫刻의 傾向」, 『美術史學』 4, 161~191쪽 참조.



(도 30) 목조보살입상. 平安 前期 888년경, 京都 仁和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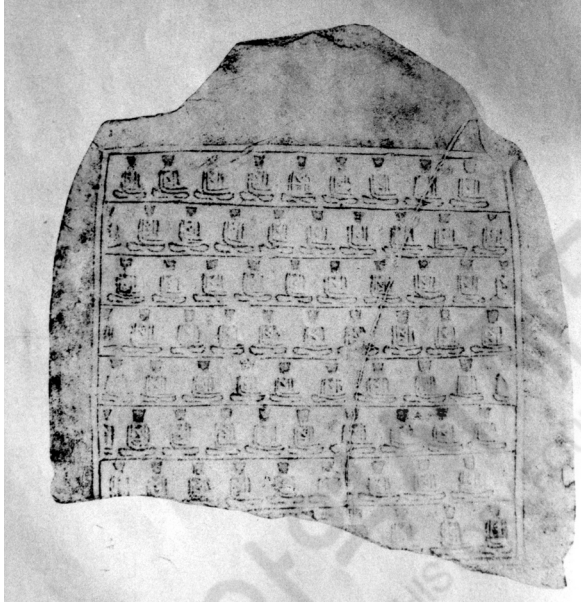
간적이고 사실적인 상호 표현(도 29)은 발해 상경조각에서 보이는 조형감과도 상통한다.

전술한 당과 통일신라, 발해조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세속적인 상호 표현과 함께 주목되는 것이 과도한 양감의 표현이다. 이 점은 상경출토 불교조각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은 소조보살입상(도 8)을 비롯해서 2단 천의형 금동보살입상(도 22)을 보면, 얼굴의 양 뺨은 물론 신체에 양감의 표현이 두드러진다. 전자의 경우, 얼굴에 살이 많고 팔이 굵게 표현되었고, 후자의 경우는 허리가 짧고 팔이나 배 부분에 양감이 과도하게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신체의 비례감과 양감의 표현은 大海寺 석조천왕보살입상(820년경, 도 27)과 같은 중당기 말의 조각이나 京都 仁和寺 목조보살입상(888년경, 도 30)과 같은 平安 前期 조각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보살상들은 상경출

토 소조보살입상과 동일하게 가슴에 대각선으로 조백을 걸치고 2단으로 천의를 늘어뜨리고 있어, 당과 발해, 일본에서 9세기에 공통적으로 유행했던 보살상 형식을 보여준다.

2_ 상경성 불교조각의 도상에서 보이는 특징

앞에서 살펴본 상경성출토의 여러 불상들은 그 크기와 재료에 따라 제작용도가 다른 상들이다. 다량으로 출토한 소조상들은 천불, 삼천불로 불전을 장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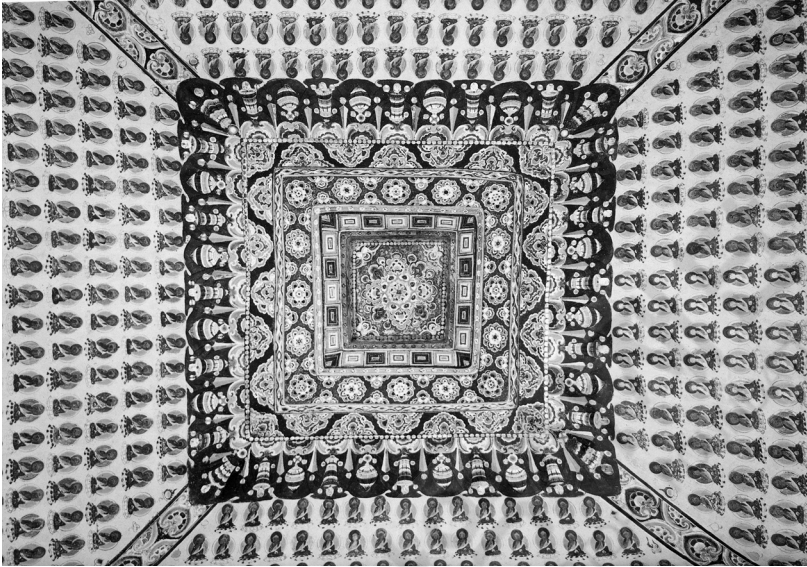


〈도 31〉 천불상, 팔련성출토 이불명좌상 광배의 뒷면, 소장처 불명

기 위해 제작된 상들이다. 현존하지 않으나 상경성 제1사지에서 조사된 9개의 대좌와 제9사지에서 조사된 5개의 대좌는 불전에 봉안되었던 1불·2제자·2보살의 5존상이나 여기에서 2천왕·2공양상을 더한 9존의 존상이 봉안되어 있었음을 알려 준다.⁵⁹⁾ 소형의 천불·삼천불을 통해 알 수 있는 대승불교의 천불사상과 함께 1불 2제자 2보살의 5존상의 도상 역시 남북조시대 이래 동아시아에서 크게 유행했던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受記사상을 기초로 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⁶⁰⁾ 천불사상은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성행했으며 발해 전기의 석조이불명좌상의 광배에 새겨진 ‘천불상’(도 31)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발해 후기에도 계속 이어져 왔다고 생각된다. 돈황 막고굴 제79굴과

59)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34~35쪽 및 삽도 38, 도판 60 참조; 朱榮憲, 1979, 앞의 책, 56~59쪽 및 도 32 참조.

60) 文明大, 1999, 앞의 글, 9~10쪽.



〈도 32〉 천불도, 성당, 막고굴 제79굴 천장, 감숙성 둔황

제360굴의 천장 아래의 사방 각면에는 천불(도 32)을 그려 장엄하였는데,⁶¹⁾ 이와 같은 장엄의 개념이 일찍부터 발해에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소조불상 가운데 크기가 제일 작은 불상들(도 5)이 절터의 內陣 안쪽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⁶²⁾ 지금까지 이 불상들은 내진의 안쪽벽을 장엄하는 천불 또는 삼천불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물론 이 소형의 소조불상들이 벽을 장식하는 천불상 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와 함께 화엄종의 주존인 盧舍那佛像의 광배에 달려 있던 化佛들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존하는 노사나불상의 예로서 奈良 후기 8세기 3/4분기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唐 罽提寺의 건칠노사나불상(도 33)⁶³⁾의 광배에는 화불들이 가득 달려 있다. 물론 이 화불들은 긴 세월 동안 떨어지고

61) 敦煌文物研究所 編, 1987, 앞의 책, 도 24, 도 121 참조.

62) 『考古圖編』, 東京大學藏版, 1958, 3, 제16집, 8~9쪽.

63) 水野敬三郎 監修, 2001, 『日本佛像史』, 東京:美術出版社, 53~54쪽.

새로 만들어 보수되는 것을 반복했지만, 처음 제작될 때부터 화불이 있었던은 분명하다. 앞의 소조불상들은 전체 크기가 6.7cm로 상경출토의 다른 소조불상들에 비해 크기가 작으며 얼굴부분만이 강조된 단순화된 佛身은 광배에 꽂기 적합한 형태이므로 노사나불상 광배의 화불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발해 불교의 화엄사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자료가 없으나⁶⁴⁾ 발해의 뒤를 이은 遼 불교의 성격이 밀교적인 요소가 있는 화엄계통이었다는 점⁶⁵⁾은 발해 불교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도 33〉 건칠노사나불좌상, 나라 8세기 후반, 奈良 唐招提寺

한편, 앞에서 토대지촌 사지에서 출토한 소조인물상(서울대학교박물관)이 문수보살이 타고 있는 사자를 끄는 곤륜노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순례승 圓仁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가 五臺山을 떠나 長安으로 향해

64) 발해의 승려로 일본을 다섯 차례 다녀온 貞素는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가 스승인 應公의 스승인 일본승 靈仙을 만났을 때 갔던 七佛教誠院에는 ‘八地超蘭若’라는 현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팔지는 화엄경 십지품 가운데 제 8지인 不動地를 의미한다. 따라서 영선은 법상종 승려였으나 화엄사상과도 연관이 깊은 인물일 것으로 생각되므로 발해 승려인 貞素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開成 5년 7월 3일; 小野勝年, 1989,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 제3권, 法藏館, 124~125쪽; 文明大, 1999, 앞의 글, 10쪽 참조.

65) 鎌田武雄, 1978, 『中國佛教史』, 岩波書店, 302~305쪽 참조.

출발하면서 개성 5년(840) 7월 1일과 2일 이틀간 머물렀던 五臺山 자락의 金閣寺堅固菩薩院은 발해 승려 貞素가 찾아갔던 일본 승려 靈仙이 2년간 머물렀던 곳이었다. 이곳의 金閣에는 靈仙이 스스로 손등의 피부를 벗겨서 그 위에 그린 佛畫를 봉안한 금동탑과 함께 청색사자를 탄 문수보살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금색의 얼굴모습이 단엄하여 비길 데 없었다. 또한 이 금각의 2층과 3층에는 金剛不空이 인도 那蘭陀寺의 도상에 의거하여 조성한 金剛眞瑜伽五佛像이 봉안되어 있었는데, 이 상들은 중기 밀교적인 도상으로 추정된다.⁶⁶⁾ 따라서 새로운 도상의 존상들과 神異한 聖物들이 봉안되어 있는 금각을 배관하는 것은 당시 외국에서 온 순례승들에게는 중요한 참배코스였을 것이며 騎獅文殊像의 도상뿐 아니라 금각 존상들의 밀교적인 도상이 貞素를 비롯한 발해 승려들에게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해 불교조각에 보이는 밀교적인 요소는 앞에서 살펴본 1면6비의 관음보살입상(도 24)과 아미타정인을 결한 소조아미타불좌상(도 7)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이 1면6비 관음보살입상과 일치하는 변화관음의 도상은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기보기 어렵다. 이 1면6비 관음보살입상처럼 앞쪽의 두 손을 올려 합장한 多臂의 관음보살상으로는 11면6비 관음상과 1면3目8비의 불공견삭관음상이 있으나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십일면관음상은 楊州市박물관 소장의 석조십일면관음입상(도 34)이나 대해사 석조십일면관음입상(도 35)에서 보이는 것같이 앞의 두 손을 올려 합장하고 다음 손은 위로 올려 지물을 들거나 수인을 결하고, 끝의 두 손은 아래로 내리고 있다. 그러나 머리 위에는 다면의 화불이 있어 상경의 1면6비 보살상의 도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불공견삭관음은 경전에 따라 그 도상이 조금씩 다른데,⁶⁷⁾ 일본 奈良시대

66)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開成 5년 7월 1일, 7월 2일; 小野勝年, 1989, 앞의 책, 法藏館, 89~90쪽 및 94~124쪽 참조.

67) 이 보살상은 不空羂索觀音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姜熺靜, 2003b, 앞의 글, 70쪽; 姜熺靜, 2003a, 앞의 글, 35쪽 참조. 불공견삭관음은 ① 1面2臂, ② 1面4비, ③ 1면18비, ④ 3쪽2비, ⑤ 3면4비, ⑥ 3면6비, ⑦ 3면10비, ⑧ 11면32비의 여덟 가지 유형이 있다. 淺井和春, 1998, 『不空羂索·准胝觀音』, 日本の美術 No. 382, 東京: 至文堂, 21쪽 참조.



〈도 34〉 석조십일면관음보살입상, 唐 9세기, 楊州博物館



〈도 35〉 석조십일면관음보살입상, 唐 820년 경, 河南省博物館

와 平安 전기 조각에서 보이는 불공견삭관음의 형식은 東大寺 불공견삭관음입상(도 36)처럼 1면8비의 상으로 앞의 두 손은 합장하고 다른 손으로는 지물을 들고 있다.⁶⁸⁾ 따라서 금동육비보살입상의 도상은 일반적인 밀교도상 儀軌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아마도 북방에 위치했던 발해에서 여러 경전에 실린 도상이

68) 중국에서도 돈황벽화의 중·만당기 벽화 가운데 1면8비의 불공견삭관음이 약 40여 구 알려져 있는데, 돈황 서천불동의 18굴 남벽과 안서 유림굴 24굴의 서벽에 晚唐의 1면3목6비 불공견삭관음이 전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들 1면3목6비의 불공견삭관음상은 좌상이고 앞의 두 손이 합장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발해문물전시관 금동보살입상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도 36〉 건칠불공견삭관음보살입상,奈良
8세기,奈良 東大寺

나 唐에서 전래된 여러 변화관음의 도상뿐 아니라⁶⁹⁾ 소그드나 돌궐 등과의 교류를 통해 알려진 외래종교의 神, 또는 당 武宗의 폐불기(842~846)에 발해로 이주했을 네스토리우스 정교와 같은 외래종교로부터 영향 받아 독특한 변화관음의 도상이 형성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⁷⁰⁾ 금동1면6비 관음보살입상(도 24)과 도쿄대학의 정병을 잡고 높은 고관을 쓴 금동보살입상(도 19)의 보관 위에 별과 같은 장식이 달린 표현은 당시 발해에 전해져 있던 다양한 외래문화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상경성출토의 소조아미타불좌상(도 7)이 결하고 있는 수인은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대고 그 중앙에 양손의 검지나 중지의 끝을 댄 것으로 아미타정인 또는 妙觀察智印이라고 부른다.⁷¹⁾ 이 수인은 金剛頂經系の 의궤에 나오는 밀교계 도상으로서 중당기에 알

69) 이 보살의 공덕 가운데에는 십일면관음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것보다 배가 되는 현세공덕과 이익뿐 아니라 진호국가한다는 내용이 있어 크게 신앙되었던 것 같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五代에서 北宋대에 조성된 四川省 지역의 불공견삭관음상은 1면6비의 좌상으로 대부분 해와 달을 지물로 들고 있는데, 발해문화전시관 보살상의 보관 정면 중앙에 별 같은 모양이 달려 있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한다.

70) 소련 연해주 아브리코스 절터에서 점토로 만든 작은 타원형 판에 새겨진 네스토리우스 경교의 十字架가 발견되었다. 宋基豪, 1987, 「발해의 불교 자료에 대한 검토」, 『崔永禧선생 華甲기념 韓國史學論叢』, 탐구당, 165쪽 참조.

71) 아미타정인(묘관찰지인)에 대해서는 逸見梅榮, 1970, 『佛像の形式』, 東京: 東出版, 205~206쪽; 田村隆照, 1967, 「定印阿彌陀如來をめぐる諸問題」, 『佛教藝術』, 毎日新聞社, 1~14쪽; 濱田隆, 1975, 「定印阿彌陀像成立史考(上)」, 『佛教藝

러지기 시작하여 만당조각에서 크게 유행하였는데, 오늘날 전해 오는 중국 만당기의 아미타불상은 거의 대부분 아미타정인을 결하고 있다. 四川省 邛崃 龍興寺 석조아미타불좌상(도 37), 사천성 大足 北山の 890년대 아미타불상들에서 보이고 있으며 이후 五代, 北宋代 아미타불상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⁷²⁾ 통일신라에서는 昌林寺 삼층석탑 양화에 새겨진 四方佛 가운데 아미타정인을 결한 불좌상(도 38)이 보이고 있는데, 이 탑에서 출토한 塔誌가 855년에 새겨진 것이므로⁷³⁾ 9세기 중엽 이전에 아미타정인이 알려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밖에도 풍기 毘盧寺 석조아미타불좌상(도 39) 등, 3~4구의 예가 전하고 있으나 통일신라 조각계에서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던 듯하다.⁷⁴⁾ 그러나 일본에서는 平安전기의 조각에서 아미타정인의 아미타불상이 많이 보이고 있어(도 40) 이 새로운 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⁷⁵⁾ 이처럼 당과 신라, 일본 조각에서 9세기부터 유행했던 아미타정인 아미타불상의 도상이 발

術』 100, 67~76쪽; 武田和昭, 1997, 「定印の阿彌陀如來像について—法界定印阿彌陀如來像を中心として」, 『佛教藝術』 232, 103~120쪽; 이숙희, 2009, 『통일신라시대 밀교계 불교조각 연구』, 학연문화사, 227~240쪽 참조.

72) 崔聖銀, 2006, 「羅末麗初 아미타불상의 圖像的 高찰」, 『講座美術史』 26, 213~234쪽.

73) 末松保和, 1934, 「新羅昌林寺無垢淨塔願記について」, 『靑丘學叢』 15, 靑丘學會 (1954, 「昌林寺無垢淨塔願記」, 『新羅史의 諸問題』, 東洋文庫 재수록; 1995, 『新羅의 政治と 社會』 下, 吉川弘文館); 許興植, 1984, 『韓國金石全文 古代編』, 亞細亞文化社.

74) 제작시기가 조금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되는 머리를 잃은 분향사 석조아미타불좌상(국립경주박물관) 외에 2구 정도의 羅末麗初 상이 전해 오고 있을 뿐 그 이후의 作例는 매우 드물다.

75) 일본에서는 圓珍이 大中 8년(854) 당에서 書寫하여 가져온 「胎藏舊圖樣」의 아미타불이 아미타정인을 결하고 있으며, 入唐僧 惠運(798~869)이 848년에 창건한 京都 安祥寺의 五智如來像(850년대 무렵) 가운데 아미타불상과 仁和寺 아미타삼존불상(888년, 도 40) 및 清涼寺 아미타불좌상(896) 역시 이 수인을 결하고 있다. 또한 9세기 중엽에 제작되었다고 알려진 東寺(教王護國寺)의 兩界曼荼羅圖(西院本曼荼羅)의 금강계와 태장계의 무량수여래(아미타불)가 모두 이 수인을 결하고 있다. 岩佐光晴, 2004, 『平安時代前期の彫刻 一木彫の展開』, 日本美術 457, 東京: 至文堂, 69~71쪽; 賴富本宏 監修, 1995, 『東寺의 曼荼羅圖』, 東寺寶物館, 10·16·30·32쪽 참조.



〈도 37〉 석조아미타불좌상, 唐 9세기, 四川省
邛峽 龍興寺출토



〈도 38〉 昌林寺 삼층석탑 양화(아미타불좌상),
통일신라 855년경, 경북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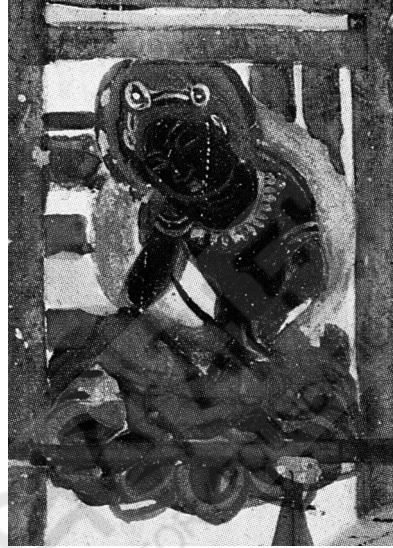
〈도 39〉 석조아미타불좌상, 통일신라 9세기,
풍기 毘盧寺



〈도 40〉 목조아미타불좌상, 平安 전기 888년,
京都 仁和寺

해 불교계에 알려졌던 것은 당연한 일이며⁷⁶⁾ 통일신라나 일본에서처럼 9세기 중엽에는 발해에서도 아미타정인의 아미타불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정토계 성격의 작품으로 한 손을 뺨에 대고 있는 상경 제4사지출토의 소조사유보살입상(도 9) 역시 唐代 불교미술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당대 사유보살상 조각으로 상해박물관 소장의 동조사유보살좌상과 같은 예가 전하기는 하나 매우 드물고, 주로 회화에서 보이고 있다. 돈황 막고굴 71호굴 북벽 「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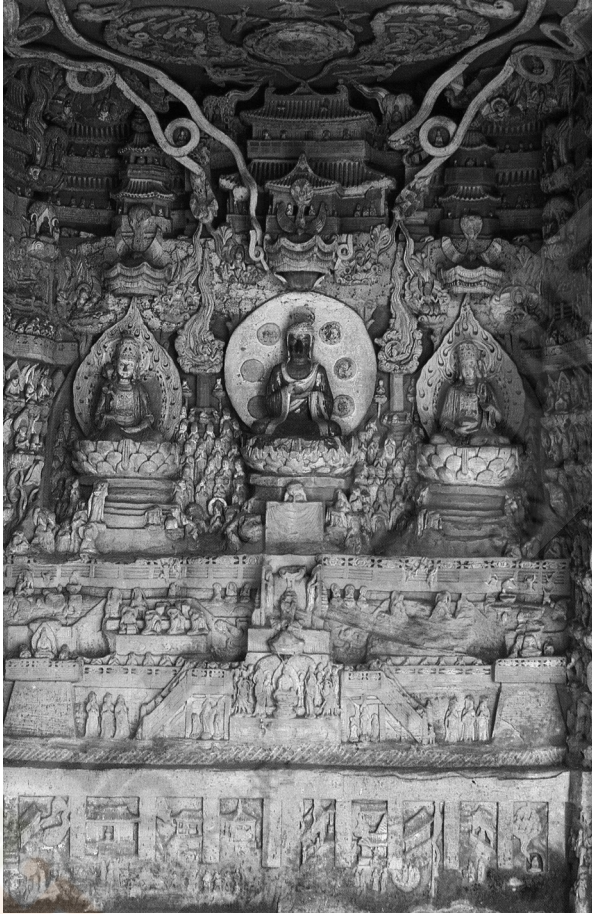


〈도 41〉 思惟보살도, 莫高窟 제172굴 북벽, 甘肅省 敦煌

타정토변상도」의 「사유보살도」(초당)와 172굴 북벽「관무량수경변상도」의 사유보살도(도 41), 148호굴 북벽감의 굴정 북측 「사유보살도」는 변상도에 표현된 여러 菩薩群像 가운데 하나이다.⁷⁷⁾ 그런데 사유보살상이 「아미타정토변상도」나 「관무량수경변상도」 가운데 등장하는 점은 상경의 불전에도 이와 같은 정토계 변상이 묘사되었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大足 北山 제245굴의 만당 9세기 말 「관무량수경변상」(도 42)은 벽화 대신 석조불감에 입체적으로 부조된 것인데, 이와 유사하게 소조사상들로 이루어진 淨土系 변상이 불전을 장식하고 있었을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⁷⁸⁾ 그런데 이 사유보살의 형식은 현존 통

76) 발해 승려들은 唐代에 밀교가 융성하였던 산서성 오대산에 자주 왕래하였고, 梵本 『東勝咒經』이나 『佛頂尊勝陀羅尼』가 발해로부터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발해에 밀교도상도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宋基豪, 1992b, 앞의 글, 510~512쪽.

77) 조각으로는 그 수가 매우 드물어 晚唐조각으로 생각되는 상해박물관 소장의 금동보살좌상이 전하는 정도인데, 처음에는 變相圖에 표현되다가 뒤에는 조각으로도 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 42〉 관무량수경변상, 唐 9세기 말, 사천성 대도 北山 245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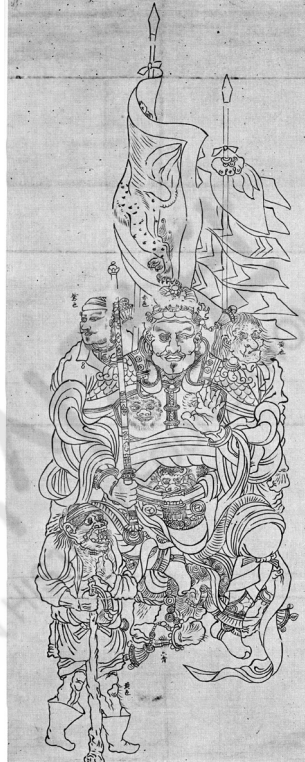
일신라 조각이나 일본 평안 전기 조각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어,⁷⁹⁾ 통일신라나

78) 이와 관련하여 齊藤優, 1978, 『半拉城と他の史蹟』, 半拉城址刊行會에 소개된 소장처 불명의 연화화생童子像을 언급할 수 있다. 이 동자상은 東京 龍原府로 지정되는 吉林省 琿春市 八連城에서 출토한 것으로서 서방정토에 蓮花化生한 중생의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다. 姜熺靜, 2003a, 앞의 글, 30~33쪽 참조.

79) 국립중앙박물관에 사유의 자세를 취한 목조보살입상이 소장되어 있어 일찍부터 주목해 왔다. 비록 이 상의 국적이나 조성시기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자태와 착의 형식 등에서 상경성출토 소조사유보살입상과 상당히 유사하다. 崔聖銀, 1984, 「고



〈도 43〉 은제사리함 사천왕상, 발해 9세기, 발해진 토대자촌 사지출토



〈도 44〉 사천왕도상, 傳 百濟河成 筆, 平安 전기, 大東急記念文庫

일본보다 육로로 이어져 있는 발해에 당의 불교문화가 다양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상경도읍기 발해 조각이 당 조각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통일신라나 일본 조각과 궤를 같이하고 있었던 것을 잘 말해 주는 좋은 예로는 1974년 발해진 토대자촌의 사지에서 발견된 사리함을 들 수 있다.⁸⁰⁾ 이 사리함은 2층의 석함을 포함해서 7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은제함의 표면(도

려시대 조각, 『한국미술사』, 문교부 예술원, 306쪽 및 사진 24; 崔聖銀, 1999, 앞의 글, 58~59쪽 참조.

80) 『文物資料總刊』, 1978년 제2기; 宋其豪, 1992b, 앞의 글, 715쪽; 방학봉, 1998, 앞의 책, 108쪽; 朱國忱·朱威, 2002, 앞의 책, 128쪽; 王輝·葉啓曉·趙哲夫, 2000, 『黑龍江省考古文物圖鑒』, 黑龍江省人民出版社, 238쪽 참조.

43)에는 갑옷을 입고 손에 활과 보검 등의 지물을 들고 한쪽 다리를 내려 바닥을 디딘 유희좌의 자세로 앉은 사천왕상이 새겨져 있다. 신장상의 좌우에는 협시상이 서 있는데, 한쪽은 인간형이며 다른 한쪽은 괴이한 모습의 非人의 형태이다. 또 어떤 면에는 사천왕상 무릎 높이로 인물이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좌우협시를 거느린 좌상의 사천왕상의 도상은 평안 전기 9세기에 활동했던 百濟河成 作으로 전하는 사천왕도상(도 44)과 매우 유사하다. 이 그림에는 앞의 사리기에 새겨진 사천왕상의 자세, 협시, 지물, 생령좌 형태의 여러 점에서 상통하는데, 다만 회화이므로 협시상이 幢幡을 들고 있는 등 조금 더 세밀한 표현이 담겨 있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그림이 확실히 百濟 河成의 작품인지는 알 수 없으나 唐本을 바탕으로 하여 轉寫한 도상으로 생각되고 있다.⁸¹⁾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당대 도상 가운데 이와 일치하는 예가 발견되지 않아 발해로부터 일본으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해 불교미술 도상의 독자성과 관련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서지촌에서 출토한 금불입상(도 17)의 도상 문제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상은 정병을 들고 있으나 불상의 대의형식을 보이고 있어 존명을 파악하기 힘든 상이다. 대의를 입고 정병을 들고 있는 이 상은 머리부분이 매우 높은 것도 특이한 점이다. 머리 정수리가 일반적인 육계보다 높고 좌우 폭도 넓으며, 몸에 대의를 입고 있는 존상의 예는 당대 조각이나 평안 전기의 일본 조각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조각의 예로는 羅末麗初에서 고려전기 사이의 조각으로 생각되는 원주 매지리 거북섬의 석조보살입상(도 44), 서울 광진구 수성암 석조보살입상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상들은 지금으로서는 그 도상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특이한 상들로 불상인지 보살상인지 잘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육계가 유난히 높게 표현된 예로는 신라 하대 불상으로 생각되는 포항 고석사 석조미륵불의상이 최근 소개되었는데,⁸²⁾ 높은 육계가 미륵존

81) 浜田隆, 1966, 『日本の美術 No. 55 圖像』, 至文堂, 34~35쪽 및 36쪽의 圖 47 참조.

82) 文明大, 2009, 「포항 고석사 통일신라 미륵불의상(彌勒佛倚像)의 최초발견과 그 역사적 의의」, 『講座美術史』 32, 5~19쪽 참조.

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서 주목된다.

보살이 가사를 입은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은 인도 굽타시대의 아잔타 석굴 벽화의 미륵보살도에서부터 나타나고,⁸³⁾ 초당·성당기의 돈황 막고굴 벽화의 미륵변상도에는 도솔천상의 미륵보살이 대의를 걸친 표현이 보인다.⁸⁴⁾ 또한 조각으로는 형양 대해사출토 석조미륵보살입상(도 45)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병을 지물로 들고 있지 않으므로 상경성 출토의 금제불입상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병을 들고 대의를 입은 형식은 현재 알려지지 않은 북방적 요소가 강한 발해 특유의 도상이



〈도 45〉 석조보살입상, 羅末麗初~고려전기, 원주 매지리 거북섬

- 83) 인도에서 彌勒菩薩이 가사를 입고 있는 표현으로 확실하게 미륵보살로 단정할 수 있는 예가 아잔타석굴 제17굴의 彌勒菩薩圖와 제26굴의 과거칠불과 함께 표현된 彌勒菩薩像은 소불탑이 새겨진 화려한 보관을 쓰고 목거리, 팔찌 등의 장신구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菩薩옷은 條帛 대신에 大衣를 偏袒右肩式으로 표현되어 있다. 山田耕二, 1982, 「アジャンターの菩薩像について」, 『佛教藝術』 145, 57쪽; 宮治昭, 1986, 「インドにおける彌勒圖像の變遷」, 『論叢佛教美術史』, 吉川弘文館, 25~63쪽; 島田明, 1998, 「アジャンターの菩薩圖像-觀音, 彌勒像を中心に」, 『佛教藝術』 237, 51~52쪽.
- 84) 隋에서 初唐대까지의 彌勒菩薩像은 上半身에 條帛만 걸친 일반적인 菩薩형으로 표현되지만, 예외적으로 초당기의 338굴이나 329굴 「彌勒上生變相圖」의 兜率天宮 彌勒像처럼 如來式으로 寶冠을 쓴 菩薩·如來 절충형의 미륵상도 보여 미륵이 菩薩이라는 것과 함께 將來佛이라는 2중의 성격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148굴을 시작으로 盛唐期 이후에는 版畫彌勒像에 보이는 것처럼 양 어깨를 덮은 羯磨衣로 표현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泉武夫, 1997, 「異色の彌勒菩薩畫像」, 『學叢』, 京都國立博物館, 36쪽 및 45쪽 註 34.

아닌가 생각된다. 이 금제불입상이 미륵이라고 할 때, 미륵이 법상종의 주존인 점과 관련하여 발해 지역에서 법화, 화엄, 밀교와 함께 유가법상종이 유행했음을 시사한다.⁸⁵⁾

中唐代에 활동하던 長安 大安國寺의 淸素는 唯識學의 위대한 저술가로서 『瑜伽唯識地論』의 주석서인 『瑜伽唯識地論義演』을 801년에 저술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의 저술이 일본의 구법승 空海, 圓行, 圓仁 등에 의해 일본으로 전래되었던 것으로 미루어⁸⁶⁾ 발해 불교계에도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발해 불교를 일정 부분 계승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遼代 불교계에서 법상종이 융성했음은 저명한 유식학자로서 미륵불상을 조성하여 도솔왕생을 기원하였다는 諡明의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해서도 드러난다.⁸⁷⁾ 근래 遼代에 건립된 山西省 應縣의 佛宮寺 석가탑에서 諡明이 저술한 유식계 注疏가 발견되어⁸⁸⁾ 會昌廢佛 이후 쇠퇴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법상종이 북중국에서 여전히 맥

85) 발해 이전시기의 자료이긴 하지만, 함경남도 신포시의 오매리사지 탑지의 발해 문화층에서 고구려 陽原王 2년(546)의 금동판이 발견되었는데, 5층의 탑을 만들면서 “왕의 신령이 도솔천으로 올라사 미륵을 뵈고 天孫과 함께 만나길” 기원하는 발원문이 새겨져 있어 고구려에서 발해로 이어지는 미륵신앙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오매리사지는 발해 남경으로 추정되는 청해토성 부근으로 여기서는 고구려 문화층과 함께 발해 문화층이 나타나고 발해 문화층은 다시 2개의 층으로 나뉜다고 한다. 1988년 이곳에서 발견된 금동판이 새겨진 12줄의 명문 가운데 113자를 판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금동판이 정말 발해 문화층에서 나왔는지, “□和壬寅……”의 연대표기 부분이 훼손되어 있어 고구려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조선유적유물도감』 4 고구려편, 1990, 281쪽; 宋基豪, 1992c, 「渤海佛教의 展開過程과 몇가지 特徵」, 『伽山李智冠스님 回甲記念論叢 韓國佛教文化思想史』 上, 703쪽 참조.

86) 塚本善隆, 1982, 「佛敎史料としての金刻大藏經-特に北宋釋敎目錄と唐·遼唯識宗關係章疏について」, 『塚本善隆著作集』 5, 東京: 大東出版社, 134~135쪽 참조.

87) 그는 靑龍寺 道氣(?~740)의 『御注金剛般若經疏宣演』의 연구자였으며 그의 법상종 관련 章疏가 산서지방에서 판각된 金刻大藏經 가운데 전하고 있다. 塚本善隆, 1982, 앞의 글, 142~153쪽 참조. 또한 唐代 道氣의 유식 관련 저술이 당말오대를 거쳐 요대에 이르기까지 북중국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전해져 내려왔으며 金代 개판된 대장경 刊本 가운데 일부가 보이고 있는 점은 法相宗의 傳承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塚本善隆, 1982, 앞의 글, 139~142쪽 참조.

88) 여기서 발견된 전적 가운데는 遼代 唯識學 승려인 諡明이 選述한 『上生經疏科文』 1권, 『成唯識論述記應新抄科文』 권 제3과 함께 『成唯識論』 권 제1의 寫經이 포함

을 이어오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요대 법상종의 융성은 발해 불교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며 현존하는 발해 불교조각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발해 상경유지에서 발견되었거나 조사된 소조, 석조, 금동, 철조, 금제상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불교조각의 현상과 양식, 도상의 몇몇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상경에서 발견된 불상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조불상들은 그동안 서울 대학교와 도쿄대학 소장의 상들만 소개되었으나 이번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같은 형태의 불상이 흑룡강성박물관과 상경발해유지박물관에도 일부 소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상경 불상들은 기본적으로 古式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唐의 사실적이고 세속화된 요소가 가미된 형식을 보이고 있어 고구려에서 발해로 계승된 고대 조각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선정인을 결한 소조불좌상에서 잘 드러나는데, 고식의 수인에 사실적인 相好가



〈도 46〉 석조미륵보살입상, 唐 9세기, 河南省 滎陽 大海寺址 출토, 河南省博物館

되어 있다. 山西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 1991, 『應縣木塔遼代秘藏』, 文物出版社, 14~15쪽 참조.

표현된 독특한 조합을 나타낸다.

현존 상경출토의 존상들은 거의 대부분 소형상들로 대형상은 소조 파편뿐 이어서 주요 예배상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아마도 소조나 건칠기법으로 제작된 대형·중형의 존상들이 불전에 예배상으로 봉안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소조나 건칠 외에 홍릉사 석불좌상에서 보이듯이 석불들도 제작되었을 것이나, 상경 일대에서 얻어지는 화산암계 현무암의 석재는 소조에 비해 섬세한 조각이 용이하지 않아 다른 지역보다 소조상들이 더 많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량으로 출토한 소조관음보살입상은 소형의 상이지만 중당기의 대해사 석조보살입상들은 물론 평안 전기의 일본 보살상들에서 보이는 여러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 서로 공통적인 양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경출토 소형 소조불상들은 법화경의 수기사상을 바탕으로 사찰 내벽을 장식했던 천불상일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런데 이와 함께 내진에서 발견된 소조불상들은 노사나불상의 광배에 달리는 화불들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토대자촌에서 출토한 인물상은 문수보살의 사자를 끄는 곤륜노로 생각되어 불전 내에 문수변상도가 그려져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발해 불교의 밀교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일면육비관음보살상은 당이나 일본의 변화관음과의 비교에서 도상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예가 없으므로 북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해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변화관음상으로 이해된다. 이와는 달리 중당기에 소개된 아미타정인을 결한 아미타불상의 도상은 발해는 물론 신라, 일본에 함께 수용되어 여러 구의 작례를 남기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불교문화적 배경에서 발해에서도 아미타정인의 아미타불상이 조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일부의 도상은 발해와 당, 발해와 일본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있다. 그 예로서 소조사유보살상은 돈황 막고굴의 당대 관무량수경변상도와 아미타 정도변상도에서 표현되고 있어 발해에도 소조상으로 이루어진 정토계 변상이 불전의 내벽을 장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사유보살상이 발해와 당에서만 찾아지는데 반해서 토대자촌에서 출토한 사리함에 새겨진

사천왕상의 도상은 평안 전기에 활동했던 백제 하성이 그렸다고 전해 오는 사천왕 도상과 그 구도와 인물배치에서 상통하고 있으며, 유사한 예가 당이나 신라에는 전하지 않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발해에서 일본으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경 불교조각 가운데 유일한 금제불상은 여래상과 같은 복식에 손에는 정병을 들어 해결하기 어려운 도상을 보이는데, 가사를 입은 미륵보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 상을 미륵존상으로 보고, 미륵을 주존으로 하는 유키법상종의 전통이 발해지역에 뿌리내려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 살펴본 현존하는 발해의 불상들은 대부분 소형이므로 당시 발해 불교조각의 웅대한 스케일과 높은 수준을 알려 주기에는 부족하지만 이 불상들을 통해서 발해의 불교조각이 신라나 일본 불교조각보다도 오히려 唐의 불교미술 도상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있었고 북방에 위치하는 발해의 지정학적 상황으로 발해 특유의 도상이 형성되는 등, 발해 불교조각의 국제성과 함께 발해 불교문화 고유의 독자성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단행본〉

- 敦煌文物研究所 編, 1987, 『敦煌莫高窟』 4, 1987, 文物出版社.
- 方學鳳, 1988, 『渤海의 佛教遺蹟과 遺物』, 서경문화사.
- 小野勝年, 1989,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 法藏館.
- 王承禮 著 · 송기호 역, 1987, 『발해의 역사』, 한림대학교출판부.
- 朱國忱 · 朱威, 2002, 『渤海遺迹』, 文物出版社.
- 朱榮憲, 1979, 『渤海文化』, 雄山閣.
- 『東京城-渤海國上京龍泉府の發掘調査』, 東方考古學叢刊 甲種 第五冊, 1939, 東京.
- 『東寺의 曼荼羅圖』, 1995, 東寺寶物館.
- 『러시아 연해주 발해 유적』, 1994. 4.
- 『발해의 유적과 유물』, 2002, 서울대학교출판부.
- 『上海博物館-中國古代雕塑館』, 1996, 上海古籍出版社.
- 『조선유적유물도감』 4권-고구려편 2, 1993, 민족문화.
- 『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1963-1965)』, 1966, 사회과학원출판사.
- 『해동성국 발해』, 2003, 서울대학교박물관 · 도쿄대학문학부.

〈논문〉

- 강희정, 2003, 「발해후기의 불교조각과 신앙」, 『東岳美術史學』 4.
- 김중혁 · 김지철, 1990, 「신포시 오매리 절골1호 발해건축지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
- 문명대, 1981, 「元五里寺址 塑佛像의 研究-高句麗 千佛像 造成과 관련하여」, 『考古美術』 150.
- 문명대, 1998, 「渤海 佛像의 樣式變遷」, 『韓國佛教美術史』, 한연.
- 문명대, 1999, 「渤海 佛像彫刻의 流派와 樣式研究」, 『講座美術史』 14.
- 부경만 · 관금천 · 왕림안 · 황림계 著, 방학봉 역, 1992, 「발해국의 서울 상경성의 문화 유산에 대하여」, 『발해사연구』 3, 연변대학교출판사 · 서울대학교출판부.
- 孫元吉 · 樊万象, 1991, 「渤海故都上京龍泉府發現金佛」, 『北方文物』, 黑龍江省文物管理委員會.
- 송기호, 1987, 「발해의 불교 자료에 대한 검토」, 『崔永禧선생華甲기념韓國史學論叢』,

탐구당.

- 송기호, 1992b, 「불정존승다라니경 跋文」,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Ⅲ-신라2·발해 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송기호, 1992c, 「渤海佛教의 展開過程과 몇가지 特徵」, 『伽山李智冠스님 回甲記念論叢 韓國佛教文化思想史』 下.
- 송기호·全虎兌, 1992, 「咸和四年銘 渤海碑像 檢討」, 『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아세아문화사.
- 양은경, 2008, 「北韓의 불교사원지출토 高句麗, 渤海 佛像의 출토지문제와 계승관계」, 『고구려발해연구』 31.
- 양은경, 2009, 「고구려 소조불상과 중국 소조불상의 관계」, 『동북아역사논총』 24.
- 임석규, 1995, 「渤海 半拉城出土 二佛并坐像의 研究」, 『佛教美術研究』 2.
- 임석규, 1998, 「東京大 所藏 渤海 佛像의 現狀과 性格」, 『高句麗研究』 제6집, 고구려연구회.
- 임석규, 1999, 「크라스키노사원지의 불상」, 『講座美術史』 14.
- 임석규, 2005, 「발해 소조불상의 성격과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북방사논총』 7.
- 張慶國·李濟瑩, 2001, 「渤海上京寺廟遺址調查」, 『渤海上京文集(第一集)』, 渤海上京遺址博物館.
- 趙哲夫, 2001, 「興隆寺渤海石佛損毀考」, 『渤海上京文集』, 渤海上京遺址博物館.
- 최성은, 1999, 「渤海(698-926)의 菩薩像 樣式에 대한 考察」, 『講座美術史』 14.
- 최성은, 2006, 「羅末麗初 아미타불상의 圖像的 高찰」, 『講座美術史』 26.
- 최성은, 2007, 「渤海 불교조각의 새로운 고찰-중국, 일본 고대조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26.
- 허형욱, 2006, 「崑崙奴 도상에 관한 연구-법주사 석조인물상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4.

[ABSTRACT]

Buddhist Sculpture at Sanggyong, the Capital of Balhae

Choe, Songeun

This paper investigates Buddhist sculpture at Sanggyong Yongchunbu (上京龍泉府), the last capital of Balhae (渤海) period from 794 A.D. to 926 A.D. when Balhae dynasty was collapsed. Sanggyong is located in present-day Bohaizhen (渤海鎮), south of Yongan City of Heirongjiang (黑龍江省). Hundreds of small Buddhist images, discovered at temple-sites of Sanggyong since 1930's on, are now in the collec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Tokyo National University Museum, Heirongjiang Province Museum and Bohai Sancheng Museum at Bohaizhen. These images are made with clay, gilt-bronze, gold and iron, and no stone image was found except the large stone Seated Buddha image at Xingrongsi, a temple of Qing Dynasty erected on the temple-site of Balhae period. Close examination of this stone image shows that it was made with basalt, which is too hard and rough for exquisite carving of Buddhist image.

Among small terracotta images, seated Buddha images, unearthed at the inner section of temple-sites, have been presumed to be 'Thousand Buddhas' decorated walls of a temple hall. In addition to this assumption, it is also assumed that some smallest seated Buddha images are likely to have been incarnated Buddha images attached on the halo of the Vairocana Buddha, just as those at the halo of the Seated dry-lacquer Vairocana Buddha image of Toshodaiji temple at

Nara.

A male-figure image in Seoul National Museum, showing facial feature of black race, indicates that he might be the attendant figure (崑崙奴) to Manjusri Bodhisattva (文殊菩薩), impounding his lion-pedestal. Since a standing Meditating Bodhisattve image in the collection of Tokyo National University shows a similarity to seated meditating Bodhisattva images found in some scenes of West Paradise sutra of Amitabha Buddha of early and middle Tang period at Donhuang, it is quite probable that temple wall at Sanggyong was also been decorated with West Paradise Scence as we can see at the niche 245 of Beishan (北山), Dazu (大足) Caves in Sichuan Province.

There are some iconography of esoteric Buddhism. The gilt-bronze image of one-head and six-armed Avalokitesvara, having no exact precedent of Tang sculpture, seems to have much to do with eleven-headed Avalokitesvara of middle Tang period or with Amoghapasa (不空羼索觀音) image of Nara period at Todaiji temple, and could be one of transformations of Avalokitesvara. Seated Amitabha Buddha image shows Amitabha mudra (阿彌陀定印), which was prevalent in Tang from ninth century and also appeared in Japanese and Korean sculptures of the later half of ninth century.

● Buddhist sculptures at Sangyong demonstrate that Buddhist culture of Balhae period was quite international and unique. They reveal a variety of iconography and style, which were on the par with Tang sculpture in their variety and creativity.

keywords

Balhae, Sanggyong, Buddhist sculpture, terracotta images, Thousand

Buddhas, One-Headed and Six-Armed Gwanum Bodhisattva,
Meditating Bodhisattva



渤海 上京城 佛教寺院址의 建立年代와 佛像 奉安의 復原

양은경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부교수

I. 머리말

渤海 上京城에 대한 조사는 宮殿址에 대한 발굴조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佛教寺院址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진하다. 더욱이 각 사원지에서 출토된 金銅佛像, 塑造佛像, 기와 등은 정확한 출토지점은 무시된 채 양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차지하였다.

상경성 발해 사원지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는 1933·1934년 하라다 요시토[原田淑人]를 주축으로 한 東亞考古學會에서 3지점을 조사하였고, 1964년 북한·중국이 조직한 朝·中合同考古發掘隊가 2개소의 사원지를 발굴하였다. 이들이 조사한 내용은 세 권의 발굴보고서로 출판물이 간행되었지만,¹⁾

※ 투고일: 2010년 1월 27일, 심사일: 2010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0년 2월 28일.

1) 東亞考古學會, 1939, 『東京城-渤海國上京龍泉府址의發掘調査』, 東亞考古學會;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중국 동북지방의 유적발굴 보고(1963~1965)』, 사회과학원출판사, 179~235쪽;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7, 『六頂山與渤海鎮-唐代渤海國的貴族墓地與都城遺址』,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魏存成, 2008, 『渤

1933·1934년 표기된 사찰명과 1964년 명명된 사찰명은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각 사찰의 소재지도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각 사원지에서 발굴된 건물지의 크기, 불단의 규모도 통일된 단위(m)가 없으며, 출토유물 역시 정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다. 그 결과 사원지·불상 연구자로 하여금 오해와 오류를 범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발해 상경성 불교사원지는 1964년 발굴조사된 제1·9사지만이 중요시되어 건물지 평면도의 특징에 대해 연구되어 왔다.²⁾ 1933·1934년 발굴된 제4·5·6사지는 비록 금당지만이 조사되었지만 평면도와 더불어 유물의 출토지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에 제1·4·5·6·9사지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경성 사원지는 금당지가 중심이 되어 조사되었기에 금당과 불단의 평면도, 불상의 배치방식 등은 동시대 당나라의 현존 불교사찰, 불교석굴과의 비교를 통해 건립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게 한다.

상경성 제1·4·5·6·9사지의 금당은 안칸과 바깥칸의 2중구조를 이룬다. 안칸과 바깥칸이 모두 벽체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칸이 ㄱ형을 이룬 것은 발해의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다.³⁾ 그러나 발굴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검토하면 안칸을 중심으로 한 벽체의 조성방법, 안칸의 벽면과 불단 사이의 공간 유무, 공간의 크기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안칸의 불단 위에 현존하는 佛臺石의 수량, 불단과 그 주위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안칸의 불단에 봉안된 주불상의 재질, 봉안수량, 봉안방식에 대해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안칸 벽체와 불단 사이의 공간, 안칸과 바깥칸 사이의 공간, 안칸과 바깥칸 주위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금당에 봉안된 불상과 벽화에 대해 일정한 復

海考古』, 文物出版社, 115~122쪽.

2) 이병건 편저, 2003, 『발해 건축의 이해』, 백산자료원, 54~61쪽; 魏存成, 1984, 「渤海의建築」, 『北方文物』 4; 방학봉, 1992, 『발해유적과 그에 관한 연구』, 연변대학출판사, 234~255쪽; 李康根, 1999, 「渤海 上京 龍泉府의 寺院建築」, 『강좌 미술사』 14(高句麗·渤海 研究 II), 133~147쪽.

3) 李康根, 1999, 위의 글, 133~147쪽.

原案이 도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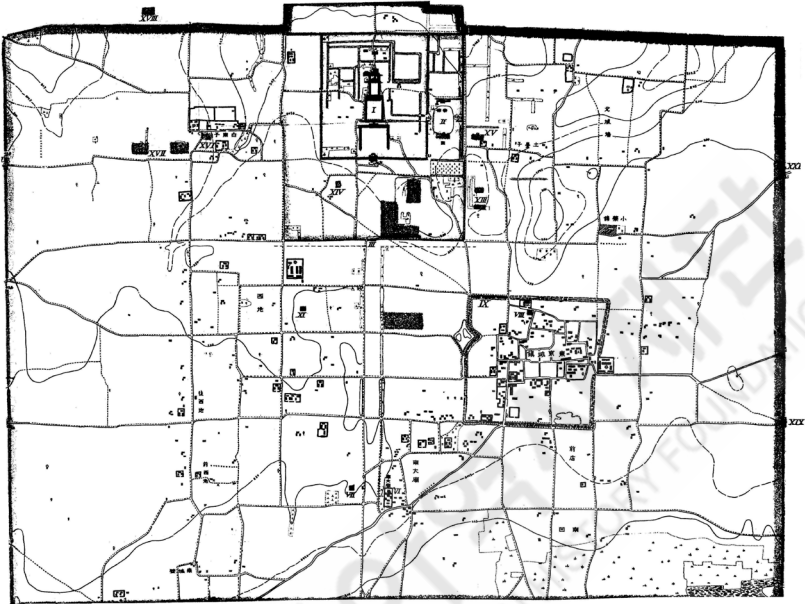
이에 이 글에서는 우선 상경성 발해 사원지의 조사현황과 출토유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종합정리를 하여 사원지 이름, 소재지, 규모를 통일시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금당과 불단의 평면도와 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동시대 중국 불교사찰, 불교석굴과의 비교를 통해 발해 상경성 사원지의 건립연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칸과 바깥칸의 조사내용과 출토유물을 통해 발해 상경성 금당 내부와 불상 봉안에 대해 그 추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寺院址의 調査狀況과 出土遺物의 檢討

하라다 요시토를 주축으로 한 東亞考古學會는 1933년 6월 6~25일, 1934년 5월 20일~6월 19일까지 상경성 제1~5궁전지(당시 제2~6궁전지), 궁성 남문지(당시 제1궁전지), 三靈屯고분, 3기의 불교사원지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제2사지(당시 제1사지)의 석등을 실측하고 제4(당시 제3사지), 5(당시 제4사지), 6사지(당시 제2사지)를 정식 발굴조사하였다(도 1). 짧은 발굴기간으로 인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발굴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4·5·6사지에서는 금당지만이 조사되었다.⁴⁾

● 북한과 중국이 조직한 조·중합동고고발굴대는 1964년 5월 10일~7월 23일, 같은 해 8월 20일~10월 20일 제6·7궁전지와 제1·9사지를 발굴하였다. 역시 금당지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발굴이었다. 그러나 당시 상경성 발해 궁전지와 사원지에 대한 이름과 번호를 새로이 붙였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통용되고 있다.

4) 卯乙女雅博, 2003, 「발해 동경성의 발굴」, 『해동성국 발해』, 서울대학교박물관·영남대학교박물관, 125~1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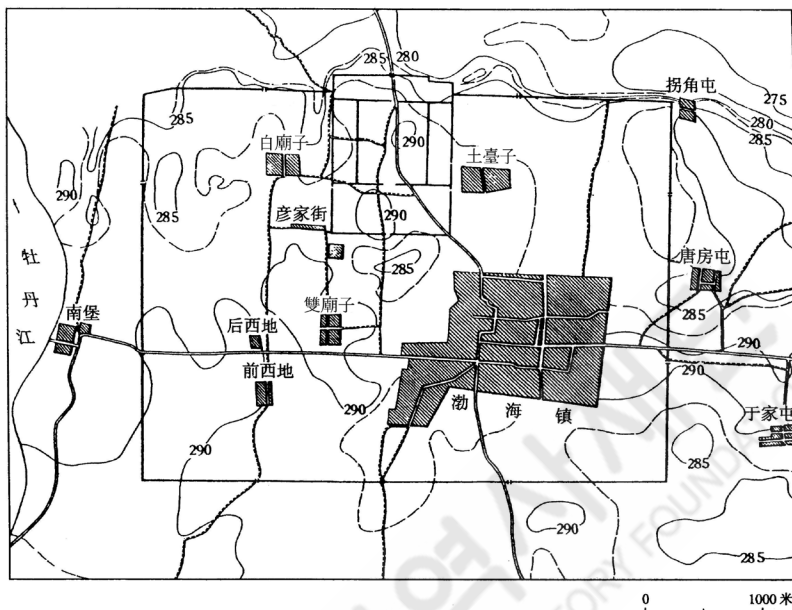
〈도 1〉 1933·1934년 조사된 上京城 渤海 遺迹址 分布圖(東亞考古學會, 1939, 『東京城-渤海國上京龍泉府址의發掘調査』, 東亞考古學會, 渤海國上京龍泉府址全圖 2)

상경성의 발해 사원지는 발굴 이후 盛土되어 오늘날에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보고서와 저서에 따라 사원지의 위치, 정확한 소재지, 조사내용에 대한 오류와 혼동이 심각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필자는 제1사지에서부터 제9사지까지의 소재지, 조사현황, 출토유물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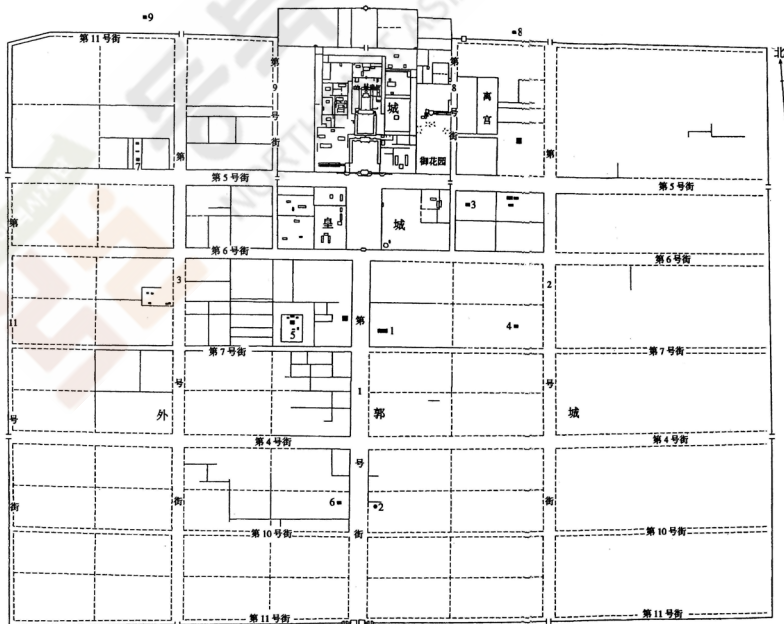
1_ 第1寺址

永安市 渤海鎮 雙廟子村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2), 발해 上京龍泉府 外城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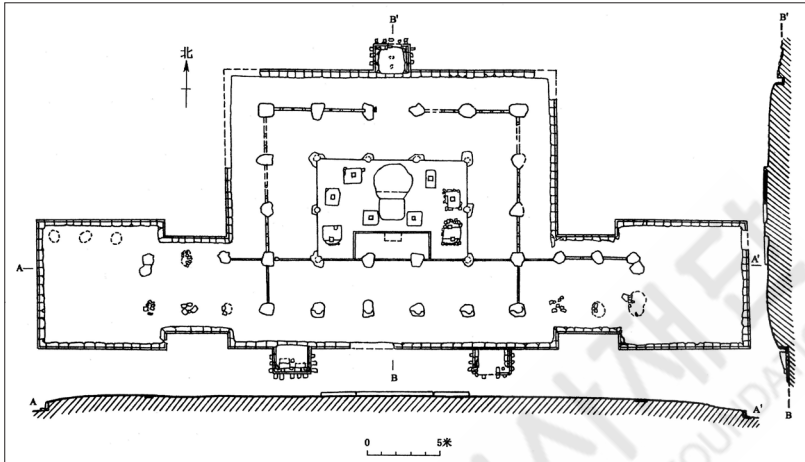
5) 1933·1934년 명명된 사찰명과 1964년 사용된 사찰명은 다음과 같다[1933, 1934/1964]. [제1사지/제2사지], [제2사지/제6사지], [제3사지/제4사지], [제4사지/제5사지], [X/제1사지], [XIII/제3사지], [XVII/제7사지], [XVIII/제9사지], [外城北外東/제8사지]. 본문에서는 1964년 명명된 사찰표기명을 사용하기로 하겠다.



〈도 2〉 上京城의 行政區域名과 渤海 佛教寺院址(魏存成, 2008, 『渤海考古』, 文物出版社, 71쪽, 도 33)



〈도 3〉 2000년대 조사된 上京城 渤海 佛教寺院址 分布圖(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1998~2007年度考古發掘調查報告-渤海上京城』, 上册, 文物出版社, 도 9)



〈도 4〉 上京城 第1寺址 佛殿 平面圖와 斷面圖(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7, 『六頂山與渤海鎮-唐代渤海國的貴族墓地與都城遺址』,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78쪽, 도 46)

심 거리인 朱雀大路의 동쪽에 위치한다(도 3). 1933·1934년에는 사원지임을 확인하였고 1964년 정식 발굴조사된 사원지이지만 금당지만이 발굴되었다.

남향이며 중앙에 本殿 건물지와 동·서편에 별도의 건물지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도 4). 본전 건물지 基壇의 규모는 동서×남북의 길이가 50.66×20.0m이고, 동·서편의 건물지 기단은 9.23m, 전체적인 기단의 높이는 1.2m이다.⁶⁾ 건물 築基部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기단토는 모래와 진흙을 판축으로 조성한 후 그 둘레를 석축으로 쌓았다.⁷⁾ 기단 위쪽에는 모두 灰를 칠하여 바닥을 다졌다.

본전 건물지는 장방형 평면의 동서×남북의 길이가 17.9×14.32m로 정면 5칸, 측면 4칸 건물이다. 본전 중앙에는 10.74×7.16m(동서×남북)의 정면 3칸, 측면 2칸의 佛壇이 마련되어 있다. 본전 바닥보다 높이가 높은 불단은 匚형을 이루며 불단 위에는 9개의 佛臺石이 놓여 있다. 불단 중앙에는 8각형에

6)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앞의 책, 194~197쪽.

7) 장상렬, 1971, 「발해 건축의 역사적 위치-[부록] 몇 개의 발해건축에 대한 외관복원」, 『고고민속문물집』 3, 사회과학출판사, 1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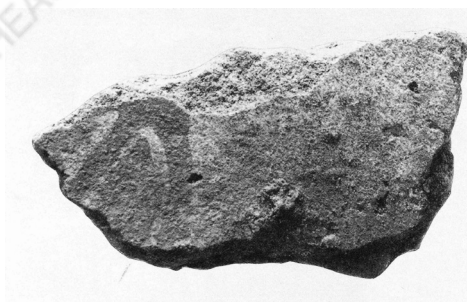
가까운 불대석이 있고 그 주 위에는 1개 혹은 2개의 구멍이 뚫린 방형 혹은 장방형의 불대석이 8개 분포되어 있다. 불단 앞쪽에는 길이 5.3m, 넓이 1.95m의 ㄱ形으로 공간을 파서 供養席을 마련하였다.⁸⁾

본전은 18개의 주춧돌에 기둥을 배치한 바깥칸과 10개의 주춧돌로 구성된 안칸(불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칸의 주춧돌 사이에서는 壁體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⁹⁾ 기둥과 기둥 사이에 중깃[中槩]을 세워 나무심으로 삼고 산자를 엮은 후 그 사이를 진흙으로 바른 다음 그 위를 灰로 미장하였다.¹⁰⁾

본전 건물지의 동·서편에 위치한 東殿·西殿의 기단 크기는 9.23×9.23m(동서×남북)이고 건물의 크기는 6.9×6.9m이다. 주춧돌의



〈도 5〉 第1寺址 出土 塑造像片(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1, 『조선유적유물도감』 8-발해,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01쪽, 도 157)



〈도 6〉 第1寺址 出土 壁畫壁體片(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1, 위의 책, 100쪽, 도 155)

8)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앞의 책, 195~196쪽.

9) 주영현, 1971, 『발해문화』, 사회과학출판사, 53쪽.

10) 장상렬, 1971, 앞의 글, 179쪽.

배치상태를 통해 동전과 서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불경과 종을 배치한 藏經樓, 鐘樓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¹¹⁾ 再考를 요하는 부분이다.

이 사원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소조상, 기와, 도자기, 청동기, 철기로 크게 나뉘어진다. 소조상은 금당지, 특히 불단과 그 주변에서 많이 출토되었지만 모두 파손되었다. 소조상의 종류는 육계, 손, 발, 다리, 옷주름편, 꽃술, 연화, 수목, 장식문양 등 다양하다(도 5). 기와는 암키와, 수키와, 유약을 바른 수키와, 유약을 바른 치미, 괴면와가 출토되었다. 청동기는 못, 장식편 이외에 청동불의 손 1점도 출토되었다.¹²⁾ 또한 장식문양이 그려진 벽화벽체편도 수습되었다(도 6).¹³⁾

2. 第2寺址

渤海鎮 南廟子村에 위치하며 제1사지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소재한다(도 3). 興隆寺가 현존하고 있으며, 발해시대 건물터의 기초 위에 清代에 중건되기는 하였지만 현존하는 대다수의 건물들은 1980년 이후에 건립되었다.¹⁴⁾

1933·1934년 발해 석등, 석연화좌가 조사되어 실측도면이 작성되었다. 당시 사찰의 한 지점에서 발해시대 기와, 花紋磚이 수습되기도 하였다.¹⁵⁾ 三聖殿 내부에 발해시대 석불상이 봉안되어 있지만 현무암의 심각한 풍화작용과 더불어 후대의 잦은 보수로 인해 연화대좌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대의 보수

11) 장상렬, 1971, 앞의 글, 196~197쪽;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72쪽.

12)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앞의 책, 197~198쪽.

13)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1, 『조선유적유물도감』 8-발해,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00쪽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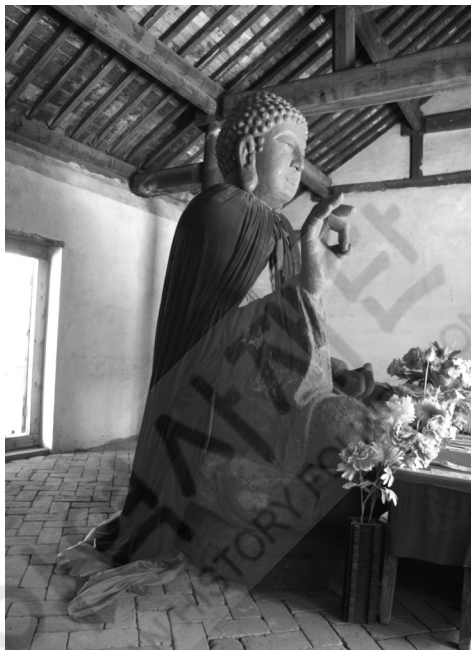
14) 陶剛·王祥濱, 1999, 「寧安興隆寺大雄寶殿基址發掘」, 『北方文物』 2, 40~43쪽 (이 논문은 『渤海上京地區考古重要收穫-朝, 韓, 日, 俄渤海考古動向』, 122~123쪽에 재수록됨); 中共寧安市委宣傳部·寧安市文學藝術界聯合會, 2000, 『鏡泊湖畔歷史文化名城-寧安』, 哈爾濱地圖出版社, 77~78쪽.

15)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31~33쪽.

물이다(도 7).¹⁶⁾ 연화대좌는 상·하대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경은 1.8m, 높이는 55cm이다.

3_ 第3寺址

渤海鎮 土臺子村에 소재하며 발해 皇城의 동쪽, 離宮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도 3). 1933·1934년에는 사원지라는 사실만을 확인하였으며 1964년에도 정식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사찰의 범위와 배치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20×15m(동서×남북)의 주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기와, 소조상편 2점이 수습되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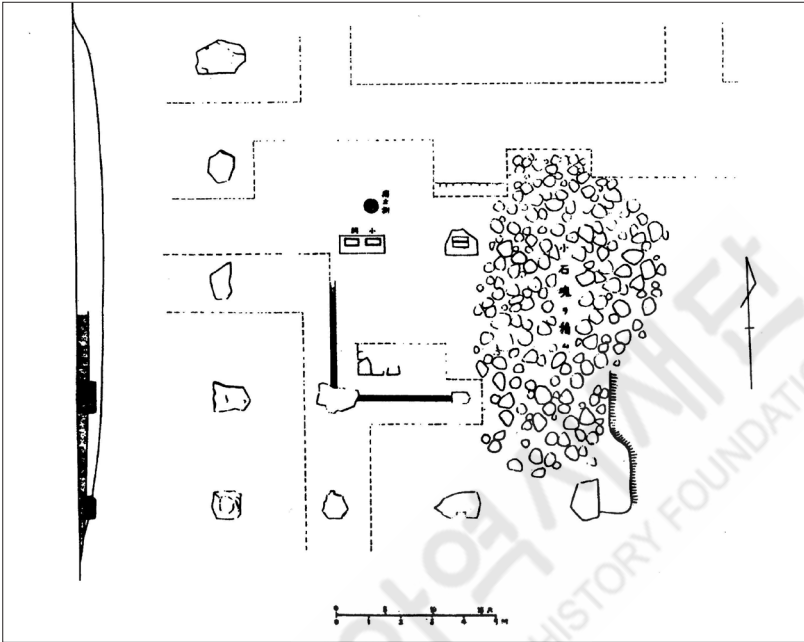
〈도 7〉 第2寺址(興隆寺) 現存 石佛像(필자 사진)

4_ 第4寺址

東京城鎮에 위치하는데 발해 上京 外城 내부의 동쪽편 第2號街 서편에 소재한다(도 3). 1933·1934년에 정식발굴이 진행되었지만 주불전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1동만이 조사되었다. 土壇의 동쪽편에는 자갈돌이 돌무더기를 이루고 있어 구체적인 발굴이 진행되지 못하였다(도 8).

16) 張國慶·李濟瑩, 2001, 「渤海上京寺廟遺址調查」, 『渤海上京文集』 第一集, 渤海上京遺址博物館, 63~64쪽.

17)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앞의 책, 180쪽.



〈도 8〉 第4寺址 佛殿 平面圖와 斷面圖(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插圖 41)



〈도 9〉 第4寺址 出土 小型 塑造像(서울대학교박물관, 2003, 『해동성국 발해』, 서울대학교박물관, 45쪽)

토단 위에는 바깥칸과 안칸의 2열을 이룬 주춧돌이 배열되어 있었는데, 바깥칸은 4×5개(동서×남북), 안칸에는 2개(동서)가 잔존하였다. 안칸의 남·서쪽 주춧돌 사이에서는 벽체의 일부가 남아 있었다. 안칸의 내부에 마련된 불단에는 회칠의 흔적이 확인되고 단의 앞쪽에서 크기가 작은 소조불좌상과 소조보살입상이 발견되었다(도 9). 또한 단의 뒤쪽에서는 나발, 천부상의 얼굴편, 장식편들이 수습되었을 뿐만 아니라(도 10), 벽화벽체편도 출토되었다.¹⁸⁾ 1964년 조사를 통해 이 건물지의 규모는 25×10m(동서×남북)임을 확인하였고 기와편이 발견되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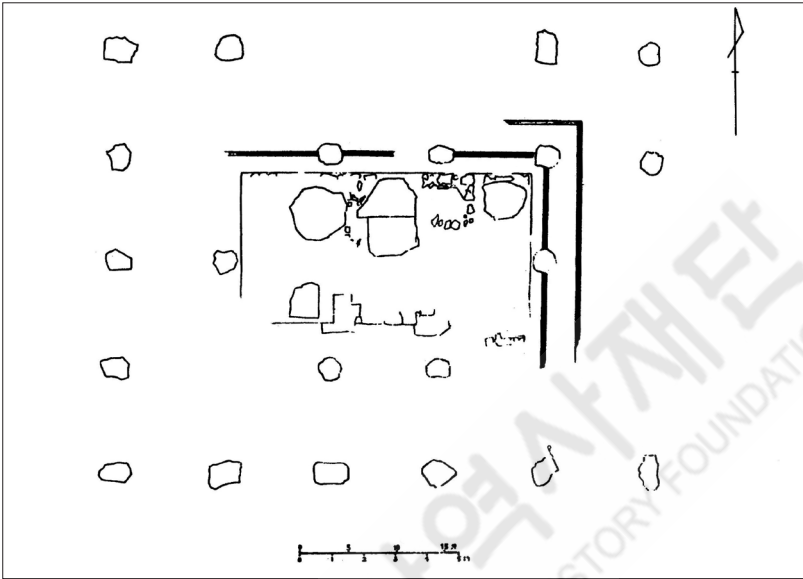
〈도 10〉 第4寺址 出土 塑造像片(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圖版 112)

5_ 第5寺址

현재 渤海鎮 雙廟子村에 위치하며 발해 상경성 외성 내부에서 주작대로의 서편에 위치하는데, 제1사지와 대칭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도 3). 1933·1934년의 발굴에서는 불전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1동만이 집중적으로 발굴조사되었고(도 11), 1964년의 시굴을 통해서 사찰의 범위와 건물들의 배치상황이 파악되

18)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36~37쪽.

19)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앞의 책, 180쪽.



〈도 11〉 第5寺址 佛殿 平面圖(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插圖 41)

었다.

금당지는 사원지의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으며 규모는 28×18m(동서×남북)이다. 토단 위에는 바깥칸과 안칸의 2열을 이룬 주춧돌이 배열되어 있는데, 바깥칸은 5×4칸(동서×남북), 안칸은 3×2칸(동서×남북)을 이룬다. 안칸의 내부에는 불단이 마련되어 있고 불단 위쪽에 佛臺石 5개가 잔존하였다. 안칸의 북쪽·동쪽 주춧돌 사이에는 회칠을 한 벽체편이 확인되었다. 불단 뒤쪽에서는 소조불상의 나발, 소형 소조불좌상 10여 점이 출토되었고(도 12), 앞쪽에서는 금동불 頭部가 수습되었다.²⁰⁾

1964년에는 금당지의 동북쪽·서북쪽·동남쪽에서 건물지가 확인되었지만 파손이 심각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는 힘들었다.²¹⁾ 당시 현존한 토

20)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37~38쪽.

21)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앞의 책, 180쪽.



〈도 12〉 第5寺址 出土 小型 塑造像(서울대학교박물관, 2003, 앞의 책, 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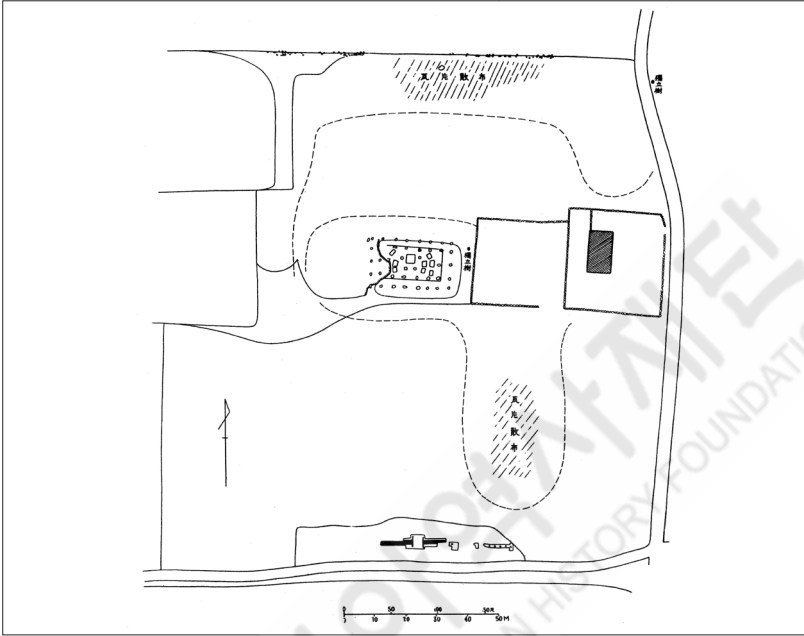
단의 높이는 1m 이상이며 연화문 석조물, 청동향로 등의 불교유물이 출토되기도 하였다.²²⁾

6_ 第6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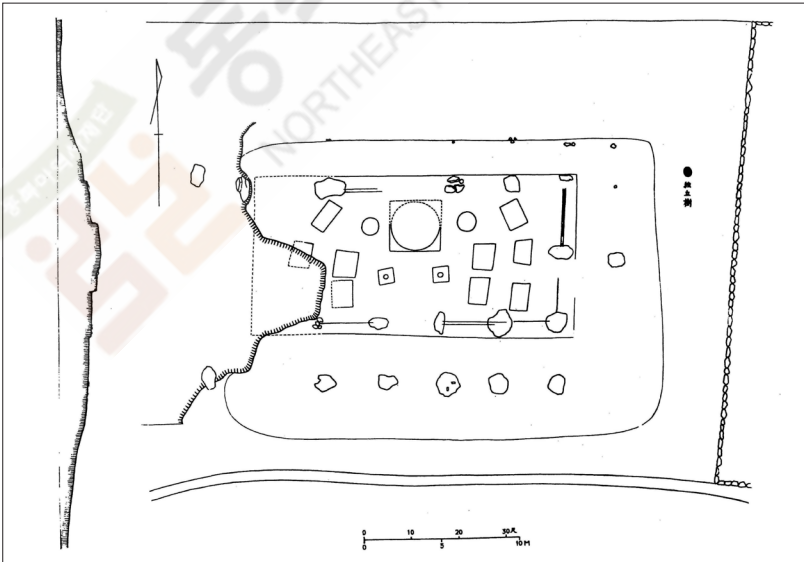
渤海鎮 南廟子村에 소재하며 상경성 내부의 주작대가를 사이에 두고 제2사지(홍릉사)와 대칭되게 분포되어 있다(도 3).

● 1933·1934년에 건물지 1동만이 발굴되었고 이후 정식 조사는 진행되지 못했다(도 13). 잔존 높이가 1m 이상인 토단 위에는 주춧돌과 회칠된 바닥면이 드러났다(도 14). 주춧돌은 2열로 배치되어 바깥칸과 안칸을 구성하고 있는데, 바깥칸은 7×4칸(동서×남북), 안칸은 5×2칸(동서×남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칸의 내부에 마련된 불단에는 방형 혹은 원형 佛臺石 15개가 확인되었다. 본존 불대석 아래에서 유리 小瓶片이 수습되었고 부근에서는 소조상편,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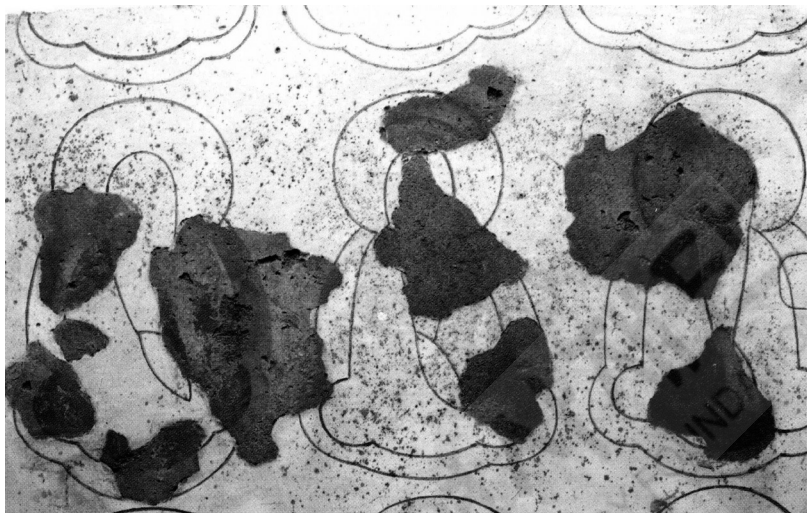
22) 朱國悅·金太順·李硯鐵, 1996, 『渤海故都』, 黑龍江人民出版社, 337쪽.



<도 13> 第6寺址 全體 配置圖(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插圖 37)



<도 14> 第6寺址 佛殿 平面圖와 斷面圖(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插圖 38)



〈도 15〉 第6寺址 出土 壁畫壁體片(서울대학교박물관, 2003, 앞의 책, 31쪽, 사진 29)

화벽체편(도 15), 乾漆佛片이 출토되었다.²³⁾

사원지에는 남쪽에서부터 門址, 기와 산포지, 토단 건물지, 기와 산포지의 공간이 확인되어 1탑3금당식의 가람배치,²⁴⁾ 혹은 문-탑-금당의 배치형식이라고 하였지만,²⁵⁾ 전체적인 건물지가 조사되지 않았기에 가람배치를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990년대 이곳에서 銅佛, 소조불이 출토되기도 하였다.²⁶⁾

7_ 第7寺址

渤海鎭 白廟子村에 위치하며 상경성의 서쪽 第5號街와 연접해 있다(도 3). 1933·1934년에는 절터임을 확인했고 1964년 시굴이 이루어졌다.

23)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34~36, 74쪽.

24) 장상렬, 1992, 「발해의 건축」, 『발해사연구논문집』 1, 255쪽.

25)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앞의 책, 273쪽.

26) 장경국 저, 방학봉 역, 1996, 「발해상경절터현황에 대한 조사」, 『발해사연구』 7, 188쪽.

사원지의 중심부에서 남북으로 3동의 건물지를 확인했는데 남쪽 건물지의 규모는 20×15m(동서×남북), 중간의 건물지는 21×11m, 북쪽 건물지는 15×6.5m이다.²⁷⁾

8_ 第8寺址

상경 外城 외부의 동북쪽에 위치하며 이 사원지와 외성 북벽과의 거리는 약 50m 정도이다(도 3). 또한 상경성 내부의 第2號街의 북쪽 문을 나서면 바로 왼쪽에 소재하고 있다. 1933·1934년에는 절터임이 확인되었고 1964년에는 건물지 1동만이 발견되었다. 건물지의 규모는 14×10m(동서×남북)이고 지표면에서 기와편, 불에 탄 흙덩이, 소조상편 2점이 수습되었다.²⁸⁾

9_ 第9寺址

상경 외성 외부의 서북쪽에 소재하며 북쪽 성벽과는 68m 떨어져 있다(도 3). 1933·1934년에는 절터임이 확인되었고 1964년 5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본전 건물지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발굴되었다(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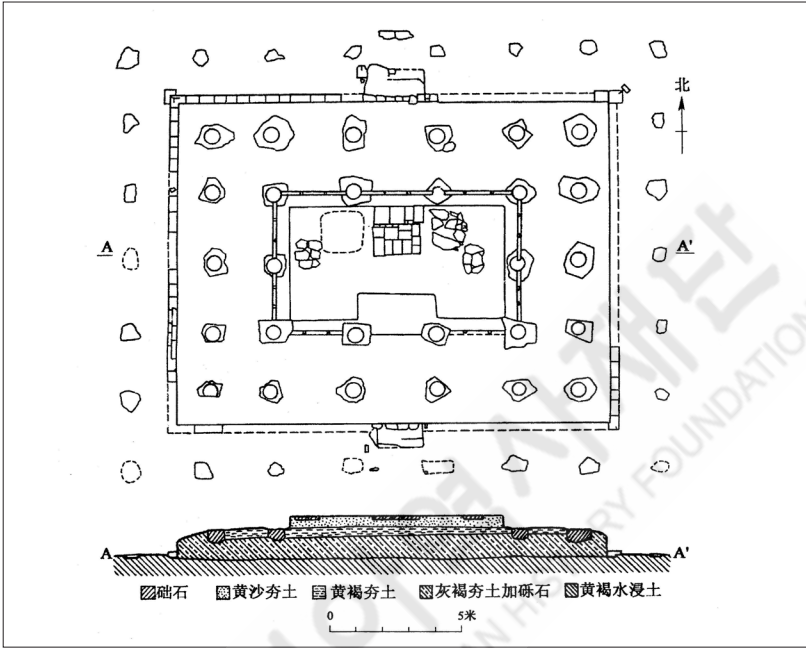
본전 건물지의 기단은 장방형이고 규모는 16.6×13.2×1.25m(동서×남북×높이)이다. 기단토는 자갈과 흙을 5~6층 번갈아 다져 쌓아 올린 후 판축하였으며 그 주위 둘레에는 돌을 쌓았다. 기단 주위에는 정면 7칸, 측면 6칸을 이루는 주춧돌이 배열되어 있으나 이 주춧돌의 성격에 대해서는 모호하다.²⁹⁾

토단 위에는 주춧돌과 회칠된 바닥면이 남아 있다. 주춧돌은 2열로 배열되어 있어 바깥칸과 안칸을 구성하는데, 바깥칸은 5×3칸(동서×남북), 안칸은

27)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앞의 책, 180쪽;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조선고고학전집 41(중세편 18)-발해의 성곽과 건축』, 진인진, 174쪽.

28)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앞의 책, 180쪽;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위의 책, 174쪽.

29)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앞의 책, 201쪽.



〈도 16〉 第9寺址 佛殿 平面圖와 斷面圖(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7, 앞의 책, 84쪽, 도 48)



〈도 17〉 第9寺址 佛殿 内部 佛壇과 壁體 寫眞(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1, 앞의 책, 124쪽, 사진 199)

3×2칸이다. 바깥칸의 규모는 13.5×10.1m(동서×남북)이고 안칸은 9×5.4m이다. 안칸의 주춧돌 사이에 2개의 보조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에 의지하여 외를 엮은 다음 진흙을 바르고 표면을 灰로 미장하였다(도 17).³⁰⁾

안칸 속에는 불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규모는 8.0×4.4×0.43m(동서×남북×높이)로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쌓고 네 벽을 회로 미장하였다. 불단 앞쪽에는 2.9×1.0m(동서×남북) 크기의 □형의 예배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불단 위에는 5개의 불대석이 마련되어 있는데, 형태는 정연하지 않다.

이 건물지에서는 소조상, 기와, 토기, 청동기, 철기, 구슬, 장식편, 치미, 괴면와 등이 출토되었다. 소조상은 육계편, 목, 목걸이 장식이 불단 부근에서 출토되었고 치미는 2점 수습되었다. 청동기는 거울편이며 구슬 2점이 본전 서북쪽에서 출토되었다.³¹⁾

상경성 내외에 분포된 제1사지~제9사지의 조사현황과 출토유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로 작성하면 <표 1>, <표 2>와 같다.

<표 1> 渤海上京城의 佛敎寺院址 調查狀況³²⁾

寺院址名	過去名 (1933, 1934)	現在行政 名位置	建築物의 種類	基壇 規模 (東西×南北 ×높이: m)	金堂		佛壇		佛像 配置 方式	發掘機關 [調査機關]	發掘 年代
					規模(東 西×南 北: m)	칸수 (정면× 측면)	規模(東西 ×南北× 높이: m)	칸수			
第1 寺址	X	渤海鎮 雙廟子村	金堂	50.66× 20.0(중간), 9.23(측면) ×1.2	17.9× 14.32	5×4	10.74× 7.16	3×2	9존상	東亞考古 學會	1933, 1934
										朝中共同考 古學發掘隊	1964

30)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1, 앞의 책, 116쪽; 方學鳳 著, 朴相份 編譯, 1998, 『渤海의 佛敎遺蹟과 遺物』, 書景文化社, 52~53쪽; 주영현, 1971, 앞의 책, 56~58쪽.

31)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앞의 책, 201쪽.

32) <표 1>을 작성하는데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음.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30~64쪽;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앞의 책, 165~236쪽; 조선유적유물도감편

第2 寺址	Ⅵ (第1 寺址)	渤海鎮 南廟子村· 興隆寺	金堂, 石燈		3×2				東亞考古 學會	1933, 1934
									朝中共同考 古學發掘隊	1964
第3 寺址	Ⅷ	渤海鎮 土臺子村	金堂	20,0× 18,0	5×4				東亞考古 學會	1933, 1934
									鳥山喜一	1942
									朝中共同考 古學發掘隊	1964
第4 寺址	Ⅷ (第3 寺址)	東京城鎮	金堂	25,0× 10,0					東亞考古 學會	1933, 1934
									朝中共同考 古學發掘隊	1964
第5 寺址	Ⅺ (第4 寺址)	渤海鎮 雙廟子村	金堂	28,0× 18,0(25 ×20) 높 이: 1.2	5×4		3×2	7존상 (?)	東亞考古 學會	1933, 1934
									朝中共同考 古學發掘隊	1964
第6 寺址	Ⅶ (第2 寺址)	渤海鎮 南廟子村	金堂 +門		7×4		5×2	15존상 (?)	東亞考古 學會	1933, 1934
									朝中共同考 古學發掘隊	1964
第7寺 址	ⅩⅦ	渤海鎮 白廟子村	建物址	남쪽 건물지: 20×15 중간 건물지: 21×11 북쪽 건물지: 15×6,5					東亞考古 學會	1933, 1934
									朝中共同考 古學發掘隊	1964

찬위원회, 1991, 앞의 책, 84~118쪽; 方學鳳 著, 朴相份 編譯, 1998, 앞의 책, 47~57쪽; 張慶國·李濟瑩, 2001, 앞의 글, 63~65쪽; 朱國忱·朱威, 2002, 『渤海遺迹』, 文物出版社, 118~122쪽.

第8 寺址	外城北 外東	外城北壁 東門 밖	建物址		14×10					東亞考古 學會	1933, 1934
										朝中共同考 古學發掘隊	1964
第9 寺址	ⅧⅧ	外城北壁 西門 밖	金堂	16.6×13.2 × 1.25	13.5× 10.1	5×4	8.0×4.4 ×0.43	3×2	5존상	東亞考古 學會	1933, 1934
										朝中共同考 古學發掘隊	1964

〈표 2〉 上京城 渤海 寺院址 出土品の 種類

出土遺物		第1寺址	第2寺址	第3寺址	第4寺址	第5寺址	第6寺址	第8寺址	第9寺址
기와		◎	◎	◎	◎	◎	◎	◎	◎
鴟尾		◎							◎
佛 教 彫 刻 像	大, 中型	◎			◎	◎	◎		
	小型 (專佛)			◎	◎	◎			
	金(靑) 銅像	◎			◎	◎			
	石像		◎						
	乾漆像					◎			
壁畫壁體片		◎		◎	◎		◎		
裝飾片		◎							◎
陶瓷器		◎							
琉璃製品							◎		
其他		◎							◎

196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경성 내에서는 사리함, 석불상의 발견과 더불어 불교사찰지의 흔적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정식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³³⁾ 토대자사지 부근과 백묘자촌에서 3~4곳의 불교사찰지가 확인되기도 하였고, 특히 1975년 토대자사지 부근에서 사리함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 사

리함은 石函-石函-鐵函-銅匣-漆匣-銀盒-銀盒의 7중으로 구성되었고, 사리함에서는 진주, 호박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³⁴⁾

1997년 백묘자촌 건설공사현장의 도로 부근에서 6개의 현무암으로 구성된 穴室 내부에서 장방형 舍利函과 彩色漆函이 발견되었는데, 사리함은 銅函-金銅函-銀函-金函으로 구성되었다.³⁵⁾ 또한 1970년대 중반 渤海鎮小學校에서 발해시대 石龜趺가 출토되었는데, 흥륜사의 유물로 보는 견해³⁶⁾와 清代에 존재했던 稽古寺로 간주하는 의견이 있다.³⁷⁾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는 1998~2007년까지 발해 상경성 궁전유적을 발굴하였는데, 제3호 궁전지와 제4호 궁전지 사이의 건물터에서 높이 7.0cm의 소조보살입상이 1구 발견되었다.³⁸⁾ 머리부분은 소실되었으며 틀에서 찍은 제작 기법, 보살상의 양식 등은 제4사지에서 출토된 보살상과 동일하다. 이 보살상이 출토된 곳은 불교사찰이 소재한 곳은 아니며 후대에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III. 金堂, 佛壇을 통한 上京城 佛教寺院의 建立年代

발해의 탑은 貞孝公主墓塔·靈光塔·馬滴達塔의 벽돌탑,³⁹⁾ 함경남도 梧梅里

33) 朱國悅·金太順·李硯鐵, 1996, 앞의 책, 333~338쪽.

34) 寧安縣文物管理所·渤海鎮公社土臺子大隊, 1978, 「黑龍江省寧安縣出土的舍利函」, 『文物資料叢刊』 2, 198~201쪽.

35) 왕립안·고민 지, 윤현철 역, 1999, 「발해의 상경유지에서 두번째 사리함이 출토」, 『발해사연구』 8, 327~329쪽.

36) 丹化沙, 1988, 「渤海上京近年發現的重要文物和遺迹」, 『遼海文物學刊』 2, 29~35쪽.

37) 朱國悅·金太順·李硯鐵, 1996, 앞의 책, 335쪽.

38)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1998~2007年度考古發掘調查報告-渤海上京城』上册, 文物出版社, 375~376쪽.

39) 方學鳳, 2000, 『中國境內 渤海遺蹟研究』, 백산자료원, 288~325쪽.

寺址의 方形 塔址,⁴⁰⁾ 상경성 토대자사지와 백묘자촌에서의 사리함 출토로 인한 탑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탑은 고구려 계통의 방형 탑 혹은 중국 계통의 벽돌 탑이지만 전체적인 불교사원지의 조사수량에 비해 적은 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발해 사원지는 <표 3>을 통해 상경성 이외에 舊國에 1개소, 中京城은 15지점, 東京城 7개소, 南京 3개소, 沿海州 6개소가 확인되었다.

<표 3> 渤海 佛敎寺院址의 現況과 出土遺物⁴¹⁾

寺院址名	所在地	建物址	出土遺物	備考
舊國 廟屯寺址	吉林省 敦化市 紅石鄉 一心村	건물지(2개)	기와, 벽돌	주위에 六頂山古墳群, 城山子山城 소재
中京 高産村 寺址	吉林省 和龍縣 德化 鄉 高産村	8각형 건물지	소조불의 불두, 발가락, 손가락, 토기편, 철제방울, 연화문 막새기와, 명문와, 건축부재	1979년 吉林省 考古訓練班 · 和龍縣 文物調查隊가 발굴
軍民橋 寺址	和龍縣 西城 鄉	담장, 건물지, 문지	鐵鼎 2점, 명문와 1점, 연화문 막새기와 등	1981년 延邊博物館에서 조사

40) 김중혁·김지철, 1989, 「신포시 오매리 금산발해건축지 발굴중간보고」, 『조선고고연구』 2, 11~16쪽; 김중혁·김지철, 1990, 「신포시 오매리 절골1호발해건축지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 12~17쪽; 한용길, 1992, 「발해건축의 고구려적성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 28~32쪽; 한인호, 1997, 「금호지구 오매리절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 13~15쪽.

41) <표 3>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30~64쪽;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앞의 책, 165~236쪽; 車玉信, 1990, 「渤海佛像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16쪽;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1, 앞의 책, 84~118쪽; 方學鳳 著, 朴相侁 編譯, 1998, 앞의 책, 14~89쪽; 박윤배, 2008, 「발해 불교건축」, 『부산대학교 북방연구회 발표자료집』, 1~8쪽;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앞의 책, 153~193쪽.

寺院址名	所在地	建物址	出土遺物	備考
龍海村 寺址	和龍縣 龍水 鄉 龍海村	건물지(묘 담, 사원지 세트)	指壓紋 암키와, 孔雀 紋 암키와, 연화문 막 새기와, 벽돌, 토기편	서북 150m에 貞孝 公主墓 소재 정효공주묘 아래쪽 에 건립된 사원지
東南溝 寺址	和龍縣 八家 子鎮 河南村	건물지	指壓紋 암키와, 처마 기와, 미구기와, 수키 와, 연화문막새	
仲坪村 寺址	龍井市 德新 鄉	건물지	연화문 막새, 지압문 암키와, 토기 구연부 편, 석조삼존불상	
神仙洞 寺址	安圖縣 福興 鄉 神仙洞村	건물지	기와편, 미구기와	
大東溝 寺址	安圖縣 石門 鄉 北山1隊	건물지, 우 물지	벽돌, 기와, 토기편, 각종 석재	
舞鶴洞 寺址	安圖縣 舞鶴 村 舞鶴洞		기와, 토기, 자기	
碱場村 寺址	安圖縣 亮兵 台鄉 碱場村	건물지	벽돌, 기와편, 석함 2 개	
東清洞 寺址	安圖縣 永慶 鄉 東清村	건물지	연화문 막새기와, 암 키와, 미구기와, 장방 형 청색 벽돌, 건물장 식품	
傅家溝 寺址	安圖縣 石門 鄉 茶條溝		기와, 벽돌, 토기	
崇實村 寺址	安圖縣 石門 鄉 仲坪村	건물지	미구기와, 지압문 암 키와, 繩紋 암키와, 건축재료	
新田村 寺址	汪清縣 百草 溝鄉 新田村		암키와, 수키와, 막새 기와, 벽돌	
駁駝山 屯寺址	汪清縣 春陽 鄉	건물지	지압문 암키와, 미구 기와, 연화문 막새기 와, 처마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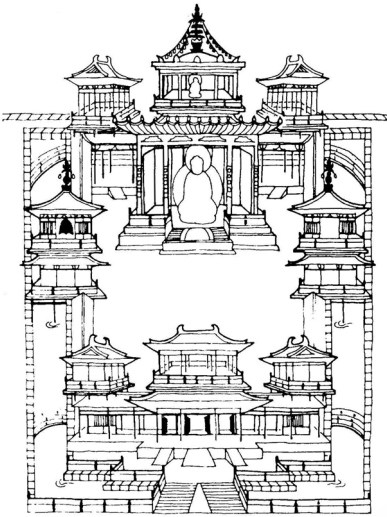
寺院址名	所在地	建物址	出土遺物	備考
英城古城寺址	龍井市 東盛涌鄉 英城村	건물지	지압문 암키와, 토기편	英城古城 내부에 소재,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고 전함
東京 五一村寺址	吉林省 琿春市 馬川子鄉 五一村	건물지	기와, 토기편, 사암제 석불 1구, 동불(현 소장처 불명)	
楊木林子村寺址	琿春市 楊泡鄉 楊木林子村	건물지	연화문 막새기와, 미구기와, 지압문 기와, 밧줄무늬기와, 포문기와, 석문기와, 토기편, 석불상(현 소장처 불명)	
木荒溝村寺址	琿春市 밀강하 상류	초석	막새기와, 암키와, 수키와, 사암제 불상편	
八連城東南寺址	琿春市	금당지, 회랑, 문지	기와, 불상편, 석조불상 대좌, 치미	
馬滴達村寺址	琿春市 馬滴達鄉	건물지	벽돌편, 기와, 토기편	馬滴達村廟塔 옆에 소재
新生村寺址	琿春市 三家子鄉 新生村	건물지, 회랑	기와, 토기편, 석불상	
良種農場寺址	琿春市 三家子鄉			
上海 第1寺址	黑龍江省 雙廟子村	회랑, 건물지	塑造像片, 土裝飾片: 불단 위 청동불상 손, 청동장식, 못, 찰갑, 자물쇠, 고리, 쇠못, 기와, 치미, 괴면, 소조상편, 도자기, 벽화편, 녹유기와	1964년 朝中共同考古學發掘隊 발굴

寺院址名	所在地	建物址	出土遺物	備考
第2寺址	南廟子村: 興隆寺		석등, 석불상 현존 사찰 내: 기와, 華紋 方磚	1933·1934년 東亞 考古學會/ 1964년 朝中共同考古學發 掘隊 조사
第3寺址	土臺子村	건물지	소조불상 2점, 기와 편	1942년 烏山喜一 조사/ 1964년 朝中 共同考古學發掘隊 조사
第4寺址	東京城鎮	건물지	불단 앞쪽: 소조상(입 상, 좌상) 불단 뒤쪽: 소조불의 나발, 天部像 頭部片 기와편	1933·1934년 東 亞考古學會 발굴/ 1964년 朝中共同考 古學發掘隊 조사
第5寺址	雙廟子村	건물지	주춧돌: 2개, 기와편 불단 뒷쪽: 소조불의 나발, 소조상(좌상) 불단 앞쪽: 小銅佛 頭 部	1933·1934년 東 亞考古學會 발굴/ 1964년 朝中共同考 古學發掘隊 조사
第6寺址	南廟子村	건물지	기와편, 주춧돌 본존 대좌 아래: 유리 제 小瓶片 대좌 부근: 소조상편, 벽화벽체편, 건칠불 파편	1933·1934년 東 亞考古學會 발굴/ 1964년 朝中共同考 古學發掘隊 조사
第7寺址	白廟子村	건물지		1964년 朝中共同考 古學發掘隊 조사
第8寺址	外城 外部 북 쪽	미발굴	주춧돌, 소조상편: 2 점, 기와편, 불에 탄 흙덩이	1964년 朝中共同考 古學發掘隊 조사

寺院址名	所在地	建物址	出土遺物	備考
第9寺址	外城 外部 북쪽	건물지, 불단	주춧돌, 소조상편: 불단위 토기, 청동거울편, 철갈, 철화살촉, 철문고리, 철못, 구슬, 기와편, 치미, 소조상편, 장식편	1964년 朝中共同考古學發掘隊 발굴
南京 梧梅里 寺址	北 韓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	방형목탑지, 3금당지, 승방(1탑3금당)	석불상, 청동보살상, 금동불상편, 금동관, 금동연화편, 토기편	1988년 북한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함경남도력사박물관에서 발굴
靑海土城內 寺址	함경남도 북청리 하호리	건물지	기와, 금동광배	1967·1972·1985년 북한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
改心寺址	함경북도 명천군	건물지	목함	
沿海州 코프이토 산사지	우수리스크시 크로우노프카촌 남서 3~4km 지점	금당지, 반지하주거지	기와편, 도기편, 철제수레조각, 청동팔찌, 구슬	1956·1958·1959년, 최근 소련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학연구소에서 발굴. 근처에 코프이토고분 1기
아브리코스 산사지	우수리스크시 크로우노프카촌 남서 3~4km 지점	금당지, 벽체일부, 불단일부	쇠못, 토기, 소조불상, 소조보살상, 각종기와, 치미	1960년 소련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학연구소에서 발굴. 근처에 아브리코스고분 4기
보리소프 카사지	우수리스크시 크로우노프카촌 남서 3~4km 지점	건물지	기와, 토기, 소조불두, 청동소상 2점, 소조상	1972년 소련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학연구소, 대륙연구소 발해학술조사단에서 발굴. 남동쪽 200mm에 성터가 있음

寺院址名	所在地	建物址	出土遺物	備考
코르사코 프카사지	우수리스크시 서북 32km	건물지, 가마터	기와, 철제풍탁, 철제 못, 봉황연화문기와	1993년 대륙연구소 발해학술조사단, 러시아 극동역사연구소에서 발굴함 코르사코프고분이 소재
크라스키노古城 내 사지	하산 크라스키노古城	금당지, 서건물지, 서회랑지, 기와가마터, 중문지, 석등지, 배수구, 우물	금동불좌상, 석불좌상, 금동보살상, 석천왕상, 사암계석불좌상, 기와, 방추차, 토기, 발해삼채, 철제풍탁, 금동반지	1983: 러시아극동연구소 1994: 대륙연구소 러시아극동연구소 1998: 한국미술사연구소 러시아극동연구소에서 발굴 근처에 크라스키노고분군이 있음
우수리스크市 부근의 사지	우수리스크시 부근	주춧돌	청동불	
其他 七道河子村寺址	吉林省 蛟河縣 天崗鎮 七道河子村		기와, 벽돌, 건축재료	1940년 발견, 1985년 조사
伯都古城寺址	吉林省 扶餘縣 伯都鄉		소조불상, 銅佛, 불상 장식편, 기와, 자기, 토기	1980·1982년 문물조사단에서 발굴 伯都古城 내부에 소재

상경성의 예를 제외한 나머지 불교사원지 중 중경성의 高産村寺址, 동경성 八連城東南寺址, 남경의 梧梅里寺址·青海土城內寺址, 길림성 伯都古城寺址, 연해주의 발해사원지 5개소 이외의 나머지 사원지들은 정식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의 사찰 모두를 발해시대로 비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건물지들의 성격 역시 정확하게



(도 18) 莫高窟 第361窟 南壁 經變 속의 佛敎 寺刹圖(蕭默, 1993a, 『莫高窟壁畫にみえる寺院建築』, 『中國石窟·敦煌莫高窟(四)』, 平凡社, 201쪽, 도 14)

성도 제기해 볼 수 있다.

발해와 동시대 통일신라 사찰에서는 雙塔이 건립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唐代에는 慈恩寺, 荐福寺에서처럼 탑이 금당 뒤쪽 혹은 좌우쪽 혹은 別院에 배치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거나,⁴²⁾ 西明寺址에서처럼 탑이 확인되지 않는 예도 보인다.⁴³⁾ 특히 돈황 막고굴의 당대 벽화 속의 사원 건축물 중 탑은 불전 뒤쪽 혹은 별도의 院에 위치하거나 탑이 없는 경우도 많다(도 18).⁴⁴⁾ 이처럼 당대

확인하기는 힘들다. 다만 중경 高産村寺址·駱駝山屯寺址, 동경 新生村寺址·八連城東南寺址, 연해주 코프 이토산사지·아브리코스산사지·크라스키노 古城 內 사지에서 발굴조사된 건물지는 金堂址이다.

상경성 발해 사원지 역시 제7·8사지를 제외한 나머지 7개소의 土壇 위에 설치된 건물지는 佛殿, 즉 금당지로 추정되고 있다. 부분적인 사찰 건물지의 조사에 의한 편협된 사찰 건물지 성격 추정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겠지만 三國時代와는 달리 사찰 내에 탑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되지 않았을 가능

42)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西安唐城發掘隊, 1964, 『唐青龍寺遺址踏察記略』, 『考古』 7, 346~348쪽;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西安工作隊, 1974, 『唐青龍寺遺址發掘簡報』, 『考古』 5, 322~327쪽; 楊鴻勛, 1984, 『唐長安青龍寺密宗殿堂(遺址4)復原研究』, 『考古學報』 3, 383~400쪽; 中國社會科學院考古所西安唐城隊, 1989, 『唐長安青龍寺遺址』, 『考古學報』 2, 231~261쪽.

4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西安唐城工作隊, 1990, 『唐長安西明寺遺址發掘簡報』, 『考古』 1, 45~55쪽.

44) 蕭默, 1993a, 『莫高窟壁畫にみえる寺院建築』, 『中國石窟·敦煌莫高窟(四)』, 平

에 접어들어 탑을 불전보다 중요시하지 않은 사실은 남북조시대 思遠佛寺址, 永寧寺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탑이 가장 큰 규모로 사찰의 중앙에 배치된 사실과는 다른 예배대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⁴⁵⁾

정식발굴이 진행되었던 상경성 제1·4·5·6·9사지의 건물지에서는 1동의 건물지만이 조사되었고, 이 건물지는 主佛像을 봉안한 금당으로 추정되고 있다. 1933·1934년 조사된 제4·5·6사지 건물지는 1964년 발굴된 제1·9사지 금당지와 비교하여 짧은 발굴기간과 유물수습성 조사로 인해 금당지와 불단의 정확한 모습, 평면도의 정확성이 미비한 편이다. 하지만 건물지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여 제1·9사지와 비교하는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제1·4·5·6·9사지의 건물지는 장방형의 토단 위에 5×4칸(동서×남북: 제1·5·9사지) 혹은 7×4칸(제6사지)의 장방형 금당을 배치하였다. 또한 금당 안쪽에는 3×2칸(제1·5·9사지)과 5×2칸(제6사지)의 장방형의 불단이 주위보다 높게 설치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장방형 금당 속에 안치된 불단의 위치와 평면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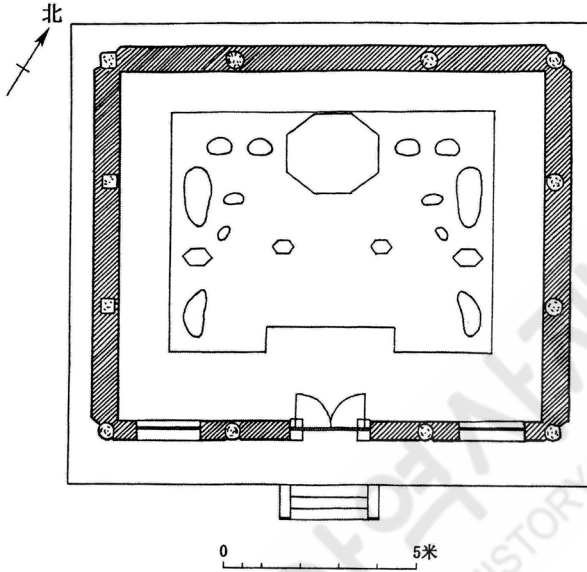
제1·5·6·9사지의 불단은 금당 내부에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더욱이 발굴조사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루어진 제1·9사지의 불단 평면형태는 ㄱ형을 이룬다. 금당지와 불단이 장방형을 이루면서 불단이 금당의 중앙에 위치한 예로는 훈춘시 新生村寺址를 비롯하여 782년 건립된 중국 五臺山 南禪寺 大殿(도 19),⁴⁶⁾ 서안시 靑龍寺 東院 4호 불전 晚期 유적지가 대표적이다(도 20).⁴⁷⁾ 857년에 重建된 오대산 佛光寺 東大殿의 불단은 금당의 정중앙은 아닌

凡社, 192~2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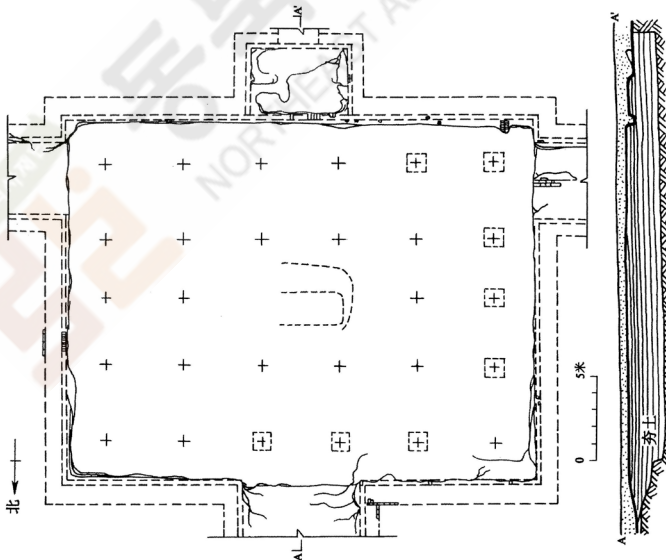
45) 양은경, 2009a, 「中國 佛教寺刹의 검토를 통해 본 百濟 泗泚期 佛教寺刹의 諸問題」, 『百濟研究』 50, 160~163쪽.

46) 남선사의 창건시기는 불명확하지만 남선사 내의 大殿은 건물 서측 서까래 아래측의 墨書題記의 내용에 근거하여 당 德宗 建中 3年, 즉 782년에 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貞安志, 1989, 「中國古代建築의 瑰寶-南禪寺與佛光寺彩塑藝術分析」, 『文博』 5, 31~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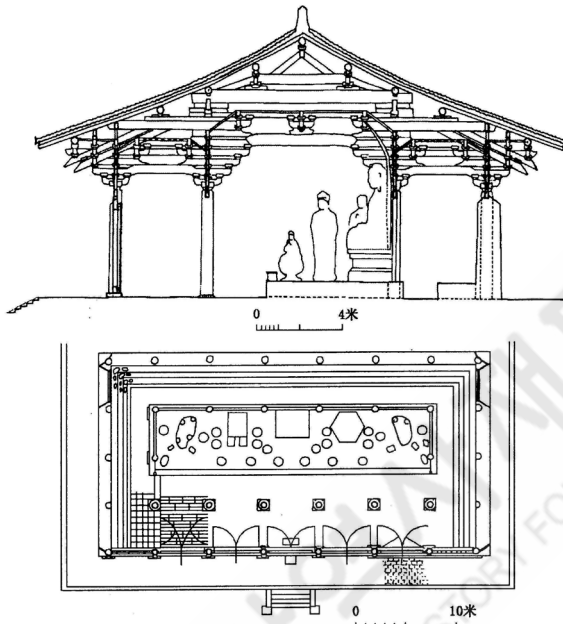
47)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西安唐城發掘隊, 1964, 앞의 글, 346~348쪽;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西安工作隊, 1974, 앞의 글, 322~327쪽; 中國社會科學院考古所西安唐城隊, 1989, 앞의 글, 231~2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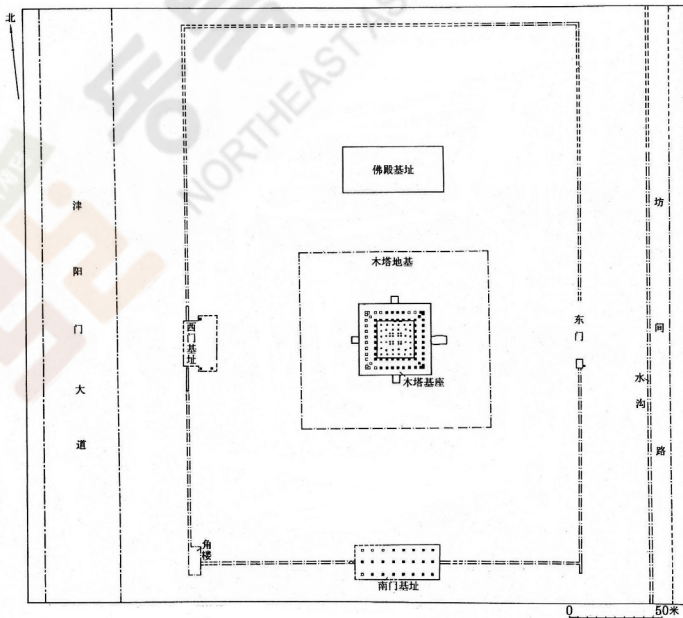
〈도 19〉 山西省 南禪寺 大殿 平面圖(劉敦楨 主編, 1986, 『中國建築史』,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23쪽, 도 85-2)



〈도 20〉 陝西省 靑龍寺 東院 4號 佛殿 晚期 遺迹址 平面圖와 斷面圖(中國社會科學院考古所西安唐城隊, 1989, 『唐長安靑龍寺遺址』, 『考古學報』 2, 245쪽, 도 10)



〈도 21〉 山西省 佛光寺 大殿 側面, 平面圖(劉敦楨 主編, 1986, 양의 책, 124쪽, 도 85-4 · 127쪽, 도 86-3)



〈도 22〉 河南省 永寧寺址 配置圖(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北魏洛陽永寧寺-1979~1994年考古發掘報告』,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7쪽, 도 4)

조금 더 뒤쪽으로 배치되었지만 거의 중간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도 21).⁴⁸⁾

남선사 대전, 불광사 동대전, 청룡사 동원 4호 만기 금당지의 규모는 각각 1.62×9.9m, 40.3×23.57m, 28.75×21.75m(넓이×폭)이고 남선사, 불광사 불단의 규모는 8.4×6.3×0.7m, 34.08×18.12×0.74m(넓이×깊이×높이)이다.⁴⁹⁾ 이는 상경성 제1사지 금당지와 불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작으며 제9사지 보다는 크다.

지금까지 발굴된 남북조시대 중국 불교사찰은 목탑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금당의 정확한 양상을 확인하기는 힘들다.⁵⁰⁾ 山西省 思遠佛寺, 河南省 永寧寺를 대표로 하는 남북조시대 불교사찰의 금당지의 평면은 장방형이지만 금당지 내부에서의 불단의 有無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도 22).⁵¹⁾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훈춘시 신생촌사지 건물지, 청룡사 동원 4호 후기 금당지, 불광사 동대전의 불단은 금당 중앙부에 위치하지만 평면이 장방형이거나 불명확하지만 남선사 대전 불단의 평면형태는 상경성 제1·9사지의 불단과 동일하게 ㄱ형이며 금당 중앙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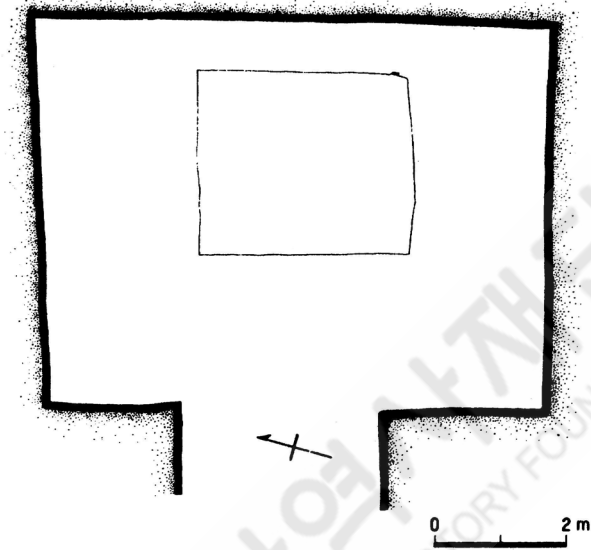
중국 내에 현존하는 南北朝時代~唐代的 불교사찰의 희소와 불교사원지에 대한 발굴의 未備는 발해 금당지와 비교자료로서는 부족하다. 그러나 다

48) 불광사의 창건연대는 北魏 孝文帝 478년이며 수당대에 번성하였으나 武宗 845년 廢佛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건축물이 소실되었다. 東大殿의 重建연대에 대해서는 856년설(肖雨, 1986, 「佛光寺的歷史」, 『五臺山研究』 3, 8쪽; 孫志虹, 2006, 「二唐寺, 瑰寶世間無一記山西南禪寺和佛光寺」, 『中華文化畫報』 8, 17쪽), 857년설(劉敦楨 主編, 1986, 『中國建築史』, 中國建築工業出版社, 91쪽; 山西省古建築保護研究所 編, 1984, 『佛光寺』, 文物出版社, 1쪽; 梁思成, 1999, 『中國建築史』, 百花文藝出版社, 105~106쪽)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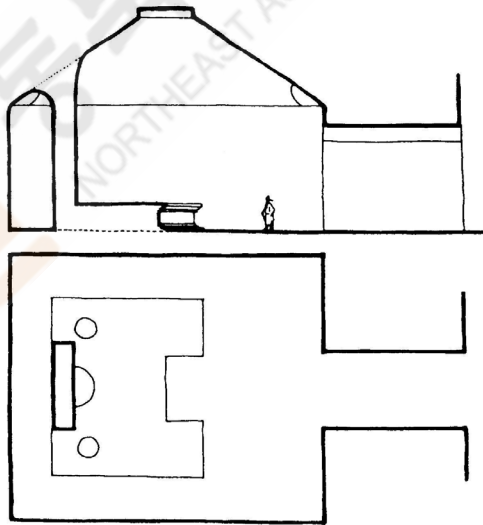
49) 남선사 대전의 규모와 불단의 크기에 대해서는 著書에 따라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이에 필자는 伊銘, 2007, 「大唐雙妹-南禪寺及佛光寺」, 『科學之友』 5, 34쪽의 규모내용에 의거하여 기술하였다. 柴澤俊, 1986, 「唐建佛光寺東大殿建築形制初析」, 『五臺山研究』 1, 17쪽; 楊鴻勛, 1984, 앞의 글, 383~400쪽.

50) 양은경, 2009a, 앞의 글, 151~153쪽.

51) 大同市博物館, 2007, 「大同北魏方山寺院佛寺遺址發掘報告」, 『文物』 4, 5~16쪽;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北魏洛陽永寧寺-1979~1994年考古發掘報告』,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136쪽.



〈도 23〉 龍門石窟 播鼓臺南洞 平面圖(龍門石窟保管所·北京大學考古系, 1992, 『中國石窟·龍門石窟(二)』, 文物出版社, 283쪽)



〈도 24〉 莫高窟 第98號窟(五代) 斷面圖와 平面圖(蕭默, 1989, 『敦煌莫高窟의 洞窟形制』, 『中國石窟·敦煌莫高窟(二)』, 文物出版社, 221쪽, 도 18a)

행히도 불교석굴의 수량은 아주 풍부하므로 발해 금당지와 비교를 시도하도록 하겠다.

석굴 내부의 중앙에 불단이 설치되는 것은 唐代부터인데, 龍門石窟 擂鼓臺 南洞이 대표적이다(도 23). 그런데 뇌고대 남동은 690~692년에 개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불단 위에 현존하는 大日如來像은 원래 이곳에 봉안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⁵²⁾ 돈황 막고굴 중 수대 581~588년에 개착된 것으로 비정되는 제305호굴 내부에 불단이 설치되기도 하지만 당시 성행한 석굴 구조는 아니었으며,⁵³⁾ 五代 제98(도 24)·100·108·146호굴과 北宋 초기의 제55·61호굴 등 923~1052년에 개착된 동굴에서 많이 확인된다.⁵⁴⁾

용문석굴 뇌고대 남동, 막고굴 제305호굴의 중앙에 설치된 불단의 평면형태는 방형이고 오대~북송 초기 막고굴의 불단은 ㄱ형을 이룬다. 상경성 제1·9사지 불전유적지의 불단은 막고굴 오대~북송대의 예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막고굴의 경우 불단 뒤쪽에 병풍식 장막이 설치된 형태는 상경성과 다르다.

중국 석굴 내부에 마련된 불단의 위치가 중앙이 아닌 좌, 우, 뒤쪽 벽면 아래에 설치된 것은 北齊 南響堂山 제4·6굴에서부터 확인되기 시작하여,⁵⁵⁾ 수대 駝山 제2굴, 龍洞를 비롯하여 당대에는 용문석굴 潛溪寺洞과 막고굴 제371·103·29·156굴 등 아주 성행하는 석굴구조를 형성한다.⁵⁶⁾

이처럼 상경성 제1·9사지의 금당, 불단의 위치와 평면형태는 중국 당대 690~692년의 용문석굴 뇌고대 남동, 782년 오대산 남선사 대전과 유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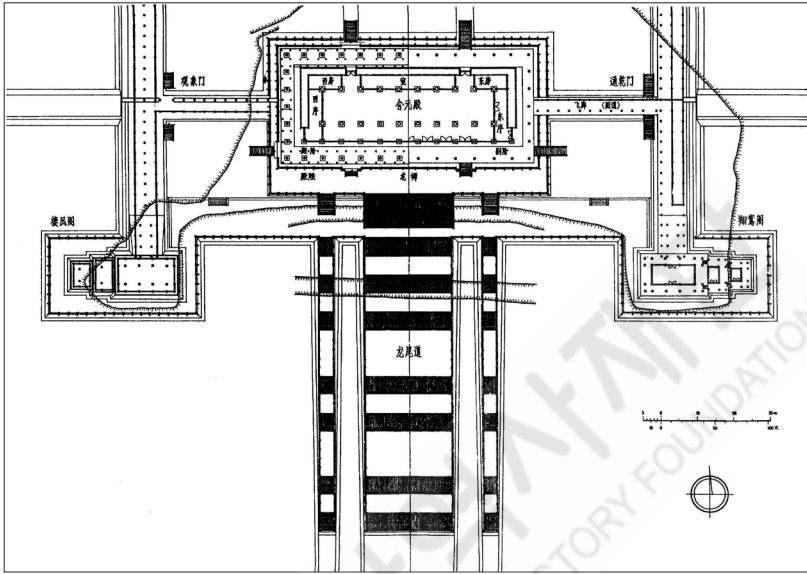
52) 溫玉成, 1992, 「龍門唐窟排年」, 『中國石窟·龍門石窟(二)』, 文物出版社, 31~32쪽.

53) 막고굴 수대 동굴에 대한 편년은 樊錦詩·關友惠·劉玉權, 1989, 「莫高窟隋代石窟分期」, 『中國石窟·敦煌莫高窟(二)』, 文物出版社, 171~186쪽; 梁銀景, 2004, 『隋代佛教窟龕研究』, 文物出版社, 85~100쪽을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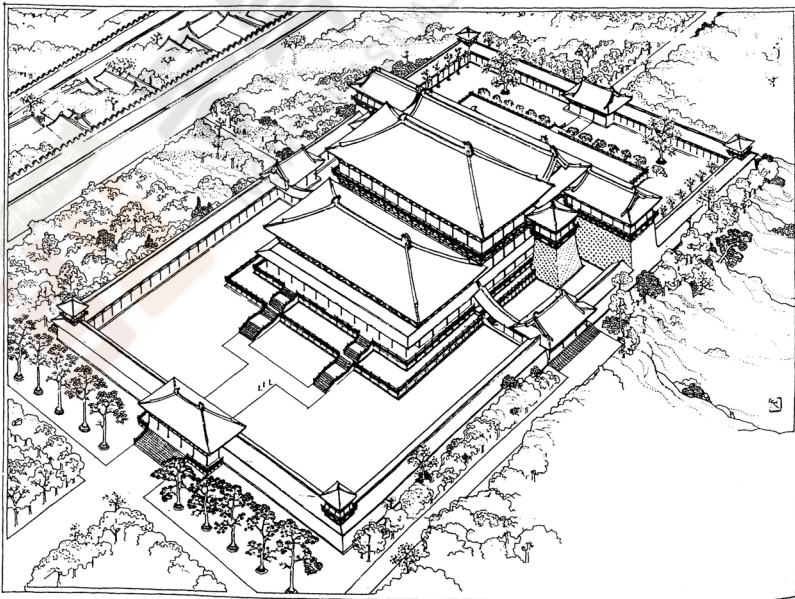
54) 蕭默, 1989, 「敦煌莫高窟的洞窟形制」, 『中國石窟·敦煌莫高窟(二)』, 文物出版社, 187~199쪽.

55) 閻文儒, 1951, 「莫高窟的石窟構造及其塑像」, 『文物參考資料』 4, 156~176쪽.

56) 양은경, 2003, 「中國 山東지역 隋代 佛教石窟과 摩崖造像」, 『講座美術史』 20, 200~204쪽.



〈도 25〉大明宮 含元殿 平面 復原圖(傅熹年, 1998, 「唐長安大明宮含元殿原狀의 探討」, 『傅熹年 建築史論文集』, 188쪽, 도 1)



〈도 26〉大明宮 麟德殿 復原圖(劉敦楨 主編, 1986, 앞의 책, 111쪽, 도 79-2)

막고굴 10세기 중반~11세기 중반 석굴과도 계승관계가 확인됨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경성 발해 사원지의 건축물은 중국 7세기 후반~8세기 후반의 석굴, 불교건축물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사실 상경성 제1·9사지의 ㄱ형 불단의 형태는 당대 長安城의 大明宮 含元殿의 기단 평면구조와도 유사성이 지적된다고 말할 수 있다. 662~663년 건립된 함원전은 본전과 좌우에 배치된 棲鳳閣, 翔鸞閣이 飛廊으로 불리는 회랑으로 연결되어 당시 장안성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이었다(도 25).⁵⁷⁾ 당대 장안성의 건축물들은 돈황 막고굴 벽화 속의 건축물과도 유사성이 지적되어 궁전 건축물이 사찰 건축물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⁵⁸⁾ 규모가 큰 사찰 건축물의 경우 당시 궁전 건축물과 비교하여 구조, 외관, 내부모습에서 동일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洛陽伽藍記』 卷1에서 永寧寺의 금당이 궁전의 太極殿과 동일하였다는 기록에서부터 이미 확인된다.⁵⁹⁾

더욱이 상경성 제1사지 금당의 本殿과 좌우에 배치된 東殿, 西殿의 전체적인 평면구조는 대명궁의 麟德殿과도 비교된다. 麟德연간(664~665)에 건립된 인덕전은 남북 중심축을 중심으로 3동의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로도 좌우측에 전각이 배치되었다(도 26). 이처럼 본전 좌우측에 배치된 配殿은 수대 막고굴 제433굴 벽화에서 보이기 시작한 이후,⁶⁰⁾ 당대 제 338·205·45·226굴 벽화 등 당대에 많이 확인된다. 상경성 제1사지 본전과 좌우 배전은 동일한 가로선상에 배치되어 있지만 중국의 배전은 본전 앞쪽, 뒤

57) 郭義孚, 1963, 「含元殿外觀復原」, 『考古』 10, 567~572쪽; 傅熹年, 1973, 「唐長安大明宮含元殿原狀的探討」, 『文物』 7, 30~48쪽(이 논문은 1998, 『傅熹年建築史論文集』, 184~206쪽에 재수록됨); 雷從雲·陳紹棣·林秀貞, 2008, 『中國宮殿史』, 百花文藝出版社, 153~159쪽.

58) 梁思成, 1993, 「我們所知道的唐代佛寺與宮殿」, 『敦煌吐魯番藝術叢書-敦煌建築』, 新疆美術攝影出版社, 3~8쪽; 金惠瓊, 2008, 「此岸과 彼岸의 만남: 敦煌 莫高窟의 〈西方淨土變〉에 보이는 건축 표현에 대한 一考」, 『미술사연구』 22, 37~41쪽.

59) “浮圖北有佛殿一所, 形如太極殿”(范祥雍 校注, 1999, 『洛陽伽藍記-校注』, 上海古籍出版社, 2쪽).

60) 宿白, 1997, 「隋代佛寺布局」, 『考古與文物』 2, 31~32쪽.

쪽, 동일한 선상 등 다양한 배치를 보이고 있다.⁶¹⁾

상경성 제5·6사지에서처럼 방형의 불단이 금당 중앙에 설치된 것은 중국의 7세기 말~8세기대 사찰 건축물, 석굴과 관련이 보이며 제1·9사지의 ㄱ형 불단이 설치된 예는 당나라 7세기대 궁전 건축물과 유사성이 확인되지만 8세기 후반~11세기 사찰 건축물, 석굴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낸다.

상경성 제4·5사지에서 출토된 소형 소조상(전불)의 양식이 下代 新羅 혹은 唐末五代시기로 편년될 뿐만 아니라,⁶²⁾ 기타 상경성 사원지에서 발견된 금동불, 석불상의 조각양식 역시 羅末麗初나 唐末五代로 비정되고 있다.⁶³⁾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상경성 발해 사원지는 상경성이 발해의 수도로 사용된 755~785년, 794~926년의 기간 중 마지막 수도로서 사용된 794~926년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음을 시사한다.

IV. 上京城 寺院址의 復原과 佛像 奉安 原形의 推定

상경성의 9개소 사원지 중 제1·4·5·6·9사지의 금당 건축물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당 내부의 불단의 모습, 불단 위쪽에 봉안된 불교조각상의 재질·종류, 불단 주위의 原狀에 대해 복원안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북한 학자 장상렬은 제1사지에 대해 유적 평면도와 출토 유물을 통해 外觀

61) 蕭默, 1993b, 「莫高窟壁畫にみえる寺院建築」, 『中國石窟·敦煌莫高窟(三)』, 平凡社, 196~198쪽.

62) 강희정, 2003, 「발해 후기의 불교조각과 신앙」, 『동양미술사학』 4, 23~37쪽; 林碩奎, 2004, 「東京大 所藏 渤海佛像의 現狀과 性格」, 『高句麗研究』 6(발해건국 1300주년), 학연문화사, 386~398쪽.

63) 文明大, 1999, 「渤海 佛教彫刻의 流派와 樣式 研究」, 『강좌 미술사』 14(高句麗·渤海 研究 II), 11~40쪽; 崔聖銀, 1999, 「渤海(698~926)의 菩薩像 樣式에 대한 考察」, 『강좌 미술사』 14(高句麗·渤海 研究 II), 55~66쪽.



〈도 27〉 上京城 第1寺址 佛殿 外觀 復原圖(장상렬, 1971, 『발해 건축의 역사적 위치-[부록] 몇 개의 발해건축에 대한 외관복원』, 『고고민속논문집』 3, 사회과학출판사, 179쪽, 그림 30)

의 복원안을 제시하였는데(도 27), 기단, 계단, 기둥과 두공, 지붕의 복원도는 신빙성이 있지만 벽에 소형의 소조상을 붙였다는 내용은 再考를 要하는 내용이다.⁶⁴⁾

우선 상경성 발해 사원지 중 발굴이 진행된 5개소 사원지의 불단, 불단 위의 초석, 불교조각상의 출토 여부, 벽화의 출토 여부에 대한 내용을 표로 작성하면 〈표 4〉와 같다.

〈표 4〉 上京城 渤海 寺院址의 佛壇, 礎石, 出土 佛像의 內容

寺院地名	佛壇(안간)			主佛像				小型塑造像			壁畫		
	壁體有無	佛壇사이空間有無	壁體構成	材質	種類	出土地點	配置方式	(塼佛)種類	出土地點	出土有無	內容	出土地點	
第1寺址	有	無	보조기 등+의 +진흙 +회칠	塑造	나발, 머리 카락, 손, 발, 옷주 름, 연화, 식물문	불단 주위	9존	無			有	裝飾文 불명확	

64) 장상렬, 1971, 앞의 글, 178~17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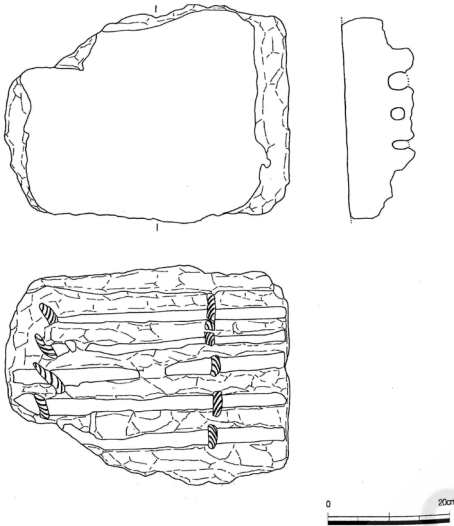
第4 寺址	有	有	불명확	塑造	나발, 옷주름, 연화, 천양, 수목, 장식물	불단 뒤쪽	불명확	有	불상, 보살상	불단 앞쪽	有	裝飾文	佛壇뒤쪽
第5 寺址	有	有	불명확	塑造	나발	불단 뒤쪽	7존(?)	有	불상, 보살상	불단 뒤쪽	有	불명확	
第6 寺址	有(?)	無	불명확	塑造	나발, 옷주름, 연꽃, 장식물	본존상 주위	15존(?)	無			有	裝飾文, 千佛	主尊佛 臺石 부근
第9 寺址	有	有	보조기 동+의 +진흙 +회칠	塑造	육계, 목, 목걸이장식	불단 주위	5존상	無			無		

〈표 4〉의 내용을 통해 제6사지의 불단(안간)의 벽체가 불명확한 것 이외에 나머지 4개소의 사원지는 불단에 벽체가 조성되었음이 발견된다. 더욱이 제 1·9사지의 불단(안간)의 주춧돌과 주춧돌 사이에는 보조기둥과 외를 견고하게 엮은 후 진흙을 바르고 이후 회칠로 미장하여 벽체를 완성하였다.

중국의 경우 안간은 아니지만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벽체를 橫防과 短柱, 진흙으로 조성한 기법은 漢代, 南北朝時代를 거쳐 唐代에도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⁶⁵⁾ 백제 扶蘇山寺址, 臨江寺址 벽체편을 비롯하여 帝釋寺廢棄場 출토 벽체편에서는 가장 안쪽에 대나무나 짚을 골조로 사용하여 조잡한 흙, 미세사립이 섞인 점토, 고운 점토를 바른 후 회칠을 한 제작기법이 확인되었다(도 28).⁶⁶⁾ 759년 건립된 일본 招提寺 金堂 역시 바깥칸의 벽체를 나무와 점토

65) 蕭默, 1976, 「敦煌莫高窟北朝壁畫中的建築」, 『考古』 2, 117쪽.

66) 金善基·趙相美, 2006, 『益山王宮里傳瓦窯址(帝釋寺廢棄場)－試掘調查報告書』, 圓光大學校 博物館·益山市, 202~226쪽; 국립부여박물관, 2009, 『扶餘 臨江寺址-1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국립부여박물관, 1~27쪽; 양은경, 2009b, 「百濟 扶蘇山寺址 出土品の 再檢討와 寺刹의 性格」, 『大百濟-백제의 숨결을 찾아서』, 동아시아국제학술포럼 발표논문집, 한국전통문화학교·(재)부여군 문화재보존센터, 374~376쪽.



(도 28) 帝釋寺廢棄場 出土 壁畫壁體片(金善基·趙相美, 2006, 『益山王宮里傳瓦窯址(帝釋寺廢棄場)一試掘調查報告書』, 圓光大學校 博物館·益山市, 222쪽, 圖面 158)

사립문[扇]으로 조성되었다(도 29).⁶⁷⁾

이처럼 상경성 제1·4·5·6·9사지 불전은 안간, 바깥칸으로 구별되고 바깥칸을 비롯한 안간에도 벽체가 설치된 것은 당대 불교사찰에서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1·9사지에서처럼 보조기둥, 외, 진흙으로 조성된 안간 벽체는 동시기 기타 예에서 쉽게 찾기 힘들었다. 더욱이 제4·5·9사

로 조성하였다.⁶⁷⁾ 결국 발해 상경성 사원지에서의 안간(불단)에 조성된 벽체의 제작기법은 삼국시대 백제에서 예가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한대~당대, 동시기 일본 사찰 건축물의 벽체에서도 보인다.

벽체의 벽체편은 안간, 바깥칸의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일본·중국은 일반적으로 바깥칸의 벽체 조성기법을 의미하고 있다. 불광사 동대전의 경우 불단(안간)에도 벽체가 조성되지만 발해와는 달리

67) 丁鳳平, 1992, 「略談我國佛光寺東大殿與日本招提寺金堂之異同」, 『文物季刊』 4, 35쪽.

68) 柴澤俊, 1986, 앞의 글, 17쪽. 이강근은 상경성 제1·9사지의 안간(불단)이 안간, 바깥칸으로 구분된 2중형식은 한국의 황룡사 중앙 금당을 필두로 하여 영암사지 금당, 화엄사 각황 등 6세기 말부터 10세기까지 유행했다고 하였고, 상경성 제1·9사지의 불단 앞쪽 □형으로 파서 공양석을 마련한 것은 특징이라고 하였다. 발해 사원지의 2중 금당 형식은 불교의례·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구려와 당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은 발해만의 특징으로 간주하고 있다(李康根, 1999, 앞의 글, 133~147쪽).

〈도 29〉 佛光寺 東大殿 안칸 사립문
壁體(中國美術全集編輯委
員會 編, 1988, 『中國美術全
集·彫塑編 4』 隋唐彫塑, 75
쪽, 사진 75)



〈도 30〉 莫高窟 第361窟 正面 佛壇(敦煌文物研究所 編, 1993, 『中國石窟·敦煌莫高窟(四)』,
平凡社, 사진 117)

지에서처럼 불단과 벽체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마련된 점 혹은 제9사지와 같이 보조기둥·외·진흙의 벽체가 인간의 네 면을 모두 둘러싼 예는 지금까지 비교대상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불단의 주위를 벽체로 둘러싼 형태는 병풍식 불감의 효과를 보여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형태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돈황 막고굴 제113·361(도 30)·46·156굴의 盛唐·中唐·晚唐시기 동굴의 가장 안쪽에 ㄱ형 불단에 불감을 안치한 후 벽체로 둘러싼 병풍식 형태는 전체적으로 발해 사원지의 예와 유사해 보이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상경성 제1·4·5·6·9사지 불단 주위에서 대형·중형의 소조상편들이 출토되었는데 종류는 나발, 보살상의 머리카락, 손, 발, 옷자락, 천왕 등 다양하다. 이러한 대형·중형의 소조상편들은 불단 위에 놓인 대좌석에 봉안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제1·4·5·6·9사지 불전의 주불상으로 봉안된 불교 조각상들의 재질은 소조상임을 알 수 있다. 불단 위에 설치된 대좌석의 수량에 의거해 제1사지에는 9존, 제9사지에는 5존상이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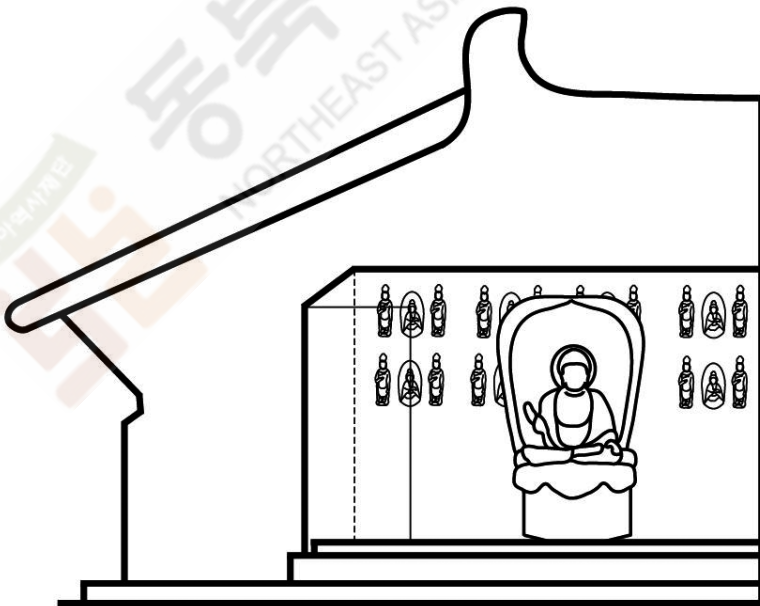
제1사지에는 중앙에 불상 1구, 좌우에 제자상 2구, 그 바깥쪽에 보살상 2구, 가장 외부에 천왕상 2구, 불상 앞쪽에 공양보살상 2구가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제9사지에는 중앙에 불상 1구, 그 좌우에 제자상 2구, 더욱 바깥쪽에 보살상 2구가 봉안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소형 소조상, 즉 전불이다. 전불은 제4·5사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고 토대사지(제3사지)에서도 수습되었다(도 31). 소조상의 종류는 불좌상과 보살입상이 주를 차지한다. 불좌상과 보살입상은 구조틀에서 찍어 내었기 때문에 양식은 거의 동일하고 높이는 10cm 이하가 많다.

제4·5사지에서 출토된 소형 소조상의 제작기법이 구조틀에 찍어낸 것이라는 사실과 그 종류가 불좌상, 보살입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내용은 고구려 원오리사지 출토 소형 불좌상, 보살입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원오리 소형 소조상은 원래 목탑 내부 중앙에 설치된 불감 주위에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높



〈도 31〉 上京城 土臺子寺址 出土 小型 塑造像(서울대학교박물관, 2003, 앞의 책, 38쪽, 사진 5)



〈도 32〉 上京城 渤海 寺院址 出土 小型 塑造像의 奉安處 推定案 1(필자 작성)

다는 복원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므로,⁶⁹⁾ 발해 상경성 제4·5사지 불전에서 출토된 소형 소조상과는 봉안장소에서 차이가 난다.

제4·5사지에서 출토된 소형 소조상은 과연 어디에 봉안되었을까? 소형 소조상들의 밑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철못이 꽃혀 있기 때문에 흔히 벽의 감실에 꽂아 봉안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⁷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벽의 감실은 불전 바깥칸의 벽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안칸의 병풍식 벽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비록 제4·5사지보다 시기가 조금 떨어지지만 중국의 당대 불광사의 2중벽체, 遼代 華嚴寺 2중벽체 등의 불전에서 불교조각상이 바깥칸에 부착되어 있는 예는 없기 때문에 바깥칸은 조심스럽게 배제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안칸의 병풍식 벽체의 불감에 소형 소조상이 꽃혀 봉안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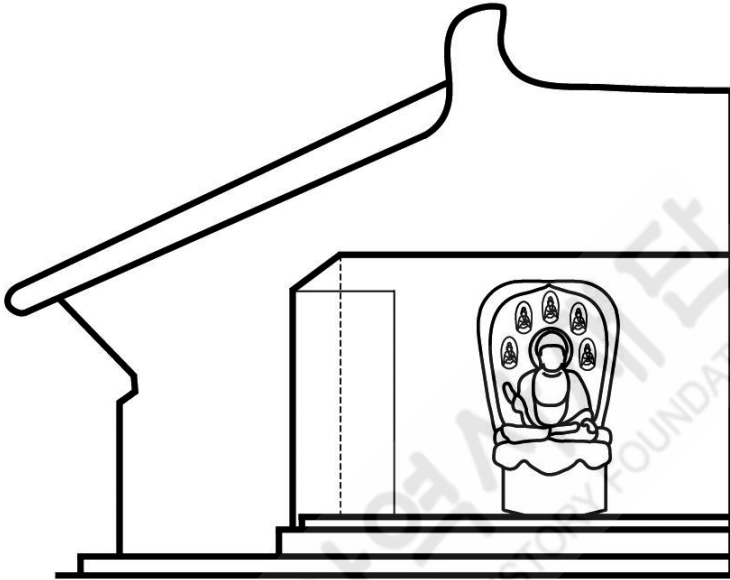
소형 소조상의 봉안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안칸 벽면에 부착되었을 가능성(도 32), 둘째는 주불상의 광배에 꽃힌 화불이었을 가능성(도 33), 셋째 별도의 공간에 마련된 단 위에 안치되었을 가능성(도 34)이다. 제4사지에서는 불좌상 이외에 보살입상도 많은 수량으로 출토되었기 때문에 화불이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므로 두 번째 추정안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의 안칸 벽면에 부착되었을 가능성이다. 제1·4·6사지에서 출토된 벽화벽체편의 내용은 장식문 혹은 천불이고, 출토지점은 불단 뒤쪽 혹은 주존불상 대좌 부근이다. 바깥칸에도 벽화가 그려진 경우가 있었지만 상경성 제4·6사지에서 출토된 벽화편은 안칸에 그려진 벽화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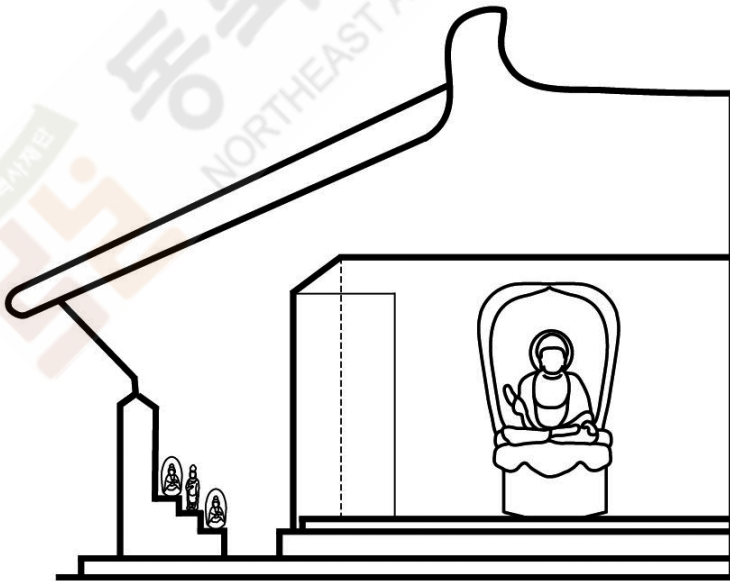
당대 돈황 막고굴의 불단굴의 경우 初唐시기(618~712)에는 주불상 주위의 불감 벽면에 本生談, 佛傳圖가 그려지지만 盛唐시기(712~781)에는 본생담, 불전도가 사라지고 보살상, 장식문양, 불좌상이 주되게 등장하며 屏風畫로서 구

69) 양은경, 2009c, 「고구려 소조불상과 중국 소조불상의 관계」, 『동북아역사논총』 24, 339~384쪽.

70) 東亞考古學會, 1939, 앞의 책, 72~73쪽; 장상렬, 1976, 앞의 글, 179쪽; 車玉信, 1990, 앞의 글, 57~58쪽.



〈도 33〉 上京城 渤海 寺院址 出土 小型 塑造像의 奉安處 推定案 2(필자 작성)



〈도 34〉 上京城 渤海 寺院址 出土 小型 塑造像의 奉安處 推定案 3(필자 작성)

획이 나뉘어지기도 한다. 中唐(781~848)과 晚唐시기(848~907)에는 보살, 천불도, 장식문양이 주요하게 그려진다.⁷¹⁾

막고굴 당대 석굴의 주불상 주위에 설치된 안칸의 벽면에 장식문양, 천불도 등이 그려진 내용은 상경성 제1·4·5사지에서 출토된 벽화편에 장식문양, 천불도가 그려진 것과 동일하다. 만일 안칸 벽면에 천불도가 그려졌다면 소형 불좌상, 보살상이 다시 이곳에 꽂혀지기에는 다소 부적합해 보인다. 그러나 막고굴 당대 석굴에서처럼 천불도가 안칸의 벽면과 천장 사이의 공간에 마련되었다고 가정하면 두 번째 추정안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소형 불상, 보살상이 안칸의 벽면 하부와 천장 사이의 공간에 안치되었다는 내용이다(도 32).

마지막으로 소형 소조상이 세 번째 추정안처럼 별도의 공간에 안치되었을 가능성이다(도 34). 제4·5·9사지의 불단과 불단벽면 사이에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넓이는 각각 0.8, 0.5, 0.5m이다. 또한 안칸과 바깥칸 사이 공간의 넓이는 각각 3.0, 3.5, 2.5m이다.

중국 불광사 동대전 내부의 안칸과 바깥칸 사이의 공간에는 3층의 磚壇을 설치한 후 불단 위쪽에 오백나한 소조상을 안치하였다.⁷²⁾ 불광사의 예를 상경성 제4·5사지 불전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제4·5사지에서 출토된 소형 불좌상, 보살입상은 안칸과 바깥칸 사이의 공간에 마련된 단 위쪽에 안치되게 된다. 더욱이 소형 불좌상과 보살입상의 밑면에는 구멍이 뚫려 있으므로 나무, 철제 등의 골조가 있었음을 반영하므로 이 골조를 이용하여 흙단에 부착하였을 것이다. 제4·5사지에는 불광사와는 달리 안칸 내부에서도 불단과 벽면 사이에 공간이 있으므로 이곳에 단이 마련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다.

71) 敦煌文物研究所, 1987, 『中國石窟·敦煌莫高窟(三)』, 文物出版社, 222~237쪽; 敦煌文物研究所, 1993, 『中國石窟·敦煌莫高窟(四)』, 平凡社, 222~237쪽.

72) 柴澤俊, 1986, 앞의 글, 17쪽.

V. 맺음말

지금까지 渤海 上京城 佛教寺院址의 調査와 佛像 奉安 原形의 復原에 대해 살펴 보았다.

우선 II 장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상경성 寺院址에 대해 소재지, 발굴과 시굴연대, 조사기관, 조사대상, 구체적인 조사내용, 출토유물에 대해 종합·정리하였다. 특히 1933·1934년 발굴된 제4·5·6사지와 1964년 발굴조사된 제1·9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언급하였다. 기존 학계에서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寺院址名, 소재지, 건물지 크기, 출토유물의 출토지점, 출토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종합·정리하였다.

III 장에서는 金堂, 佛壇을 통한 上京城 佛教寺院의 建立年代에 대해 살펴 보았다. 상경성 제5·6사지에서처럼 방형의 불단이 금당 중앙에 설치된 것은 중국의 7세기 말~8세기대 사찰 건축물, 석굴과 관련이 보이며 제1·9사지의 ㄱ형 불단이 설치된 예는 당나라 7세기대 궁전 건축물과도 유사성이 확인된다. 더욱이 8세기 후반~11세기 사찰 건축물, 석굴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보였다.

더욱이 상경성 제4·5사지에서 출토된 소형 소조상(전불)의 양식이 下代 新羅 혹은 唐末五代시기로 편년될 뿐만 아니라, 기타 상경성 사원지에서 발견된 금동불, 석불상의 조각양식 역시 羅末麗初나 唐末五代로 비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상경성 발해 사원지는 상경성이 발해의 수도로 사용된 755~785년, 794~926년의 기간 중 마지막 수도로서 사용된 794~926년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음을 시사한다.

IV 장에서는 상경성 사원지의 復原과 불상의 奉安에 대해 推定案을 제시하였다. 상경성 불전 내부에서의 불상의 봉안원형과 공간조성에 대해 동시기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복원안을 추정해 보았다. 제1·9사지의 불단(안칸)에 마련된 벽면은 보조기둥과 외, 진흙을 바르고 회칠로 미장하여 벽체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안칸(불단) 벽체의 제작기법은 삼국시대 백제에서 예가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한대~당대, 동시기 일본 사찰 건축물의 벽체에서도 보인다.

상경성 제1·4·5·6·9사지 금당은 안칸, 바깥칸으로 구별되고 바깥칸을 비롯한 안칸에도 벽체가 설치된 것은 唐代 불교사찰에서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1·9사지에서처럼 보조기둥·외·진흙으로 조성된 안칸 벽체는 동시기 기타 예에서 쉽게 찾기 힘들었고 더욱이 제4·5·9사지에서처럼 불단과 벽체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마련된 점 혹은 제9사지와 같이 보조기둥·외·진흙의 벽체가 안칸의 네 면을 모두 둘러싼 예는 지금까지 비교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제1·4·5·6·9사지 불단 주위에서 출토된 대형·중형의 소조상편들을 통해 불대석에 봉안된 주불상과 협시상은 소조상이라고 추정하였다. 또한 제4·5사지에서 출토된 소형의 소조상(전불)들의 원래 봉안처에 대해서는 주불상 광배에 부착된 화불, 안칸 벽면에 꽃혀졌을 가능성, 안칸과 바깥칸 사이 혹은 안칸의 벽면과 불단 사이의 공간에 안치되었다는 세 가지 추정안을 제시하였다.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두 번째, 세 번째 추정안이 설득력 있었고, 특히 세 번째 추정안, 즉 따로이 마련된 불단에 전불이 안치되었다는 내용이 더욱 原狀에 가깝다고 추론하였다.

참고문헌

〈저서〉

- 국립부여박물관, 2009, 『扶餘 臨江寺址-1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 국립부여 박물관.
- 金善基·趙相美, 2006, 『益山王宮里傳瓦窯址(帝釋寺廢棄場)-試掘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博物館·益山市.
- 雷從雲·陳紹棣·林秀貞, 2008, 『中國宮殿史』, 百花文藝出版社.
- 敦煌文物研究所, 1987, 『中國石窟·敦煌莫高窟(三)』, 文物出版社.
- 敦煌文物研究所, 1993, 『中國石窟·敦煌莫高窟(四)』, 平凡社.
- 東亞考古學會, 1939, 『東京城-渤海國上京龍泉府址の發掘調査』, 東亞考古學會.
- 방학봉, 1992, 『발해유적과 그에 관한 연구』, 연변대학출판사.
- 方學鳳, 2000, 『中國境內 渤海遺蹟研究』, 백산자료원.
- 方學鳳 著, 朴相侂 編譯, 1998, 『渤海의 佛教遺蹟과 遺物』, 書景文化社.
- 范祥雍 校注, 1999, 『洛陽伽藍記-校注』, 上海古籍出版社.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조선고고학전집 41(중세편 18)-발해의 성곽과 건 축』, 진인진.
- 山西省古建築保護研究所 編, 1984, 『佛光寺』, 文物出版社.
- 서울대학교박물관, 2003, 『해동성국 발해』, 서울대학교박물관.
- 梁思成, 1999, 『中國建築史』, 百花文藝出版社.
- 梁銀景, 2004, 『隋代佛教窟龕研究』, 文物出版社.
- 劉敦楨 主編, 1986, 『中國建築史』, 中國建築工業出版社.
- 이병건 편저, 2003, 『발해 건축의 이해』, 백산자료원.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1, 『조선유적유물도감』 8-발해, 조선유적유물도감편 찬위원회.
-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중국 동북지방의 유적발굴 보고(1963~1965)』, 사회과 학원출판사.
- 朱國悅·金太順·李硯鐵, 1996, 『渤海故都』, 黑龍江人民出版社.
- 朱國忱·朱威, 2002, 『渤海遺迹』, 文物出版社.
- 주영현, 1971, 『발해문화』, 사회과학출판사.

- 中共寧安市委宣傳部·寧安市文學藝術界聯合會, 2000, 『鏡泊湖畔歷史文化名城—寧安』, 哈爾濱地圖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北魏洛陽永寧寺—1979~1994年考古發掘報告』,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7, 『六頂山與渤海鎮—唐代渤海國的貴族墓地與都城遺址』,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1998~2007年度考古發掘調查報告—渤海上京城』上册, 文物出版社.

(논문)

- 강희정, 2003, 「발해 후기의 불교조각과 신앙」, 『동악미술사학』 4.
- 郭義孚, 1963, 「含元殿外觀復原」, 『考古』 10.
- 김중혁·김지철, 1989, 「신포시 오매리 금산발해건축지 발굴중간보고」, 『조선고고연구』 2.
- 김중혁·김지철, 1990, 「신포시 오매리 절골1호발해건축지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
- 金惠瑗, 2008, 「此岸과 彼岸의 만남: 敦煌 莫高窟의 〈西方淨土變〉에 보이는 건축 표현에 대한 一考」, 『미술사연구』 22.
- 丹化沙, 1988, 「渤海上京近年發現的重要文物和遺迹」, 『遼海文物學刊』 2.
- 大同市博物館, 2007, 「大同北魏方山寺院佛寺遺址發掘報告」, 『文物』 4.
- 陶剛·王祥濱, 1999, 「寧安興隆寺大雄寶殿基址發掘」, 『北方文物』 2.
- 文明大, 1999, 「渤海 佛教彫刻의 流派와 樣式 研究」, 『강좌 미술사』 14(高句麗·渤海 研究 II).
- 박운배, 2008, 「발해 불교건축」, 『부산대학교 북방연구회 발표자료집』.
- 樊錦詩·關友惠·劉玉權, 1989, 「莫高窟隋代石窟分期」, 『中國石窟·敦煌莫高窟(二)』, 文物出版社.
- 傅嘉年, 1973, 「唐長安大明宮含元殿原狀的探討」, 『文物』 7.
- 蕭默, 1976, 「敦煌莫高窟北朝壁畫中的建築」, 『考古』 2.
- 蕭默, 1989, 「敦煌莫高窟的洞窟形制」, 『中國石窟·敦煌莫高窟(二)』, 文物出版社.
- 蕭默, 1993, 「莫高窟壁畫にみえる寺院建築」, 『中國石窟·敦煌莫高窟(三)』, 平凡社.
- 蕭默, 1993, 「莫高窟壁畫にみえる寺院建築」, 『中國石窟·敦煌莫高窟(四)』, 平凡社.
- 孫志虹, 2006, 「二唐寺, 瑰寶世間無—記山西南禪寺和佛光寺」, 『中華文化畫報』 8.
- 宿白, 1997, 「隋代佛寺布局」, 『考古與文物』 2.

- 梁思成, 1993, 「我們所知道的唐代佛寺與宮殿」, 『敦煌吐魯番藝術叢書-敦煌建築』, 新疆美術攝影出版社.
- 양은경, 2003, 「中國 山東지역 隋代 佛教石窟과 摩崖造像」, 『講座美術史』 20.
- 양은경, 2009a, 「中國 佛教寺刹의 검토를 통해 본 百濟 泗泚期 佛教寺刹의 諸問題」, 『百濟研究』 50.
- 양은경, 2009b, 「百濟 扶蘇山寺址 出土品の 再檢討와 寺刹의 性格」, 『大百濟-백제의 숨결을 찾아서』, 동아시아국제학술포럼 발표논문집, 한국전통문화학교·(재)부여근문화재보존센터.
- 양은경, 2009c, 「고구려 소조불상과 중국 소조불상의 관계」, 『동북아역사논총』 24.
- 楊鴻勳, 1984, 「唐長安青龍寺密宗殿堂(遺址4)復原研究」, 『考古學報』 3.
- 閻文儒, 1951, 「莫高窟의 石窟構造及其塑像」, 『文物參考資料』 4.
- 寧安縣文物管理所·渤海鎮公社土臺子大隊, 1978, 「黑龍江省寧安縣出土의 舍利函」, 『文物資料叢刊』 2.
- 溫玉成, 1992, 「龍門唐窟排年」, 『中國石窟·龍門石窟(二)』, 文物出版社.
- 왕림안·고민 저, 윤현철 역, 1999, 「발해의 상경유지에서 두번째 사리함이 출토」, 『발해사연구』 8.
- 貞安志, 1989, 「中國古代建築의 瑰寶-南禪寺與佛光寺彩塑藝術分析」, 『文博』 5.
- 魏存成, 1984, 「渤海的建築」, 『北方文物』 4.
- 李康根, 1999, 「渤海 上京 龍泉府의 寺院建築」, 『강좌 미술사』 14(高句麗·渤海 研究 II).
- 伊銘, 2007, 「大唐雙妹-南禪寺及佛光寺」, 『科學之友』 5.
- 林碩奎, 2004, 「東京大 所藏 渤海佛像의 現狀과 性格」, 『高句麗研究』 6(발해건국 1300주년), 학연문화사.
- 柴澤俊, 1986, 「唐建佛光寺東大殿建築形制初析」, 『五臺山研究』 1.
- 張國慶·李濟瑩, 2001, 「渤海上京寺廟遺址調查」, 『渤海上京文集』 第一集, 渤海上京遺址博物館.
- 장경국 저, 방학봉 역, 1996, 「발해상경절터현황에 대한 조사」, 『발해사연구』 7.
- 장상렬, 1971, 「발해 건축의 역사적 위치-[부록] 몇 개의 발해건축에 대한 외관복원」, 『고고민속논문집』 3.
- 장상렬, 1992, 「발해의 건축」, 『발해사연구논문집』 1.
- 丁鳳平, 1992, 「略談我國佛光寺東大殿與日本招提寺金堂之異同」, 『文物季刊』 4.

- 무乙女雅博, 2003, 「발해 동경성의 발굴」, 『해동성국 발해』, 서울대학교박물관·영남대학교박물관.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西安工作隊, 1974, 「唐青龍寺遺址發掘簡報」, 『考古』 5.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西安唐城發掘隊, 1964, 「唐青龍寺遺址踏察記略」, 『考古』 7.
- 中國社會科學院考古所西安唐城隊, 1989, 「唐長安青龍寺遺址」, 『考古學報』 2.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西安唐城工作隊, 1990, 「唐長安西明寺遺址發掘簡報」, 『考古』 1.
- 肖雨, 1986, 「佛光寺的歷史」, 『五臺山研究』 3.
- 崔聖銀, 1999, 「渤海(698~926)의菩薩像樣式에 대한考察」, 『강좌 미술사』 14(高句麗·渤海 研究 II).
- 한용걸, 1992, 「발해건축의 고구려적성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
- 한인호, 1997, 「금호지구 오매리절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

[ABSTRACT]

A building history into Buddhist temple sites and restoration
of Buddhist images enshrinement in Sanggyongsong of
Balhae

Yang, Eungyeng

The mainstream of scholarly discussion on the investigation of the buddhist temples and restoration of Buddhist images enshrinement on Sanggyongsong City of Balhae was carried out.

In Chapter II, I arrange synthetically about the location of the Sanggyongsong City buddhist temples that were excavated up to the present, the year of excavation and trial pits, research institutions, research objects, definite contents and excavated materials. Especially, I mention the specific substances about the 4·5·6 temple sites which were excavated in 1993·1994 and the 1·9 temple sites which were excavated in 1964. I also arrange collectively the names of the temple site, locations, the size of the buildings, the spots of excavated materials and the excavated circumstances to colligate things which were mixed through the academic world.

In Chapter III, I observe the Building history of Sanggyongsong City buddhist temples through Buddhist altars and shrines.

Like the 5·6 temple sites, the Buddhist altar of square on the middle of the Buddhist shrine is similar to temple structures and stone caves of the late of 7~8C in China. The Buddhist alter of □ style in the 1·9 temple sites is similar to palace structures of the 7C in Tang

Dynasty, but they are directly connected with the temple sites and stone caves of the late of 8 ~ 11C.

Furthermore in the 4·5 temple sites, the style of small modeling is in the latter period of Silla or the latter period of Tang and Five dynasty, and also the gilt bronze statue of the Buddha and the style of the stone statue of the Buddha which were excavated in other Sanggyongsong City temples are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the late Silla and the early Koryo period. Namely, the temple site of Sanggyongsong City in Balhae was possibly established during 794~926 during the period of the last capital.

In Chapter IV, I present assumption proposals for the buddhist temples and restoration of Buddhist images enshrinement, and I assume some restoration proposals about prototype enshrinement and space formation through comparison with China for the same period. The wall inside the Buddhist altar of the 1·9 temple sites is made with plaster composed of mud and lime, and supportive poles. Those techniques for plastering wall were confirmed in Paekcke of the Three period kingdom, in Han and Tang dynasty of China, and also in Japanese temple sites.

The 4·5·6·9 temple sites are separated into interior and exterior partitions, and the structural walls are established in the both partitions, those are similar to the temple sites in Tang Dynasty. However it is hard to find similarities with the 1·9 temple sites which have structural walls that are composed with supportive pole, structural walls which were made by mud, furthermore it is also hard to find the comparative objects. Like the 4·5·9 temple sites, empty space between the buddhist altar and structural walls, and the 9 temple sites has specific composition of the interior partition which are covered on 4 sides with supportive pole·structural walls which were made by mud.

I assume that the main buddhist images and assistant buddhist images that were enshrined on pedestals are molded statues, this is confirmed by the pieces of large and middle size molded statues which were excavated in the buddhist altar around the 1·4·5·6·9 temple sites. Also I indicate three assumption proposals about the original enshrinement spots of small molding statues in the 4·5 temple sites – a Buddhist image which was sticking on halo of main buddhist images, the possibility to stick interior partition walls, and between the interior and the exterior partition or between wall of the interior partition and the buddhist altar. In comparison with chinese examples, the second and the third assumption proposals are persuasive, especially I inference the third one, namely the molding statues were enshrined on independent buddhist altar, is closer to the original state.

keywords

Buddhist temple sites, Buddhist image, Sanggyongsong Castle, Balhae, molding statue

발해 상경성 출토 사리구의 구성과 특징

이송란 | 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I. 머리말

산스크리트어인 사리라(sarīra)의 음역인 쉰리는 본래 骨組·體身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통상 釋迦佛의 유해인 부처님의 머리나 머리카락 등의 불사리를 의미한다.¹⁾ 석가가 입멸 후 사리 분배가 이루어진 연후에 사리를 봉안한 10탑이 건립되었다. 초기 경전의 하나인 팔리어로 된 『小乘涅槃經』의 내용과 인도에서의 발굴성과들로 보았을 때 인도에서 초기 10탑의 건립은 어느 정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인도의 사리 신앙은 불교의 동점과 함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리 신앙의 요체는 같지만 불탑의 건립과 사리구의 형태는 각국의 문화 취향과 공예구조를 반영하는 점이다. 사리를 담은 사리용기는 당시 최고의 재질과 공예기술로 제

※ 투고일: 2010년 1월 27일, 심사일: 2010년 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0년 2월 28일.
1) 中村元·久野健 監修, 2002, 『佛教美術事典』, 東京: 東京書籍, 411쪽.

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의 사리구는 시대와 지역에 따른 특징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발해 상경성에서 출토된 사리구를 살펴보려 한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발해에서 모두 6세트의 사리구가 확인된 바가 있다.²⁾ 이 중 연구자료가 되는 것은 1975년 봄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土臺子村에서 출토된 석제함·평탈漆函·동제함·금동제함·은제함·금제함·유리제병으로 구성된 7중 사리함과 1997년 발해진 白廟子村에서 출토된 석제함·철제함·동제함·평탈칠함·금동제함·은제함·유리제병으로 구성된 7중 사리함이다. 英城古城寺址와 安圖縣 亮兵士鄉의 사리기는 출토 정황과 사리기의 모습에 대해서 文物志에 간단히 서술되어 있으나 실물은 남아 있지 않다.³⁾ 1972년 흑룡강성 東寧에 위치한 大城子古城에서는 장방형의 금동제사리함이 출토된 바 있다.⁴⁾ 다시 이곳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동합이 들어 있는 사리공이 확인된 바 있다.

발해 상경성 출토 사리구에 대한 연구는 기록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출토지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데 문제가 있다. 또한 사리기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구성을 복원할 수 없는 것도 연구를 용이하지 않게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의 사리구와 중국 수당대 사리구 그리고 발해 사리구를 교차하여 비교 연구하는 방법으로 발해 사리기의 성격을 찾아보려고 한다. 더불어 발해 사리기에 반영된 발해 공예의 특징을 잡아낸다면 미흡하나마 발해 사리구의 의의와 특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

-
- 2) 梓筠, 1979, 「寧安縣發現的唐代舍利函」, 『學習與探索』 第4期, 196~291쪽; 孫秀仁, 1979, 「唐代渤海的佛像和舍利函」, 『黑龍江古代文物』, 黑龍江人民出版社; 丹化沙, 1978, 「黑龍江寧安出土的舍利函」, 『文物資料叢刊』 第2期, 196~201쪽; 方學鳳·朴相份, 1998, 『渤海的佛教遺蹟과 遺物』, 書景文化史, 194~195쪽; 金太順, 1998, 「上京龍泉府와 새로 발굴된 舍利函」, 『高句麗研究』 6, 高句麗研究會, 274~276쪽; 주경미, 2003a,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430~431쪽; 徐秀云, 2008, 「渤海故地再次發現舍利函」, 『北方文物』 第2期, 16쪽.
- 3) 龍井縣文物志編寫組, 1984, 『龍井縣文物志』, 58~59쪽; 安圖縣文物志編寫組, 1985, 『安圖縣文物志』, 32쪽.
- 4) 張太濡, 1981, 「大城子古城調查記」, 『文物資料叢刊』 第4期, 223~227쪽.

로 기대한다.⁵⁾ 나아가 그간 논의가 되어 왔던 상경성 출토 사리구의 구체적인 연대 추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II. 발해 사리구의 출토 위치와 양상

고구려의 옛 정토를 대부분 차지했던 발해는 926년 거란에게 멸망당할 때 까지 228년 동안 5경을 중심으로 4번의 천도를 단행했다. 天寶 연간(742~756)에는 구국에서 중경으로 이동하고 문왕은 756년 다시 상경성으로 천도했다. 이때가 발해의 국력이 신장되고 왕권이 강화된 시기로 알려진다. 785년에서 793년 사이에 상경을 떠나 동남쪽의 동경으로 천도했다. 793년 5대 성왕은 즉위와 함께 상경으로 돌아왔다. 이때 상경으로의 환도를 뒷받침한 것은 8세기 말 문왕을 중심으로 상경 지역에 기반을 가진 세력 ‘國人’층으로 연구되고 있다. 상경성은 926년 멸망할 때까지 수도의 역할을 했다.⁶⁾ 상경성은 발해가 대외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시기의 수도인 셈이다.

이제까지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6세트의 사리구 중에서 실물이 남아 있는 것은 모두 4세트이다. 이 중 상경성에서 출토된 것은 1975년 봄 黑龍江省 寧安市 渤海鎮 土臺子村과 1997년 黑龍江省 寧安市 渤海鎮 白廟子村에서 출토된 2세트이다. 우선 상경성 내의 이들 사리구의 출토 지점과 상황을 알아보는 것은 발해 사리기 성격과 특징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발해의 사리구가 출토된 유적에 대한 이해와 사리기 매납 장소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중국의 사리기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주경미, 2003b, 「중국 불사리 장엄의 연구 현황과 과제」, 『中國史研究』 26輯, 중국사학회, 345~376쪽.

6) 송기호, 1995, 『발해정치사연구』, 일조각, 116~125쪽;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2, 『발해의 유적과 유물』, 서울대학교출판부, 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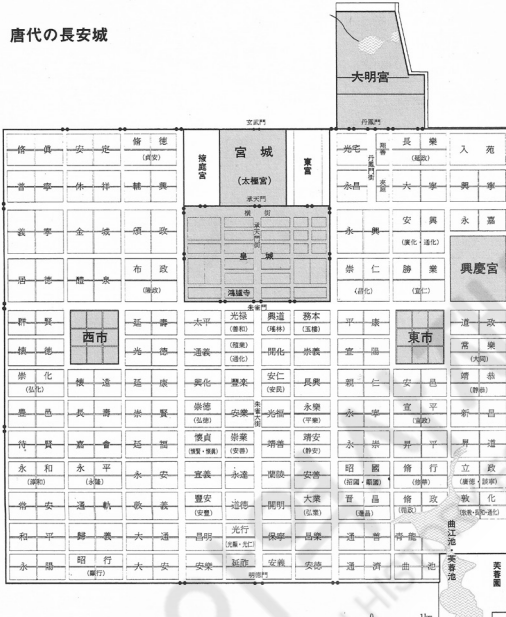
〈도 1〉 상경성 평면도(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발해의 역사와 문화』, 258쪽)

전체 둘레 16km가 넘는 장방형 평지성인 상경성은 1930년대 일본인 학자들이 발굴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중국과 북한의 연합 고고대가 대대적으로 발굴한 이래 1980년대 중국 흑룡강성의 고고학자들이 상경성의 궁성유적과 관청터를 재차 발견하여 내성·외성·궁성 등 3겹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다(도 1).⁷⁾ 石心土築 기법으로 건축된 외성은 동벽과 서벽은 3.4km, 남벽과 북벽은 각각 4.9km로 남북이 더 길다. 외성의 밖에는 해자가 둘러져 있다.

외성 내부의 북부지역의 서쪽 지점에는 전체 둘레 4km에 달하는 내성이 있다. 石城인 내성 안의 北內苑 남쪽과 동서 內苑 중간에 궁성이 있다. 내원은 궁성에 부속된 시설로 발해 왕실이 사용한 특수 공간이다. 궁성 내에서는 7개의 궁전이 발견되었다.⁸⁾ 상경성에서 사찰지는 대부분 외성 지역에 있는데, 전

7) 陳顯昌, 1980, 「唐代渤海上京龍泉府遺址」, 『文物』 第9期;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발해의 역사와 문화』, 258~262쪽; 宋玉彬, 2009, 「渤海都城址研究」, 『考古』 第6期, 40~49쪽.

8) 1930년대의 일본인 학자들은 6호의 궁전으로 파악했으나 1970년대 출판된 『渤海簡史』에서 7호의 궁전으로 바로잡혔다. 王承禮 저, 송기호 역, 1987, 『발해간사』, 한



〈도 2〉 장안성 평면도(福岡市博物館·陝西歴史博物館, 1996. 『遙かなる長安金銀器と建築裝飾展』 37쪽)

체적으로 동쪽 구역과 동서로 마주하고 있다. 사찰지는 기본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분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정한 규칙은 도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경성은 기본적으로 중국 당의 장안성이나 일본 나라의 평성경과 같이 거리는 정연한 바둑판 모양이고 종횡기는 직각으로 교차되어 있다(도 2). 격자형의 가로구획방식은 이미 6~7세기 동아시아 도성제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파악된다.⁹⁾ 먼저 고구려 장안성을 살펴보면, 도시구획의 흔적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동서장방형인지 혹은 정방형인지의 논의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격자형의 가로구획 방식을 택했던 것에는 이견이 없다.¹⁰⁾ 신라 왕경의 경우는 전체

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48쪽.

9) 일정한 면적의 坊으로 도시 전체를 구획한 것은 北魏 洛陽城이 처음으로 알려진다.

10) 리화선, 1989, 「고구려 평양성외성안의 리방의 형태와 규모 그 전개에 대하여」,

의 왕경은 동서로 긴 장방형의 방으로 구획된 가운데 황룡사지 주변은 정방형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¹¹⁾ 격자형의 가로구획 방식이 이미 6~7세기부터 등장한 이래, 동아시아의 왕경들은 자신들이 처한 지형적인 위치와 특징에 따라 이를 조금씩 변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발해 상경성의 경우 사찰지의 위치와 편년 등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중앙대로이다. 내성의 남문과 외성의 중앙 남문 사이에 너비가 110m에 달하는 중앙대로가 조성되었다. 상경성의 사찰지는 이 길을 마주하고 분포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리구가 출토된 토대자촌은 궁정 내원의 동쪽 사찰지에 속한다.¹²⁾ 토대자촌 인근에는 6기의 비교적 높은 흙 기단이 확인되었다. 바로 이 6기의 흙 기단이 사원 기단부로 비정된 바 있다. 또한 이 근방에서 소형의 니제 불상들과 동계불상 등 불교 관계 유물들이 다수 발견된 바 있어 사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리함은 토대자촌에서 남쪽으로 100여 m 떨어진 경작지에서 발견되었다.¹³⁾ 주위의 100m에는 지면에서 올라온 흔적이 있어 기단이나 건축 유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사리함은 잡석으로 지표에서 아래까지 약 2m를 쌓은 다음 그 중간에 놓여 있었다. 사리함 주변에는 황토가 채워진 연후에 다시 잡석이 지표면까지 쌓여 있다. 인근에서는 地宮이나 舍利閣이 확인되지 않았다.¹⁴⁾

『력사과학』 제1기.

- 11) 龜田博, 2000, 「黃龍寺附近の坊」, 『日韓古代宮都の研究』, 239~247쪽;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2002, 『신라왕경 발굴조사보고서』.
- 12) 朱國忱·朱威, 1999, 『발해유적』, 149~153쪽.
- 13) 寧安縣文物管理所 渤海鎮公社土臺子大隊, 1978, 「黑龍江省寧安縣出土的舍利函」, 『文物資料叢刊』第2期, 196~201쪽.
- 14) 발해의 사찰은 탑, 금당, 강당이 일직선으로 놓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로 보면 사리함은 탑지의 기단부에 해당되는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국 측 보고서에서는 탑지의 흔적을 알 수 없다고 한다. 발해의 사찰구조는 다음 논문 참조. 이병건, 2006, 「발해 사찰유적의 건축형식 연구」, 『高句麗研究』 Vol. 22, 29~49쪽; 李康根, 1999, 「渤海 上京龍泉府의 寺院建築」, 『渤海美術의 國際性과 韓國의 特徵』, 韓國美術史研究所·韓國佛教美術史學會 주최-國際學術大會(1999. 9. 11).

토대자촌의 사리함은 돌, 철, 동, 칠, 은, 유리 등 7겹으로 되었는데, 외함의 역할을 하는 석함의 구조를 살펴 보도록 한다(도 3). 2중 석함으로 된 토대자촌 사리함의 외함은 6매의 현무암 판석으로 구성되었다. 덮개의 돌은 너비와 길이가 각 1m이다. 내부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근에서 몇 개의 사찰지가 발견된 바 있다.



〈도 3〉 석함,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土臺子村, 발해

상경성에서 발견된 또 다른 사리함은 궁성의 서쪽에 위치한 白廟子村에 위치한다(도 4).¹⁵⁾ 역시 외함은 6매의 현무암으로 구성되었다. 석제함, 철제함, 동제함, 은제 평탈칠함, 금동제함, 은제함, 유리제병의 7중 구조이다. 백묘자촌은 궁성 西內苑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사리함이 발견된 서쪽에도 높고 큰 흙기단이 발견되어 사찰의 존재를 추정하게 한다. 외성 서쪽 구역에서 가장 큰 불교 사찰로 추정되고 있다.



〈도 4〉 석함, 길이 40cm, 너비 38cm, 깊이 30cm,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白廟子村 출토, 발해상경성유지박물관(필자 사진)

사리함이 발견된 백묘자촌의 남쪽에서 서쪽으로 200m 정도 더 간 지점에

15) 왕림안·고민 저, 윤현철 역, 1999, 「발해의 상경유지에서 두 번째 사리함이 출토」, 『발해사연구』 8, 연변대학출판사.



〈도 5〉 석등, 흥룡사, 발해(필자 사진)



〈도 6〉 철제향로, 흑룡강성박물관(최성은 교수 사진)

서도 1960년대까지 보전된 1~2m의 높이의 불교 사원의 기단부가 있었다. 그 서쪽에서 불교 사원의 기단이 확인된 바가 있다. 이곳에 20세기 초에 훼손된 청 때 건립된 稽古寺가 있다.¹⁶⁾ 다시 이곳에서 200~300m 떨어진 곳에 발해 때 寺址에 청대에 건축한 興隆寺가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석등으로 보아 당시 사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도 5). 다시 이곳에서 100m 동북쪽 방면에 1970년대에 훼손된 鬼王寺가 있다. 이곳에서 발해의 魚文이 장식된 철제향로가 발견된 바 있다(도 6). 백묘자촌 사리함이 발견된 지점에서 남쪽에서 동쪽으로 더 간 지점에서 사찰 기단의 높이가 1.6~2m 정도 되는 사지가 확인된다. 이곳에서 동제불상, 청동향로 등이 발견된 바 있다.

상경성의 사찰지를 처음 조사한 1933년과 1934년의 연구에서는 중앙대로

16) 朱國忱, 1988, 「近年渤海上海及其附近發見重要遺跡·遺物」, 『遼海文物學刊』 第2期.

자 朱國沈은 상경성 안에 14곳 그리고 성 밖에 2곳의 사찰의 존재를 확인한 바 있다.²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도 역시 성안의 사찰은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거의 대칭으로 분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사찰의 위치로 보아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동서로 마주한 사찰의 간격이 점차 좁아져서 전체적으로 사다리꼴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궁전은 중앙대로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배치된 사찰들의 윗부분에 비치된 셈이 된다.

발해 상경성의 분포상황은 중국 당대 장안성이나 일본 나라의 평성경의 사찰 분포와 연관되었다. 일본 학자들은 장안성을 상경성의 기본으로 이해하면서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 평성경이 모델이 되었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중국 학자 朱國沈의 경우에도 일본 평성경의 경우 왼쪽에 東大寺, 興福寺, 元興寺, 穗積寺 등이 위치하고 오른쪽에 西大寺, 唐招提寺, 藥師寺 등이 동서 방향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도 7)²¹⁾ 백묘자촌과 토대자촌의 사리기가 출토된 지점을 東大寺와 西大寺로 비정하고 있다.²²⁾ 이는 사리함이 나온 토대자촌과 백묘자촌의 사찰 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사리기가 출토된 2곳의 사지에서 동대사와 서대사라고 비정할 만한 자료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구려와 신라 왕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평성경을 모델로 상경성을 축조했다고 보고, 더 나아가 동대사와 서대사라고 사명을 비정하는 관점은 무리가 있다.²³⁾ 명칭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리기가 출토된 토대자촌과 백묘자촌의 사지는 중앙대로에 동서로 마주하는 곳에 위치하면서 상경성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로 이해된다.

20) 朱國沈, 1988, 앞의 글, 69~93쪽.

21) 京都國立博物館·各古屋市博物館·東京國立博物館, 1989, 『平城京展』, 14~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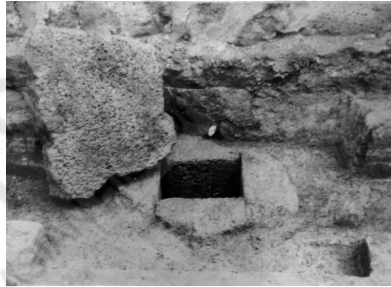
22) 朱國沈, 1988, 앞의 글, 149~152쪽.

23) 다무라 고이치(田村晁一) 외 지음, 임석규 옮김, 2008, 앞의 책, 해제(양정석 씀) 중, 28~29쪽.

Ⅲ. 발해 상경성 사리구의 특징과 편년

1. 발해의 7종 사리기 구성 방식

발해 상경성에서 출토된 사리기 2세트 중에서 먼저 1975년 4월에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土臺子村에서 석제함, 漆函, 동함, 금동제함, 은제함, 금제함, 유리제병으로 구성된 7종 사리함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대자촌의 외함은 6매의 현무암 판으로 되어 있는데, 사리공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안에 다시 冢形의 뚜껑으로 된 석함이 있다(도 8). 이 석함은 한 개의 현무암의 안을 파서 만들어서 뚜껑과 함께 2매로 되어 있다.



〈도 8〉 석함, 60cm,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土臺子村, 발해상경성유지박물관(필자 사진)

제3함은 녹정형 뚜껑의 철함으로 밑면은 대좌의 형식이다(도 9). 뚜껑과 경첩은 10cm 정도 길이의 몸체와



〈도 9〉 철함, 높이 30cm, 길이 30cm, 너비 20cm,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土臺子村, 흑룡강성박물관(최성은 교수 사진)



〈도 10〉 동함, 길이 20cm, 너비 20cm, 높이 20cm,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土臺子村, 흑룡강성박물관(최성은 교수 사진)

같은 재질인 쇠로 된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그 안에는 길이와 너비 그리고 높이가 약 20cm의 정방형의 동함이 있다(도 10). 현재 부식이 심한 상태로 보존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제 자물쇠가 있다고 하나 확인할 수 없다. 다시 그 안에 평탈칠함이 놓여져 있다. 뚜껑부분은 부식되어 남아 있지 않고 몸체만 남아 있다. 평탈기법의 칠기가 사라지로 쓰인 것은 동아시아에서 발해에서 처음 확인되는 것으로 발해 사리구의 특징으로 파악된다.

평탈 칠기 안에는 은제녹정형함이 들어 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발해 사리함 중에 가장 정교한 것으로 몸체 네 면에 사천왕상이 시문되었다(도 11). 이 은함은 10겹의 사직품의 보자기로 싸여져 있었다고 한다. 은제함 안에는 은제도형병이 있고 그 안에서는 사리가 들어 있는 녹색 유리병이 확인되었다. 유리병 안에는 사리로 추정되는 5과의 석영 알갱이가 들어 있다. 5과의 사리 이외에도 10여 개의 호박과 라파스 라줄리로 추정되는 남색의 보석, 그리고 진주 등이 발견되었다.²⁴⁾



〈도 11〉 선조사천왕은함,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土奩
子村, 흑룡강성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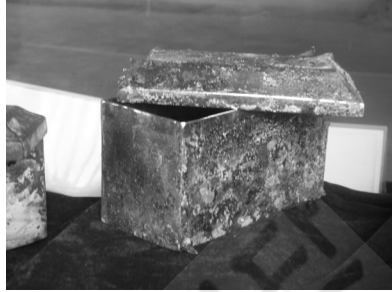
1997년 8월 25일에 발견된 黑龍江省 寧安市 渤海鎮 白廟子村의 사리함은 바깥쪽의 외함은 길이 40cm, 너비 38cm, 깊이 30cm의 6매의 현무암으로 가공한 석함이다.²⁵⁾ 내면은 평편하게 가공했으나 외벽으로 자연 상태 그대로 두었다. 그 안에 연화문이 장식된 금평탈칠함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청동으로 된 함이, 그리

24) 朱國忱·金太順·李碩鐵, 1996, 『渤海故都』,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5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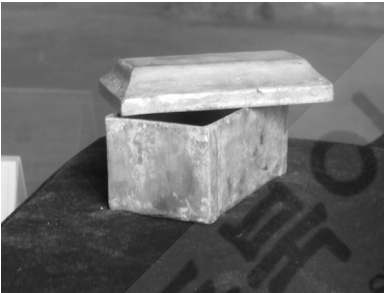
25) 徐秀云, 2008, 앞의 글, 第2期, 16쪽.



〈도 12〉 동함, 금동함, 은함, 금함,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白廟子村 출토, 발해상경성유지박물관(필자 사진)



〈도 13〉 동함, 길이 14.9cm, 너비 8.4cm, 높이 7.4cm,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白廟子村 출토, 발해상경성유지박물관(필자 사진)



〈도 14〉 금동함, 길이 13cm, 너비 6.5cm, 높이 7.1cm,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白廟子村 출토, 발해상경성유지박물관(필자 사진)



〈도 15〉 금함,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白廟子村 출토, 발해상경성유지박물관(필자 사진)

고 금동함이, 다시 은함과 금함이 발견되었다(도 12 · 13 · 14 · 15). 금함 안에는 0.1~0.2cm의 황색 19과의 사리가 든 유리병이 발견되었다. 현재 비취색의 유리병은 산산조각 나 있는 상태이다. 석함, 칠함, 동함, 금동함, 은함, 금함, 유리병의 7중 사리함의 구조인 셈이다. 뚜껑은 모두 녹색형이다. 동함에서 유리병까지는 각각 사직물로 포장되어 있다. 또한 칠함 안에는 골회로 보이는 흰 가루가 있는 작은 항아리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상경성 외의 지역에서 발견된 사리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吉林省 龍井市 東盛勇鄉 英城村에서 발견된 사리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제 침략기에 고성 서문 안의 북쪽 높은 둔덕에서 밭갈이를 하다가 우연히 석

함이 발견되었는데, 석함 안에는 동함이 있고 다시 은함과 금함이 중첩되어 있었다고 한다. 금함 안에는 사리 12과가 발견되었다. 間島 日本 총영사관에서 가져갔으나 현재는 행방을 알 수 없다.²⁶⁾ 석제함, 동제함, 은제함, 금제함의 4중 사리기이며 사리용기는 금제함으로 판단된다.

安圖縣 亮兵台鄉 함양촌에서 남으로 550m 떨어진 곳에 있는 발해시대의 사지에서는 두 점의 석제함이 발견되었다. 석제함의 뚜껑은 함장촌 주민들이 가져가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철제함, 동제함, 은제함, 사리가 든 유리제병의 구조라고 전해진다.²⁷⁾

1972년 中國 黑龍江省 東寧縣 東寧鎮 大城子村에서 출토된 금동제사리함은 6과의 사리가 들어 있는 은제함이 중첩되어 있는 구조이다.²⁸⁾ 다시 대성자고성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는 石臼가 확인되었는데, 석구 위쪽의 수혈공 안에서는 마노구슬과 은조각이 들어 있는 동제함이 발견되었다(도 16). 동제함이 들어



(도 16) 동제함, 입지름 5cm, 높이 7.5cm, 대성자성유지, 흑룡강성박물관(최성은 교수 사진)

있는 수혈공의 뚜껑이 석제 뚜껑으로 덮인 것으로 보아 사리공으로 추정하는 의견이 있다.²⁹⁾

이렇게 6세트의 사리구를 종합해 보면 발해 사리구의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발해 사리구의 구조에서 보이는 특징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사리용기들을

26) 龍井縣文物志編寫組, 1984, 『龍井縣文物志』, 58~59쪽.

27) 安圖縣文物志編寫組, 1985, 『安圖縣文物志』, 32쪽.

28) 魏存成, 2007, 『渤海考古』, 北京: 文物出版社, 270쪽. 率賓府의 소재지로 보기도 하는데, 사리함 외에도 성 안에서 청동 불상 2점이 발견되었다. 그 외에 문고리, 허리띠꾸미개, 경첩, 자물쇠, 거울, 와당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발해 멸망 뒤 금나라 때에도 사용되었다.

29) 주경미, 2003b, 앞의 글, 432쪽.

중첩하는 점과 안쪽으로 갈수록 귀한 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大般涅槃經』, 『長阿含經』 등의 경전에서 사리 안치는 多容量器 형식을 취하며 내부로 갈수록 귀한 재질로 중첩되는 것과 일치되는 상황이다.³⁰⁾ 특히 상경성의 토대자촌과 백묘자촌의 사리기는 사리를 담은 유리병을 제외하고는 녹정형 외함의 기형이며 모두 7중으로 중첩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사리를 담은 쉼리內器가 유리병은 아니지만 녹정형함의 구조로 중첩되어 있는 예로는 중국 법문사 8중 사리기를 들 수 있다(도 17).



〈도 17〉 8중 사리기, 법문사 지굴, 870년, 중국 법문사박물관

이와 같이 중국 9세기 후반의 것과 비교되는 기형이면서도 발해만의 특징이 보이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이다. 먼저 고식의 요소를 차용하는 점이다. 이는 석함과 유리병에서 찾을 수 있다.

상경성의 두 사리세트는 모두 석함이 외함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인도의 『마하밤사(Mahāvamsa, 大史)』에 6매의 큰 돌로 짠 석함에 菩提樹, 香水瓶, 金佛像을 넣으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석함을 외함으로 규정한 것이다.³¹⁾ 중국에서도 북위 이래 수대까지 석함이 외함으로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백제

30) 小衫一雄, 1980, 「六朝時代佛塔に於ける舍利安置」, 『中國佛教美術史の研究』, 東京: 新樹社, 9~12쪽; 奈良國立博物館, 1983, 『佛舎利の莊嚴』, 東京: 同朋社, 266~267쪽; 長谷川道隆, 1992, 「北魏, 隋代の塔基と出土舍利容器—インドのストゥパを導入して」, 『古文化談叢』 28, 181~196쪽.

31) 강우방, 2000, 「佛舎利莊嚴論—經典, 佛塔, 佛像의 상관관계」, 『法空과 莊嚴』, 열화당, 388~391쪽.



〈도 18〉 석함, 하북성 정정현 백점촌 사리탑 출토, 수대, 605년(필자 사진)

왕흥사지, 미륵사지, 분황사지 등에서 석함이 확인된 바가 있다.³²⁾

석함이 외함으로 쓰인 최고의 예는 河北省 定縣 靜志寺 眞身舍利塔에서 출토된 北魏 興安 2년(453)의 명문이 있는 方形石函이다.³³⁾

녹정형 뚜껑 구조의 석함은 589년 청선사 승려탑, 604년 신덕사 사리탑, 605년 하북성 정정현 백점촌 사리탑, 606년 하북 정현 송대 정지사탑 지공, 611년 산둥 역성현 사문탑 등에서 출토된 수대 석함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도 18).³⁴⁾

녹정형 뚜껑 구조의 석함은

수대에는 모든 용기가 중첩되어 있지는 않다. 석함 내에 동함이나 유리병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석함 안에 병렬로 놓인 경우가 많다. 녹정형의 뚜껑의 함은 한대 칠기에서부터 기원하는 기형으로, 중국에서도 남북조시대 이래 사리기의 기형으로 선호되었으나 당대부터는 점차 棺槨의 형식으로 바뀌는 것과 비교가 된다.³⁵⁾

다음으로는 사리가 든 유리병의 기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몸체가 둥근 장경병의 기형인데, 이는 전형적인 수대 유리병의 형태이다(도 19). 〈표 1〉에 정

32) 박대남, 2009, 「사찰구조와 출토유물로 본 분황사 성격 고찰」,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09년 6월 월례회 발표요지 참고.

33) 河北文化局文物工作隊, 1966, 「河北定縣北魏石函」, 『考古』 第5期, 252~266쪽; 定縣博物館, 1972, 「河北定縣發現兩座宋代塔基」, 『文物』 第8期, 40쪽.

34) 邱玉鼎·楊書杰, 1986, 「山東平陰發現大隋皇帝舍利寶塔石函」, 『考古』 第4期, 375~376쪽; 樊瑞平·郭玲娣, 1999, 「河北正定舍利寺塔基地宮清理簡報」, 『文物』 第4期, 38~43쪽; 楊泓, 2000, 「中國 隋, 唐代 舍利容器」,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韓·中·日 舍利莊嚴具의 綜合的 檢討』, 特別展 紀念 國際學術 심포지엄 발표요지, 통도사성보박물관, 49~56쪽.

35) 甘肅省文物工作隊, 1966, 「甘肅省涇川縣出土的唐代舍利石函」, 『文物』 第3期, 8~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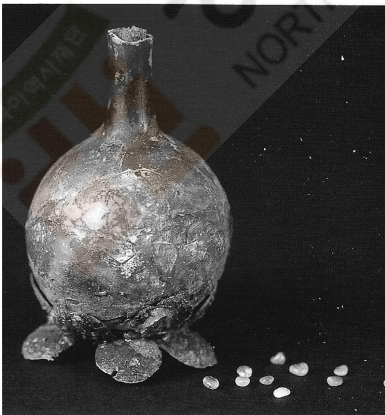
리한 바와 같이 북위대부터 유리병이 탑에 매납되기 시작한다. 북위의 병은 비교적 목이 짧은 반면 陝西省 耀縣 神德寺址 등 수대의 것은 어깨부분이 다소 주저 앉은 목이 긴 장경병의 모습인데, 발해 상경성의 유리병은 수대 기형과 유사하다(도 20). 이러한 기형은 당대에도 이어지기는 하나 그 예가 많지는 않다(도 21).



〈도 19〉 유리사리병,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土臺子村, 흑룡강성박물관



〈도 20〉 유리유개병, 신덕사, 耀州
區博物館, 605, 수, 중국



〈도 21〉 유리병, 경산사지, 당(『唐の女帝・則
天武后とその時代展』, 東京: 東京都
美術館, 1998, pl. 39)



〈도 22〉 유리병, 송림사지, 통일신라

〈표 1〉 중국 남북조시대부터 당대까지 탑에서 출토된 유리용기

	유리제품	출토지	시대	참고문헌
1	琉璃鉢(높이 7.9cm, 입지름 13.4cm) 琉璃瓶 5점(높이 5.3~4cm)	河北省 定縣 華塔址	북위(太和 5년, 481)	河北文化局文物工作隊, 1966, 「北定縣北魏石函」, 『考古』 第5期.
2	유리병(높이 5.8cm)	陝西省 耀縣 神德寺址	수(仁壽 4년 604)	朱捷元·秦波, 1974, 「陝西長安和耀縣發現的波斯薩珊朝銀幣」, 『考古』 第2期.
3	유리병	甘肅省 涇川 大雲寺址	당(延載元年, 694)	甘肅省文物工作隊, 1966, 「甘肅涇川出土的唐代舍利石函」, 『文物』 第3期.
4	유리병	西安	당(開元 7년, 719)	
5	유리병(높이 4.6cm) 2점	西安市 周至縣 仙遊寺 法王塔	당(開元 13년, 725)	劉運, 2000. 7, 「仙遊寺法王塔的天宮8地宮與舍利子」, 『收藏家』 45.
6	유리병(높이 4.6cm, 2.1cm)	陝西省 臨潼縣 慶山寺塔 基地宮	당(開元 29년, 741)	『唐の女帝·則天武后とその時代展』, 東京都美術館, 1988.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세장한 유리제장경병이 통일신라시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점이 확인된다(도 22). 이는 유리병을 제작하는 장인집단의 교류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일의 연구과제로 삼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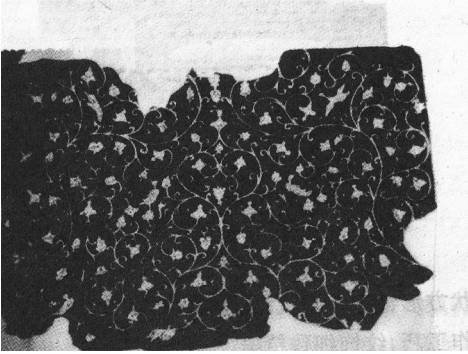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발해 공예의 특수성이 반영된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철제함과 평탈칠함이 사리구로 사용된 예가 주목된다. 이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성이다. 철제함의 경우는 발해의 철기 제작상황이 고려된다. 주지하다시피 둔화, 화룡, 寧安, 東寧 등 발해의 유적지와 무덤에서 많은 수량의 철기가 출토된 바가 있다. 생철로 주조한 것과 숙철로 단조한 두 종류가 나

〈표 2〉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의 탑 출토 유리용기

	유리병의 특징	출토지	시대	참고유물과 문헌
1	무색 사리병 목 부위 제외하고 모두 파손, 보주형 유리마개	미륵사지 서탑 (전북 익산)	백제(7세기)	문화재청 보도자료
2	짙은 녹색병 금제 연화좌 위에 안치, 사리병의 구연부 외반 높이 6.2cm	익산 왕궁리 5층석탑(전북 익산)	백제~고려	由水常雄, 1992, 『世界ガラス美術全集』 5, 求龍堂.
3	① 환문장식녹색유리배 ② 녹색유리병 ③ 녹색유리소호	송림사 전탑 (경상북도 칠곡)	통일신라	Chewon Kim, 1959, "Treasures from the Songyimsa Temple in Southern Korea," <i>Artibus Asiae</i> , Vol. 22, No. 1/2. 환문장식녹색유리배는 정창원소장 유리배와 유사.
4	녹색유리사리병	분황사 석탑 (경상북도 경주)	통일신라 (선덕왕 3년, 634)	由水常雄, 1992, 『世界ガラス美術全集』 5, 求龍堂.
5	녹색사리병	항복사 3층탑 (경상북도 경주)	통일신라	由水常雄, 1992, 위의 책
6	녹색사리병 구연부 외반, 몸체가 약간 비대칭	불국사 석가탑 (경상북도 경주)	통일신라 (경덕왕 10년, 751)	由水常雄, 1992, 위의 책
7	녹색소병	전라남도 남원	통일신라~고려	由水常雄, 1992, 위의 책

타난다.³⁶⁾ 아직까지 상경성 내에서 단야로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철기들의

36) 강승남, 1994, 「유적·유물을 통하여 본 발해 제철·제강 기술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2기.



(도 23) 당초문, 평탈칠기,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토
臺子村, 흑룡강성박물관(王輝·叶居曉·趙哲
夫, 2000, 『黑龍江考古文物圖鑑』, 黑龍江人民
出版社, 238쪽)

양은 알 수 없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에서는 평탈칠기가 다수 제작되었지만 발해의 경우에는 토대자촌과 백묘자촌의 사리구 외에는 그 예를 찾을 수 없었다(도 23).

본래 平脫技法은 금이나 은판을 이용해 문양을 만들어 금속이나 목재 등의 표면에 부착한 다음 이를 그늘에서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고 문양의 표면을 다듬어서 검은 칠의 바탕 위에 금은편 무늬가 돋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⁷⁾ 평탈칠기는 중국 당, 통일신라, 그리고 일본에 공통적으로 유행했던 기법으로 중국의 고대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平脫’이라는 용어에 따라 명명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三國史記』에 ‘平文’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³⁸⁾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유행한 평탈기법의 국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은판의 절문기법이나 세부 문양을 표현하는 점선조기법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물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금은판으로 만들어진 문양의 계보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토대자촌 평탈함의 문양으로 새긴 당초문의 계보를 살펴보기로 한

37) 魏存成, 2007, 앞의 책, 250~255쪽.

38) 채해정, 2001, 「통일신라 금속 및 칠공예품의 기법과 문양 연구」, 『미술사연구』 제 15호, 미술사연구회, 53~73쪽; 신숙, 2004, 9, 「統一新羅 平脫工藝 연구」, 『美術史學研究』 第242·243號, 한국미술사학회, 29~61쪽.

다. 당초문은 본래 고대 그리스의 식물문양에 기원을 두고 있는 아칸서스(acanthus) 계통의 덩굴무늬이다.³⁹⁾ 기원전 5세기 무렵 건축의 지붕이나 프리즈 그리고 코린트 양식의 주두(Corinthian column)에 즐겨 채용되었고 로마에 그 전통이 계승된다.⁴⁰⁾ 불교 루트를 타고 동점된 당초문은 위진남북조시대를 거쳐 당대에 오면 연화문이나 모란문, 또는 금수문과 결합되기도 한다.

토대자촌 평탈칠함은 8세기 이후 유행하는 보상당초문으로서 반쪽의 팔메트(palmette)잎을 좌우 대칭시켜 하트형으로 배치한 것으로, 새와 뛰어나는 동물들이 사이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꽃무늬와 간단한 동물장식의 조합은 통일신라의 거울에서도 확인되는 의장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평탈칠경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도 24). 통일신라의 평탈칠경은 지금은 부분 부분 박락되었지만 원상태를 추정해 보면 6개의 보상화문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슴과 뛰어나는 금수들이 배치되어 있는 구성이다.



〈도 24〉 금은평탈보상화문경, 지름 18.2cm, 국립중앙박물관(『統一新羅』, 국립중앙박물관, 2003, 260쪽, pl. 263)

통일신라의 평탈칠기의

39) Jessica Rawson, 1984, *Chinese Ornament The Lotus and The Dragon*, London: The Trustee of the British Museum, p. 204; 林良一, 1993, 「パルメット」, 『東洋美術の装飾文様-植物編』, 東京: 同朋社, 147~224쪽.

40) 당초문이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동아시아에 전해진 계기는 불교의 동점을 들 수 있다. 불교가 창시된 인도에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키타이, 샤카 등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국제문화가 꽃을 피운 바 있다. 인도에서 팔메트는 마우리아시기부터 미술품의 모티프로 사용되었는데, 궁전 건축뿐 아니라 불교미술에서 수용되어 주제에 맞추어 변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문양과 비교해 보면 토대자촌의 평탈칠함은 마치 직물의 도안을 상기시키듯이 연속적으로 장식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역 하트 문양이 구성된 중심부분을 기점으로 두 마리 새가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중국이나 통일신라의 경우 이 새들이 마주 보는 구성으로 표현되는 것이 보편적이나 여기에서는 서로 반대편을 보는 구성인 것이 흥미롭다.

이와 더불어 토대자촌 평탈칠기에서는 금속판보다는 거의 금속선을 이용하여 유려하게 장식된 것이 확인된다. 이는 마치 고려 나전칠기에 시문된 금속선을 상기시킨다. 고려 나전칠기에는 철사 모양의 단선과 두 개의 금속선을 새끼줄 모양으로 꼬아 주문양의 꽃가지 문양의 줄기 또는 화당초문의 넝쿨이나 경계선으로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이 금속선을 주문양의 일부로 적극 끌어들여 문양화한 것은 고려 나전칠기에서 처음 시도된 장식 기법이다. 이제까지 토대자촌 평탈칠기의 문양을 살펴본 결과 당대 전형적인 당초문의 도안을 따르고 있지만 기법이나 문양의 구성에서 새롭게 발해적인 특징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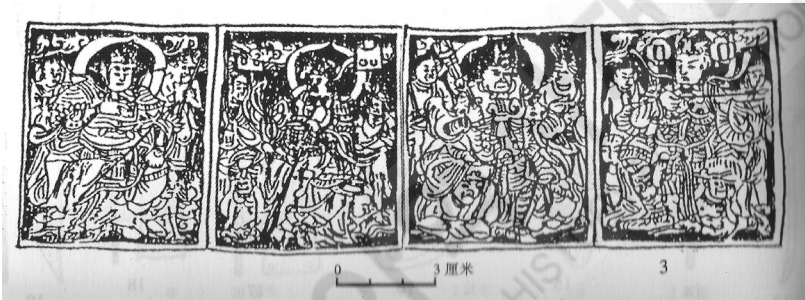
이제까지 발해 상경성에서 출토된 사리구의 구성과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 사리구들은 동아시아 사리구의 일정한 흐름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발해 공예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⁴²⁾ 토대자촌과 백묘자촌의 사리기는 당대 상경성의 장인들이 제작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사천왕상이 시문된 토대자촌의 은제사리함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발해 사리기의 특징뿐 아니라 상경성 사리기의 제작연대를 규명할 수 있는 문제와도 연결된 것이다.

41) 魏存成, 2007, 앞의 책, 250~255쪽.

42) 조대일, 1988, 「발해의 공예」, 『조선공예사1(고대 중세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63~181쪽; 崔茂藏, 1989, 「渤海의 古墳·土器 및 裝身具」, 『韓國史論』 19, 국사편찬위원회.

2_ 토대자촌사지 은제선조사천왕문방형함과 상경성 발해 사리구 편년

토대자촌사지 은제선조사천왕문방형함은 평탈칠기를 제외하고는 표면에 장식이 되어 있는 유일한 사리함이다.⁴³⁾ 몸체에는 천왕이 그리고 뚜껑 부분에는 연화문이 선조기법으로 장식되었다(도 25). 먼저 몸체 부분의 천왕상을 보고, 뚜껑 부분의 연화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 25〉 사천왕상,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土臺子村, 흑룡강성박물관(王輝·叶居曉·趙哲夫, 2000, 앞의 책, 238쪽)



〈도 26〉 광목천, 다문천, 감은사 서탑 사리외함(『統一新羅』, 국립중앙박물관, 2003, 213쪽, pl. 220-3, 220-4)

43) 王輝·叶居曉·趙哲夫, 2000, 『黑龍江考古文物圖鑑』,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38쪽.



〈도 27〉 광목천, 다문천, 감은사 동탑 사리의외함(『統一新羅』, 국립중앙박물관, 2003, 213쪽, pl. 221-3, 221-4)

중국의 경우 사리기의 네 면에 천왕이 장식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일신라의 경우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사천왕상이 사리기 외함에 장식되어 있다(도 26·27). 감은사지의 경우 탑을 들고 있는 다문천의 존재로 전체 도상을 사천왕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있으나 토대자춘 은제선조사천왕문방형함의 경우 사천왕으로 비정할 수 있는 도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사천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경전은 그 수가 많고 경전에 따라 사천왕의 도상도 일정하지 않다. 사천왕 신앙의 근본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金光明經』 「四天王品」을 참고하면 사천왕의 명칭은 방위에 따른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⁴⁴⁾ 국토를 수호하고 人世의 왕을 보호하는 역할이 부여되어 8부중을 거느리는 사천왕은 동방의 持國天王, 남방의 增長天王, 서방의 廣目天王, 북방의 多聞天王을 의미한다.⁴⁵⁾ 본래 인도에서는 정해진 도상은 없으나 인도에서 중

44) 일본 최대의 호국사찰인 東大寺의 다른 이름이 '金光明四天王護國之寺'인 것도 『金光明經』 '사천왕품'에서 기인한 것이다.

45) 『金光明經』 四天王品 第六 "우리 사천왕은 이 경을 듣는 임금이나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염려하여 환란을 덜어주고 평안케 하며, 다른 지방으로부터 쳐들어오는

국으로 전래되는 과정에서 분노한 자세로 무장하고 있는 장군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갑옷을 두르고 탐, 무기 등을 들고서 발로 악귀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사천왕상의 도상은 7세기 중반에 정립된 것으로 알려진다.⁴⁶⁾ 하지만 지물이나 자세 그리고 갑옷의 형태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된다.

토대자촌의 은제선조사천왕문방형함의 경우 4구 모두 악귀를 타고 앉은 자세이다. 활을 쏘는 자세의 인물, 오른손에 곤봉을 든 인물, 두 손으로 검을 든 인물, 한 손으로 검을 든 인물이 차례로 장식되었다. 그리고 각각 모든 인물들의 양쪽에는 侍자가 배치된 특징을 보이는 것을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탐을 든 다문천을 중심으로 사천왕을 비정하고 있는데, 이 사리기에서는 탐을 든 인물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693년 인도의 寶思惟가 한역한 『不空絹索陀羅尼自在王呪經』을 통해 사천왕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이 경전에서는 증장천은 활을 들고 있고 지국천은 검을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⁴⁷⁾ 자물쇠가 있는 방향을 남방으로 본다면 증장천은 화살을 그리고 지국천은 검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본다면 토대자촌의 사리함에 표현된 인물들은 사천왕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다음으로는 토대자촌의 사천왕상 도상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천왕상은 앉은 자세라는 점에서 그간 알려진 사천왕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토대자촌의 사천왕상은 모두 두 마리의 악귀에 걸터앉아 있는데, 두 상은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노라. 또한 어떤 임금의 이 경을 들을 때에, 그 이웃 나라에서 나쁜 생각으로 군대를 일으켜 이 나라를 치려 하더라도 이 경의 신력으로 그때에 이웃 나라에도 또 다른 원수가 쳐들어와 난리가 날 것이며, 그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과 재난과 질병이 일 것이다. 그때 그 다른 원수가 이러한 나쁜 재난을 일으킨 뒤 군대를 이끌고 이 나라에 와서 또다시 싸움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권속과 수많은 귀신들과 더불어 형상을 숨기고 이 편을 구원하는 동시에 저 원수들이 저절로 물러나게 할 것이다.”

46) 沈盈伸, 1997, 「통일신라시대 四天王像 연구」, 『美術史學研究』 第216號, 한국미술사학회, 5~6쪽.

47) 『不空絹索陀羅尼自在王呪經』 成就入壇法分 第十三에 증장천은 '弓箭'을 든 것으로 묘사되었다.



〈도 28〉 녹유사천왕상, 사천왕사지, 통일신라(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2008, 『신라 호국의 염원 四天王寺』, 2008년 학술심포지엄, 41쪽, pl. 16)



〈도 29〉 녹유사천왕상, 사천왕사지, 통일신라(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2008, 위의 책, 41쪽, pl. 16)

한쪽 다리를 내리고 앉고 나머지 두 상은 두 다리를 다 내리고 있다. 이에 앉은 자세에 주목하여 좌상으로도 부르지만 한쪽 다리를 내리고 앉은 경우는 반가의 자세라고도 한다.⁴⁸⁾

두 마리의 악귀에 걸터앉은 사천왕의 모습은 679년(문무왕 19)에 창건된 사천왕사 목탑지의 기단부를 장식했던 녹유사천왕상에서 찾을 수 있다(도 28·29). 주지하다시피 통일신라에서 사천왕사상은 『금광명경』의 도입과 연관을 짓고 있다. 신라 제30대 왕인文武王(661~681 재위)은 당의 침입을 막기 위해

明朗法師가 사천왕사를 세우고 문두루도량을 개설한 바 있다. 文豆婁秘法이란 일종의 밀교의식으로 불단을 설치하고 다리니 등을 독송하면 국가의 재난을 물리칠 수 있다는 비법으로 당시 신라는 이 비법의 효험으로 금강 하구에서 22번의 치열한 전투 끝에 당의 수군을 격퇴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⁴⁹⁾

두 마리의 악귀 위에 앉은 자세와 도상적으로 가장 유사한 상은 중국의 안

48) 안휘준, 1988, 「한일회화관계 1500년」, 『한국회화의 전통』, 문예출판사, 402~403쪽.

49) 김상현, 1994, 「輯逸金光明經소」, 『동양학』 24, 260쪽; 최연식, 2005, 「8세기 신라 불교의 동향과 동아시아불교계」, 『불교학연구』 12, 247~248쪽.

서 유림굴 제15굴 전실 남벽에 그려진 천왕상을 들 수 있다(도 30).⁵⁰⁾ 두 마리의 악귀 위에 올라앉아 오른쪽 어깨에 활을 걸고 양손에 화살을 수평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그림의 제작연대는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또한 좌상 형식의 천왕상은 만당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돈황 막고굴 제12굴 전실 북측 천왕상이나 9세기 후반의 돈황에서 출토된 지본채색화상 등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⁵¹⁾ 현재 전해지는 사천



〈도 30〉 천왕상, 安西榆林窟, 8세기 후반 9세기 전반(『中國石窟 安西榆林窟』, 東京: 平凡社, 1990, pl. 4)

왕상들을 통해 보았을 때 앞의 자세의 사천왕 도상은 중국에서는 8세기 후반 이후부터 9세기에 유행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좌상의 사천왕상이 8세기 후반부터 유행했다고 한다면 토대자촌의 사리기의 연대는 8세기 후반 이후로 비정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토대자촌 사리기의 작가가 모델로 삼았던 도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9세기 초중반 일본에서 활동했던 백제 계통의 화가 河成(782~853)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사천왕상이 주목된다(도 31).⁵²⁾ 토대자촌의 사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천왕 옆에 두 명의 시

50) 『中國石窟 安西榆林窟』, 東京: 平凡社, 1990, pl. 4.

51) 沈盈信, 1997, 앞의 글, 12~17쪽.

52) 沈盈信, 1997, 앞의 글, 25쪽.



(도 31) 河成筆 사천왕상, 9세기 초중반(林溫, 1987, 4, 『東京國立博物館保管 十六善神畫像について』, 『Museum』 433, 22쪽)

자가 배치된 점이다. 바로 하성이 그린 사천왕상에서 두 명의 시자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림 뒷면에 ‘以四天王寺第二傳本寫之新羅河成筆’이라 쓰여 있기 때문이다.⁵³⁾ 신라 하성으로 되어 있지만 그를 백제인으로 보는 것은 성이 餘氏였으나 후에 구다라, 즉 백제로 개성했기 때문이다.⁵⁴⁾

하성에 대한 기록은 일본 『日本文德天皇實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日本文德天皇實錄』에서 853년인 嘉祥3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

어 있다.⁵⁵⁾ 하성필의 모본과 발해 토대자촌 사리기에 등장하는 두 명의 시자에서 차이점은 토대자촌 사리기 시자의 경우 동한대부터 서민들이 착용하는 幪頭의 모습 정도이다.⁵⁶⁾ 이는 발해의 복식을 반영한 것으로, 발해의 서민들이 조두를 즐겨 착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성의 사천왕상을 참고하면 토대자촌의 사리기는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중반 사이로 편년할 수 있다.

53) 林溫, 1987, 「東京國立博物館保管 十六善神畫像について」, 『Museum』 433, 22쪽.

54) 782년에 태어난 하성은 무예와 그림 모두 뛰어났다고 한다. 그림에서는 인물화와 산수화에 모두 능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도 백제 성을 쓴 것은 멸망한 백제를 잊지 못해 조국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로 파악된다고 보고 있다. 안휘준, 1988, 앞의 책, 402~403쪽.

55) 『日本文德天皇實錄』, 1987, 卷第二 起嘉祥三年八月, “百濟河成與延祥法師卒”.

56) 周迅·高春明 編, 1996,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98~99쪽.



〈도 32〉 사천왕상,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土臺子村, 흑룡강성박물관(國家文物國 主編, 1997, 『中國文物精華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331쪽, pl. 197)

주지하다시피 망치와 정을 가지고 금속판에 선을 새기는 것은 고난도의 작업이다. 토대자촌 사리기의 작가는 비록 세부 묘사의 치밀성은 떨어지나 정과 끌로 금속의 표면을 선각하는 조이질 솜씨는 자신감이 넘친다(도 32). 사천왕의 화살을 잡은 두 손이나 양팔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우면서 힘이 있다. 육중한 사천왕의 몸을 간략한 선으로 능숙하고 입체감 있게 표현한 장인의 조이질 기량은 도상을 완전히 숙지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인체의 세부 표현보다는 인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느낌을 중요시하는 요소는 인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는 8세기의 시대적 사조와 다른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도 이해된다. 이로 판단해 볼 때 토대자촌의 사리기는 9세기 전반까지 비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토대자촌 은제선조사천왕문방형함의 뚜껑부분에 새겨진 연화문과 당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도 33). 테두리의 네 면에는 당대에 흔히 볼 수 있는 S자형으로 뻗어가는 간략한 당초문이 새겨져 있다. 중앙부분에는 삼각형으로 네 구획으로 나눈 다음 측면에서 본 연화문을 배치하였다. 각 연화문에는 날개와 같은 잎이 대칭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화문은 마치 삼지창처럼



(도 33) 뚜껑부분의 연화문과 당초문,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土臺子村, 흑룡강성박물관(王輝·叶居曉·趙哲夫, 2000, 앞의 책, 238쪽)

마르고 날카로운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연화문은 중앙아시아 계통이라는 지적이 있다.⁵⁷⁾

이와 관련하여 사리기 배경 전면에 시문되어 있는 어자문(fish-roe pattern)의 계통을 살펴보기로 한다. 어자문은 타각정의 하나인 강철제 누갈정 혹은 방울정을 금속 표면에 세우고 이를 망치로 때려서 오목하게 들어간 작은 원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자문은 기법이자 문

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배열된 작은 원문이 물고기 알처럼 보인다고 해서 어자문으로 명명된 이 문양은 바탕면을 촘촘히 메우는 데 쓰이기도 하고 사람이나 동물의 눈을 표현하는 데 단독으로 쓰이기도 한다. 어자문은 이집트에서 출발한 외래계 기법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전한대 금은제인장에서 처음 보인다.⁵⁸⁾

어자문은 전한대 동아시아에 유입된 이래 근대까지 중국·우리나라·일본 등 삼국 모두 금속공예에서 즐겨 사용했던 기법이자 문양이다.⁵⁹⁾ 그런데 어자문은 지역과 시대 그리고 장인의 계통에 따라 그 배열이나 치는 솜씨가 다르다. 이러한 특징에 주목한 것은 일본 학자들로 나라시대(710~794) 금공예에 보

57) 崔順子, 2000, 「渤海的佛教與蓮花紋裝飾圖案」, 『渤海文化研究』, 吉林人民出版社.

58) 曾布川寬·谷豊信 編, 2002, 『世界美術大全集』, 東京: 小學館, 187쪽.

59) 이송란, 2009, 「미륵사지 금동사리외호의 제작기법과 문양 분석」, 『신라사학』 제 16호, 신라사학회, 300~308쪽.

이는 어자문의 계보를 중국이 아닌 통일신라에서 찾으면서 비롯되었다.⁶⁰⁾ 어자문이라는 용어도 이 시대의 『正倉院文書』의 기록(760)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한국·중국·일본에서 이 용어를 보편적으로 따르고 있다.⁶¹⁾ 어자문은 특수 장인들이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일본 天平寶字 4년(760)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⁶²⁾

이들 연구에 따르면 질서 정연하고 빈틈이 없는 것이 중국 당의 솜씨이고, 고르지 않게 드문드문 시문되어 있는 것은 통일신라와 일본의 솜씨로 크게 나누었다. 그리고 이를 감각과 기술의 차이로 보았다. 석가탑 사리기에서 출토된 은제함에 시문된 어자문을 살펴보면 뒤가 아물리지 않는 것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치밀하지 못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도 34).

이를 참고하여 토대자촌의 사리기에 시문된 어자문의 계통을 살펴보도록 한다. 토대자촌의 어자문은 전체적으로는 세로로 일정한 계 줄을 맞추어 찍어 나갔으나 위치에 따라서는 가로 방향으로 줄을 맞추기도 했고 전체 배열이 아주 촘촘하지는 않다(도 35). 즉 통일신라의 것보다 치밀한 구성은 아니지만 당의 하가촌에서 출토된 금동제함에 비하면 볼 수 있듯이 빈 간격이 없이 촘촘하



〈도 34〉 어자문, 은제함, 높이 11.5cm, 석가탑, 통일신라, 751년경(『國寶』 금속공예편, 2009)

60) 中野政樹, 1983, 「日本の魚子文—受容と展開」, 『Museum』 393, 東京國立博物館, 4~16쪽; 東野治之, 1988, 「魚子打ちの技術」, 『正倉院』, 東京: 岩波書店, 74~78쪽; 이난영, 1991, 「어자문기법」, 『진단학보』 71·72, 187~209쪽; 이난영, 1992, 『韓國古代金屬工藝研究』, 一志社, 191~220쪽.

61) 임지윤, 2007, 「高麗時代 魚子文工藝品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쪽.

62) 造金堂新解에 魚子文 타공인의 기록을 통해 전문공인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이들이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난영, 1992, 앞의 책, 196쪽.



(도 35) 어자문,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토
 臺子村, 흑룡강성박물관(國家文物國
 主編, 1997, 앞의 책, 331쪽, pl. 197)

게 밀집하여 있는 어자문과는 솜씨가 다른 것이 확인된다(도 36).⁶³⁾

발해 토대자촌 가리기의 어자문의 계통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松山區城子香洞山村窖藏에서 발견된 摩形金花提梁銀壺이다(도 37).⁶⁴⁾ 주지하다시피 赤峰 북부에 위치한 松山區城子香洞山村窖藏이나 內蒙古敖漢旗李家營子1號墓에서는 다량의 금은기가 출토되었다(도 38).⁶⁵⁾ 이들 금은기의 계보를 분류해 보면 중원계통의 것도 있지만 중앙아시아 소그드와 돌궐 계통의 것도 혼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이곳 금은기의 어자문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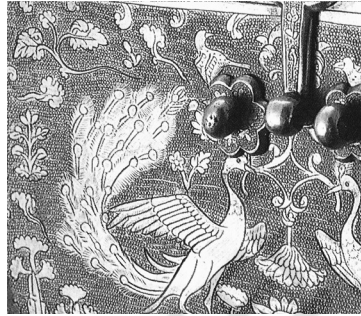
중원계는 가로줄 혹은 세로줄로 일정한 배열을 가지고 촘촘하게 시문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소그드나 돌궐계로 비정되는 것은 대개 세로줄로 방향을 잡으면서 약간 성긴 배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출토된 은제파수부배에서 볼 수 있는 어자문과 같은 양상으로 파악된다.⁶⁶⁾ 이로 볼 때 토대

63) 何家村은 당시 귀족들의 주거지인 長安省 興化坊으로, 두 개의 큰 항아리에서 270여 점의 금속기가 출토되었는데, 이 유물의 주인은 鄆王府 李守禮이며 유물의 연대는 이수례의 생존연대보다 앞서는 德宗代인 8세기 전반으로 비정되고 있다. 陝西省博物館·陝西省博物館管理委員會, 1972, 「西安何家村發見唐代窖藏文物」, 『文物』第1期; 段鵬琦, 1980, 「陝西省何家村唐代金銀器小議」, 『考古』第6期; 陝西歷史博物館·北京大學考古博物院, 2003, 『花舞大唐春』, 北京: 文物出版社, 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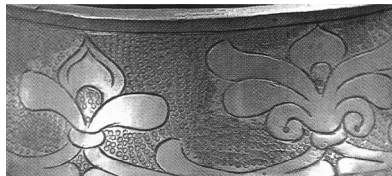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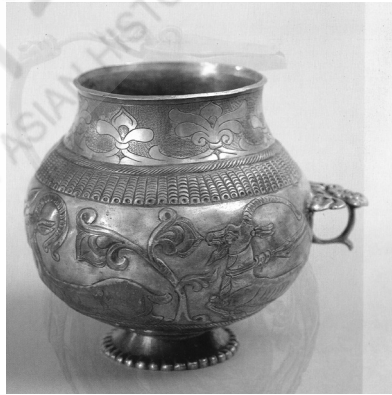
64) 于建設, 2006, 『赤峰金銀器』, 呼和浩特: 遠方出版社, 39쪽.

65) 宿白, 1986, 「中國境內發現的中亞與西亞遺物」, 『中國大百科全書』考古卷,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677쪽; 齊東方, 1994, 『唐大金銀器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321~332쪽.

66) 東京國立博物館·大阪市立博物館·日本經濟新聞社, 1985, 『シルクロードの遺寶—古代·中世の東西文化交流』, 1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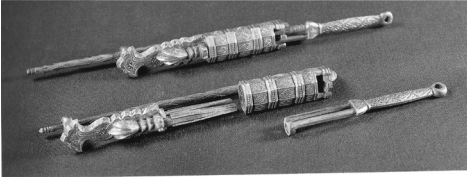


〈도 36〉 어자문, 금동제함, 섬서성 하가촌, 당, 8세기, 섬서성박물관(國家文物園 主編, 1997, 앞의 책, 105쪽, pl. 122)



〈도 37〉 어자문, 摩羯形金花提梁銀壺, 松山區 城子香洞山村窖藏, 당(于建設, 2006, 『赤峰金銀器』, 呼和浩特: 遠方出版社, 39쪽)

〈도 38〉 어자문, 은제파수부배, 소그드, 8세기(東京國立博物館・大阪市立博物館・日本經濟新聞社, 1985, 『シルクロードの遺寶-古代・中世の東西文化交流』, 130쪽)



(도 39) 자물쇠, 섬서성 서안 하가촌, 당, 섬서성박물관(國家文物國 主編, 1997, 앞의 책, 107쪽, pl. 123)

정형함의 기형은 섬서성 하가촌이나 범문사 후실지궁에서 출토된 금동제함과 비교하여 보았듯이 중국 전통 기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계보는 토대자촌 사리함의 자물쇠의 형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대나무 형태의 자물쇠는 하가촌의 금동함에 사용되었던 자물쇠의 형태와 비교되기 때문이다(도 33·40). 사천왕상 도상의 큰 흐름에서 보자면 8세기 후반과 9세기 전반 사이에 중국에서 유행한 도상이지만, 사천왕들을 모시고 있는 양쪽에서 있는 사자나 반가 또는 좌상을 한 사천왕들의 앉은 자세에 주목하여 한반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일본에서 활동한 하성의 사천왕 본과 연결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표면장식 기법 면에서 볼 때 뚜껑의 연화문이나 뚜껑과 몸체 전면에 시문된 어자문의 경우 중앙아시아에서 그 계보를 찾을 수 있었다.

자촌 사리기 어자문은 중원 계통보다는 중앙아시아 소그드 계통이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까지 토대자촌의 선조사천왕문은제함을 살펴본 결과 앞서 살펴보았듯이 녹

IV. 맺음말 – 발해 사리기의 미술사적 의의

이제까지 발해 상경성에서 출토된 토대자촌과 백묘자촌의 7종 사리함을 통해 발해 사리기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사리기가 출토된 사지의 성격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들 사리기들이 출토된 유지의 성격이 상경성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찰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주변에 탑의 지궁이나 사리각의 존재가 고찰되지 않는 것은 사리구 매납의 의미뿐

아니라 탑의 존재 유무, 더 나아가 목탑, 전탑, 석탑 등 탑의 재질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미제로 남게 한다.

현재 중국 학자들은 백묘자촌과 토대자촌의 사리기가 출토된 지점을 東大寺와 西大寺로 비정하고 있다. 이는 상경성이 일본 평성경을 모델로 축조되었다고 전제한 데서 나온 의견이다. 하지만 고구려와 신라 왕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평성경을 모델로 상경성을 축조했다고 보고, 더 나아가 동대사와 서대사로 비정하는 관점은 유보하기로 한다.

다음으로는 발해 상경성 사리기의 기형적 특징에 대해서 살핀 바를 정리하기로 한다. 이들은 유리병을 제외하고는 모두 녹정형의 기형을 가지고 있으며 7중으로 중첩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녹정형의 뚜껑을 가진 함의 구조로 중첩되어 있는 사리기의 구조는 중국 법문사 8중 사리기와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발해 사리기에서는 중국 9세기의 사리기와 긴밀히 연관되면서도 발해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다수 관찰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바깥쪽의 사리함으로 석함을 쓰는 것과 사리를 담은 용기로 유리병을 쓰는 전통에 대해서이다. 이는 수대의 인수사리기부터 일정하게 내려오는 전통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7세기 사찰인 미륵사와 분황사의 사리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양상이다. 이는 발해 사리기가 일정하게 동아시아 사리구의 흐름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다소 고식의 전통을 고수하는 특징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는 다른 곳에서는 사리기로 쓰이지 않는 철제함이나 평탈칠기가 사리기로 애호되는 양상을 들 수 있다. 이는 이들 사리기가 발해 상경성에서 제작된 것임을 의미함과 동시에 발해의 발전된 공예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은 토대자촌 평탈칠함의 경우, 직물의 도안을 상기시키듯이 연속적으로 장식되었는데, 통일신라와 당에서는 금속판을 쓰는 반면 금속선을 이용하여 유려하게 장식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금속선을 주문양의 일부로 적극 끌어들여 문양화한 것은 그간 고려 나전칠기의 특징으로 파악된 것인데, 발해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이 흥미롭다. 이는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의 발해 공예가 국제적인 수준이었던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는 발해 금공 기법에서 중원계가 아닌 북방계나 중앙아시아계의 기술이 발견되는 점이 주목된다. 토대자촌 금동사리기 배경 전면에 시문되어 있는 어자문의 계통을 정리한 결과 赤峰 북부에 위치한 松山區城子香洞山村窖藏에서 발견된 摩羯形金花提梁銀壺의 어자문과 연결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 호의 어자문은 대개 세로줄로 방향을 잡으면서 약간 성긴 배치를 보이는 소그드나 돌궐계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발해 사회와 중앙아시아의 긴밀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토대자촌의 사리기 안에 넣어져 있었던 라파스 라줄리와 진주 등의 희귀 보석의 수용 과정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토대자촌의 은제사리함을 통해 제작연대를 고찰해 보았다. 이 사리함에 표현된 사천왕들을 모시고 양쪽에 서 있는 시자나 반가 또는 좌상을 한 사천왕들의 앉은 자세에 주목하여 한반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일본에서 활동한 하성이 그린 사천왕의 도상과 연결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결과 그 연대를 9세기 중반 정도로 이해했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에서 9세기의 공예품은 많지 않아서 9세기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발해의 사리기를 비롯하여 공예품들을 면밀히 고찰한다면 발해뿐 아니라 통일신라 하대의 공예에 대한 지평도 넓혀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문〉

- 강승남, 1994, 「유적, 유물을 통하여 본 발해 제철, 제강 기술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2기.
- 강우방, 2000, 「佛舍利莊嚴論—經典, 佛塔, 佛像의 상관관계」, 『法空과 莊嚴』, 열화당.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2, 『신라왕경 발굴조사보고서』.
- 金太順, 1998, 「上京龍泉府와 새로 발굴된 舍利函」, 『高句麗研究』 6, 高句麗研究會.
- 다무라 고이치(田村晃一) 외 지음, 임석규 옮김, 2008, 『동아시아의 도성과 발해』,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발해의 역사와 문화』.
- 리화선, 1989, 「고구려 평양성외성안의 리방의 형태와 규모 그 전개에 대하여」, 『역사과학』 제1기.
- 박대남, 2009, 「사찰구조와 출토유물로 본 분황사 성격 고찰」, 한국고대사탐구 2009년 6월 월례회 발표요지.
- 方學鳳·朴相份, 1998, 『渤海의 佛敎 遺蹟과 遺物』, 書景文化史.
- 송기호, 1992, 「발해 불교의 전개 과정과 몇 가지 특징」, 『韓國佛敎文化思想史』 上, 伽山 李智冠스님 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 송기호, 1995, 『발해정치사연구』, 일조각.
- 신숙, 2004, 「統一新羅 平脫工藝 연구」, 『美術史學研究』 第242·243號, 한국미술사학회.
- 沈盈伸, 1997, 「통일신라시대 四天王像 연구」, 『美術史學研究』 第216號, 한국미술사학회.
- 안휘준, 1988, 「한일회화관계 1500년」, 『한국회화의 전통』, 문예출판사.
- 楊泓, 2000, 「中國 隋, 唐代 舍利容器」,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 — 韓·中·日 舍利莊嚴具의 綜合的 檢討』, 特別展 紀念 國際學術 심포지엄 발표요지, 통도사성보박물관.
- 王承禮 著, 송기호 역, 1987, 『발해간사』,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7.
- 李康根, 1999, 「渤海 上京龍泉府의 寺院建築」, 『渤海美術의 國際性과 韓國的 特徵』, 韓國美術史研究所·韓國佛敎美術史學會, 國際學術大會.
- 이난영, 1991, 「어자문기법」, 『진단학보』 71·72.

- 이난영, 1992, 『韓國古代金屬工藝研究』, 一志社.
- 이병건, 2006, 「발해 사찰유적의 건축형식 연구」, 『高句麗研究』 Vol. 22.
- 이승란, 2009, 「미륵사지 금동사리외호의 제작기법과 문양 분석」, 『신라사학』 제16호, 신라사학회.
- 임지윤, 2007, 『高麗時代 魚子文工藝品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대일, 1998, 「발해의 공예」, 『조선공예사(고대 중세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2, 『발해의 유적과 유물』, 서울대학교출판부.
- 주경미, 2003,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 주경미, 2003, 「중국 불사리 장엄의 연구 현황과 과제」, 『中國史研究』 26輯, 중국사학회.
- 채해정, 2001, 「통일신라 금속 및 칠공예품의 기법과 문양 연구」, 『미술사연구』 제15호, 미술사연구회.
- 崔茂藏, 1989, 「渤海의 古墳·土器 및 裝身具」, 『韓國史論』 19, 국사편찬위원회.
- 崔聖銀, 1999, 「渤海(698-926)의 菩薩像 樣式에 대한 考察」, 『渤海美術의 國際性과 韓國的 特徵』, 韓國美術史研究所·韓國佛教美術史學會 주최-國際學術大會(1999. 9. 11).
- 최연식, 2005, 「8세기 신라 불교의 동향과 동아시아불교계」, 『불교학연구』 12.

〈중문·일문〉

- 甘肅省文物工作隊, 1966, 「甘肅省涇川縣出土的唐代舍利石函」, 『文物』 第3期.
- 京都國立博物館·各古屋市博物館·東京國立博物館, 1989, 『平城京展』.
- 邱玉鼎·楊書杰, 1986, 「山東平陰發現大隋皇帝舍利寶塔石函」, 『考古』 第4期.
- 龜田博, 2000, 「黃龍寺附近の坊」, 『日韓古代宮都の研究』.
- 奈良國立博物館, 1983, 『佛舍利の莊嚴』, 東京: 同朋社.
- 段鵬琦, 1980, 「陝西省何家村唐代金銀器小議」, 『考古』 第6期.
- 丹化沙, 1978, 「黑龍江寧安出土的舍利函」, 『文物資料叢刊』 第2期.
- 『唐の女帝·則天武后とその時代展』, 東京: 東京都美術館, 1998.
- 『唐皇帝からの贈り物』, 長岡: 新潟縣立近代美術館, 1999.
- 東京國立博物館·大阪市立博物館·日本經濟新聞社, 1985, 『シルクロードの遺寶—古代·中世の東西文化交流』.
- 東野治之, 1988, 「魚子打ちの技術」, 『正倉院』, 東京: 岩波書店.

- 樊瑞平·郭玲娣, 1999, 「河北正定舍利寺塔基地宮清理簡報」, 『文物』第4期.
- 徐秀云, 2008, 「渤海故地再次發現舍利函」, 『北方文物』第2期.
- 陝西省博物館·陝西省博物館管理委員會, 1972, 「西安何家村發見唐代窖藏文物」, 『文物』第1期.
- 陝西歷史博物館·北京大學考古博物院, 2003, 『花舞大唐春』, 北京: 文物出版社.
- 小杉一雄, 1980, 『中國佛教美術史の研究』, 東京: 新樹社.
- 孫秀仁, 1979, 「唐代渤海的佛像和舍利函」, 『黑龍江古代文物』, 黑龍江人民出版社.
- 宋玉彬, 2009, 「渤海都城址研究」, 『考古』第6期.
- 宿白, 1986, 『中國大百科全書』考古卷,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安圖縣文物志編寫組, 1985, 『安圖縣文物志』.
- 王輝·叶居曉·趙哲夫, 2000, 「黑龍江考古文物圖鑑」, 黑龍江人民出版社.
- 龍井縣文物志編寫組, 1984, 『龍井縣文物志』.
- 于建設, 2006, 『赤峰金銀器』, 呼和浩特: 遠方出版社.
- 魏存成, 1984, 「渤海的建築」, 『黑龍江文物叢刊』第4期.
- 魏存成, 2007, 『渤海考古』, 北京: 文物出版社.
- 由水常雄, 1992, 「中國·朝鮮の古代ガラス」, 由水常雄 編, 『世界ガラス美術全集』4 中國·朝鮮, 東京: 九龍堂.
- 殷稼, 1992, 「中國で發見された古代のガラス」, 『中國の金銀ガラス展』, 大阪: NHK 大阪放送局.
- 林良一, 1993, 『東洋美術の裝飾文様—植物編』, 東京: 同朋社.
- 長谷川道隆, 1992, 「北魏, 隋代の塔基と出土舍利容器—インドのストゥパを導入して」, 『古文化談叢』28.
- 張太瀟, 1981, 「大城子古城調查記」, 『文物資料叢刊』第4期.
- 梓筠, 1979, 「寧安縣發現的唐代舍利函」, 『學習與探索』第4期.
- 定縣博物館, 1972, 「河北定縣發現兩座宋代塔基」, 『文物』第8期.
- 齊東方, 1994, 『唐大金銀器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朱國忱, 1988, 「近年渤海上京及其附近發見重要遺跡·遺物」, 『遼海文物學刊』第2期.
- 周迅·高春明 編, 1996,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 中國文物精華 編輯委員會 編, 1997, 『中國文物精華』, 北京: 文物出版社.
- 『中國の金銀ガラス展』, 大阪: 大阪市立博物館, 1992.
- 中野政樹, 1983, 「日本の魚子文—受容と展開」, 『Museum』393, 東京國立博物館.

曾布川寬·谷豊信 編, 2002, 『世界美術大全集』, 東京: 小學館.

崔順子, 2000, 「渤海的佛教與蓮花紋裝飾圖案」, 『渤海文化研究』, 吉林人民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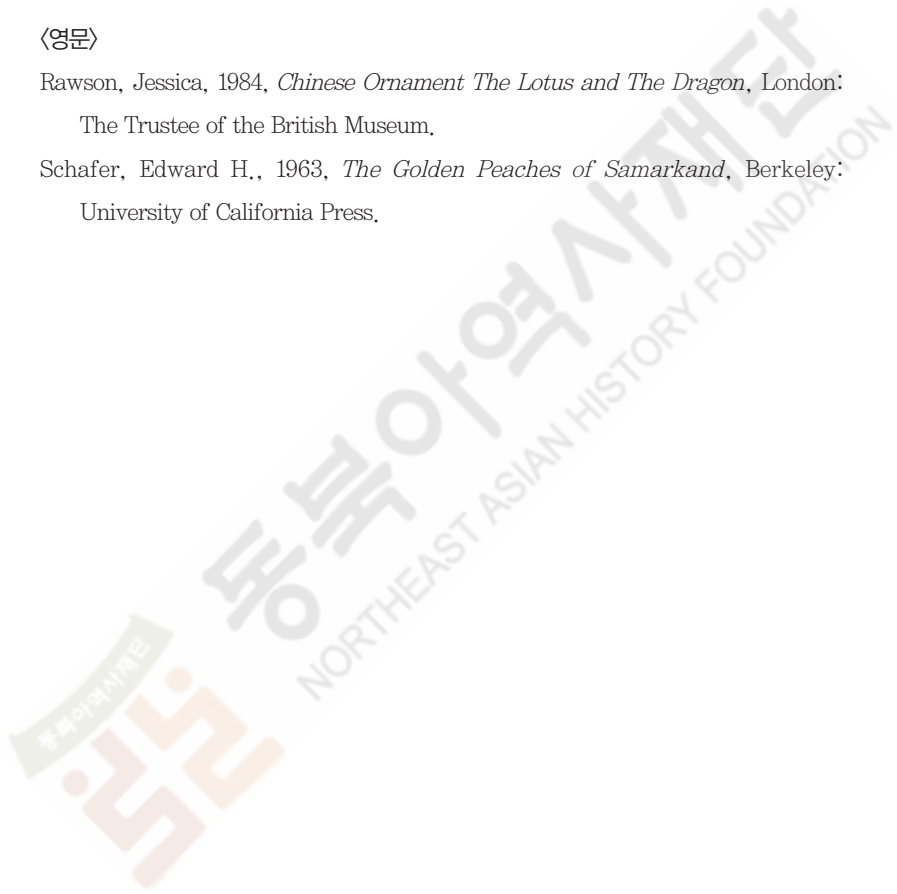
何明, 1983, 「論唐代渤海的佛教」, 『博物館研究』 第3期.

河北文化局文物工作隊, 1966, 「河北定縣北魏石函」, 『考古』 第5期.

〈영문〉

Rawson, Jessica, 1984, *Chinese Ornament The Lotus and The Dragon*, London: The Trustee of the British Museum.

Schafer, Edward H., 1963, *The Golden Peaches of Samarka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BSTRACT]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Excavated Buddhist Reliquaries from Balhae
Sanggyongsong

Lee, Songran

This paper seeks to explore the features of buddhist reliquaries excavated from Sanggyongsong, the capital of Balhae. Until now there has been 6 sets of buddhist reliquaries from Balhae. Among these those that can be used for research was a 7 dimension buddhist reliquaries was composed of a stone box, a wooden box, a copper casket, a gilt-bronze casket, a silver casket, golden casket and a glass bottle, excavated from Hungnyonggangsong, Younganhung in Baekmyojachon of Balhae in spring, 1975. Also, another 7 set relic reliquaries consisted of a stone box, a iron casket, a wooden casket, a copper casket, a gilt bronze casket, a silver chest and a glass bottle excavated in Baekmyojachon of Balhae in 1997 were crucial role in understanding of buddhist reliquaries of Balhae.

The uncovering of pertinent archaeological and textual evidence makes it difficult to accurately characterize the excavation site, posing numerous problems for research. In addition, since the buddhist reliquaries are not disclosed, it is not possible to actually demonstrate the full composition of the buddhist reliquaries. However, by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reliquaries of the Three Kingdom Period of Korea, Sui and Tang Dynasty of China with those of the

Balhae reliquaries' composition and its meaning and characteristics were designated by defining the reliquaries' traits that have reflected the craft of Balhae.

The characteristics of Balhae reliquaries that have found a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are many other unique elements of style and iconography of Balhae reliquaries. Apart from the glass bottle that holds the relic, all reliquaries have the form of frustum of pyramid and they are all super positioned in seven folds. This is the form that follows the books of Buddhist Sutra. The chests in the form of frustum of pyramid can be compared to the gilt-bronze chest excavated from Famensi (法門寺).

In relation to this stone chest was found to do the role of a outer chest. The use of stone casket as outer chest can be proved by ploding through India's sutra, Mahāvamsa, where it asserts that in a stone casket made up of 6 pieces of stones. China also have used stone chests as outer casket since the Northern Dynasty for many dynasties and in Korea stone box were found in Wangheung Temple (王興寺) Ground, Mireuk Temple (彌勒寺) Ground of Baekje, and Bunhwang Temple (芬皇寺) Ground of Shilla.

In addition, a iron casket the case of reliquaries from Baekmyojachon should be noted. This is a unique composition that cannot be found in China or Korea. In other Balhae ruins, there has been numerous stone sarira caskets excavated.

Next is the research results regarding the Former Four Devas Silver casket of the Todaejachon for the chronical recording of Balhae relic dishes excavated in Sanggyongsong. The Four Devas inscribed in this casket thought to be a then popular icon in China during the late 8th century and early 9th century. It was possible to know that these icons

were Four Devas since the 693 translated Korean version of *Pu k'ung ch'uan so t'o lo ni tzu tsai wang chou ching* (不空絹索陀羅尼自在王呪經)』 points this out.

The all of Four Devas figure of Todaejachon sit on two devils and two of the figures have one leg down whereas the other two have both legs down. Regarding the sitting position these statutes are sometimes categorized as seated figures but in case of one leg down position it is also categorized as one leg half crossed position. The Four Devas sitting on two devils can find its lineage from the Four Devas figures that decorated the tiles on a coated green-glass of Gameun Temple which was built in 679 (King Moonmu 19). But the items that the Four Devas are carrying do not match.

Similarity in items and positions of Four Devas can be found with the Deva drawn on the southern wall of 15th cave in Ansu Yurim Cave of China, which seem to be drawn between late 8th century and the early 9th century. This figure sits on two devils with a bow on his right shoulder and carrying the arrow horizontally in his two h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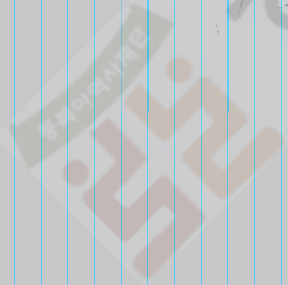
Meanwhile what is interesting about the Four Devas figure in Todaejachon silver casket is that it has two attendants on its side. This composition cannot be found in China's other figures. This unique stylistic features can be pointed to a Four Devas figure that is suggested to be drawn by a Baekje descendant, Haseong (河成, 782~853), who had a career in Japan during the early, mid 9th century. When compared with the Four Devas figure drawn by Haseong it seems that the reliquaries of Todaejachon can be chronically pointed out during mid 9th century.

keywords

Buddhist reliquaries, Balhae, Four Devas, Sanggyongsong, Haseong (河成)



논문



초기 고구려 종족 계통 고찰

- 예맥족을 중심으로 -

조영광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I. 머리말

고구려사는 우리나라의 고대사 연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고대사 자체가 자료 부족과 시기적 遐遠性으로 인해 연구에 많은 곤란함이 있다. 특히 우리 학계에서 고구려의 種族¹⁾ 起源에 대한 문제는 극히 소략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1980년대 이후에는 논의가 다소 줄어들었다가 근래에 와서 새로운 연구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최근까지의 연

※ 투고일: 2009년 10월 23일, 심사일: 2009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0년 2월 28일.

1) 고구려의 종족 기원에 관해서 지금까지 한·중·일의 학자들에 의해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나왔다. 최근 들어 특히 양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중국 연구자들의 경우 ‘民族’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民族의 개념은 국가와 밀접히 연결되어 정치적 성격을 띠는 점에서 種族(ethnic group)과 구분되고(김광익 외, 2005, 『종족과 민족—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아카넷, 21쪽), 단순히 혈연, 체질적으로 공통성을 가진 존재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문화적 동일성과 민족관을 갖게 된 집단을 의미한다(김현숙, 2007, 「고구려의 종족기원과 국가형성과정」, 『대구사학』 89, 33쪽). 따라서 이 글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뜻하는 ‘종족’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구성과가 양적으로는 부족한 형편이지만, 질적으로 수준 높고 의미가 큰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이 글은 이러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기초로 해서 흔히 濊貊族(貊族)으로 칭해지는 초기 고구려의 종족 계통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고구려의 종족 기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해 볼 것이다. 그다음은 기존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고구려의 건국에서 예맥족과의 관련성에 대한 단서들을 제공하며, 先秦시기의 문헌들과 『三國志』 이후의 문헌들을 연결해 주는 위치에 있는 『史記』·『漢書』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예맥 관련 문헌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고구려의 종족 기원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 원부여(濶離)와 滄海郡의 위치 고증을 통해 고구려 건국 전 예맥족의 분포를 재검토하고, 예맥족, 특히 고구려의 근간이 되었던 맥족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명해 보고자 한다.

II. 고구려의 種族 起源에 대한 既設의 검토와 중국 史書에 보이는 濊貊

1_ 고구려의 種族 起源을 둘러싼 諸說

고구려의 종족 기원과 관련한 기존의 국내와 일본 학계의 이해는 韓民族 혹은 古朝鮮의 종족 기원 문제와 맞물리어 주로 濊·貊·濊貊(穢貊) 등의 명칭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예·맥 동종설과 예·맥 이종설로 설정된다. 동종설은 조선 후기 정약용이 맥은 종족명이요, 예는 지명 또는 水名이라고 보아 예맥은 九貊의 일종을 지칭한 것이라 본 것이 시초다.²⁾ 三品彰英은

2) 『我邦疆域考』 卷2 濊貊考.

先秦 文獻상의 貊은 북방민족의 범칭이며, 예는 漢代에 처음 보이는데, 한대의 범칭적인 예는 부여·고구려·동예를 포괄하는 명칭이고, 예맥이라는 속어적인 호칭은 예라는 현실적 민족명과 北方族에 대한 고전적 범칭인 맥을 결합시킨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고구려를 지칭한 맥은 민족명인 범예족 내의 특정 부족의 이름으로 이해하였다. 곧 한대 이후의 맥은 예와 동일계통이라는 것이다.³⁾ 윤무병은 예맥이라는 명칭은 『史記』에서부터 사용되었는데, 예족과 맥족을 합친 범칭이 아니라 맥족인 고구려를 지칭한 것이었고, 한대 이후의 예와 맥은 동일한 계통 내에서 각각 구분되는 실체로 파악하였다.⁴⁾ 김정배 역시 예·맥은 동일계 족속으로 그 분포지역에 따라 각각 구분된다고 보았다.⁵⁾

異種說은 三上次男이 대표적이다. 그는 예족을 有紋土器문화를 영위하고 생활방식에서는 수렵·어로 비율이 컸던 고아시아 계통으로 이해했고, 맥족은 無紋土器문화를 남긴 통구스족으로 보았다.⁶⁾ 그러나 그의 설은 빗살무늬토기문화와 민무늬토기문화가 동시대의 것이 아니라, 시대적 先後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부정된다.

한편, 李玉은 예족과 맥족은 중국 산서성·하북성 방면에 각각 거주하다가 점차 동으로 이동해 왔다고 보았다. 기원전 3세기 무렵 길림의 장춘, 농안 방면에 먼저 정착하고 있던 예족은 이후 맥족에 밀려 南遷하고, 다시 고조선에 의해 쫓겨났는데, 그것이 곧 『漢書』 卷6 武帝紀에 등장하는 濊君 南閩 집단으로, 이 濊의 일부가 맥족에 흡수되어 기원전 2세기 무렵에는 새로운 종족인 예맥이 성립했으니 그것이 곧 고구려족이라고 보았다.⁷⁾

● 본래 선진 문헌의 貊과 穢라는 별개의 족칭에서 출발해 예맥이라는 連稱에 이르게 되는 예·맥·예맥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었다.

3) 三品彰英, 1953, 「濊貊族小考」, 『朝鮮學報』 4.

4) 윤무병, 1966, 「濊貊考」, 『백산학보』 1.

5) 김정배, 1963, 「예맥족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5; 김정배, 1973, 『한국민족문화의 기원』, 고려대학교출판부.

6) 三上次男, 1951, 「穢人とその民族的性格について」, 『朝鮮學報』 2.

7) 이옥, 1984, 「종족의 기원」, 『고구려민족의 형성과 사회』, 교보문고.

근래에는 가일층 精緻한 문헌비판과 진전된 고고학 발굴성과들을 토대로 문헌에 나타난 예·맥 등의 용례를 시대별로 분석해 도식적으로 연결하던 과거의 시도들을 극복하고, 고구려의 족칭으로 등장한 貊을 고구려의 건국과 관련하여 해석하려는 질 높은 연구성과들이 다수 나왔다. 이러한 연구의 필두로 여호규의 견해를 들 수 있는데, 그는 고구려의 종족적 기원에 대해 기존의 주장들을 정리하며 고구려의 기원이 된 주민집단에 대해 원래 예족 혹은 예맥족의 일원이었다가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 초경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주변 예맥사회와 구별되는 집단을 형성했고, 그들이 기원전 2세기 후반경부터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았다. 그 집단(정치세력)이 처음에 句驪라 불리다가, 高句麗라는 국가명으로 고정되면서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점차 貊이라는 종족명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⁸⁾

최근에 예맥의 실체에 대해 문헌과 고고학을 종합한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는 송호정 역시 대체로 위와 같은 여호규의 견해에 동의하며, 늦어도 기원전 3세기 말에 독자적 문화를 이룩한 압록강 중·상류역의 주민집단은 '句驪種族', 그리고 고구려의 모체를 이룬 사회라는 의미에서 原高句麗社會⁹⁾라 부를 수 있다고 보았다.¹⁰⁾

김현숙도 선진 문헌의 맥과 고구려를 지칭하던 맥은 별개라는 견해를 수용하며, 선진시기 이래 요동지역에 거주해 오던 예가 곧 예맥이고 여기서 다시 예와 맥(고구려)으로 분화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초기 고구려의 탄생을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과 유리집단,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沸流水 일대로 내려와

8) 여호규, 1996, 「고구려의 기원」,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여호규, 2007, 「고구려의 기원과 문화기반」,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여기서 맥족은 예족과 종족적으로 구분되는 先秦 이전의 개념이 아니라, 예맥족에서 파생된 것으로 고구려라는 국명을 대신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9) 고구려의 모체가 되었던 사회 혹은 정치세력에 대해 이병도는 proper(원) 고구려라 부른 바가 있고(이병도, 1976, 「玄菟郡考」,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61~164쪽), 지병목은 적석묘를 축조하던 토착세력이 각기 독자적 세력으로 존재하던 고구려 성립 이전의 사회를 原高句麗社會라 칭하였다(지병목, 1987, 「고구려성립과정고」, 『백산학보』 34, 53쪽).

10) 송호정, 2007a, 「고구려의 기원과 예맥」, 『고구려연구』 27, 121쪽.

주변의 貊과 역사적 경험을 같이하며 동화의 길을 걷던 졸본부여, 그리고 松壤의 비류국을 위시한 압록강 유역의 토착세력들이 결합한 결과물로 파악한 바가 있다.¹¹⁾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는 1980년대 이전까지는 고고학적 성과를 제외하고는 별로 이렇다 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 점차 활발해져 1990년대 중반부터는 다수의 단행본들까지 간행하며 고구려 역사 연구에 박차를 가해 왔다.¹²⁾ 이는 1980년대 이후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과 맞물려 대내적인 결속을 강화하고자 이른바 邊疆史 연구가 국가 중점사업으로 정해져 진행된 것과 연관이 크다. 특히 고구려사 연구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중심과제로 책정되어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많은 학자들에 의해 행해졌다.¹³⁾

이러한 중국 학계의 고구려사 연구는 개괄적인 정치제도사 외에 연구주제에 따라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었다.¹⁴⁾ 첫째는 고구려의 族源, 곧 민족(소위 고구려족)의 기원에 관해서이다. 둘째는 고구려 문화에 관한 것으로, 특히 漢文化와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은 고구려의 멸망과 그 후 유민의 증원 유입에 관한 연구이다. 본절에서는 이들 중 고구려의 민족형성에 대한 중국 학계의 연구성과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고구려의 민족적 원류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고구려 족원에 대한 고전적 견해라 할 수 있는 穢(濊)貊族설로, 1980년대에 출현해 1990년대 초반까지 거의 정설로 자리 잡았던 견해이

11) 김현숙, 2007, 앞의 글, 39~42쪽.

12) 고구려 族源과 관련된 중국 학계의 연구성과는 김현숙이 자세히 정리하였다.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족원문제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 『중국의 한국고대사연구분석』, 고구려연구재단.

13) 耿鐵華, 2000, 「我國歷史教科書中對高句麗提法的變化與說明」, 『高句麗歷史與文化』, 103~105쪽.

14) 고구려의 族源에 대한 중국 측의 학설에 대한 정리는 王綿厚의 글이 참고할 만하다. 王綿厚, 2006, 「高句麗起源的國內外代表性觀點解析—再論高句麗族源主體爲遼東‘二江’和‘二河’上游‘貊’部說」, 『社會科學輯刊』2006-1. 이 글에서 王綿厚는 고구려의 족원에 대해 제설들을 穢貊, 高夷, 高夷-貊部, 夫余, 古朝鮮, 商人說 등 6분해 정리했다.

다.¹⁵⁾ 다음은 夫餘 출자설로, 고구려는 肅慎계통의 통구스족인 부여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다.¹⁶⁾ 이는 『三國史記』의 기록 등에 근거한 것이다. 사실 속신 출자설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하다.

위의 두 설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오고 기존 북한·한국·일본 등의 견해를 수용해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라면, 이제 소개할 두 설은 최근 중국 학계의 자체에서 등장해 내부적으로 큰 반향과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먼저, 炎帝族說은 고구려와 부여 모두가 중국 山東省에서 기원하였고, 중국 전설의 제왕인 炎帝 神農氏의 후예라는 견해이다.¹⁷⁾ 이 설은 최종적으로 큰 틀로서 漢族을 형성한 구성체의 하나인 염제계통의 동이족이 고구려의 종족적 기원을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 중요한 근거를 거의 고구려 명칭의 음운적 변개 고찰에 의존하고 있어 논거가 극히 희박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지향하는 오늘날 중국 정부의 현실적 이해관계와 완전히 부합됨에 따라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가설이다.

그리고 끝으로 商人(高夷)說은 최근에 다수의 중국 학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는 견해이다.¹⁸⁾ 이 설은 『逸周書』 王會篇, 『管子』 小匡篇 등을 근거로 殷·周 교체기에 周族에게 쫓긴 商族의 일파가 東北으로 진출해 고구려(기록 상에는 '高夷'로 나옴)를 건국했다고 본다. 물론 이 견해도 대내외적으로 사료

15) 중국 학자들 중 고구려의 기원을 穢貊으로 잡는 이는 대표적으로 楊保隆, 王綿厚, 孫玉良, 孫進己, 張博泉 등이다. 張博泉, 1983, 「東北古史研究中幾個問題」, 『東北史研究』 1983-1; 孫進己, 1987, 『東北民族原流』, 黑龍江人民出版社; 楊保隆, 1998, 「高句麗族族源與高句麗人流向」, 『民族研究』 1998-4;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王綿厚, 2004, 『高句麗與濊貊研究』, 哈爾濱出版社; 李春祥, 2006, 『高句麗與東北民族疆域研究』, 吉林文史出版社; 楊軍, 2006, 『高句麗民族與國家的形成和演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6) 金毓黻, 1976, 『東北通史』, 臺北: 洪氏出版社; 王健群, 1987, 「高句麗族屬探源」, 『學習與探索』 1987-6; 金岳, 1994, 「東北貊族原流研究」, 『遼海文化學刊』 1994-2.

17) 李德山, 1992, 「高句麗族稱及其族屬考辨」, 『社會科學戰線』 1992-1.

18) 본격적으로 이러한 견해를 펼친 사람은 亓犁로, 논문 「高句麗族探源駁議」(1993,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에서 피력했고, 그 후 이를 지지하는 많은 연구가 나왔다.

적 가치를 인정받은 글들으로써 근거를 내세우지는 못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고구려 문화와 商(殷)문화에 관한 연구를 병행해 논지를 강화했다.¹⁹⁾ 하지만 억지로 가져다 붙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위에서 개략적으로나마 중국 학계의 고구려의 족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 보았다. 이들 연구가 가진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먼저 고전적인 견해인 濊貊 출자설과 夫餘 출자설의 경우,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고구려가 부여에서 출자했고, 부여와 고구려가 모두 濊(貊 또는 濊貊)으로도 칭해짐이라는 고대의 민족집단에서 나왔다는 것이 사료에 나오기 때문이다.²⁰⁾

하지만 약간 더 들어가 보면 이들이 갖는 문제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이들은 앞서 본 대로 예맥족이 韓民族과는 상관없는 肅慎, 곧 고려·조선시대의 여진족과 오늘날 만주족의 조상들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는 명백한 오류로, 중국의 正史書들도 숙신이 동이족 중에서 유일하게 말과 풍습이 달랐음과 예맥·부여와 전혀 무관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고고학적으로도 원시적 수렵민족인 숙신족들이 남긴 유물은 거의 없고, 기록에 나오는 예맥족의 분포지역과 그곳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古朝鮮의 것과 대개 일치한다.²¹⁾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볼 때 중국 측의 주장은 일부 사료나 자료만을 이용하여 세운 현실 정치질서의 유지를 위한 억지 논리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은 가장 최근에 대두한 고구려 民族의 族源이 오늘날의 漢族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는 商人(殷人)에서 기원한다는 주장에서 더 한층 강화된다. 이른바 商族 출자설로 불리는 이 견해는 논거로 제시하는 기록 자체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²²⁾ 시기적으로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기록상의

19) 泂犁, 1993, 위의 글.

20) 『後漢書』 卷85 東夷 夫餘條.

21) 김정배, 2000, 『한국고대사와 고고학』, 신서원, 148~150쪽.

22) 이들이 주된 근거로 하는 『逸周書』, 『管子』 등의 선진 문헌은 인용에 앞서 엄밀한 사료비판이 선행되어야 하나, 대부분 이 과정이 결여되어 있어 문제가 많다. 正史인 『史記』의 기록도 東周시대 이상의 것은 매우 세밀한 사료비판을 요구한다. 하물며 위의 기록들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해 논거로 삼는 것은 위험하고 비객관적인

‘高夷’와 고구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은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더 나아가 다민족국가 중국의 일원으로서 고구려를 파악하던 기존의 견해를 넘어서, 고구려를 漢族의 역사로 가져다 붙이려는 牽強附會식의 주장은 결코 올바른 역사 해석이라 할 수 없다.

2. 중국 史書에 등장하는 貉(貉)·穢(穢)의 실체와 개념 변화

貉(貉)과 穢(穢)는 가장 이르게는 중국의 先秦시기 문헌에서부터 등장한다. 先秦시기 예와 맥이 분명히 구분되는 두 개의 종족이었다는 것은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합치된다. 그러나 그 이후 예족과 맥족의 流向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시작으로 갈래지음을 할 수 있다. 첫째는 예족과 맥족이 이동 혹은 결합을 통해 후에 예맥족을 형성한다는 것이고,²³⁾ 둘째는 근본적으로 선진 문헌에 나타나는 맥은 이후 고구려를 지칭한 맥과는 무관한 북방민족의 범칭일 뿐으로 예맥은 예족이 예맥으로 불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이다.²⁴⁾ 선진시기 문헌에서는 貉이 穢보다 빨리 나타나는데, 아래의 『詩經』 韓奕篇은 貉의 존재를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다.

薄彼韓城 燕師所完 以先祖受命 因時百蠻 王錫韓侯 其追其貉 奄受北國 因以其伯(『詩經』 大雅 韓奕).

위 사료는 西周시기 周의 왕이 제후인 韓侯에게 주변의 종족 혹은 국가적 성격을 띤 정치집단인 追와 貉을 사여하며 북국을 지킬 것을 명한다는 내용이

것이다.

- 23) 김상기, 1948, 「韓·穢·貉 移動考」, 『史海』 1; 김상기, 1971, 『동방사논총』, 서울대학교출판부, 355~368쪽; 윤무병, 1966, 앞의 글; 김정배, 1973, 앞의 책; 리지린·강인숙, 1971, 『고구려사연구』, 사회과학출판사; 이옥, 1984, 앞의 글; 김현정, 1993, 「부여의 성립에 대한 일고찰」, 『상명사학』 1; 박준형, 2002, 「예맥의 형성과정과 고조선」, 『학림』 22.
- 24) 노태돈, 1996, 「개요」, 『한국사5 삼국의 정치와 사회1-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여호규, 1996, 앞의 글; 三品彰英, 1953, 앞의 글.

다.²⁵⁾ 이 기록은 일찍부터 한국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상고시기 한민족의 이동설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앞절에서도 언급했듯이 문헌 연구의 질적 제고와 고고학적 증거의 부재로 인해 현재 이러한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이다. 곧 위 사료에 보이는 貊을 한민족의 遠祖 혹은 훗날 고구려를 일컫는 貊과는 쉽게 연결시킬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한척편의 貊은 어떠한 실체인가? 필자는 그것을 지금의 중국 陝西省 북부지역이나 하북성 지역에서 활동하던 특정 종족이나 周의 변방지역에 존재하던 方國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한다.²⁶⁾ 우리가 흔히 선진시기 북방 종족의 명칭 혹은 범칭으로 알고 있는 胡의 경우도 殷周시기에는 殷의 북부 지역에 존재하던 鬼方의 작은 方國의 호칭이었다.²⁷⁾ 그러다가 그것이 시기의 흐름에 따라 점차 북방의 이종족들을 두루 일컫는 호칭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貊 역시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西周시기까지는 특정 方國의 이름이었다가, 이후 胡의 용례 변화와 마찬가지로 차차 북방 종족의 범칭 혹은 불특정 이종족의 호칭으로 轉化되지 않았을까 한다. 요컨대 『詩經』 단계까지만 해도 貊은 周의 제후국에 해당하는 韓侯가 통솔할 정도로 작은 정치집단의 고유명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춘추시대 이후의 역사적 상황을 전하거나,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헌들에서는 맥의 용례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詩經』 이후 맥이 등장하는 선진시대 문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25) 사료의 해당 시기는 서주 후기 宣王(재위 기원전 827~기원전 782)대로 추정된다. 심재훈, 2007, 「상쟁하는 고대사 서술과 대안 모색: 『詩經』 “韓奕”편 다시 읽기, 『동방학지』 137, 252~253쪽.
- 26) 後漢 鄭玄은 『毛詩正義』에서 韓의 소재지를 섬서성 북부지역의 韓城으로 비정하였다. 역시 後漢代의 인물인 王肅은 涿郡 方城縣(河北省 固安縣) 부근에 서주의 제후국인 韓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관한 전근대·근현대 중국 학자들의 연구는 최근 심재훈이 잘 정리했다. 심재훈, 2007, 위의 글, 259~267쪽. 이후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 설을 수용했다.
- 27) 張亞初는 殷의 청동기 명문 분석을 통해 胡가 殷代에는 殷의 서북쪽인 陝西省 藍田 일대에 존재하던 작은 方國의 명칭이라는 것을 밝혔다. 張亞初, 1992, 「從古文學談胡, 胡國與東胡」, 『文博』 1992-1.

- A-1. 淮夷蠻貊 及彼南夷 莫不率徒 莫敢不諾(『詩經』魯頌 閟宮).
2. 職方氏掌天下之圖 以掌天下之地 辨其邦國都鄙四夷八蠻七閩 九貉五戎六狄之民……(『周禮』夏官 職方氏).
3. 貊隸掌役服不氏而養獸而擾養之 掌與獸言 其守王宮者與其守 厲禁者 如蠻隸之事(『周禮』秋官 司寇 下).
4. 象胥掌蠻夷閩貉戎狄之國使 掌傳王之言而論說言 以和親之 (『周禮』秋官 象胥).
5. 子張問行 子曰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 言不忠信 行不 篤敬 雖州里行乎哉(『論語』卷9 子罕).
6. 晏子曰 嬰聞與君異 今夫胡貊戎狄之蓄狗也(『晏子春秋』內篇 諫下 景公籍中而獄多欲托晏子晏子諫第一).
7. 桓公東救徐州……救晉公 擒狄王 敗胡貊 破屠何(『管子』卷8 小匡).
8. 鑿爲龍門 以利燕代胡貉與西河之民傳曰 泰山 有道曾孫周王有 事 大事既獲 仁人尙作 以祇尙夏蠻夷醜貉 雖有周親 不若仁人 萬方有罪 維予一人……(『墨子』卷4 兼愛篇 中).
9. 大王之國 北有胡貉代馬之用(『戰國策』秦策).
10. 命將軍, 大夫, 適子, 戍吏皆貉服(『水經注』河水條 所引『竹書 紀年』趙武靈王).

위의 사료들은 선진 문헌 중에서 貊(貉)의 존재를 전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다. 위 기록들 중 춘추시대 魯 僖公(재위 기원전 659~기원전 627)대의 사실을 전하는 사료 A-1~6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貊이 단독으로 사용되어 특정 종족을 지칭하기보다는 다른 글자들과 결합해 東西南北의 방위를 불문한 불특정의 이종족, 곧 중화주의적 華夷觀에 입각한 오랑캐 세력을 막연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²⁸⁾

그리고 A-7의 경우는 춘추시대 齊 桓公(재위 기원전 685~기원전 643)이 핏에 침입한 북방 종족인 北狄을 격퇴하였음을 전하는 사료이다. 춘추시기 핏

28) 이와는 차이가 조금 있지만 三品彰英은 先秦시기의 貊은 北方民族의 汎稱이라 지적하였다. 三品彰英, 1953, 앞의 글, 4~6쪽.

은 山西省과 陝西省 북부지역에 위치한 나라로, 여러 북방 부족들과 접하고 있었다. 이들의 침입을 받은 쯤은 齊의 도움을 받아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를 狄王으로, 패퇴시킨 세력을 胡貉이라 기록하였다. 당시 진의 지리적 입지를 고려한다면 胡貉으로 피칭된 세력이 만주 곧 동북지역의 세력을 지칭한 것이라기보다는 쯤에서 북으로 인접한 북방 이종족 세력을 뜻하는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A-8에서 보이는 胡貉 역시 北京, 河北省 지역에 있던 燕, 代와 병칭되고 있고, 陝西省 서북지역의 秦에 北接한 A-9의 胡貉 또한 A-7의 그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사료 A-10은 유명한 戰國時代 趙 武靈王(재위 기원전 325~기원전 295)의 胡服騎射²⁹⁾ 개혁을 전하는 문장이다. 이 사료에 보이는 貉은 조나라가 국방개혁의 목표로 삼은 胡(匈奴)를 지칭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 시기에는 북방 종족 곧 흉노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貉을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료 A-7~10을 다시 음미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찾아지는데, A-10을 제외하고는 모두 貉이 胡와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胡가 貉에 비해 북방적 색채가 더욱 강한 호칭임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貉은 북방 종족의 범칭이었다고 방위적 범위를 한정짓기보다는 A-1~3의 용례처럼 그저 胡의 뒤에 붙어 불특정 이종족들에 대한 범칭 혹은 蔑稱적 접미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함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다. A-8에는 胡貉과 함께 지칭하는 대상이 막연한 醜貉이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이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전 선진시기 동안 貉이 北方民族의 凡稱으로만 사용되었다는 三品彰英과 顧頡剛³⁰⁾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 용례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다. 貉(貉)이라는 동일 글자로 표현되었지만 西周~ 秦의 통일까지는 시간적으로도 800년 이상의 격차가 있으므로 선진 문헌에 나타난 맥을 모두 같은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각 문헌의 맥을 시공간적

29) 今吾將胡服騎射以教百姓而世必議寡人 柰何(『史記』卷43 趙世家).

30) 顧頡剛, 1959, 「燕國曾遷汾水流考」, 『中國古代地理名著選讀』, 中國科學院地理研究所.

으로 철저히 분석해 그 역사적 실체를 구명해야겠지만, 현재까지의 고고학 발굴성과의 한계, 문헌 자체의 신빙성 문제 등으로 인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며 정확히 밝혀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문헌에서 반영되고 있는 용례의 계기적 변화에 착안해 최소한의 변화상은 추출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한 사료들은 그 신빙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어 기록 대상 시기를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들다. 하지만 그 저작 또는 정리 연대를 戰國時代(기원전 403~기원전 221) 혹은 前漢代로 보고 있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貉이 불특정의 이종족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함이 일반적인 용례임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위의 문헌들이 실제로 해당 시기의 사료들을 채록하여 전하는 것이라고 모두 인정을 한다면, 貉은 서주시기 변방의 특정 세력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에서 춘추시대부터 불특정의 이민족을 일컫는 범칭으로 轉化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겠다.³¹⁾

그런데 중국 주변의 이종족들을 두루 일컫는 호칭으로 사용되던 貉이 전국시대 말, 전한 초에 이르러서는 앞서 언급한 胡와 결합한 용례의 증가와 함께 주로 북방 종족의 범칭이나 이를 뜻하는 접미사로 그 사용범위가 좁혀지게 된다. 그러한 변화 원인의 해답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료가 匈奴를 貉으로 묘사한 A-10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엄밀히 정의하면 계기적 변화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생성·추가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³²⁾ 貉이 다시금 특정 종족(정치체)에 대한 호칭으로 개념 변화 혹은 추가가 생기는 것은 고구려가 건국되는 기원전후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貉이 특정 종족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기록들이 있어 주의가 요

31) 필자는 A-1이 춘추시대의 상황을 전하는 것임을 긍정하고 이르면 춘추시대부터 貉은 방위를 불문한 이종족(오랑캐)에 대한 범칭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32) 그러나 이러한 용례의 계기적 변화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史記』(天官書 其西北則胡貉月氏)나 『漢書』(禮樂志 隅辟越遠, 四貉咸福)는 물론 그 후대의 문헌에도 여전히 貉(貉)은 불특정 이종족, 북방 종족의 범칭, 동북방의 종족(濊貉), 특정 종족(고구려의 貉) 등으로 혼재되어 등장하기 때문이다.

구된다. 먼저 이에 관한 사료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B-1. 告子 白圭曰 吾欲以十而取一 何如 孟子曰 子之道 貉道也 萬室之國 一人陶則可乎 曰不可 器不足用也 曰夫貉 五穀不生 惟黍生之 無城郭宮室宗廟祭祀之禮 無諸侯幣帛饗食 無百官有司 故二十取一而足也(『孟子』 告子章下).

2. 貉國在漢水東北 地近于燕 滅之(『山海經』 海內西經).

사료 B-1의 경우 그냥 스쳐서 보면 기원전 4~기원전 3세기 무렵 여타의 종족과 확연히 구분되는貉이라는 실체가 중국 북방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이 기록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貉이 예맥이나 고구려의 맥족과 관련성이 없는 북방 종족을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근거로서 첫 번째는 북방의貉 지역은五穀도 자라지 않고 오직黍[기장]만이 자란다고 한 것으로,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五果는 없지만五穀은 있다”는 예맥족의 국가 夫餘에 대한 기록과 배치된다.³³⁾ 실제로 부여 先住民의 문화로 알려진 西團山文化 유적에서는 농업생산과 관련된 많은 도구와 탄화 곡물 등이 발견된 것을 볼 때 이른 시기부터 농업이 경제생활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예맥계 종족을 『맹자』에서貉이라 지칭한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³⁴⁾

기장은 중국의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많은 유적에서 그 재배의 흔적들이 발견된다. 그 분포는 서북으로는 新疆에서 동북으로는 內蒙古·遼寧·黑龍江, 남으로는 雲南·臺灣에까지 미칠 정도로 광범하다.³⁵⁾ 그렇다면 농작물의 생장 조건이 사료 B-1에서 보듯 오곡의 성장조차 어렵고 기장[黍]의 재배만 가능할 만큼 척박한 지역은 어디일까? 이는 오곡의 北限界를 역으로 추적해 보면 자

33) 夫餘……土地宜五穀 不生五果(『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列傳).

34) 西團山文化 유적에서는 석제도끼·반달돌칼·낫·삽·자귀·호미 등 다수의 農業生産道具와 가공·조리도구 및 탄화 조·기장·콩 등이 다량 발견되었다. 劉景文, 1991, 「西團山文化的農牧業發展探索」, 『北方文物』 1991-2. 이를 통해서 볼 때 북만주 일대는 예맥계통의 주민들에 의해 일찍부터 다양한 종류의 농작물이 재배하고 그 수준도 상당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35) 游修齡, 1993, 「黍粟的起源及傳播問題」, 『中國農史』 1993-3, 1~3쪽.

연스레 풀린다.

현재까지 조사된 농업 고고학의 성과들을 통해 볼 때 고대 중국에서 오곡 농사가 가능했던 최북단 지역은 내몽고 적봉 지역으로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유적이 현 내몽고 적봉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동기시대 夏家店 上層文化에 속하는 上機房營子 유적인데, 여기서 탄화된 기장류 외에도 고대 중국의 五穀에 속하는 麥類와 粟類 등이 출토되었다.³⁶⁾ 그리고 남북조시기 및 隋唐代에 현 흑룡강성과 길림성 북부에서도 麥類와 粟類 등을 파종하며 농경을 했음³⁷⁾을 볼 때 기장만 성장하기에 적합했던 곳은 내몽고 적봉 지역 계선의 以北 및 以西의 유목경제의 특성이 더욱 농후한 지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국시대 이전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종족은 흉노와 그 전신으로 생각되는 獫狁이다. 그리고 그 계선에 분포한 종족 역시 유목경제적 특성을 지닌 東胡이다.³⁸⁾ 이러한 문헌과 고고자료들을 종합해 고려하면 『맹자』에 나오는 맥은 흉노나 동호를 지칭했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전국시대 이후 貉이 북방 종족의 범칭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이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³⁹⁾

두 번째 근거는 宮室이나 祭祀는 물론 百官도 없다는 기록으로, 이는 사회 발달정도가 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일부 북방 종족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⁴⁰⁾ 물론 이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36) 王丹 外, 2007, 「上機房營子遺址的植硅體分析」, 『農業考古』 2007-1, 31~33쪽.

37) 『北史』 卷94 烏洛侯傳, 『新唐書』 卷219 北狄傳 黑水靺鞨條.

38) 林幹은 遼寧省 朝陽에서 1950년대 중반 발굴된 十二臺營子 유적의 청동기와 내몽고 赤峰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가 모두 같은 東胡系임에 착안해 춘추전국시대 이 지역이 동호의 활동범위였음을 밝혔다. 林幹, 2006, 『東胡史』(修訂版), 內蒙古人民出版社, 6~13쪽.

39) 전국시대 이후 貉이 북방 종족의 범칭으로 사용되었음은 『史記』에 등장하는 “奄有河宗, 至于休溷諸貉”(卷43 趙世家), “燕北迫蠻貉”(卷34 燕召公世家), “後百有餘年 趙襄子踰句注破并代以胡貉”(卷110 匈奴列傳) 등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40) 시대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고구려가 宮室을 짓고 고치기를 좋아했다는 기록과도 차이가 있다(“其俗節食, 好治宮室”,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 高句麗).

만, 유목경제 중심의 흉노나 동호가 農耕 定住문화의 중국에 비해 建築(宮室)이나 세련되고 분화된 정치체제(百官) 등에서 뒤쳐지는 것을 그렇게 묘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사료 B-1에서 보이는 貉은 북방 종족의 범칭적 성격으로 사용된 것이지, 현재의 만주 지역에서 경제생활의 중요한 한 축을 농업에 의존했던 예맥족을 지칭함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사료 B-2는 기록 자체가 너무 단편적이라 詳考하기가 더욱 어려운데, 이 기록을 燕將 진개가 동방경략에 나섰던 기원전 3세기 초의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간주한 연구도 있다.⁴¹⁾ 이 맥국의 실체에 대해 북한은 리지린은 지금의 내몽고 지역에 해당하는 灤河의 상류지역으로 비정하고, 당시 고조선과 東西로 竝立하고 있던 국가라고 주장했다.⁴²⁾

하지만 오직 사료 B-2에만 등장하는 맥국을 갖고 그 실체를 논하거나, 滅國의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맥국이 강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국가단계에 이른 정치체였다면 그렇게 소략한 기록만 남아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을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전국시대 燕이 자국의 북방 지역에 존재하던 어떠한 종족(정치체)을 복속시킨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만약 B-2에 보이는 漢水가 오늘날의 灤河를 지칭한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전국시대 초기까지 이 일대에서 활동한 종족은 山戎이고,⁴³⁾ 전국시대부터는 燕의 세력 확장으로 燕系 漢人⁴⁴⁾들과 북으로부터

41) 박준형, 2002, 앞의 글, 36쪽.

42) 리지린은 『水經注』(卷14 濡水條)에 나오는 汗水가 漢水の 轉寫로 보고 이를 河北省의 灤河의 지류로 비정했다. 리지린, 1963,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178~182쪽.

43) 춘추시대 灤河의 동쪽에서 大凌河 사이의 지역은 그 동쪽 지역의 遼寧式(琵琶形) 銅劍문화와도 구분이 되는 산용계 종족들이 남긴 夏家店 上層文化가 존재하던 지역이다. 이강승, 1979, 「遼寧地方의 靑銅器文化-청동유물로 본 遼寧靑銅文化와 夏家店 上層文化의 비교연구」, 『한국고고학보』 6, 64~70쪽.

44) 戰國時代에 들면서 遼寧 지역은 하가점 상층문화나 요령식 동검문화는 점차 소멸되고 전국 燕系 청동기와 중국계 무덤 양식이 많이 보이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燕의 세력 확장과 관련이 깊다. 송호정, 2003,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

흉노의 압박에 밀린 동호 세력들이 주로 거주한 흔적이 보이지만, 예맥계가 이곳의 주요 세력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는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료 B-2의 貊國을 역시 북방 종족의 범칭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듯하다.

이어서 濊에 관한 기록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濊가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先秦 西周 초(기원전 12세기)의 역사를 전하는 『逸周書』이다.⁴⁵⁾ 만약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濊는 이미 기원전 12세기에 중국에 그 존재가 알려진 것이 된다. 『逸周書』의 사료적 가치에 대하여는 疑古學派에서는 후세의 僞作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근래에는 고고학 발굴성과의 진전으로 인해 그 신빙성을 재평가하기도 한다.⁴⁶⁾ 어쨌든 이 문헌이 전국시대에서 漢代에 걸쳐 정리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므로,⁴⁷⁾ 중국 동북방의 종족으로서 濊의 존재가 늦어도 기원전 5세기 무렵에는 중국에 알려졌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 예의 존재와 관련된 사료가 또 있는데, 아래와 같다.

C. 桓公曰 余乘車之會三 兵車之會六 九合諸侯 一匡天下 北至於孤竹
山戎穢貉(『管子』小匡篇).

위의 사료 C는 濊가 등장하는 유명한 문헌이다. 여기에는 穢貉이라는 연칭으로 등장해서 더욱 주목이 된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예와 맥을 별칭한 것인지, 아니면 연칭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앞의 孤竹이나 山戎 같은 특정 종족을 나열하고 있는 것과 이 시기 貉은 불특정 이종족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예맥은 요동 지역의 예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史記』가 정리되는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중국 동북지역의 종족을 부르는 이름으로 濊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송호정은 山戎·

사, 248~252쪽.

45) 成周之會……正北方 稷慎大墉 穢人前兒 前兒若彌猴 立行 聲似小兒(『逸周書』王會解).

46) 이성규, 1987, 「중국고문헌의 사료적 가치」, 『아시아문화』 2 참조.

47) 박준형, 2002, 앞의 글, 7~8쪽.

東胡 등을 모두 貊으로 본 사마천이 濊도 貊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라 해석했다. 중국인들이 東北의 종족들을 貊이라 칭하게 된 것은 동방에 대한 지식이 넓어짐에 따라 북방 종족들의 범칭인 貊의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원인이 크다. 그리고 동시에 흉노가 세력을 확장해 북방을 석권함으로써 차츰 동북방의 종족만 맥으로 칭하게 됐으며, 이후 북방 종족을 맥으로 범칭한 예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⁴⁸⁾

필자 역시 송호정의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 본래 중국 동북방에 위치하던 종족은 濊(穢, 葦)로 불렸으나, 전국시대 이후 貉이 북방 종족의 범칭이 되면서 濊에도 점미사적인 貊을 붙여 濊貊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지만 예맥의 종족적 속성은 어디까지나 예족이라 보는 것이 옳다. 이후 濊는 기원전 3세기의 문헌인 『呂氏春秋』에도 등장하는데,⁴⁹⁾ 이 역시 중국의 동북방에 위치한 예족을 지칭한 것이다. 그리고 『史記』와 『漢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예맥 역시 예족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⁵⁰⁾

위에서 먼저 살펴본 貊과 濊의 용례를 비교해 보면, ‘貊’은 원래 周의 변방에 거주하던 종족에 대한 명칭이었다가 불특정 이종족의 범칭(멸칭), 북방 종족의 범칭으로 그 개념의 변화와 첨가가 있었다. 반면 濊는 큰 개념의 변화 없이 발해만 以東지역에 거주하는 종족을 가리키던 호칭으로 사용되었다.⁵¹⁾ 『史記』에서는 조선을 둘러싼 주변 정치세력과 주민집단을 통칭할 때 ‘濊貊’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⁵²⁾ 원래 중국의 북방 종족에 대한 명칭이던 맥이 『史記』 이후로 ‘예’라는 명칭과 결합해 중국 동북방에 거주하던 예족 일반에 대한 표현으로 바뀌었던 것이다.⁵³⁾

48) 송호정, 2007a, 앞의 글, 113~114쪽.

49) 非濱之東 夷穢之鄉 大蟹陵魚·其·鹿野·搖山·揚島·大人之居 多無君(『呂氏春秋』恃君覽).

50) 이것이 곧 三品彰英이 논급한 ‘濊라고 하는 貊’의 뜻이며, 송호정 역시 그렇게 해석하였다. 三品彰英, 1953, 앞의 글, 7쪽; 송호정, 2007a, 앞의 글, 113~115쪽.

51) 『呂氏春秋』恃君覽篇.

52) 夫燕……東縮濊貉, 朝鮮, 眞番之利……漢東拔濊貉, 朝鮮以爲郡(『史記』卷110 匈奴列傳); 北隣烏桓, 夫余, 東縮穢貉, 朝鮮, 眞番之利(『史記』貨殖列傳).

그러므로 先秦 문헌에 등장하는 貊과 압록강 중상류, 혼강 유역의 원고구려민⁵⁴⁾ 집단을 연결시킬 매개고리를 발견할 수 없는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서는 고구려가 처음부터 예족 혹은 예맥족으로 불린 주민집단과 종족적으로 구분되는 '貊族'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고구려를 이룬 주민집단은 본래 예맥으로도 불린 예족의 일원이었다가,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 초경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주변 예맥 사회와는 구별되는 주민집단을 형성하였고, 기원전 2세기 후반경부터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주민집단은 처음에 '句驪'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이것이 고구려라는 국가명으로 고정되면서,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점차 '맥'이라는 종족명으로 불렸던 것이다.⁵⁵⁾

곧 『後漢書』나 『三國志』 등에 등장하는 貊, 곧 고구려는 여호규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족적으로는 예맥이라는 호칭으로 등장하는 예족에 속하는 일부이며, 다만 주변의 세력들과는 다른 정치체를 구성하고 그 세력권을 확장하면서 貊이라는 구분되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만약 貊이 예와는 종족적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족속이라면 句驪 혹은 高句驪라는 호칭보다 늦게 등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중국 사서에서 高句驪 혹은 句驪라는 명칭이 늦어도 기원전 2세기 말엽에는 확실히 보이는 것에 비해, 貊은 기원전후한 시기부터나 단칭으로 재등장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맥의 출현이 부여계 계루부에 의한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성립된 이후에 고구려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게 됐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해 고찰하기로 하겠다.

53) 三品彰英, 1953, 앞의 글; 황철산, 1963, 「예맥족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3-1·2.

54) 부여계 계루부에 의한 고구려 건국 이전의 사회를 지명목은 '원고구려사회'(지명목, 1987, 앞의 글, 52~53쪽), 여호규는 '구려종족사회'(여호규, 1992, 「고구려초기 나부통치체제의 성립과 운영」, 『한국사론』 27)라고 불렀다. 이 글에서도 계루부를 중심한 고구려 건국 이전의 압록강 중상류, 혼강 유역의 적석총 조성 세력과 그 범위를 원고구려로 부르기로 한다.

55) 여호규, 1997, 「1~4세기 고구려 정치체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9~30쪽.

Ⅲ. 橐離國과 滄海郡을 통해서 본 濊貊族의 분포

1. 橐離國과 原扶餘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고구려를 구성한 貊族은 본래 중국의 동북방에 존재하던 예(예맥)의 일부분으로 서력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나 分枝가 된 것이며, 선진 문헌에 등장하는 貊(貉)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구려민으로서 초기 고구려의 중심세력인 예맥족의 근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고구려의 종족 기원에 대해서는 한민족의 기원과 맞물리어 외래기원설에 해당되는 이동설과 지역토착민 집단의 자체 성장을 더 중시하는 분포설로 대별된다.⁵⁶⁾ 이동설의 경우 한민족의 기원이 된 예맥족(특히 백족)이 중국대륙으로부터 이동해 왔다는 김상기의 濊貊族 이동설이 대표적인데, 이옥 등이 수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공간적 괴리가 현격하고 고고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어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예맥족의 주 활동무대인 중국의 동북방 지역과 한반도에서 고구려의 종족 기원 및 건국의 모태로 상정할 만한 세력(혹은 정치체)이 존재하는가? 필자는 그 실마리를 扶餘의 모태, 곧 원부여 세력으로 추정되는 橐離國(橐離, 索離)과 濊君 南閭의 세력에서 찾을 수 있다 생각된다.

먼저 고리국에 대해 살펴보면, 고리국이 예맥계통으로 고구려의 뿌리임은 고구려의 朱蒙 건국신화의 모티프나 그 전개양상이 부여의 건국신화로 나타나는 東明신화와 거의 합치한다는 점에서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고리라는 국명과 구려라는 원고구려의 종족 명칭의 유사함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다음은 흔히 부여의 건국신화로 알려진 東明신화이다.

56) 노태돈, 1999,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313~315쪽.

D. 北夷橐離國王侍婢有娠 王欲殺之 侍對曰 有氣大如鷄子 從天而下 我故有娠 後產子 捐於豬中 豬以口氣噓之 不死. 復徙置馬欄中 欲使馬藉殺之 馬復以口氣噓之 不死. 王疑以爲天子 令其母收取奴畜之. 名東明 令牧牛馬. 東明善射 王恐奪其國也欲殺之. 東明走南至掩淐水. 以弓擊水 魚鼈浮爲橋 追兵不得渡. 因都王夫餘. 故北夷有夫餘國焉(『論衡』吉驗篇).

위의 신화에 대해 이병도나 김상기는 부여 건국신화가 아니라, 기실 고구려 시조설화가 잘못 전해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⁵⁷⁾ 그러나 홍기문은 고구려의 出自가 부여임을 고려해 건국신화의 고찰에서도 옹당 부여가 먼저 언급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⁵⁸⁾ 근래에는 『논형』에 나오는 橐離國을 북부여로 보고, 동명을 해부루로, 그가 도망해서 건국한 부여를 동부여로 본 주장도 나왔다.⁵⁹⁾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오히려 예족 사이에 퍼져 있던 건국설화를 부여나 고구려가 계승해 표방한 것을 중국인이 채택한 것으로 봄이 옳을 듯하다. 동명신화와 주몽신화를 별개로 보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로 보느냐에 따라 논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⁶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몽이나 동명류의 건국설화가 예맥계 종족에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다는 점이다.⁶¹⁾ 일반적으로 卵生과 弓矢, 魚鼈浮橋 등의 모티프를 가진 이러한 설화는 북방민족들 사이에서 소위 ‘북방계 건국신화’로 분류되었다.⁶²⁾

그렇다면 부여 혹은 고구려의 근원이 된 고리국(원부여)은 어디에 있었을까? 학계의 통설은 고리국의 지리적 위치를 사료나 고고학적 유물의 해석을

57) 이병도, 1959, 『한국사』(고대편), 을유문화사, 216~217쪽; 김상기, 1964, 「국사상에 나타난 건국설화의 검토」, 『학술지』 5,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원.

58) 홍기문, 1964, 『조선신화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59) 유태용, 2000, 「논형 길험편에 보이는 橐離國의 연구」, 『백산학보』 57.

60) 동명신화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성과는 이복규가 정리했다. 이복규, 1998, 『부여·고구려 건국신화 연구』, 집문당.

61) 김철준, 1975,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 45~46쪽.

62) 주승택, 1993, 「북방계 건국신화에 대한 문헌적 재고찰」, 『한국학연구』 70 참조.

통해 嫩江, 東流 松花江 일대의 松嫩 평원지역으로 추정함이 보편적이다.⁶³⁾ 중국 동북방 예맥문화의 원류로 드는 대표적인 것이 黑龍江省 肇源 지역의 白金寶문화,⁶⁴⁾ 望海屯문화,⁶⁵⁾ 그리고 吉林省 夫餘, 大安 지역의 漢書문화⁶⁶⁾ 등이다. 이들 문화는 시기적으로 백금보-한서 하층(1기)문화와 망해둔-한서 상층(2기)문화로 구분되는데 모두 백금보 유형의 기초 위에서 발전한 동일 계열의 문화로 간주된다.⁶⁷⁾ 이 문화 유형들의 上限은 기원전 8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설정이 가능한데, 백금보에서 출토된 토기는 유형별로 보면 西周 中期에 해당되고 주거유적을 탄소동위원소법으로 측정한 결과 약 2800년 전으로 나왔기 때문이다.⁶⁸⁾ 下漢은 한서2기문화 유적에서 戰國時代에서 前漢代으로 편년되는 陶器 등이 출토된 바가 있으므로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후로 추정이 된다.⁶⁹⁾ 그리고 그 분포 범위는 북으로는 小興安嶺, 남으로는 吉林·長春 지역, 大興安嶺 東麓의 洮兒河 유역, 동으로는 동류 송화강 일대까지를 포함한다.⁷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구려의 문화로 추정되는 백금보, 한서, 망해둔 문화와 유사한 문화양상이 길림·장춘 지구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서단산문화⁷¹⁾가 그것인데, 서단산문화와 백금보문화는 토기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⁷²⁾ 서단산후기(기원전 4세기~기원전 3세기) 유형과 한서2기-망해둔문화

63) 송호정, 1997, 「부여의 성립」,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53~158쪽.

64) 黑龍江省文物考古工作隊, 1980, 「黑龍江省肇源白金寶遺址第一次發掘」, 『考古』 1980-4; 賈偉明, 1986, 「關於白金寶類型分期的探索」, 『北方文物』 1986-1.

65) 丹化沙, 1961, 「黑龍江肇源望海屯新石器時代遺址」, 『考古』 1961-10.

66) 陳相偉·李殿福 編, 1982, 『大安縣文物志』, 25~30쪽; 都興智, 1986, 「試論漢書文化和白金寶文化」, 『北方文物』, 1986-1.

67) 송호정, 1999,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부여의 기원과 그 성장과정」,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445~446쪽.

68) 干志耿, 1984, 「古代索離研究」, 『民族研究』 1984-2.

69) 張偉, 1997, 「松嫩平原早期鐵器的發見與研究」, 『北方文物』 1997-1.

70) 干志耿, 1984, 앞의 글.

71) 본래 이 지역은 좀 더 북쪽 지역의 백금보-한서1기문화와는 그 양상이 다른 西團山 문화가 발달하던 곳이다. 李健才, 1985, 「關於西團山文化族屬問題的探討」, 『社會科學戰線』 1985-4; 董學增, 1994, 『西團山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72) 백금보-한서1기문화의 경우 서단산문화에 비해 하가점 상층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 孫進己·張志立, 1986, 「濛貊文化的探索」, 『遼海文物學刊』

의 묘제와 유물은 기본적으로 같은 계통 주민의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일 시기에 병존한 부여 先住民의 문화로 받아들여진다.⁷³⁾

그렇다면 한서2기-망해둔문화, 서단산문화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일까? 앞서 언급하였듯이 松嫩 평원의 북쪽지역에서 발달한 망해둔-한서2기문화는 고리국의 문화로 봄이 일반적이고, 그 주민의 일부가 북류 송화강 중류역(길림 지역)으로 남하해 이 지역에서 서단산문화를 발전시키며 살던 부여 선주민과 융합해 부여를 건립했다고 볼 수가 있다.⁷⁴⁾ 모두 예맥계 문화로 파악되는 이 두 문화의 담당 족속은 동일한 예족이지만, 망해둔-한서2기문화를 영위한 세력은 정치적으로 고리국의 중심에 해당되고, 서단산문화의 담당 주민은 본래 고리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주변부나 고리국에 종속된 위치에 있었던 듯하다.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 이후 고리국의 중심부인 망해둔-한서2기문화를 영위하던 세력 중 일부가 이 지역으로 진출해 동일한 濊系인 當地의 주민들을 융합해 더욱 강력한 정치체로 성장하는 과정이 부여의 건국인 것이다. 그러므로 양자는 모두 동일 계열의 원부여(혹은 북방 예맥계) 문화로 칭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정치적인 구분만 존재하여, 망해둔-한서2기 문화는 고리국, 서단산문화는 길림 지역에 거주하던 부여 선주민의 문화로 이해할 수 있겠다.

예(예맥)족 내에서 고리국 세력과 길림 지역의 부여 선주민 세력 사이의 정치·사회적 변동, 곧 그러한 역사적 상황이 神話의 형태로 반영되어 등장한 것이 사료 D에 보이는 東明의 부여 건국신화라고 사료된다. 원부여 지역의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고고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기원전 3세기부터 서단산문화의 주 묘제가 이전의 석곽묘에서 토광묘로 변함이 그것이다. 이 또한 새로운 정치집단의 출현과 관련해 해석된다는 점에서도 방증된다.⁷⁵⁾ 부여가 어느 시점에 세워진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기원전 2세기 무렵에는 그

創刊號).

73) 馬德謙, 1991, 「夫餘文化的幾個問題」, 『北方文物』 1991-2.

74) 송호정, 1997, 앞의 글, 162쪽.

75) 송호정, 1997, 앞의 글, 164쪽.

존재가 확실히 확인되므로,⁷⁶⁾ 이 시기에는 이미 부여라는 정치체가 길림 일대에 성립되었음이 확실하다.

부여의 기원이 된 고리국의 직접적 지배력이 어디까지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아마도 망해둔-한서2기문화가 발달한 송눈평원 북부를 넘어서기는 어려웠을 법하다.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그 문화적 영향력은 송눈 평원 북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으로 북류 송화강 중류역의 길림 지역은 물론 농안·장춘 지역과 서남으로 요령성 西豊 일대까지 동북에서 서남향으로 뻗은 교통로를 따라 길게 뻗어 있었다고 생각된다.⁷⁷⁾ 이 일대의 예맥계 제 문화를 원부여문화로 칭할 수 있을 것이다.⁷⁸⁾ 이 지역 내에서 예맥족의 이동과 교류는 고구려의 건국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⁷⁹⁾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상고하기로 하겠다.

2_ 滄海郡과 歲貊

적지 않은 문헌과 고고학 자료들은 고구려 성립 이전 예(예맥)계 종족들의 분포가 필자가 상정한 원부여 지역인 길림성 중부 以北과 흑룡강성 남부지역에

76) 夫燕亦勃碣之間一都會也。南通齊趙東北邊胡。上谷至遼東。地踔遠人民數被大與代俗相而民雕悍少慮有魚鹽棗栗之饒。北鄰烏桓夫餘東縮穢貉朝鮮真番之利(『史記』卷129 貨殖列傳)。

77) 肇原의 漢書2期文化는 물론 遼寧省 西豊縣 일대의 西岔溝文化도 부여와 고구려의 주 구성원이 되는 예맥족문화의 원류로 보아야 한다. 서차구문화를 부여로 연결 지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원부여문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 루트는 이른 시기 고리국의 문화로 상정할 수 있는 백금보-한서1기문화가 요서·내몽고 지역의 하가점 상층문화와 漢文化를 접수할 수 있었던 통로이기도 하였다.

78) 遼寧省 동북부의 昌圖, 開原, 西豊 일대의 청동기시대 문화인 涼泉문화형이 서단 산문화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曹桂林 外, 1991, 「遼北東部地區幾處青銅器時代遺址調查」, 『遼海文物學刊』 1991-1.

79) 東潮·田中俊明는 『三國志』 魏書 夫餘傳의 “城柵皆圓”의 기록을 참고해 길림 북부와 내몽고 지역(고리국 추정지역)에서 발굴된 高地性 環壕柵列集落 등을 고구려山城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東潮·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402~403쪽.

만 국한되지 않고, 요동반도 지역과 압록강·혼강 유역 및 길림 지역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음을 밝혀 준다. 담당 주체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요령식(비파형) 동검이 예맥족의 주된 문화요소라는 우리 학계의 통설을 따른다면 다수의 요령식 동검이 遼西 일대에서도 출토되므로 예맥족의 분포 지역을 더욱 확대해 볼 여지 역시 존재한다. 또한 문헌에서도 부여의 종족명이라 할 수 있는 濊가 선진시기에 중국의 하북성 지역과 요서 지역에 존재했음을 추측해 하는 기록이 전하므로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E. 清漳逕章武縣古城西 故濊邑地 枝瀆出焉 謂之濊水(『水經注』卷 10 濁章水).

사료 E를 해석해 보면 漢의 장무현⁸⁰⁾ 지역에 예음이 있었고 여기서 나오는 강을 예수라 부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현재의 하북성 안평현으로 비정되는 지역에 濊水가 흐른다는 기록도 있다.⁸¹⁾ 위 『水經注』에 전하는 기록은 기원전 2세기 이전의 사실인데,⁸²⁾ 그렇다면 기원전 2세기 이전의 어느 시기까지는 예족이 하북이나 요서 일대에 거주했던 것일까? 그러나 현재까지의 발굴성과로 볼 때 이를 증명해 내기란 매우 곤란하다. 예맥족과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 지역을 완전한 예족의 거주지 혹은 본거지로 간주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원전 2~기원전 3세기 경 요서 지역에 예족이 조금이라도 거주하였을 가능성은 없을까? 필자는 이 지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 곧 요동에서 일부 예족들이 이동해 와서 정주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은 漢代의 기록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는데, 바로 유명한 滄海郡의 설치에 관한 기사가 그것이다. 다음과 같다.

80) 오늘날 하북성 滄縣 부근으로 비정됨. 錢穆, 2001, 『史記地命考』, 商務印書館, 1194쪽.

81) 『太平寰宇記』 河北道 平山縣.

82) 김현정, 1993, 앞의 글, 39쪽.

F. 東夷葦君南閭等 二十八萬人降置蒼海郡(『漢書』卷6 武帝紀).

사료 F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濊의 군장인 남려가 28만 구를 이끌고 한에 투항하자, 漢 武帝는 이들을 안치시키고 창해군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이 창해군의 위치에 대하여는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전통적으로는 한반도 북부 동해에 임한 옥저 지역이나 압록강 중류역·혼강 유역 등으로 비정해왔다.⁸³⁾ 그리고 일찍이 和田淸은 창해군이 玄菟郡의 전신으로 현 한반도 동해안의 濊地에서 集安을 거쳐 撫順에 이르는 한의 전략적 교통로에 위치한 군현이라고 보았다.⁸⁴⁾ 최근 박경철은 송화강 유역, 곧 부여 지역 전체를 창해군이라 일컬었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출했고,⁸⁵⁾ 북한 학계는 리지린 이래 문헌비판을 통해 오늘날 河北省 滄縣 지역을 그 置郡地로 파악했다.⁸⁶⁾

위의 제 견해 중 『水經注』의 내용인 위의 사료 F를 주된 근거로 하는 리지린의 견해는 기존 우리 학계에서 제기된 바가 있는 예맥족 이동설과도 어느 정도 맥이 닿아 있어 주목을 끈다. 그러나 그 시각적 참신성은 인정하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봄이 보편적 분위기이다.⁸⁷⁾ 남한 학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윤내현이 이 견해를 직접적으로 수용했고, 이형구·복기대⁸⁸⁾ 등이 창해군 문제와는 별도로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토대로 기자조선 혹은 한사군이 渤海 연안에 존재했음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성과물들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를 무조건 수용하기에는 사료의 신빙성과 고고학적 증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오히려 이들 지역은 이미 춘추시대 이

83) 일본인 학자인 白鳥庫吉은 창해군의 위치를 압록강 중류역으로, 今西龍, 池内宏, 三上次男은 한반도 북부 동해안으로 비정했다. 三上次男, 1966,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367~368쪽. 이병도 역시 창해군의 위치를 압록강 중류역으로 보았다. 이병도, 1976, 앞의 책, 172~176쪽.

84) 和田淸, 1955, 『東亞史研究: 滿洲篇』, 東洋文庫, 16~17쪽.

85) 박경철, 1992, 「부여사 전개에 관한 再認識試論」, 『백산학보』 40, 39~40쪽.

86) 리지린, 1963, 앞의 책, 145~150쪽.

87) 이형구, 1995, 「리지린과 윤내현의 '고조선연구' 비교」, 『역사학보』 146 참조.

88) 복기대, 2001, 「臨屯太守章 봉니를 통해 본 한사군의 위치」, 『백산학보』 61.

전부터 漢族 혹은 山戎 계통의 종족들이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 자료들이 더욱 많다. 그러므로 요서나 하북성 지역에 창해군이나 예족의 주요 거주지가 있었다는 주장은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기원전 5세기 무렵까지 燕의 지방지배 형태가 점조직 같은 거점지배 형태였음을 생각한다면,⁸⁹⁾ 하북성이나 요서 지역에 예족이 거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燕의 민족 구성에서도 순수한 중국 민족이 아니라, 예맥족과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추측한 견해도 있어 참고가 된다.⁹⁰⁾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문헌과 고고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현실에서는 이 지역이 예족의 본거지나 집단 거주지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위의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한가? 사료 F는 남려가 모종의 이유로 인해 수하에 28만 구를 이끌고 한에 투항을 하였고, 한은 그의 舊土에 기원전 128년 창해군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남려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토에서 명목상 한에 귀속을 청한 것이라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남려가 실제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한으로 귀순한 것으로 봄이 옳다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남려가 통치하던 28만 명 전체를 데리고 한에 들어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남려의 치하에 28만 명이 있었을까 하는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⁹¹⁾

예족의 군장이었던 남려는 필시 漢·朝鮮과 관계가 있는 정치적 이유로 인해 자신의 본거지를 떠나야만 했고, 휘하의 백성 일부만을 이끌고 한으로 귀순했을 것이다. 다만 남려를 따르던 세력이 느슨한 연맹의 형태로 연합을 했거

89) 기원전 5세기가 지나야 燕에서 본격적으로 郡縣이 설치된다고 한다. 송호정, 2003, 앞의 책, 246쪽.

90) 김정배, 1973, 앞의 책, 78쪽.

91) 예군 남려가 이끌고 간 28만 구는 濊를 한반도 동해안 지역의 동예·옥저 지역으로 비정한 기존의 견해에서는 과장된 표현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和田清, 1955, 앞의 책, 16쪽.

나, 혹은 고조선과 한 사이에 위치한 예맥계 제 세력이 고조선보다는 한에 경도되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남려가 한으로 가서 귀순을 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예군 남려 세력, 한·조선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예군 남려로 대표되는 세력의 지리적 위치가 한과 조선 양자 모두가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두 세력의 교차 혹은 중간지대에 위치했음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어쨌든 한은 남려의 투항을 받아들여 당시 한의 영역 내에 그가 직접 이끌고來降한 인구를 우선 안치하고, 남려가 자신의 치하에 있다 주장한 28만 구가 거주하는 예맥 지역에 창해군을 설치하려 했으리라 사료된다. 한이 창해군을 설치하려 한 실질적 이유는 흉노와의 전쟁, 고조선의 성장 견제 등과 관련된 정치·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창해군이 불과 2년도 못 되어 폐지된 것을 볼 때 실제로 군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한은 자국으로의 정치적 귀순을 택한 남려와 그가 이끌고 온 일부 예족들을 영토 내에 안치하는 것에 그치고 그곳에 임시로 명목상의 창해군을 설치했던 것으로 해석함이 가장 자연스럽다 생각된다. 즉 한에서 창해군을 설치하고자 한 대상 지역과 귀순한 남려집단을 임시로 안치한 지역은 반드시 구분해야 함을 뜻한다. 한 무제가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바는 남려가 일종의 대표격으로 통치권을 주장한 지역 전체를 창해군의 관할 범위로 정하고 그곳에 창해군을 설치해 장차 그 지역 전체를 접수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고조선이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창해군의 본 관할지역으로 통하는 길이 멀고 협함을 이유로 금방 폐지해 버린다. 이렇게 신속한 치폐는 창해군이 기본적으로 가상의 군이고, 겨우 설치 준비단계에 있던 명목상의 군이었기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제가 설치하려 했던 창해군의 위치는 어디일까 하는 점이다. 필자는 그곳이 요동반도 지역과 압록강 중류역이 틀림없다 생각한다.⁹²⁾ 당시 고조선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반도 서북지역에 세력권

92) 요동반도에 창해군이 실제로 설치되었음을 논한 견해도 있다. 권오중, 2000, 「창해군과 요동동부도위」, 『역사학보』 168, 88~95쪽. 필자는 예군 남려의 세력 본거지

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까지 한의 요동군은 아직 요동반도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의 요동반도는 사실상 중국 세력, 예족, 東胡, 그리고 고조선까지 여러 세력의 교차지로 매우 혼란스런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남려는 한으로의 투항을 선택했고, 한 무제는 그의 舊土에 창해군을 두려 했던 것이다. 남려의 본거지이며, 한이 창해군을 설치하려 했던 지역이 요동반도 지역이었기에 북경 지역의 燕은 물론 산둥 지역의 齊까지도 한바탕 소란을 치르게 되었다.⁹³⁾ 요동반도 지역에 기원전 2세기 중후반까지 예(예맥)계 세력이 여전히 준 독립적 세력권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중국 및 고조선의 정세와 관련지어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상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遼東과 遼東郡의 개념 정의와 역사적 변천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史書에 遼東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燕 文侯(재위 기원전 361~기원전 333)대에 연의 동쪽에 요동이 있다는 기록이 그 시초이며,⁹⁴⁾ 遼東郡은 燕 昭王(재위 기원전 311~기원전 279) 무렵에 秦開에 의한 동방 공격의 성과로 5郡을 설치했다는 기사이다.⁹⁵⁾ 즉 기원전 3세기 초엽 昭王代에 연은 신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요동반도 지역을 석권하고 고조선 세력을 지금의 청천강 이남 지역까지 밀어붙였다. 그리고 오늘날 遼陽을 거점으로 하여 遼東郡을 설치한다.

사실 전한 초기까지 요동군의 首縣인 襄平이 사서에 나오지 않고, 고고학적으로 볼 때 漢人보다는 예맥계와 동호계의 종족들이 거주한 흔적이 더 많이 발견되므로 요동군의 위치에 관한 통설에 대해 적지 않은 이견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戰國 燕이 설치한 요동군의 중심지는 현 遼陽 지역이 확실

가 요동반도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곳에 실제로 창해군이 설치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93) 彭吳穿穢貉朝鮮置滄海郡，則燕齊之間靡然發動(『漢書』卷24 食貨志).

94) 燕東有遼東朝鮮(『史記』卷69 蘇秦列傳).

95) 其後燕有賢將秦開爲質於胡胡甚信之。歸而襲破走東胡東胡卻千餘里……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史記』卷110 匈奴列傳).

한 듯하다. 왜냐하면 燕이 양평에서 주조한 것으로 보이는 연의 대표적 화폐인 襄平布에 ‘襄平’이 양각되어 있고,⁹⁶⁾ 근래에 遼陽 沙坨子村에서 秦 昭陽王代에 제조된 것으로 밝혀진 秦 銅戈가 출토되었다.⁹⁷⁾ 또한 遼陽市 일대에서는 漢系로 보여지는 악기, 玉器, 漆器, 銅器, 장신구, 마차, 木馬俑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된 다수의 전국시대 고분이 발굴되었다.⁹⁸⁾ 특히 사서에 秦始皇의 추격을 피해 遼東으로 달아났다는 燕王 喜의 이름이 새겨진 銅戈⁹⁹⁾가 발견된 것 등을 통해 볼 때 요양이 전국시대 요동군의 최초 중심지였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중국 세력이 燕將 진개가 고조선을 축출하고 요동을 장악한 기원전 3세기 초부터 한 무제가 고조선을 멸하는 기원전 2세기 말까지 아무런 변화나 동요 없이 전체 요동 지역을 확고히 장악한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이 시기가 비록 200년에도 못 미치는 짧은 시기이지만 秦의 7국 통일과 秦漢交替 및 한-흉노 투쟁이라는 중국사에서 매우 혼란스럽고도 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이다. 3세기 초엽 앞선 철기문화와 국력을 바탕으로 고조선을 청천강 이남으로 몰아붙이고 요동 지역을 석권한 연도 그 전성기가 그리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훨씬 심해진 흉노의 침략과 3세기 중반부터 6국 병합을 목표로 秦의 공격을 방어하는 일에 더욱 골몰해야 했기 때문이다.

요동 지역의 정국 향방에 대해서는 시간의 흐름과 역사적 상황의 변개에 따른 역학관계 및 정세의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낼 필요가 있다. 진개의 공격으로 인해 기원전 3세기 초엽 고조선과 중국 세력은 청천강을 경계로 대치했을 가능성이 크다.¹⁰⁰⁾ 당시 요동 지역의 정치적 향방에 대해서는 연구자

96) 王鍾翰·陳連開, 1979, 「戰國秦漢遼東遼西郡縣考略」, 『社會科學輯刊』 1979-4, 84쪽.

97) 鄒寶庫, 1992, 「釋遼陽出土的一件秦戈銘文」, 『考古』 1992-8.

98) 李發慶, 1984, 「遼陽新城村戰國墓」, 『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99) 銅戈에 ‘燕王喜□□□’라는 6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馮永謙, 2004, 「漢代襄平, 望平, 遼襄今地考辨」, 『社會科學戰線』 2004-3; 馮永謙, 2007, 『東北古史與地理考』, 吉林文史出版社, 319쪽.

100) 이병도, 1976, 앞의 책; 노태돈, 2000,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

들마다 견해가 분분하나, 중국 세력 쪽이 주된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청천강 以北과 전 요동반도 지역에 燕의 통치가 속속들이 먹혀들어갔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燕이 고조선과의 전쟁을 통해 확보한 넓은 요동 지역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기 힘들었음은 점은 두 가지 원인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燕은 전성기였던 昭王代를 지나자마자 그 세력이 급속히 약해지고 秦이 본격적으로 6국을 병합하며 상대적으로 변방에 속했던 요동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고, 둘째, 요동 지역 자체가 古來로 예맥·동호 등 非漢系の 종족들이 주로 살아가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秦의 통일 전인 기원전 3세기 말까지도 그 지역의 주된 주민은 예맥계였으므로,¹⁰¹⁾ 기층까지 중국 세력의 통제력이 완전히 미치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는 요동 지역에서 출토되는 당시의 유물이나 유적에서 燕系の 영향이 농후하기는 하지만, 異種族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데서도 증거가 된다. 진개가 고조선 세력을 청천강 이남까지 밀어붙인 기원전 3세기 초엽까지 연계 철기문화의 영향력은 요동반도의 千山山脈 以西 지역까지 지배에 미치지 못하다가,¹⁰²⁾ 기원전 3세기 말~기원전 2세기 초 진한교체기에 이르러 다수의 연계 이주민들이 대거 고조선 지역으로 몰려들면서 그 영향권을 청천강 이북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¹⁰³⁾ 그리고

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81~82쪽; 송호정, 2003, 앞의 책, 310쪽.

- 101) 遼河 以東 지역은 청동기문화 내에서도 각 지역에 따라 문화유형이 차이가 나타나 전체적으로 土壙豎穴墓나 石棺墓가 혼재하고 土器나 石器가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선진시기 요하 동쪽에서는 예맥족이라는 동일 계통의 다른 세력 집단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했다고 한다. 송호정, 2007a, 앞의 글, 108~112쪽.
- 102) 서영수는 기원전 3세기 초 진개의 공격으로 고조선과 연의 국경선이 천산산맥 부근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고, 이 지역을 滿番汗으로 비정했으며 이후 진의 침입으로 다시 고조선은 대동강 일대로 후퇴하게 된다고 보았다. 서영수, 1999, 「고조선의 대외관계와 강역의 변동」, 『동양학』 29.
- 103) 박순발, 1993a, 「우리나라 초기 철기문화의 성장 과정에 대한 약간의 고찰」, 『고고미술사론』 3; 박순발, 1993b, 「고구려토기의 형성에 대하여」, 『백제연구』 29, 8~9쪽.

秦이 고조선을 멸했다는 기사도 존재하는데,¹⁰⁴⁾ 고조선이 멸망한 것은 前漢 무제 때의 일이므로 이 기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만 진의 통일기에 고조선이 또 한 차례 중국 세력과 국경지대에서 충돌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충돌의 원인은 아마도 전국 말 燕의 약화를 틈타 고조선이 그 지역의 예맥계 종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활동을 모색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원전 3세기 말~기원전 2세기 초 중국계 세력의 요동 지역 지배에 한 차례 큰 위기가 닥쳤던 것으로 보인다. 곧, 진한교체기가 되며 중국 중앙의 통제력이 크게 약화되며 변방이며 이종족의 거주지였던 요동반도 지역은 변화의 국면을 맞이한다. 중국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많은 중국계 주민들이 외국이나 외지로 遊離되고, 고조선으로도 유입되었다. 위만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3세기 초엽 중국 세력(燕)에게 크게 당한 경험이 있는 고조선은 중국 세력의 방비에 고심하고, 그 내부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는 연에서 온 망명객인 위만을 準王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양 벼슬을 주고 변방을 지키는 임무를 맡긴 것에서 미루어 알 수 있다.¹⁰⁵⁾ 고조선, 특히 새롭게 고조선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위만은 燕 출신이라는 장점과 혼란한 중국 내부의 정세를 틈타 요동 지역으로 재진출을 도모했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군사적 직접 지배보다는 상권의 장악과 같은 경제적 지배에 더 관심을 두고 실제로 이를 추진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추론이 성립되기 위해선 前漢 초기 漢이 현재의 요령성 동부지

104) 秦既并天下東絕沛水并滅朝鮮(『鹽鐵論』卷8 誅秦).

105) 魏略曰昔箕子之後朝鮮侯見周衰燕自尊爲王欲東略地朝鮮侯亦自稱爲王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乃止. 使禮西說燕燕止之不攻. 後子孫稍驕虐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取地二千餘里至滿番汗爲界朝鮮遂弱及秦并天下使蒙恬築長城到遼東. 時朝鮮王否立畏秦襲之略服屬秦不肯朝會. 否死其子準立. 二十餘年而陳. 項起天下亂燕. 齊. 趙民愁苦稍稍亡往準準乃置之於西方. 及漢以盧綰爲燕王朝鮮與燕界於涓水. 及綰反入匈奴燕人滿亡命爲胡服東度涓水詣準降. 準求居西界中國亡命爲朝鮮藩屏. 準信寵之拜爲博士賜以圭封之百里令守西邊(『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 所引『魏略』).

역, 곧 遼河 以東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었을가를 반드시 검토해야만 한다. 秦漢交替期の 중국은 외부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을 만큼 내부적 혼란을 겪었고, 반면 북방의 초원 지역은 흉노가 그 세력이 더욱 강성해져 漢이 중국을 재통일하고 건국된 시점에는 한을 압도할 정도로 커져 있었다. 漢이 건국 직후부터 흉노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은 한 고조 유방이 흉노 선우에 패해 平城에서 포위되었다가 굴욕적 강화를 맺고 풀려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¹⁰⁶⁾ 漢은 이후에도 무제의 등극 이전까지 흉노 세력을 방어하기에 급급하였다. 사실상 이 시기 중국은 내부의 문제와 국운이 걸린 북방세력의 방어가 더 큰 과제였기에 요동 지역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漢 武帝가 본격적으로 고조선을 공략하기 시작한 것도 흉노와의 긴 투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기원전 119년 이후이며, 고조선 공격의 이유 중 하나가 흉노의 左臂를 끊는 것이라¹⁰⁷⁾ 할 정도로 흉노를 의식하고 있었음을 볼 때 이러한 사실은 충분히 추론 가능하다. 무제는 흉노 대공세가 성공하자 동북방의 5郡지역(上谷, 漁陽, 右北平, 遼西, 遼東郡)의 요새를 재정비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⁰⁸⁾ 이는 곧 현재의 요동반도와 그 이동 지역에 대한 재정비가 한 무제가 이후에나 가능했음을 뜻하고, 그 이전에는 요동, 최소한 현재의 요동반도 지역에 대한 漢의 통제력이 지극히 미약했음을 추측케 한다. 漢初에 조선과 한이 또한 차례 충돌한 기록이 있는데,¹⁰⁹⁾ 徼를 넘어 燕의 동쪽까지 침범했다는 사실로 보아 요동군의 영토 일부를 차지했을 가능성도 있다.¹¹⁰⁾ 실제로 漢 武帝 이전까지 전한 요동군의 중심은 燕·秦처럼 襄平이 아니라 보다 서쪽으로 물러나 위치했을 것이다.¹¹¹⁾

106) 『史記』 卷8 高祖本紀 7年條; 卷56 陳丞相世家; 卷93 韓王信列傳; 卷110 匈奴列傳.

107) 東伐朝鮮起玄菟, 樂浪以斷匈奴之左臂(『漢書』 卷73 偉賢傳).

108) 吳柏春, 1996, 「東胡鮮卑時期的科爾沁及其社會經濟」, 『內蒙古民族師院學報』 1996-4, 9쪽.

109) 朝鮮踰徼 劫燕之東地, 『鹽鐵論』 卷8 備胡.

110) 서영수, 199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 2, 일조각, 43쪽.

111) 요동군이 지금의 북경 지역에서 요동의 襄平으로 옮긴 것은 기원전 129~기원전

그렇다면 전한시기에는 요동 혹은 요동군에 관한 인식이 어떠했을까? 사료를 검토해 보면 전한시기까지도 중국인의 관념 속에서 요동이 반드시 요동반도와 일치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전한시기 흉노의 침입이 가장 심했던 지역이 西로는 雲中(현 內蒙古 喉和浩特 부근), 東으로는 遼東이다.¹¹²⁾ 그런데 이 기록의 요동을 현재의 요동반도 지역으로 상정해 버리면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전성기라 할 수 있는 전한 초기까지 흉노는 현 요동반도 지역을 석권하거나 지속적으로 침입한 적은 없다. 흉노의 가장 동쪽, 곧 姑夕王 치하의 영역(목축지)은 동호, 예맥, 조선 등과 연결하고 있었고,¹¹³⁾ 현재의 요동반도 지역은 이러한 세력들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어 흉노 세력으로부터의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적어도 漢이 현재의 요동 지역에서 흉노와 심각한 대결을 벌이거나, 그 지역이 흉노의 위협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는 말이다.¹¹⁴⁾

만약 흉노가 현재의 요동반도 지역을 경략하였거나 그 지역을 자신들의 세력권 아래로 편입했다면 그와 관련된 흔적이 있어야 정상인데, 현재로서는 잠시 논란이 되었던 西岔溝¹¹⁵⁾ 유적을 제외하고는 고고학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다.¹¹⁶⁾ 반면, 늘상 흉노의 침입에 시달렸던 서쪽 지역인 雲中, 上郡, 九原 일대에서는 다수의 흉노 고분군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면 전한 초기까지 요동 혹은 요동군으로 지칭된 지역은 어디일까? 이

128년 무렵이라고 한다. 권오중, 1996, 「고대 요동군의 위치문제 시론」, 『吉玄益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112) 『史記』卷110 匈奴列傳.

113) 林幹, 2007, 『匈奴史』, 內蒙古人民出版社, 33~34쪽.

114) 이는 전국 말~한대까지의 산융, 흉노, 선비의 주요 유적 위치를 살펴봐야도 알 수가 있다. 신용민, 1999, 「한대 목곽분의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7쪽.

115) 遼寧省 西豐縣의 西岔溝文化의 주인공에 대해 匈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가 있으나(孫守道, 1960, 「匈奴西岔溝文化古墳群的發現」, 『文物』, 1960-8), 근래에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묘제 분석이 진전되며 흉노설은 거의 부정되고 부여(田耘, 1984, 「西岔溝古墳群族屬問題淺考」, 『黑龍江文物叢刊』1984-1), 선비계통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李鍾洙, 2004, 「夫餘文化研究」, 吉林大學博士論文, 96~108쪽 참조).

116) 周向永, 2006, 「遼寧省鐵嶺市戰國秦漢考古綜術」, 『博物館研究』2006-2.

를 정확하게 비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요동군은 오늘날의 요동반도 남부지역과千山山脈 이동 지역을 제외한 요동반도 서북부와醫巫閭山 동쪽 지역을 관할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요동은 넓게는遼西郡 지역을 포함해遼河를 건너 천산산맥以西 지역 전체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遼東이 본래 요동반도를 뜻하는 특정 지역에 대한 고유명사가 아니라 ‘아득히 먼 동쪽’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며, 요동반도는 물론 요서 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었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곧 전국 연이 요동반도 전체를 강역으로 하는 행정구역상의 요동군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배력이 전체 요동반도 지역의 기층까지 미치기는 힘들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진출과 후퇴를 반복함으로써 한 무제가 흉노와의 긴 투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고 요동군을 재정비하기 전까지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서 요동=요동반도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遼東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은 각 시대마다 달랐을 것이다. 사실 연 소왕대에 전체 요동반도를 아우르는 요동군이라는 행정구역이 설치되기 이전까지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서 요동은 그저醫巫閭山 동쪽의 막연한遼東을 일컫던 단어가 아니었을까 한다. 요동군과 요서군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 군사적 영향력이 미치던 지역에 그어진 행정구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국인들의 먼 동쪽이라는 막연한 의미의 요동관에 변화를 준 1차적 사건이 진개가 고조선을 패퇴시키고 요동반도를 확보한 일이며, 실제로 새로이 확보된 요동반도 지역 중 요하 유역을 중심으로 한 천산산맥 서쪽 지역으로는 중국 세력이 어느 정도 통치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원전 3세기 초 이후 중국인들은 요동에 대한 공간 개념을 확대할 수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초 전체 요동반도를 석권하는 데 성공한燕이 금방 쇠락하며非漢系の 이종족이 주요 주민이었던 요동반도에 대한 통제력은 급속히 약화된다. 秦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 잠시 그 통제력을 회복했다고 추측할 수도 있으나, 기간이 너무나 짧았고 이내 진한교체기로 이어졌으므로 요동반도를 완전히 통제하기란 무리였을 것이다. 漢의 건국 이후에도 상황은 별로 나을 것

이 없어서 무제 초기까지 내정 정비와 본토 방어에 급급했던 한도 역시 요동을 방치해 둘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혼란기를 틈타 고조선은 다시금 천산산맥 이동의 요동반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갔고, 이것이 그 지역 토착세력의 대표로 상정할 수 있는 예군 남려가 한에 투항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듯하다. 하지만 고조선의 이러한 기도는 무제가 10년에 걸친 대규모 흉노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으며 요동 지역의 재정비에 관심을 기울이자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漢과 고조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던 예군 남려로 대표되는 예맥계 종족의 거주범위인 요동반도 남부지역¹¹⁷⁾과 千山山脈以東 지역이 무제가 창해군을 설치하려 했던 지역으로 볼 수 있겠다. 전한 말기 요동군의 縣 배치를 보면 대부분 북부의 요하선상에 위치하고, 이민족 관리를 위한 部都尉¹¹⁸⁾가 셋이나 설치되었음을 볼 때 여전히 요동반도 남부지역과 천산산맥 以西 지역에 대한 통제의 수준이 낮음과 종족 구성이 매우 복잡하며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¹¹⁹⁾ 요동반도 남부지역의 普蘭店市에서는 이 지역에 예족 집단이 거주했음을 방증하는 ‘臨穢丞印’이¹²⁰⁾ 발견되었고, 천산산맥 동쪽에 위치한 遼寧省 鳳城市로 비정되는 武次縣에 東部都尉가¹²¹⁾ 설치되는 것도 이 지역에 예맥계 종족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예군 남려의 세력권, 곧 무제가 창해군을 설치하려 했던 지역적 범

117) 요동반도 남부 대련 지역의 경우 전한 초기까지만 해도 중국 燕문화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토착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다가 전한시대 중·후기부터 산둥지역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시작했다(鄭軍雷, 2005, 「論西漢墓幽州分布區」, 『考古與文物』 2005-6, 50쪽).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薺君 南閭의 투항사건이 아닐까 한다.

118) 前漢 시기 東夷 지역 邊郡에 설치된 部都尉는 이종족의 內屬과 통치를 위한 郡보다 완화된 형태의 통치기구였다고 한다. 권오중, 2004, 「漢代 邊郡의 部都尉」, 『동양사학연구』 88, 12~16쪽.

119) 권오중, 2005, 「요동군 중부도위와 고구려의 신성」, 『고구려의 국제관계』, 고구려연구재단, 17쪽.

120) 劉俊勇 著, 최무장 譯, 1997, 『中國大連考古研究』, 학연출판사, 105쪽.

121) 요동군 동부도위가 靈河 근처 유역의 西安平에 위치했고 창해군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설치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권오중, 2000, 앞의 글, 112~115쪽.

위를 요동 남부지역과 천산산맥 이동의 요동반도 지역으로만 상정하기에는 남려가 이끌고 왔다는 인구 28만 구가 너무 많아 문제가 된다. 前漢 말기 요동군의 인구는 약 27만 5천으로 나온다.¹²²⁾ 당시 요동군의 관할지역은 서로는 遼河 서쪽의 醫巫閭山과 동으로는 청천강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그 범위 안에 속하는 천산산맥 동쪽과 요동반도 남부지역의 인구규모는 전체 면적비율에 따른 산술적인 계산만으로도 그 절반에도 못 미침을 추측 수 있다. 그렇다면 예군 남려의 28만 구를 어떻게 해석함이 옳을까? 이를 한에 투항하기 전 예군 남려가 자신의 세력을 과장되게 부풀린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¹²³⁾ 그보다는 압록강 중상류와 혼강 일대, 곧 원고구려 지역의 예맥계 종족을 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원고구려 지역은 요동반도의 천산산맥 동쪽 지역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고, 유사한 문화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었다.¹²⁴⁾ 이처럼 기원전 2세기 중후반 무렵 원고구려 지역이 서남쪽의 천산산맥 동쪽과 문화적으로 함께 묶일 여지가 있음 외에 무제가 조선을 멸한 직후에 조선의 영역이 아닌 이 지역에 玄菟郡을 설치하는 것을 볼 때 이 지역이 창해군을 설치하려 한 범위에 속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창해군 설치를 계획한 단계에서 이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조선 討滅 이후 그렇듯 신속하게 玄菟郡을 신설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漢의 원고구려 지역에 대한 직접 지배 정책은 토착 예맥계 세력들의 강한 반발을 사게 되고, 당지의 제 세력들이 단합해 고구려라는 국가단계의 정치체를 만들어 내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貊이라는 종족 호칭의 등장과도 연관이 있다.

위에서 검토한 사실들을 토대로 볼 때 기원전 2세기 무렵의 예맥은 貊이 분

122) 『漢書』 卷28下 地理志下.

123) 和田清, 1955, 앞의 책, 16쪽.

124) 원고구려 지역과 요동반도 지역은 기원전 5~기원전 4세기까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미송리식 토기문화권으로 묶을 여지가 있으며, 그것은 예맥족의 문화로 볼 수가 있다. 송호정, 2007b, 「미송리형 토기문화에 대한 재고찰」, 『한국고대사연구』 45, 30~34쪽.

枝되기 전의 예족을 뜻하는 호칭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¹²⁵⁾ 당시 예군으로 표현된 남려가 이끌던 세력집단은 일종의 느슨한 연맹체로 아직은 완전한 국가체제의 형태는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조선과 漢이라는 상대적으로 크고 선진적인 두 세력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하던 남려는 한과 고조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던 예맥계 부락들과 함께 衛滿의 집권 이후 더욱 강해진 고조선의 압력을 피해 한으로의 투항을 결심했던 듯하다. 그리고 흉노라는 가장 큰 라이벌이자 적대세력을 꺾는 것이 급선무였던 한으로서도 동쪽 영역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의 귀부는 매우 반가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흉노와의 전쟁을 완결짓지 못한 한으로서는 재정상의 문제에 부딪혀 남려로 대표되는 예맥계 제 세력들의 분포지인 천산산맥 이동과 압록강·혼강 일대에 명목상으로 설치한 창해군을 수년 만에 폐하고 만다.

이처럼 사실상 한의 郡 설치계획 폐기로 귀결된 창해군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잠시이지만 漢, 고조선 모두 예맥계 종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던 이 지역으로의 진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힘의 공백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여기서 천산산맥 이동 지역에 비해 지리적·경제적으로 변방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한과 고조선이라는 양대 세력의 주목을 덜 받은 원고구려 지역의 柁로 불린 소규모의 정치체들은 덕분에 자신들의 독자성과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며 응집력을 키울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125) 송호정은 『史記』 단계까지는 예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종족 연합체로 존재했고, 흉노가 盛歲일 때와 그와 東接한 사실을 토대로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경까지 예맥은 하나의 종족(사실상 예)으로 존재했다고 보았다. 송호정, 2007a, 앞의 글, 115쪽.

IV. 고구려의 건국과 貊族

압록강 중상류와 혼강 유역에서 적석총을 조성하며 那로 불리던 예맥계 소국 연맹체들은 한의 창해군 설치 시도와 玄菟郡의 설치로 인해 저항을 위한 자각과 결속이 이루어졌다.¹²⁶⁾ 결국 기원전 75년 무렵 玄菟郡은 夷貊으로 불린 이 지역 토착세력들의 공격으로 郡治를 句麗 서북으로 옮기기에 이른다.¹²⁷⁾ 이 시기 이러한 항쟁을 주도한 것은 원고구려 사회에서 상당기간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沸流國 세력으로 추정된다.¹²⁸⁾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비류국 세력을 중심으로 원고구려 세력을 ‘夷貊’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직 이를 고구려의 종족 명칭으로 등장하는 貊과 동일한 용법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¹²⁹⁾ 현도군에 저항하며 성장하기 시작한 이 지역 세력들은 서서히 濊貊과 구분되며 高句驪,¹³⁰⁾ 句驪¹³¹⁾ 등으로 불리다가 夷貊으로도 호칭되며 이후 자신들의 종족명이 貊으로 자리 잡게 되는 단계의 중간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곧 비류국을 연맹주로 한 압록강 중상류, 渾江 일대의 적석총 조성 세력들이 서서히 결집하며 주변의 예(예맥)와 구별되는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이후 별

126) 가장 이른 시기의 적석총으로 여겨지는 集安 五道嶺溝門 적석총에서 압록강 중·하류역의 표지적 유물인 변형동검, 거미줄 모양 銅鏡 등이 출토되었다. 이것은 중국 세력의 동진에 대응해 원고구려 지역의 토착세력들이 압록강 중류역을 중심으로 재결집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지병목, 2007, 「고구려 기원의 고고학적 고찰」, 『고구려연구』 27, 155~156쪽.

127) 以沃沮城爲玄菟郡。後爲夷貊所侵徙郡句麗西北今所謂玄菟故府是也(『三國志』卷30 魏書 東夷 東沃沮)。

128) 김현숙, 2007, 앞의 글, 46~47쪽.

129) 夷貊이라는 표현은 『史記』에 한 차례, 『後漢書』와 『三國志』에 수차 등장한다. 그런데 원고구려 지역 토착세력의 침공으로 玄菟郡治가 옮긴 기사 외에는 고구려(원고구려)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고 모두 異種族에 대한 범칭 혹은 멸칭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130) 『漢書』卷28下 地理志下 玄菟郡條.

131) 玄菟樂浪武帝時置, 皆朝鮮濊貊句驪蠻夷(『漢書』卷28下 地理志下).

도로 貊이라 불리게 되는 단초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貊이 특정 種族名, 곧 고구려를 구성한 주된 종족을 뜻하는 單稱으로 다시 중국 사서에 출현하는 것은 기원전후부터이다.¹³²⁾ 그렇다면 이 시기를 전후하여 고구려를 본격적으로 貊이라 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부여계의 계루부 세력이 원고구려 지역으로 이동해 와 새로이 이 지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강한 세력으로 성장하며 중국 세력과 대항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특히 서력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부여계 계루부 세력이 도착하여 고구려의 새로운 연맹주로 부상하기 전부터 이 지역에는 고구려로 불린 세력이 존재했다. 이 원고구려 세력이 漢으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세기 초엽 玄菟郡을 퇴축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이 지역의 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중국 세력과 대결을 개시한 것은 桂婁部 세력이 夫餘로부터 남하해 와 원고구려 세력들을 규합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으로 팽창하기 시작하면서였다. 고구려는 이미 건국 초기부터 중국 세력과 접촉하였고 충돌 또한 있었다. 이후 고구려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의 역량을 더욱 확대시켜 지속적으로 漢 군현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다. 이와 같이 고구려는 성장과정 중에서 중국과의 대결을 거치며 중국 세력에 의해 貊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고구려를 濊와 구분해 貊이라 칭한 배경에는 단순히 위와 같은 정치적 성장에만 따른 것은 아니었다. 원고구려 지역은 문화적으로도 북방의 부여를 중심으로 한 예족과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압록강 중류역과 혼강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적석총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¹³³⁾ 예족의 일반적 묘제인 토광묘와 확연히 구분되는 적석묘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묘제이다. 이는 분명 부여에서 남하해 온 유이민 집단인 계루부의 묘제가 아니라 비류국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혼강 유역의 토착세력의 그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적석총의 건립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발달할 수 있었던 계

132) 『漢書』卷99中 王莽傳; 『後漢書』卷1下 光武帝紀 二十五春正月條.

133) 강현숙, 2000, 「고구려고분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6~50쪽.

기는 부여계 세력들이 원고구려 지역으로 내려와 토착세력과 결합하며 그 묘제를 수용, 발전시키면서부터이다.¹³⁴⁾ 이것이 부여계통의 유이민과 토착세력의 결합으로 새로이 도약한 고구려가 부여를 중심으로 한 범예맥계에서 정치·문화적으로 구분되어 독보적인 존재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결국 맥이라 함은 고구려가 정치·문화적 성장으로 인해 본래 예맥계 세력의 맹주적 위치에 있던 부여에 버금갈 정도로 커지고 구분되어지면서 얻어진 호칭이라 하겠다.¹³⁵⁾

이 시기 부여계 세력이 원거주지에서 최종적으로 桓仁·集安 지역으로 진출하였음을 고고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증거는 환인의 望江樓 유적과 집안의 일부 고분에서 발굴된 부여계 유물들을 통해서이다. 望江樓 유적은 桓仁縣 哈達村의 북으로 渾江에 면한 언덕에 위치한 6개의 적석총으로 이루어진 고분군이다. 이 고분의 입지와 출토된 금귀걸이가 부여계 유적으로 인정되는 榆樹老河深, 西豐 西岔溝 유적의 것과 흡사해 고구려 건국 이전 환인 지역에서 활동한 卒本扶餘나 부여계 주민들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¹³⁶⁾ 이 유적의 정확한 조성 주체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토착세력과 부여계가 융합한 대표적인 고고학적 증거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외에도 환인·집안 지역에서 부여와 관련된 유물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五道嶺溝門 고분에서 나온 도끼날형 화살촉과 氣象站 유적에서 나온 좁고 긴 창끝 등은 우수 노하심에서 출토된 유물

134) 無基壇 石槨續石塚의 추정 조영 상한연대가 기원전 2세기 말엽이며, 그 대표적인 유적인 桓仁 望江樓 유적에서는 부여계 유물이 발견되었다. 더 발전된 형태인 基壇 石槨續石塚도 기원후 1세기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조영된다. 강현숙, 2000, 위의 글, 100~106쪽.

135) 여호규는 기원전 1세기 무렵 예맥에서 분리 구분되며 독자적으로 지칭되기 시작하는 맥이 철기문화의 보급과 함께 다시 분화를 하여 고구려의 핵심을 구성하던 貊(大水貊) 외에도 梁貊(小水貊) 등의 집단으로 나누어졌다가 4세기 무렵 고구려 집권화의 진전으로 재통합된 것으로 보았다. 여호규, 2002, 「고구려 초기의 梁貊과 小水貊」, 『한국고대사연구』 25, 122~124쪽.

136) 梁志龍·王俊輝, 1994,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 1994-2; 王綿厚, 2005, 「西漢時期的高句麗‘五部’與‘第二玄菟郡’—關於高句麗早期歷史的若干問題之三」, 『東北史地』 2005-6.

들과 매우 흡사하다.¹³⁷⁾

그렇다면 환인·집안 일대에 이러한 고고학적 흔적을 남긴 부여계통의 사람들은 어디서 어떠한 루트를 타고 이동해 온 것일까? 기록에 朱蒙, 琉璃, 卒本扶餘 등으로 나타나는 부여계 세력들은 기원전 1~기원전 2세기 무렵 여러 차례 자신들의 원주지에서 원고구려 지역으로 이동해 왔으리라 생각된다. 그 이동 경로는 환인·집안에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서 조사된 부여계 문화유적을 통해 주로 두 방면에서 이동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요령성 西豊縣, 길림성 東遼縣 일대에서 남하하는 루트이며,¹³⁸⁾ 다음은 기원전 1세기 무렵 부여의 중심지인 吉林省 일대에서 서남향으로 내려오는 루트로, 학계에서 통설로 받아들여지는 경로이다. 吉林 지역이 초기 부여의 중심지이며 원부여 지역의 일부임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많은 수의 부여계 流移民들이 이곳에서 고구려로 내려왔을 것임은 자명하다.¹³⁹⁾

다만 부여와 선비계 종족의 거주 접경지이며 내몽고 평원과 요령 북부 산지의 문화적 접미지대인 西豊·東遼 지역이 부여계 종족의 주 활동무대였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과연 이 지역이 부여계의 거주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가?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줄 만한 고고학적 증거가 바로 서풍의 西岔溝 유적과 東遼의 彩藍 유적이다. 먼저 서차구 유적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이 유적이 발견된 요령성 西豊 지역은 길림성 지역에서 요서, 요동 반도 남부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교통로 상에 위치한다. 이 유적의 편년은 기원전 150년~기원후 50년 사이로 추정된다.¹⁴⁰⁾ 유적이 발굴된 西豊 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미송리식 토기나 요령식 동검이 출토되는 유적들이 다수 조사되었고, 전국-전한대의 유적에서는 西團山文化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

137) 리광희, 2005, 『고구려유물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8·61쪽.

138) 西豊, 東遼 일대에서 조사된 부여계 유적들을 근거로 이 일대를 고구려를 세운 주몽 세력의 본거지인 북부여로 비정한 설도 있다. 孫進己, 2002, 「高句麗의起源及前高句麗文化研究」, 『社會科學戰線』2002-2; 孫進己, 2007, 『獺貊族起源與發展』, 吉林文史出版社, 298~301쪽.

139) 여호규, 1997, 앞의 글, 179~184쪽.

140) 孫守道, 1960, 앞의 글.

려진 高把豆 등이 다량 출토되는 것을 통해 볼 때 청동기시대에서 전한대까지 예맥계통의 주민들이 다량 거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⁴¹⁾

이 지역의 高把豆는 탄소 14법으로 측정 결과 전국시대 말~전한 초로 추정되는 서단산문화에서 계기적으로 이어지는 泡子沿 유형, 黃魚圈 珠山M1, 邢家店墓地, 田家坨子の 陶器類와 연대, 형식, 유물의 조합상 등이 거의 일치한다.¹⁴²⁾ 그러한 高把豆(高柄豆)를 사용한 주민에 대해 『삼국사기』에서 주몽의 남하로에 등장하는 絡氏로 보는 견해도 있어 흥미롭다.¹⁴³⁾ 서풍 일대 서차구문화의 담지자가 絡氏인지 여부는 상고할 길이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고고학상의 증거와 문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지역을 기원전 1세기 무렵까지 예맥(부여계) 종족의 거주지나, 최소한 부여계 세력 南下路의 중요 기점 중 하나로 비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서차구 유적에서 출토된 주요 유물 중 하나인 銅柄鐵劍이 그 형식상의 특징을 통해 볼 때 老河深, 彩嵐 유적의 철검과 상통하며 특히 철검의 觸角式 劍柄의 연원은 부여가 존재한 송화강 유역의 西荒山型和 舒蘭型劍柄이 분명하므로,¹⁴⁴⁾ 부여계 주민의 문화라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彩嵐 유적은 西岔溝 유적에서 동으로 30여 km 떨어진 東遼縣 彩嵐村에서 조사된 2개의 豎穴式 土壤墓이다. 이 고분에서 雙鳥回首形銅柄鐵劍, 구슬 달린 金銀耳飾, 透·浮彫 獸紋銅牌飾, 陶器 등 많은 유물이 나왔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그 양식상 흉노·선비와는 거리가 있고, 西岔溝나 榆樹 老河深文化에 더 가까워 부여계통의 주민이 남긴 것으로 이해된다.¹⁴⁵⁾ 그리고 이 유적에서 가까운 龍首山古城에서 발견된 土器片의 재질과 양식이 老河深 유적

141) 曹桂林 外, 1991, 앞의 글.

142) 周向永, 2006, 앞의 글, 44쪽.

143) 周向永, 1993, 「遼北東部山地青銅文化族屬芻議」, 『遼寧大學學報』 1993-5.

144) 林澐, 1998, 「西岔溝型銅柄鐵劍與老河深, 彩嵐墓地的族屬」, 『林澐學術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45) 劉升雁, 1995, 「東遼縣石驛公社古代古墳出土文物的研究」, 『博物館研究』 1995-1.

의 것과 일치한다.¹⁴⁶⁾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 이 지역이 부여계 종족들의 분포지였음을 알 수가 있다.

위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고구려 건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여계 세력들은 西豊·東遼 지역과 吉林 지역에서 환인·집안 지역까지 이동해 온 듯하다. 그 구체적인 경로 비정은 고구려가 부여를 정벌한 문헌기록이 참고가 되고, 고구려 시대에 사용된 교통로를 역추적함으로써 탐색이 가능하다. 관련 사료는 다음과 같다.

G. 王出師伐扶餘 次沸流水上……抵利勿林宿……王津軍於扶餘國南
其地多泥塗(『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 大武神王 4·5年條).

고구려에서 부여로 통하는 교통로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고구려 초기 부여와 고구려의 경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세기 부여의 강역에 대하여 동으로는 張廣才嶺과 威虎嶺 以西, 西界는 大安·雙遼·昌圖를 잇는 선, 남으로는 輝發河 상류와 吉林哈達嶺, 북으로는 嫩江과 동류 송화강 이남으로 범이 일반적이다.¹⁴⁷⁾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구려와 경계가 되는 남쪽 界線이다. 여호규는 사료 G에 등장하는 고구려 초기 大武神王이 부여를 정벌하기 위해 북상하던 루트 상의 중요한 자연지물인 沸流水를 渾江으로, 利勿林을 龍崗山脈으로 비정하여 1세기 무렵 고구려와 부여의 경계를 龍崗山脈으로 보았다.¹⁴⁸⁾ 고구려는 지속적인 국력 신장으로 3세기 무렵에는 부여와의 경계선을 보다 북쪽의 吉林哈達嶺까지 넓힐 수 있었지만 초기에는 휘발하 상류, 용강산맥을 경계로 부여와 접했으리라 생각된다.

부여의 중심지인 吉林 지역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교통로는 그 사이에 있는 城址의 분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吉林-輝南-柳河로 이어지는 루트에는 부여 초기의 중심지이며 고구려까지 사용한 龍潭山城, 부여시기 고구려

146) 李君·蘇洪武 總纂, 1988, 『遼源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26~27쪽.

147) 송호정, 1997, 앞의 글, 165~172쪽.

148) 여호규, 1997, 앞의 글, 179~181쪽.

로 통하는 교통로의 重鎮이었던 輝發城, 남쪽으로 龍崗山을 마주한 羅通山城, 청동기시대부터 사용된 흔적이 있는 釣魚臺山城 등이 있어 그것을 연결한 선이 부여와 고구려 사이의 주요 교통로로 사용되었음을 방증한다.¹⁴⁹⁾ 그리고 通化의 赤松柏山城은 漢 이전에 조성한 城을 고구려가 개축해 沿用한 것인데,¹⁵⁰⁾ 용강산보다 더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환인에 바로 맞닿아 있어서 이곳이 고구려에서 부여 지역으로 빠지는 시작이며 관문과 같은 역할을 했음을 추측케 한다.

吉林-遼源-西豊으로 이어지는 교통로 상에도 부여시기부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龍水山城, 城子山山城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에 부여계 주민들이 분포하고 중요한 이동 통로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다. 서풍·요원 지역에서는 서남향으로 第3玄菟郡 治所가 있던 撫順으로 바로 닿고, 第2玄菟郡이 있던 新濱을 거쳐 환인·집안에 이를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고구려의 종족 기원과 관련된 문제를 예맥족의 분포와 이동에 초점을 두고 고구려가 貊으로 지칭되게 되는 과정에 대해 문헌과 고고학 자료의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다. 많은 질정을 기다리며 맺음말은 본문의 요약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고구려의 종족 기원과 관련한 기존의 이해는 한민족 기원 문제와 맞물리어 예·맥·예맥 등의 명칭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한국 학계에서 고구려 族源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들이 나와 선진 문헌의 貊과 고구려의 종족명으로서의 貊은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149) 이종수, 2005, 「고구려의 부여진출 과정 연구」, 『고구려연구』 21, 344~351쪽.

150) 王綿厚, 2002, 앞의 책, 114쪽.

예와 맥은 가장 이르거는 중국의 先秦시기 문헌에서부터 개별적으로 등장한다. 西周시기까지만 해도 맥은 周의 제후국에 해당하는 韓侯에 의해 통솔될 정도로 작은 정치체의 고유명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춘추시대 이후 맥의 용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 시기 문헌에 등장하는 맥은 점차 불특정 이종족을 뜻하는 단어, 곧 중화주의적 華夷觀에 입각한 주변의 오랑캐 세력을 막연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쓰이게 된다. 그리고 전국시대 후기부터는 점차 북방 종족을 지칭하는 범칭 혹은 멸칭으로 굳어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계기적 변화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부가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예는 이른 시기부터 중국 동북방의 종족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사용되다가 맥이 북방 종족의 범칭으로 굳어지자, 이르면 전국시대나 늦어도 前漢 무렵에는 이와 결합해 '예맥'이라고 轉化되기도 하였다. 곧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예맥'이라는 연칭은 예와 맥 두 종족의 합칭이 아니라, 종족적으로 예를 일컫는 명칭이었던 것이다. 사실상 고구려가 맥으로 지칭되는 기원전후한 시기까지 예와 구분되는 종족으로서 맥은 존재하지 않았다.

고리국은 오늘날 중국 길림성 북부와 흑룡강성 남부의 松嫩 평원에 자리 잡고 있었다. 부여의 건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리국은 고구려의 건국 주체 중 하나가 부여계 유이민임을 상기할 때 고구려와의 연관성도 어느 정도 찾아진다. 그 정치적 영향력이 광범위한 지역에 두루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리국의 문화는 후기 서단산문화에도 영향을 주는 등 부여의 성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고리문화는 서단산문화와 함께 원부여문화로 일컬을 만 한데, 이러한 유형의 문화는 북만주에서 요령성 북부까지 넓은 지역에 분포하며 부여와 고구려의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추측케 한다.

예군 남려가 고조선의 압력으로 漢에 투항하자 한은 그로 대표되는 세력권에 창해군을 설치하려 하였다. 그 지리적 위치는 예맥족의 주된 분포지역 중 하나인 요동반도 남부와 천산산맥 이동 지역 및 압록강 중류·혼강 유역(원고구려 지역)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고조선과 한 사이에 위치해 두 세력이 전국시대부터 전한시기까지 일진일퇴의 공방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지

역 주민들의 주된 종족 구성은 예맥계였으리라 생각되고, 한과 고조선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하던 이들 세력은 남려를 대표로 하여 결국 고조선의 압력을 피해 한에 투항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흉노와의 대결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던 한은 이 지역에 창해군을 두려 한 계획을 철회하고, 흉노를 완전히 굴복시킨 이후 고조선을 멸하면서 요동군 동부도위와 현도군을 해당지역에 각각 설치해 본격적인 지배를 시도한다. 이 같은 한 군현의 설치에 원고구려 지역에서 적석총을 조성하고 살던 제 세력들이 저항을 위한 자각과 결집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부여에서 원고구려 지역으로 남하해 온 부여계 세력들이 토착집단과 동화·융합의 과정을 거치며 고구려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주변 정복과 한 군현 세력과의 대결을 펼치게 된다. 기원전후한 시기 중국 측 기록에 고구려를 지칭하는 貊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라고 생각한다. 사서에 고구려와 부여는 언어와 풍습이 유사하고 別種으로 표현될 정도로 종족적으로 가까웠다. 그리고 차이가 비교적 분명한 묘제면에서도 부여계 유이민들이 원고구려 지역 주민들의 적석총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여, 부여계 세력들이 원고구려 지역민들과 융합하는 과정을 그려내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望江樓 유적 등 고구려 지역에서 발견된 부여 관련 유물·유적의 분석과 고구려 건국 이전부터 부여 지역으로 통하는 통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로 탐색을 통해 부여계 유이민들의 원고구려 지역으로의 이동과 정착, 토착세력과의 동화를 거칠게나마 살펴볼 수가 있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광억 외, 2005, 『종족과 민족-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아카넷.
- 김상기, 1971, 『동방사논총』,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정배, 1973, 『한국민족문화의 기원』,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정배, 2000, 『한국고대사와 고고학』, 신서원.
- 김철준, 1975,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
- 東潮·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 董學增, 1994, 『西團山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 리광희, 2005, 『고구려유물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리지린, 1963,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 三上次男, 1966,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 孫進己, 1987, 『東北民族原流』, 黑龍江人民出版社.
- 송호정, 2003,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 楊軍, 2006, 『高句麗民族與國家的形成和演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 王綿厚, 2004, 『高句麗與濊貊研究』, 哈爾濱出版社.
- 劉俊勇 著, 최무장 譯, 1997, 『中國大連考古研究』, 학연출판사.
- 李春祥, 2006, 『高句麗與東北民族疆域研究』, 吉林文史出版社.
- 林幹, 2006, 『東胡史』(修訂版), 內蒙古人民出版社.
- 錢穆, 2001, 『史記地名考』, 商務印書館.
- 和田清, 1955, 『東亞史研究: 滿洲篇』, 東洋文庫.

〈논문〉

- 賈偉明, 1986, 「關於白金寶類型分期的探索」, 『北方文物』 1986-1.
- 干志耿, 1984, 「古代索離研究」, 『民族研究』 1984-2.
- 강현숙, 2000, 「고구려고분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오중, 1996, 「고대 요동군의 위치문제 시론」, 『吉玄益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 권오중, 2000, 「창해군과 요동동부도위」, 『역사학보』 168.
- 권오중, 2005, 「요동군 중부도위와 고구려의 신성」, 『고구려의 국제관계』, 고구려연구

재단.

- 金岳, 1994, 「東北貊族原流研究」, 『遼海文化學刊』, 1994-2.
-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족원문제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 『중국의 한국고대사연구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 김현숙, 2007, 「고구려의 종족기원과 국가형성과정」, 『대구사학』 89.
- 김현정, 1993, 「부여의 성립에 대한 일고찰」, 『상명사학』 1.
- 노태돈, 2000,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 都興智, 1986, 「試論漢書文化和白金寶文化」, 『北方文物』 1986-1.
- 馬德謙, 1991, 「夫餘文化的幾個問題」, 『北方文物』 1991-2.
- 박경철, 1992, 「부여사 전개에 관한 再認識試論」, 『백산학보』 40.
- 박경철, 1997, 「B.C. 1000年紀 後半 적석총축조집단의 정치적 존재양식」, 『한국사연구』 98.
- 박준형, 2002, 「예맥의 형성과정과 고조선」, 『학림』 22.
- 汜犁, 1993, 「高句麗族探源駁議」,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 복기대, 2001, 「臨屯太守章 봉니를 통해 본 한사군의 위치」, 『백산학보』 61.
- 三上次男, 1951, 「穢人とその民族の性格について」, 『朝鮮學報』 2.
- 三品彰英, 1953, 「濊貊族小考」, 『朝鮮學報』 4.
- 서영수, 1999, 「고조선의 대외관계와 강역의 변동」, 『동양학』 29.
- 孫守道, 1960, 「匈奴西岔溝文化古墳群의 發現」, 『文物』 1960-8.
- 孫進己, 2002, 「高句麗의 起源及前高句麗文化研究」, 『社會科學戰線』 2002-2.
- 송호정, 1997, 「부여의 성립」,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송호정, 2007a, 「고구려의 기원과 예맥」, 『고구려연구』 27.
- 송호정, 2007b, 「미송리형 토기문화에 대한 재고찰」, 『한국고대사연구』 45.
- 신용민, 1999, 「한대 목곽분의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재훈, 2007, 「상쟁하는 고대사 서술과 대안 모색: 『詩經』 『韓奕』 편 다시 읽기」, 『동방학지』 137.
- 楊保隆, 1998, 「高句麗族族源與高句麗人流向」, 『民族研究』 1998-4.
- 여호규, 1992, 「고구려초기 나부통치체제의 성립과 운영」, 『한국사론』 27.
- 여호규, 1996, 「고구려의 기원」,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 여호규, 1997, 「1~4세기 고구려 정치체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여호규, 2002, 「고구려 초기의 梁貊과 小水貊」, 『한국고대사연구』 25.

- 吳柏春, 1996, 「東胡鮮卑時期的科爾沁及其社會經濟」, 『內蒙古民族師院學報』 1996-4.
- 王健群, 1987, 「高句麗族屬探源」, 『學習與探索』, 1987-6.
- 王丹外, 2007, 「上機房營子遺址的植硅體分析」, 『農業考古』 2007-1.
- 王綿厚, 2006, 「高句麗起源的國內外代表性觀點解析-再論高句麗族源主體爲遼東‘二江’和‘二河’上游‘貊’部說」, 『社會科學輯刊』 2006-1.
- 劉景文, 1991, 「西團山文化的農牧業發展探索」, 『北方文物』 1991-2.
- 유태용, 2000, 「논형 길현편에 보이는 橐離國의 연구」, 『백산학보』 57.
- 이강승, 1979, 「遼寧地方的 靑銅器文化-청동유물로 본 遼寧靑銅器文化와 夏家店上層 文化의 비교연구」, 『한국고고학보』 6.
- 李健才, 1985, 「關於西團山文化族屬問題的探討」, 『社會科學戰線』 1985-4.
- 李德山, 1992, 「高句麗族稱及其族屬考辨」, 『社會科學戰線』 1992-1.
- 이병도, 1976, 「玄菟郡考」,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 이성규, 1987, 「중국고문헌의 사료적 가치」, 『아시아문화』 2.
- 李鍾洙, 2004, 「夫餘文化研究」, 吉林大學博士論文.
- 이중수, 2005, 「고구려의 부여진출 과정 연구」, 『고구려연구』 21.
- 林澐, 1998, 「西岔溝型銅柄鐵劍與老河深, 彩嵐基地의 族屬」, 『林澐學術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魯維廉, 1982, 「正視我國古代的五穀」, 『農業考古』 1982-2.
- 張博泉, 1983, 「東北古史研究中幾個問題」, 『東北史研究』, 1983-1.
- 張亞初, 1992, 「從古文學談胡, 胡國與東胡」, 『文博』 1992-1.
- 張偉, 1997, 「松嫩平原早期鐵器的發見與研究」, 『北方文物』 1997-1.
- 田耘, 1984, 「西岔溝古墳群族屬問題淺考」, 『黑龍江文物叢刊』 1984-1.
- 鄭軍雷, 「論西漢墓幽州分布區」, 『考古與文物』 2005-6.
- 曹桂林外, 1991, 「遼北東部地區幾處靑銅器時代遺址調查」, 『遼海文物學刊』 1991-1.
- 周向永, 1993, 「遼北東部山地靑銅文化族屬芻議」, 『遼寧大學學報』 1993-5.
- 周向永, 2006, 「遼寧省鐵嶺市戰國秦漢考古綜術」, 『博物館研究』 2006-2.
- 지병목, 1987, 「고구려성립과정고」, 『백산학보』 34.
- 지병목, 2007, 「고구려 기원의 고고학적 고찰」, 『고구려연구』 27.
- 鄒寶庫, 1992, 「釋遼陽出土的一件秦戈銘文」, 『考古』 1992-8.
- 馮永謙, 2004, 「漢代襄平, 望平, 遼襄今地考辨」, 『社會科學戰線』 2004-3.

황철산, 1963, 「예맥족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3-1·2.

黑龍江省文物考古工作隊, 1980, 「黑龍江省肇源白金寶遺址第一次發掘」, 『考古』
1980-4.



[ABSTRACT]

A Study on the Racial Origin of Early Koguryo

Jo, Yeongkwang

The Existing studies related to the ethnic origin of Koguryo are concerned with the problem of the origin of Korean. Among others it has been laid emphasis on a matter of names, Ye · Maek · YeMaek, etc. Concerning about the ethnic origin of Koguryo, Korean scholars have established recently that Maek as the name of Koguryo tribe has nothing to do with the Maek mentioned in the literatures of Pre Qin period.

Ye and Maek are shown in the literatures of Pre Qin period respectively, Maek in the period of the Xizhou was named a tribe in the outskirts of Zhou. It however became a general title of a unspecified different “ethnic group” since Chunqiu period and gradually became a general title which designated the northern tribes since the latter Zhanguo period. Ye had been referred to as the tribes of the northeastern China, but when Maek became a general title of the northern tribes, it was changed Yemaek.

The Koryo land and Namyo, a chief of Ye had an effect on the founding of Koguryo and the formation of the ethnic group. The culture of the Koryo has a right to be named the culture of the Proto Puyo along with the Xituanshan culture. This type of culture is distributed widely northern Manchuria to northern Liaoning Province, and affects the founding of Puyo and Koguryo.

When Namyo, a chief of Ye surrendered to the Han dynasty under the pressure of Kojoseon, Han dynasty tried to establish County Canghai in the sphere of her influence. It is assumed that the geographical location was Southern Liaoning Peninsula where is one of the main habitation of Yemaek tribes, Eastern Qianshan Mts and Hun River Valley. The establishing of Chinese counties was the beginning of several tribes's awakening and unite for resistance, these tribes were making the stone mounds in the Proto Koguryo.

Puyo People who had moved Puyo territory to the Proto Koguryo merged with indigenous peoples and established Koguryo, and then confronted with Chinese counties earnestly in the same period. I think why the name Maek was referred to as Koguryo in the historical records of china arises from it.

keywords

Ye, Maek, a general title of the northern tribes, Proto Koguryo, Proto Puyo, Kory, Liaodong, County Canghai

石山寺 所藏 加句靈驗佛頂尊勝陀羅尼記에 대한 一考察

임석규 || 무사시노[武藏野]미술대학 박사 후기 과정

I. 머리말

발해는 건국 이후부터 唐, 日本, 新羅 등 주변 국가들과 때로는 밀접하게 때로는 소원하게나마 정치·문화·경제적 교류관계를 유지했다. 그중 발해와 고대 일본의 관계를 일본 측 사료 중심으로 살펴보면, 발해는 727년부터 약 200년간 공식적으로 34회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으며, 일본에서도 발해에 13회에 걸쳐 사신을 파견했다. 험한 海路를 통한 교류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교문화의 교류도 양국 승려 또는 승려와 사신들 간의 인적 교류를 통해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 교류는 반드시 물적 교류를 수반하게 되는데, 양국 사이에도 불상이나 불경 같은 불교문화재가 전해졌을 것이다. 당시 발해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불교문화재들은 발해에서 제작된 것일 수도 있고, 당의 것을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

※ 투고일: 2009년 8월 10일, 심사일: 2009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2010년 2월 28일.

였겠지만 주로 발해에서 일본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그것은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우열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거대한 선진국이었던 당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직접적 교류가 가능했던 발해가 선진문물을 일본에 전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일본에는 현재 크게 나누어서 두 종류의 발해 관련 자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19세기 말부터 시작한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병행하여 진행된 조사에 따라서 유입된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7세기부터 10세기 초엽에 걸친 발해와 일본의 직접적인 교류와 관련된 자료이다. 전자는 주로 서울대학교와 도쿄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인데, 불교조각을 중심으로 미술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¹⁾ 후자는 아직까지 그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는 전혀 시도된 바 없었다.

필자는 발해와 일본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에 따른 불교자료를 실사하고 양국 사이의 불교문화 교류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2007년 10월 2일~11일까지 발해 사절단이 주로 도착했던 일본의 東北地方과 近畿地方의 관련 유적을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조사에서는 발해에서 일본에 전해 주었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유물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현재 일본 滋賀縣 大津市 石山寺에 소장되어 있는 加句靈驗佛頂尊勝陀羅尼記를 2007년 10월 7일 사찰 측의 배려로 조사할 수 있었다.

이 경전의 존재는 이미 학계에 소개된 바 있지만, 全文이 알려진 적은 없었

1) 이 분야의 연구성과로는 다음의 논문들이 있다. 河上洋, 1987, 「東北アジア地域の佛教-渤海を中心として」, 『大谷大學史學論究』 1; 林碩奎, 1995, 『東京大所藏 渤海佛像의 現狀과 性格』, 『발해건국 1300주년』, 발해건국 1300주년 기념사업회; 林碩奎, 1999, 「크라스크노 사원지의 佛像」, 『강좌미술사』 14호(高句麗·渤海 研究Ⅱ), 한국미술사연구소; 姜煥靜, 2003, 「발해 불교 미술의 신해석」, 『발해 고고학의 최신 성과』(「해동성국-발해」 특별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요지), 서울대학교 박물관; 文明大, 1999, 「渤海 佛教彫刻의 流派와 樣式 研究」, 『강좌미술사』 14호(高句麗·渤海 研究Ⅱ), 한국미술사연구소; 崔聖銀, 1999, 「渤海(698~926)의 菩薩像 樣式에 대한 考察」, 『강좌미술사』 14호(高句麗·渤海 研究Ⅱ), 한국미술사연구소; 崔聖銀, 2007, 「渤海 佛教彫刻의 새로운 考察-中國, 日本 古代彫刻과의 比較를 중심으로」, 『高句麗 研究』 26.

고, 책 말미의 跋文에 쓰여 있는 渤海使臣 李居正이 전해 주었다는 내용만 소개된 바 있다.²⁾ 하지만 이 경전은 발해 사신이 일본에 경전을 전해 주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더 많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9세기 발해에서 신앙되었던 불교의 유형과 일본 밀교의 새로운 유입 경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발해와 일본의 불교교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발해와 일본의 불교교류를 살펴보기 위해 일본에 건너간 기록이 남아 있는 발해승 貞素와 仁貞에 대해 알아보고, 石山寺 所藏 加句靈驗佛頂尊勝陀羅尼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II. 발해의 渡日僧

발해 출신 승려에 관한 기록은 극히 드물다. 贊寧이撰한『宋高僧傳』「洛陽同德寺釋無名傳」 등에 기록된 南宗禪僧 神會의 弟子 釋無名(722~794), 814년에 발해사의 錄事로서 渡日해 「七日禁中陪宴詩」를 남긴 釋仁貞(?~815), 826년에 龍崗城海城寺와 金剛谷改心寺(咸鏡北道)를 창건했던 大圓, 일본 승려 靈境寺 靈仙의 孫弟子인 釋貞素, 唐·高彦休의『關史』에 기록된 858년에 入唐해 長安 西明寺에 있으며, 鳥獸와 말이 통했다던 薩多羅, 927년에 고려에 망명했던 載雄 등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들 중 발해와 일본 사이의 교류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했던 기록이 있는 승려는 인정과 정소이다. 여기서는 이 두 승려와 일본승 靈仙을 중심으로 양국 불교문화 교류의 단면이나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宋基豪, 1992, 「渤海佛教의 展開過程과 몇 가지 特徵」, 『伽山 李智冠스님 華甲紀念論叢』; 『冊府元龜』 卷971, “開元元年 十二月 靺鞨(渤海)王子來朝, 秦日臣請就市交易, 入寺禮佛 許之.”; 『冊府元龜』 卷972, “元和九年 正月 渤海遣使高禮進等三十七人朝貢, 獻金銀佛像各一.”

정소는 靈仙의 손제자인데, 스승 應公과 마찬가지로 그의 행장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靈仙과의 관계를 통해 추측하는 수밖에 없다. 靈仙(759~827?)은 774년경에 奈良 興福寺에서 출가하여 賢景에게서 法相(唯識學)을 배우던 중 꿈에서 대일여래를 친견하게 된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804년에 견당사와 함께 유학승으로서 입당하여 空海와 함께 般若三藏에게서 법어를 배웠다. 810년, 長安 醴泉寺의 譯經僧 般若三藏 아래에서 『大乘本生心地觀經』을 번역할 때에는 筆受와 譯語를 맡아 했고, 그 공으로 內供奉이 되었으며, 密敎의 太元帥法을 배워 터득했다. 815년, 五臺山 停点普通院菩薩堂 앞에서 華嚴一萬菩薩의 출현을 보게 된다. 820년에 오대산에 도착해 不空系 밀교사원인 金閣寺 堅固菩薩院과 鐵勒蘭若, 過去七佛信仰과 관련된 七佛教誡院 등에서 수학했다.

圓仁이 838~847년까지 중국에 머무는 동안의 경험을 일기로 정리한 『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일본 승려 靈仙과 발해 승려 정소의 이야기가 등장한다.³⁾ 견당사와 함께 입당한 圓仁은 840년 4월 간신히 오대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의 여러 사찰을 순례하던 중 칠불교계원에서 靈仙의 죽음을 애도하며 발해 승려 정소가 쓴 편액 ‘哭日本國內供奉大德靈靈和尚詩并序’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편액에 따르면 長慶 5년(825) 嵯峨천황이 靈仙에게 하사한 금 백 냥이 장안에 전해지자 정소가 그 돈을 오대산 금각사에 보내 주었다.

정소에게 전해졌던 금 백 냥은 아마 견일본사가 귀국길에 일본천황으로부터 받아 가져왔을 것이고, 그것이 발해를 경유해 장안에 머물고 있던 정소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것을 정소는 오대산의 靈仙에게 보내 주었다. 靈仙은 이것을 받고 1만 개의 불사리와 새롭게 번역한 경전 2부 및 고칙(조서와 칙서) 5통 등을 정소에게 건네며 일본천황에게 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소는 이것들을 일본에 전했으며, 淳仁天皇으로부터 다시 하사금 백 냥을 靈仙에게 전해 줄 것을 의뢰받고 돌아왔다. 정소는 太和 2년(828) 4월 7일, 영경사로 돌아와 靈仙을 방문했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고 한다.

즉, 정소는 靈仙으로부터 불사리와 새로 번역한 경전을 위탁받아 발해사의

3)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卷三 開成 五年 七月 三日.

배로 일본에 건너가 전하기도 하고, 嵯峨·淳仁 天皇으로부터 부탁받은 금 백냥을 영선에게 전해 주기도 했다. 또 정소는 칠불교계원에 靈仙의 죽음을 추모하며 「哭靈仙上人詩」를 남기는 등 靈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음이 확실한 것 같다.⁴⁾

그리고 839년에 일본으로 돌아갔던 眞言宗 승려 圓行(799~852)의 「靈巖寺和尚請來法門道具等目錄」에는 '佛舍利二千七百餘粒靈仙大德弟子付授와 '梵夾一具靈仙大德弟子付授'라 되어 있으며, 847년에 귀국했던 천태종 승려 엔닌의 「入唐新求聖教目錄」에는 '大唐代州五臺山大華嚴寺般若院比丘貞素所習天台智者大師教迹等目錄一卷'이 포함되어 있다.⁵⁾ 게다가 공해의 『最勝王經開題』(9세기 전반)의 부록 「最勝王經秘密伽陀」에는 813년에 靈仙의 제자 응공이 공해의 제자 眞圓에게 『金剛明經』의 講經을 요청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소는 靈仙과 응공으로부터 法相(유식학), 本緣思想, 天台, 華嚴, 不空系密教 등을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불사리신앙과 화엄밀교가 성했던 오대산신앙은 발해 불교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따르면 정소는 두 번 일본 천황의 하사금을 靈仙에게 전하려 했다. 한 번은 당 장안에서 오대산으로, 또 한 번은 일본에서 오대산으로의 전달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전달은 靈仙의 죽음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어쨌든 정소는 오대산과 일본 사이를 오가며, 靈仙과 천황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다. 그런데 정소가 오대산에서 일본으로 건너갈 때 단순히 靈仙이 의뢰한 물건만을 천황에게 전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4)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 번역문은 김문경 역주, 2001,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도서출판 증심 참조.

5) 최근 이와 관련하여 825년 영선이 정소에게 부탁해 일본왕실에 전해 준 불경 2부가 바로 『大乘本生心地觀經』과 『佛頂尊勝陀羅尼經』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정황상 『大乘本生心地觀經』이 전해졌을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佛頂尊勝陀羅尼經』도 그때 함께 전해졌다는 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듯하다. 후술하겠지만 石山寺 소장본은 『佛頂尊勝陀羅尼經』이 아니라 『加句靈驗佛頂尊勝陀羅尼記』이며, 전래시기 또한 861년이기 때문이다. 주경미, 2008, 「遼代 佛舍利莊嚴과 八大靈塔 圖像」, (사) 중앙아시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요지, 74쪽.

일본으로 가는 길은 머나먼 뱃길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갈 수 없는 여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발해에 들러 발해의 견일본사절과 함께 도일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오대산으로 돌아갈 때도 발해 견일본사절의 귀국길에 동행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발해·일본 관계 속 정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적이고 외교적인 안목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 사절의 일행으로 일본에 간 발해승 인정을 주목하게 된다.

발해승 인정은 814년 제17회 견일본사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인정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일본 방문 시에는 錄事라는 지위였다. 녹사의 업무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승려가 일반인의 직위를 받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인정의 문장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인정의 문학적 재능은 그가 남긴 시 한 수가 818년 편찬된 일본의 한시집 『文華秀麗集』에 남아 있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⁶⁾

七日禁中陪宴詩 一首
 入朝貴國慙下客 七日承恩作上賓
 更見鳳聲無妓態 風流變動一國春

815년 정월 22일, 인정이 포함된 제17회 견일본사는 嵯峨천황이 희왕 대언의에게 전하는 국서를 받아 귀국길에 올랐으나, 거친 풍랑으로 조난당해 越前國에서 장기간 머무르게 되었고 그 사이 인정은 귀국하지 못한 채 일본에서 병사하였다.

이상으로 일본과 교류했던 발해 승려에 대해 살펴보았다. 발해의 승려들은 당과 발해, 일본의 불교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역할을 했으며, 궁전연회에 참석해 외국 문인들과 시회를 하는 등 높은 수준의 문화교류를 담당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6) 『文華秀麗集』 卷上. 『文華秀麗集』은 嵯峨천황의 칙명으로 편찬된 것으로 이 시집에 외국인으로서 시가 실린 사람은 인정과 또 다른 발해 사신 王孝廉뿐이다.

Ⅲ. 『佛頂尊勝陀羅尼經』의 번역과 『加句靈驗佛頂尊勝陀羅尼記』

『加句靈驗佛頂尊勝陀羅尼記』는 佛陀波利가 번역한 『佛頂尊勝陀羅尼經』에 字句가 첨가된 인연을 설명하고, 佛頂尊勝陀羅尼를 지니고 염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영험공덕을 설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佛頂尊勝陀羅尼經』의 번역과 『加句靈驗佛頂尊勝陀羅尼記』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겠다.

佛頂尊勝陀羅尼는 줄여서 尊勝陀羅尼라고도 하며, 最勝佛頂陀羅尼呪⁷⁾ · 如來佛頂尊勝⁸⁾ · 灌頂最勝大陀羅尼⁹⁾ · 佛頂最勝大陀羅尼¹⁰⁾ · 法印大陀羅尼¹¹⁾ · 吉祥¹²⁾ 등의 명칭으로도 불린다. 부처의 특징을 보여주는 32相 중 頭頂의 肉髻를 불격화한 것이다. 즉 佛頂(Tathāgata-uṣṇīṣa)이란 가장 존귀하다는 뜻으로서 일체 공덕 가운데에서 佛智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 佛智의 가장 존귀한 점을 인격화한 것이다. 尊勝(vijaya)도 마찬가지로 가장 넓고 높은 佛心の 지묘함을 나타낸다.¹³⁾ 특히 이 달라니는 滅罪 · 延命 · 액난 제거에 효험이 있다고 전하며, 중국에서는 7세기 말경 佛陀波利三藏이 인도에서 오대산으로 장래한 이후 크게 유행했다.

존승다라니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실크로드 주변지역, 넓게는 중앙 · 동아시아권 내에서 열렬하게 신앙되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680년대 이후 몇 권의 경전의귀가 번역 · 편집됨과 동시에 오대산의 문수신앙과 결합한 후, 존승

7) 地婆訶羅 譯, 『最勝佛頂陀羅尼淨除業障呪經』(『大正藏』 19, 359쪽上).

8) 佛陀波利 譯, 『佛頂尊勝陀羅尼經』(『大正藏』 19, 350쪽中); 義淨 譯, 『佛說佛頂尊勝陀羅尼經』(『大正藏』 19, 362쪽中).

9) 地婆訶羅 譯, 『佛頂最勝陀羅尼經』(『大正藏』 19, 355쪽下).

10) 『大正新修大藏經』(『大正藏』 19, 356쪽上).

11) 『大正新修大藏經』(『大正藏』 19, 356쪽中).

12) 義淨 譯, 『佛說佛頂尊勝陀羅尼經』(『大正藏』 19, 363쪽上).

13) 金永德, 1999, 「佛頂尊勝陀羅尼經에 관한 연구」, 『한국불교학』 25, 한국불교학회, 298쪽.

다라니경당이 상당히 많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돈황에서도 존승다라니의 서사가 성행했으며, 『燉煌遺書』 중에도 양적 비중이 큰 불전이다. 또한 이 다라니는 漢譯 외에도 티베트어·호탄어·쿠차어·소그드어·몽고어·위구르어·西夏어 등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이 경전만큼 다양한 국가·지역에서 뿌리내린 불전도 없을 것이다.¹⁴⁾

『불정존승다라니경』의 요체인 다라니는 주로 나의 육신과 모든 중생의 몸이 깨끗하게 정화되길 기원하고, 다시 올 수명의 깨끗함과 그 수명을 유지하는 행동의 청정함을 기도하는 내용이다.¹⁵⁾

중국에 전래된 『불정존승다라니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杜行顯가 佛陀波利와 함께 번역한 『불정존승다라니경』(T.968)이다. 杜行顯는 唐代의 譯經居士로서 高宗의 儀鳳年中에 朝散郎行鴻臚寺典客署丞에 임명되었다. 그는 여러 나라 언어에 밝았고, 또한 天竺 언어에도 능하여 佛陀波利가 梵籙을 봉헌했을 때 황제의 칙령에 따라 儀鳳 4년(679)에 寧遠將軍 度婆와 사문 日照(地婆訶羅)와 함께 『불정존승다라니경』을 역출하였다고 한다.¹⁶⁾

동일한 제목의 경전 중 佛陀波利가 西明寺의 順貞 등과 함께 번역한 『불정존승다라니경』(T.967)은 경머리에 志靜의 서문이 들어 있다. 서문에는 이 경전을 번역하게 된 인연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地婆訶羅(日照)는 唐 高宗의 儀鳳初년에 당에 와서 則天武后의 垂拱末년에 낙양의 大福先寺에 머물며 『불정존승다라니경』과 『最勝佛丁耶陀羅尼淨除業障呪經』을 번역하였다고 한다.¹⁷⁾

이 경전을 번역한 다른 사람으로는 義淨(635~713)이 있다. 의정은 唐代의 入竺求法僧으로 西域에 유학할 뜻을 세우고 咸亨 2년 37세에 남해를 경유하여 인도에 도착했다. 인도 각지에서 불교를 배우고 垂拱元년에 나란다를 떠나 귀

14) 佐佐木大樹, 2007, 『佛頂尊勝陀羅尼經』の研究(大正大學眞言學智山研究室編), 『智山學報』 56, 智山勸學會, 475쪽.

15) 변순미, 2005, 「불정존승다라니경의 의미 해석-망월사 『진언집』의 실담법자를 중심으로」, 『인도철학』 제18집, 131~159쪽 참조.

16) 金永德, 1999, 앞의 글, 299쪽.

17) 金永德, 1999, 앞의 글, 299~300쪽.

로에 올랐다. 도중에 도적을 만났으나 다행히 殺禍를 면하고 갖은 우여곡절 끝에 梵本經律論 약 400부 등을 가지고 則天武后의 證聖元년에 낙양에 돌아오니, 인도로 출발한 지 25년만의 일이었다. 武后의 勅에 따라 佛授記寺에 머물면서 번역에 종사한 뒤 玄宗 開元元年 79세에 입적했다.

이상은 중국에서 善無畏와 金剛智·不空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중기밀 교경전이 전래하기 이전에 번역된 佛頂尊勝系의 경전이다. 선무외나 금강지 등도 불정존승계의 경계 번역에 참여했으며, 그 이후의 번역자로는 北宋 시대의 중요한 역경삼장인 法天(Dharmadeva)을 들 수 있다. 법천은 法賢(Dharmabhadra)이라고도 하며, 중인도 나란타사의 승려로서 宋 太宗 開寶 6년 8월에 來朝하여 번역한 이래 110여 부 170여 권을 번역한 송대 역경가 중 중진이다. 또한 高麗 指空 譯의 『于瑟拏沙毘左野陀羅尼』가 전하는데, 그 역자인 指空은 인도의 승려로서 고려와 깊은 관계를 가진 승려였다.

이와 같이 불정존승다라니는 가장 古本인 杜行顯 譯의 『불정존승다라니경』이 번역된 680년부터 송나라 때 다라니의 再譯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번역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¹⁸⁾

『大正新修大藏經』(이하 大正藏) 및 『大日本續藏經』에 전하는 『불정존승다라니경』의 이역본과 의궤와 주석서는 모두 17가지나 되는데, 이 중에는 경전의 명칭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약간 다른 것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큰 차이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것은 번역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인 번역자가 있었다는 점 외에 그만큼 이 경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을 입증해 준다.¹⁹⁾

한국에서는 아직 『가구영험불정존승다라니기』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불정존승관계 자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신라 하대에 제작되었다고 보는 경북 영일군의 法光寺址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불정존승다라니명 납석제호가 알려져 있다. 이 사리호는 1968년 석

18) 金永德, 1999, 앞의 글, 300쪽.

19) 金永德, 1999, 앞의 글, 301쪽 표 참조.

탑이 도굴될 때 불법 반출되었다가 나중에 회수된 것이다. 이때 되찾은 사리장엄으로는 청동제 및 납석제 사리호 각 1개씩과 탑지석 2매 등이 있다. 특히 납석제 사리호 안에는 사리 8粒이 들어 있었다. 납석제 사리호는 높이 4.3cm이며 겉면에 먹으로 쓴 크기 약 1cm의 佛頂尊勝陀羅尼 글씨가 4행으로 적혀 있다.²⁰⁾ 그런데 이 사리호의 명문은 신라 하대에 쓰여진 것이라기보다는 후대에 가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탑은 興德王 3년(828)에 창건되어 文聖王 8년(846)에 옮겨진 것인데,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발견 민애대왕 사리기와 비교했을 때 사리호의 기형도 차이가 분명하고, 더군다나 그 시대의 석제사리기의 명문은 대부분 음각으로 조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자료로 하대 신라에서의 불정존승다라니신앙을 유추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탑 안에서 함께 출토된 탑지석 중에는 17세기의 것도 있어서 어느 시기인가 탑을 수리하며 새로 넣은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고려시대 이후에는 다라니당의 건립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존승다라니신앙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광주직할시 서구 임동의 十信寺址에서 출토된 대불정존승다라니당은 일반적인 석비형식을 따라 龜趺 위에 세운 4각 비신에 범자가 아닌 한자로 다라니를 새겼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사본에는 강원도 평강에 광평사 다라니당이라 하여 「존승다라니」를 새긴 석당이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²¹⁾

『가구영험불정존승다라니기』는 당나라 때 武徹이 쓴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序言-佛頂尊勝陀羅尼感應事-佛頂尊勝陀羅尼-佛頂尊勝陀羅尼加字具足本으로 되어 있다. 서언의 내용은 무척이 새로운 존승다라니를 얻게 되는 사정을 여러 인물들의 인연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다. 기존의 佛陀波利 번역의 다라니로는 윤회의 고통을 끊을 수 없었으나, 문장 수도 더 많고, 발음도 다른 새로운 다라니를 지송하자 일체의 고통을 받지 않게 되었고, 다른 이의 고통도 구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다라니는 佛陀波利가 처음 가져왔

20) 사찰문화연구원, 2001, 『전통사찰총서』 16, 401쪽.

2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권, 26쪽.

던 존승다라니와 대조해 보니 9문장 69자가 더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서언의 내용 중에는 새로운 존승다라니가 金剛智로부터 王開士에게로, 또 그에게서 蔣那에게로, 마지막으로 武徹로 상승되는 인연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서언에 이어서 불정존승다라니감응사가 나오는데, 開元 26년(738)과 長慶 3년(823)의 두 가지 감응사로서 모두 佛陀波利本보다는 새로운 가지구족본이 영험이 많다는 내용을 실고 있다. 그 뒤로 불정존승다라니가 이어지고, 마지막에 불정존승다라니가지구족본이 실려 있다.²²⁾

『가구영험불정존승다라니기』가 아직 한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石山寺본의 존재로 볼 때 적어도 860년 이전에는 발해에도 전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에의 전파와 관련해서는 安然의 諸阿闍梨眞言密教部類總錄에 가구영험불정존승다라니 1권이 포함되어 있고, 그 전거는 宗叡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宗叡가 당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²³⁾ 그런데 宗叡(809~884)는 最澄·空海·常暁·円行·円仁·惠運·円珍 등과 같이 入唐八家 중 한 사람이다. 그가 당으로 건너간 것은 862년(貞觀 4)의 일이고, 일본으로 귀국한 것은 865년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大正藏』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영험불정존승다라니기』가 종예의 사본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보다 먼저 일본에 최초로 전해진 본은 발해의 이거정이 전해 준 石山寺본 『加句靈驗佛頂尊勝陀羅尼記』라고 볼 수 있다.

22) 『大正藏』 19, 386~388쪽上.

23) 干潟龍祥, 1970, 「佛頂尊勝陀羅尼經諸傳の研究」, 『密教研究』 68號, 65쪽.

IV. 石山寺 所藏 加句靈驗佛頂尊勝陀羅尼記

1_ 石山寺 所藏 加句靈驗佛頂尊勝陀羅尼記의 현상

石山寺 所藏 佛頂尊勝陀羅尼記 一帖

所藏處: 日本 滋賀縣 大津市 石山寺 校倉聖教 第15函 25號
 院政期寫, 一項七行, 一行十二字前後, 朱點, 縱 17cm, 橫 14.7cm, 21紙
 內題: 加句靈驗佛頂尊勝陀羅尼記
 尾題: 佛頂尊勝陀羅尼 可字具足本也
 眞言
 奧書

石山寺(사진 1)는 현재 日本 滋賀縣 大津市에 있는 유서 깊은 사찰로 眞言宗東寺派의 別格本山이다. 초창은 東大寺 소속 造石山寺所가 761년부터 그 이듬해에 걸쳐 本堂, 法堂, 鐘樓兼經藏, 食堂, 寫經所 등을 건립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初代座主 聖寶, 2대座主 觀賢(853~925)에 걸쳐 밀교사원이었으며, 그 후로 관음영험소로서 신앙되어 오고 있다.²⁴⁾

石山寺는 창건 초기인 762년 2월부터 12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寫經所에서 일체경을 서사했다고 한다. 즉 이 절은 官寺에 준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조형된 것이다.²⁵⁾ 현재 石山寺에는 一切經을 비롯해서 다수의 寫經·聖教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 경전들은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높은 것들이며, 一切經·校倉聖教·深密藏聖教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 교창성교는 교창에 일체경과 함께 납입되어 있던 성교(현재는 신수장고에 보관)로서

24) 『岩波 佛教辭典』第2版, 1989, 岩波書店, 31~32쪽.

25) 佐和隆研, 1973, 「石山寺の歴史と文化財」, 『佛教藝術』94號, 4쪽.

1655년에 새로 제작된 經箱 30函으로 분납되어 있다. 이 성교들은 총 1천 점이 넘는데, 대부분이 鎌倉시대 초기 이전의 것으로 시대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들이다. 그 내용은 진언밀교 전반에 걸쳐 있지만 현재는 ‘灌頂部’, ‘胎藏界部’ 등으로 분류해서 관련 있는 상자에 납입해 놓았다.

현재 石山寺에는 貞觀 3년(861) 발해 사신 이거정이 전해 준 『가구영험불정존승다라니기』(사진 2~사진 24)가 소장되어 있다. 『가구영험불정존승다라니기』는 전술했다시피 불정존승다라니에 唐代的 武徹이란 사람이 이 다라니와 관련해 경험한 여러 이적과 존승다라니의 영험 그리고 존승다라니경의 올바른 번역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이 경전은 石山寺의 校倉聖教 제15函에 보관되어 있다.

형태는 帖折本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卷子本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먹으로 쓴 필사본이며 일본 院政期(11세기 후반~12세기)의 寫本이다. 해충의 피해와 열화로 인해 상당히 훼손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보존처리가 끝난 상태라 책의 현상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우선 표제와 내제는 모두 가구영험불정존승다라니기(이하 石山寺本)라 되어 있다. 현재 많은 글에서 이 자료를 經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원제는 경이 아니고 記이다.²⁶⁾ 서두에는 무철의 다라니에 얽힌 이야기가 나온다. 뒤이어 佛頂尊勝陀羅尼感應事가 이어지고, 그 뒤에 佛頂尊勝陀羅尼加字具足本이 덧붙여 있다. 그리고 말미에 跋文이 있는데, 이 발문에 따르면 이 경을 861년에 발해 사신 이거정이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 그런데 이 石山寺본의 구성은 대정장본(大正藏19, T.974C)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즉 대정장본에는 불정존승다라니감응사에 뒤이어 불정존승다라니가 나오고, 그 뒤에 불정존승다라니가자구족본이 실려 있는 데 비해 石山寺本에는 불정존승다라니가 빠져 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수백 자가 넘는 분량의 다라니를 발해에서 書寫하며 실수로 누락시켰다고는 생

26) 記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 기록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건의 전말 등을 자신의 소감 등과 더불어 기술하는 것이다.

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12세기경 일본에서 원본을 서사할 때 고의적으로 제외시켰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발해에서 가져온 원본에도 이미 다라니는 가자구족본만 실려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석산사본과 대정장본 중 어느 것이 원본에 가까운 구성일까? 아쉽게도 가구영험불정존승다라니기는 중국의 경록은 물론 高麗·宋·元·明본에서도 그 존재를 찾을 수 없고 오로지 일본에만 전해지고 있는 경전이라고 한다.²⁷⁾ 즉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고, 일본에도 현재는 석산사본과 대정장본만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올바른 구성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구성이 서로 다른 이유를 굳이 추측해 보자면 무철이 서언과 감응사에서 강조한 것처럼 불정존승다라니의 요체는 佛陀波利의 번역본이 아니라 金剛智三藏이 고쳐 번역한 가자구족본이기 때문에 구태여 올바르게 읽은 다라니를 하나 더 써 놓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더군다나 후술하겠지만 이거정이 속한 제27차 방일사신단은 文德天皇의 상에 조문하기 위해 일본에 갔었기 때문에 불교경전 자체를 전달하는 경우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 문제는 뒤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다.

2_ 石山寺本 跋文의 內容과 李居正의 行蹟

石山寺本 跋文의 內容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大唐大中六年十月廿八日弟子
 殷襄施貞觀三年四月十四日
 渤海國使英祇大夫政堂
 省春部正三位上中郎將
 □谷枉縣開回李居正持
 來之

27) 干瀉龍祥, 1970, 앞의 글, 65쪽.

大唐 大中 6년(852) 10월 28일에 제자 殷喪이 시주하였다.
 貞觀 3年(861) 4월 14일에 발해 사신 吳秩大夫, 政堂省 春部卿,
 正三位, 上中郎將, □谷枉縣 開國男 李居正이 가지고 왔다.

이 발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3행의 英祚大夫는 吳秩大夫의 잘못으로 여겨진다. 발해에서 咸和 11년(841) 일본에 보낸 中臺省牒에 보면 賀守謙의 관위가 吳秩大夫政堂春部卿上中郎將上桂將理縣擬開國男賀守謙이라 되어 있는데, 오질대부는 당의 관제로 말하면 文散官에 해당한다. 현재 까지 알려진 발해의 文散官은 吳秩大夫 賀守謙, 紫綬大夫 王新福, 青綬大夫 壹萬福, 獻可大夫 史都蒙, 匡諫大夫 呂定琳, 英緒大夫 裴璆가 있다.²⁸⁾

4행에 春部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정당성 아래에는 忠, 仁, 義, 智, 禮, 信의 6부가 있었고, 春部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당에서는 光宅 元年(684)에 禮部를 春官으로 개칭하였던 예가 있어, 則天武后 시기의 관제를 많이 따랐던 발해에서도 禮部를 春部라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거정은 禮部의 장관이었을 것이다.

4행의 正三位는 일본에서 받은 것이다.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사신 중에서 楊承慶, 高南申, 王新福, 史都蒙, 王孝廉, 王文矩, 裴璆 등이 正三位를 받았었다.

4행의 中郎將은 당의 諸衛에 中郎將이 있었으므로 발해에도 이와 유사한 군사 직책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咸和 11년 渤海中臺省牒에서는 賀守謙이 이와 동일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5행에 □谷枉縣이란 지명이 보이는데, 均谷枉縣이라 판독되기도 하지만 현재 이러한 지명은 알려져 있지 않다. 혹시 『遼史』 권38, 地理志 東京道 湯州 조에 나오는 均谷縣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행의 開國은 開國의 잘못으로서, 그 아래에 男자 따위가 누락되어 있다. 발해의 封爵으로서 開國公 高南申, 開國子 大昌泰, 開國男 史都蒙, 王新福, 賀

28) 임상선 편역, 1990,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309~338쪽 참조.

守謙 등이 알려져 있다.²⁹⁾

이 발문에 등장하는 이거정은 833년에 당에서 유학하고 귀국했던 인물이다. 『册府元龜』 卷九百九十九에는 高賞英이 解楚卿, 趙孝明, 劉寶俊 3인의 파견과 이미 당에 와서 공부하고 있던 學生 李居正, 朱承朝, 高壽海 등 3인의 귀국을 당나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기사가 있다.³⁰⁾

이 사료에 등장하는 이거정과 石山寺본에 등장하는 이거정은 동일인물로 생각되는데, 그의 행적은 史書 곳곳에 남아 있다. 이거정은 제27차 방일사신단의 대사로서 일행 105인과 함께 860년 겨울에 발해를 출발하여 861년 정월에 島根郡에 상륙하였다. 그들의 방일목적은 文德天皇의 상에 조문하는 것이었다. 일본천황은 영객사와 지방관에게 “발해 사신이 예를 어기고 조문하러 왔는데, 이들은 교만하므로 마땅히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지시하였다. 그러면서도 일본천황은 이거정이 직위가 公卿에 달하고 재주가 아주 뛰어나다고 말하며 純 135필과 綿 1,225屯을 하사했다. 결국 입경은 허락되지 않았고, 발해에서 갖고 온 신물도 받지 않았으며 다만 중대성첩만 접수하였다.³¹⁾

29) 이러한 내용은 함화 11년 중대성첩사본(咸和十一年中臺省牒寫本) 중 吳祇大夫政堂春部卿上中郎將上桂將理縣擬開國男賀守謙中臺親公大內相兼殿中安豐縣開國公大度日光[출전: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1992)]

30) 『册府元龜』 卷九百九十九 請求(開元) 三[二]十六年 六月 甲子 渤海遣使求寫唐禮及三國志晉書三十六國春秋 許之 文宗太和七年 春正月 己亥 銀青光祿大夫簡較秘書監忽汗都督國王 大彝震奏 遣學士解楚卿趙孝明劉寶俊三人 附謝恩使同中書右平章事高賞英赴上都學問 先遣學生李居正朱承朝高壽海等三人 事業稍成 請準例遞乘歸本國 許之.

31) 李居正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사료는 아래와 같다.

① 『日本三代實錄』 卷五 清和天皇 貞觀三年 五月 廿一日 甲午 廿一日甲午 …… 宣告存問兼領渤海客使但馬權介正六位上藤原朝臣春景 并出雲國司等云 渤海國使李居正 違先皇制 輒以弔來 亦令看啓案 違例多端 事須責其輕慢 自彼却還 然而如聞 居正位在公卿 齡過懸車才綺交新 猶有可愛 因欲特加憂恤以聽入京 而頃者炎旱連日 有妨農時 慮夫路次 更以停止 又王啓并信物等不可更收 須進上中臺牒 以出雲國絹一百州五疋 綿一千二百廿五屯 便頒賜渤海客徒一百五人.

② 『日本三代實錄』 卷五 清和天皇 貞觀三年 春正月 廿日 乙未 廿日乙未 出雲國上言 渤海國使李居正等一百五人 自隱岐國來着鳴根郡.

이상으로 이거정의 행적을 대략적으로 종합하면 그는 42세를 넘은 나이에 당으로부터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으며, 861년 이미 70세가 넘은 고령이었지만 장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일행 105인과 함께 방일하였다. 당시 천황이 허가하지 않아 입경은 못하고 가구영협불정존승다라니기도 왕에게는 전해 주지 못한 채 이듬해 귀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히 왕실로 전해졌어야 할 가구영협불정존승다라니기가 어떤 연고로 石山寺에 소장되게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奈良 東大寺의 승려 覺樹가 築紫의 大宰府까지 가서 성교를 서사했다는 기록은 눈여겨볼 만하다. 覺樹는 1120년 경 대륙으로부터 수입된 문물, 특히 경전·성교를 입수하기 위해 대재부나 그 외항이자 당시 대륙 교섭의 창구였던 博多까지 가서 대재부와 가까운 곳에 있던 관세음사를 동대사의 말사로 삼기 위해 노력한다. 당시 관세음사는 물론 이 지역의 사찰이나 신사에는 송으로부터 들어온 경전이나 성교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³²⁾

石山寺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나라시대 이후 일체경을 제작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경전을 수집해온 사찰이다. 그렇기 때문에 石山寺의 승려들이 9세기 당시 대륙 교섭의 창구였고, 100인이 넘는 발해인들이 머물고 있던 島根郡까지 와서 경전을 수집했던 것은 아닐까?

③ 『日本三代實錄』 卷五 清和天皇 貞觀三年 五月 廿六日 己亥 廿六日己亥 太政官送渤海國中臺省牒下存問使并出雲國司 純一十疋 綿四十屯 別賜大使李居正.

④ 『類聚國史』 卷一九四 清和天皇 貞觀三年 五月 廿一日 甲午 廿一日甲午 宣告存問兼領渤海客使但馬權介正六位上藤原朝臣春景 并出雲國司等云 渤海國使李居正 違先皇制 輒以弔來 亦令看啓案 違例多端 事須責其輕慢 自彼却還 然而如聞 居正位在公卿 齡過懸車 才綺交新 猶有可愛 因欲特加憂恤 以聽入京 而頃者炎旱連日 有妨農時 慮夫路次 更以停止 又王啓并信物等不可更收 須進上中臺牒 以出雲國絹一百州五疋 綿一千二百廿五屯 便頒賜渤海客徒一百五人.

32) 橫內裕人, 2008, 「遼·高麗と日本佛教—研究史をめぐっ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36號, 23쪽.

그리고 이거정 일행의 방일목적이 文德天皇의 상에 조문하는 것이었는데, 이 점은 이들이 가구영험불정존승다라니기를 가져갔던 이유와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 같다. 石山寺본 서두의 무철이 서술한 부분 중에는 몇 가지 영험기가 등장하는데, 그중 이런 내용이 있다.

開元年間 오대산 아래에 홀로 고요하게 수행하는 한居士가 있었는데, 성은 王씨였다. 일이 있어서 遠行을 하느라 서로 떨어져 있던 중에 父親이 사망하는 바람에 집에 돌아와 보니 만날 수 없게 되었다. 돌아가신 부친이 받은 善惡의 과보를 알아보기를 바라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존승다라니를 수십만 번 외었다. 하지만 정성과 바람이 간절했음에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이내 산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한 노인을 만났다. 그가 이르기를, “너는 진실로 다라니를 애써 부지런히 기억하여 잊지 않았다. 그러나 빠지고 생략된 문구가 많으니, 내가 이제 온전한 본래의 문구를 주겠다.”고 하기에 거사가 절하고 받으니, 천 번을 외우면 되리라고 했다. 그리하여 거의 수일이 지났을 무렵에 밤중에 홀연히 고리로 된 노리가 내는 소리와 피리 소리가 들려 마당으로 내려왔다. 이때 거사가 놀라 일어나서 보니 수십 명의 天人이 한 사람의 天仙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가 앞에 와서 말하기를, “너는 나를 모르겠느냐?” 거사가 “모르겠습니다”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天仙이 이르기를, “나는 너의 애비다. 近年에 네가 존승다라니를 지송했기에 그 복의 힘을 내가 얻었고, 그런 뒤에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쌓인 복은 앞서 네가 쌓은 복의 배가 되었다. 네가 다시 무슨 本을 얻었기에 이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구나. 나는 이제 너의 힘으로 인해 天仙의 王이 되었다. 그러니 네가 持念한 功效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알겠구나.” 말을 마치고는 위로 올라가거늘 거사는 필듯이 기빠하며 절하며 보내었다. 그때부터 더욱 정진하다가 뒷날에 東京에 이르렀다.³³⁾

33) 開元中 五臺山下 有一精修居士 姓王 有事遠出行 去後父亡 迴來不見 至心誦尊勝陀羅尼數十萬遍 願知見先考所受生善惡業報 精誠懇願 殊無覺知 遂欲出山 見一老人 謂居士曰 仁者念持 寔爲勤敏 然文句多脫略 我今授示全本文句 居士拜而受之 乃云可誦千遍 殆然經數日 於夜中 忽聞環珮簫管之聲 降自庭宇 此時居士驚起視之 見天人數十輩 共圍繞一天仙 前謂之曰 汝識吾否 居士答曰不知 天仙曰 我是汝父 比年誦持尊勝陀羅尼 吾得爾之福力 然後數月已來 福倍於積歲 不知汝

여기서 무철이 강조한 것은 존승다라니를 수십만 번 외운다고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략된 문구 없이 정확한 다라니를 지송할 때만 유효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石山寺本에서 존승다라니가 빠지고 존승다라니가 자구족본만이 실려 있는 정황도 이해할 수 있다. 무철술 가구영험불정존승다라니기에 있는 두 개의 존승다라니 중에서 보다 정확한 다라니는 加字具足本이었기 때문이다.

즉, 발해 사신들은 위의 영험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다라니의 효험으로 천선의 왕이 된 왕거사의 부친처럼 문덕천황 또한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다라니를 일본에 전해 주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V. 맺음말

이상 石山寺 소장 가구영험불정존승다라니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발해와 일본 불교의 직접적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渡日僧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리고 가구영험불정존승다라니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불정존승다라니의 번역과 전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石山寺 소장 가구영험불정존승다라니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이 다라니기의 성격과 일본에 전해지게 된 연유, 그리고 석산사에 소장된 배경 등을 유추해 보았다.

石山寺本은 이거정을 대사로 한 발해의 제27차 방일사신단이 861년 일본에 전해 준 것으로, 현재로서는 일본에 전해진 최초의 가구영험불정존승다라

更得何本 以至於斯 吾今以汝之力故 獲爲天仙之王 則知汝所持念 功效不可量也 言訖上昇 居士歡躍拜送 自爾尤加精進 後日至東京.

니기이다. 또한 이거정 일행이 이 경을 갖고 방일한 것은 사절단의 방일 목적이 文德天皇의 상에 조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보았다.

일본에서는 空海와 最澄의 귀국과 함께 밀교가 대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중기밀교와는 별도로 대중들은 현세이익적인 잡밀에 대한 신앙도 꾸준히 지켜 왔으며, 그들에게 불정존승다라니에 대한 믿음은 그중에서도 특별한 것이었다. 이 점은 현재 일본의 진언종에서 상용되고 있는 다라니가 가자구족본이고, 매년 12월에 진언종 사찰에서 개최하는 興教大師陀羅尼會에서 염송하는 다라니 또한 불정존승다라니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石山寺본은 발해의 밀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발해의 불상 중에는 밀교계 도상으로 볼 수 있는 상이 몇 구 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소조불좌상은 수인이 금강정경계의 밀교도상인 아미타정인(묘관찰지인)을 결하고 있으며, 寧安市 渤海鎮의 발해 문물전시관에 전시되고 있는 금동육비보살입상이나 흑룡강성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발해 사리기에 음각된 사천왕상도 밀교와 관계가 깊은 작품들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발해 불상에 대해서는 주로 법화·관음·유가유식·밀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하지만 도상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소외경전에 관한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石山寺본은 발해의 불교와 미술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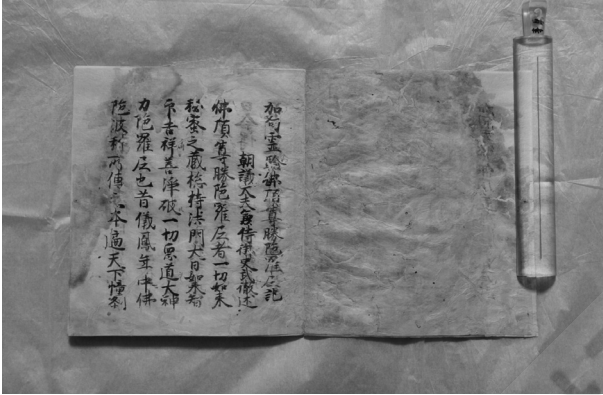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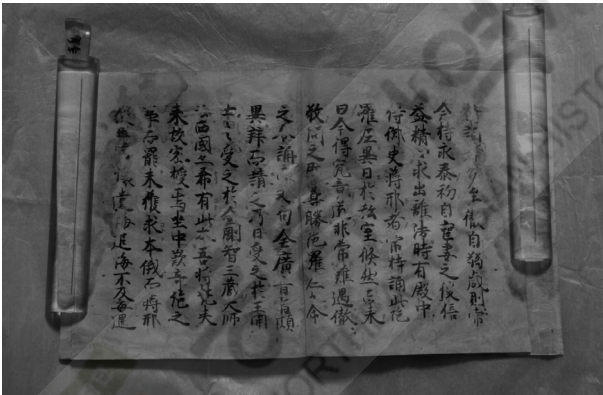
〈사진 1〉 石山寺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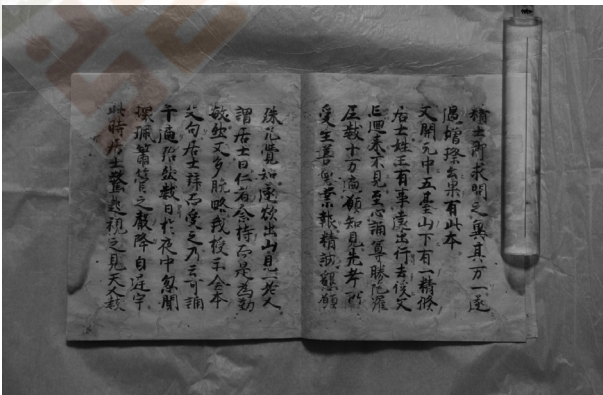
〈사진 2-1~23〉
佛頂尊勝陀羅尼記 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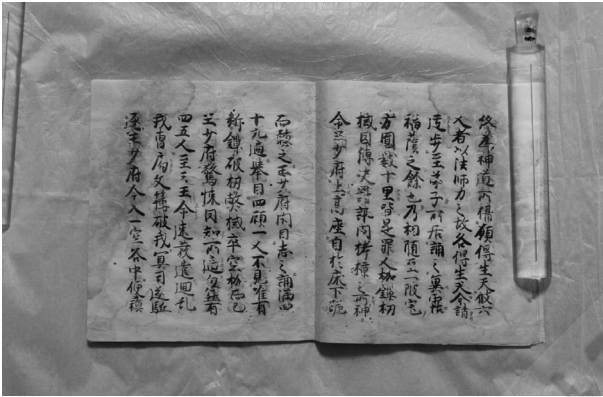
〈사진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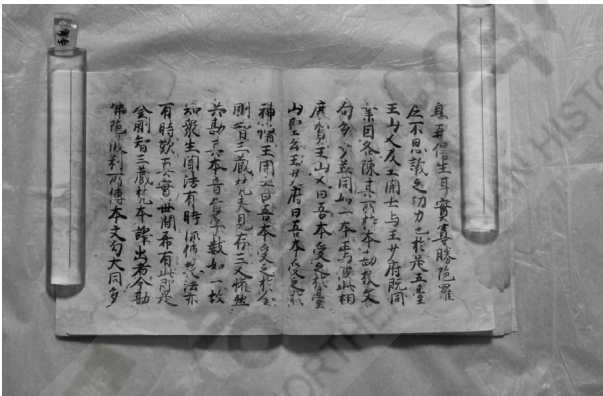
〈사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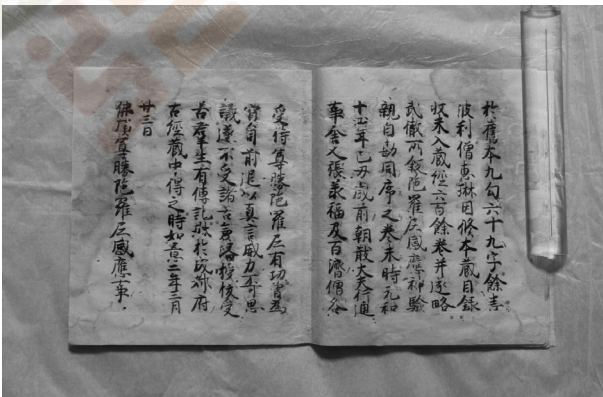
〈사진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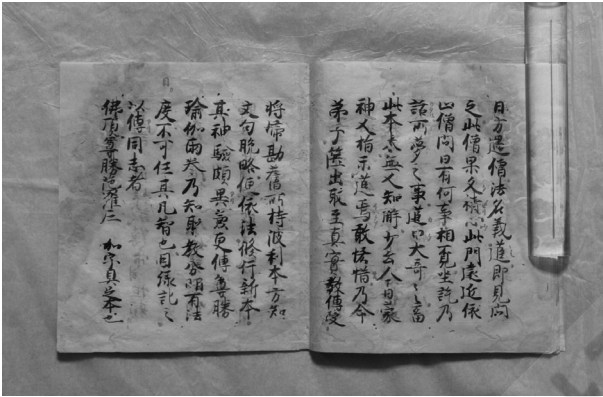
〈사진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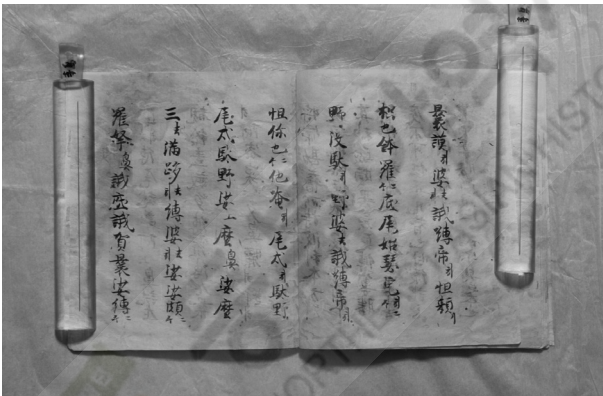
〈사진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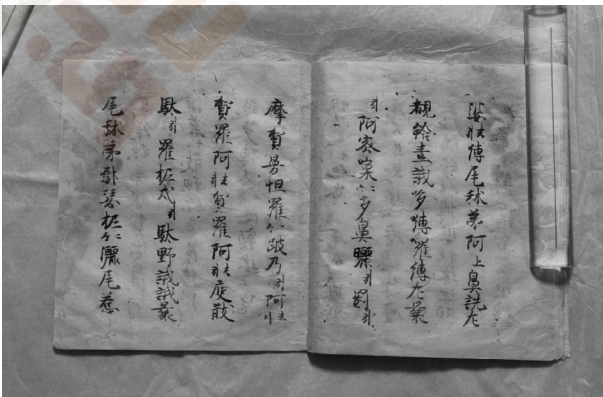
〈사진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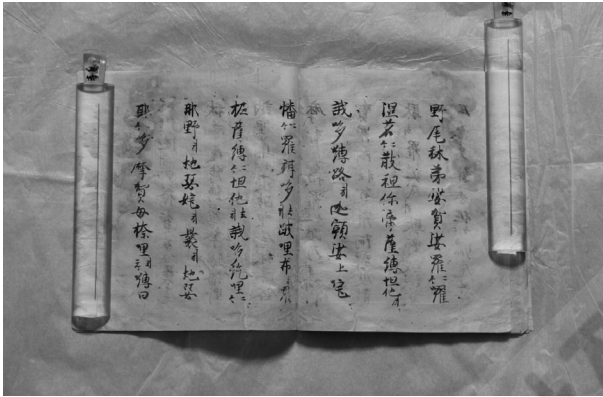
〈사진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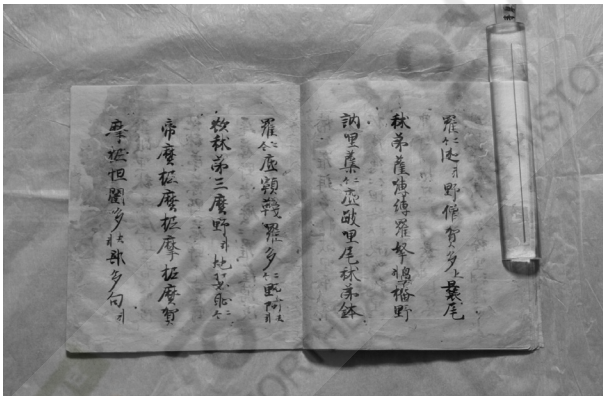
〈사진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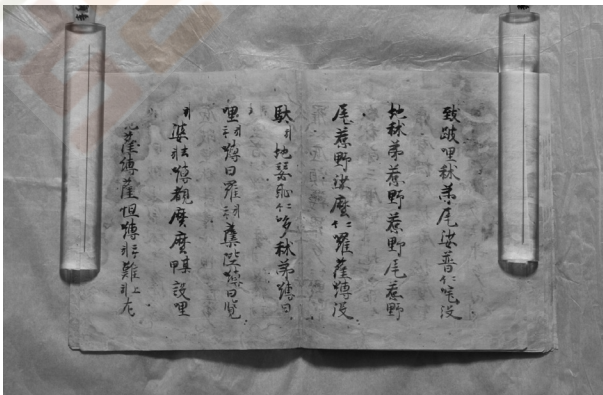
〈사진 2-16〉



〈사진 2-17〉



〈사진 2-18〉



〈사진 2-19〉



〈사진 2-23〉

동북아시아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大正藏』 19

『類聚國史』

『文華秀麗集』

『日本三代實錄』

『冊府元龜』

『入唐求法巡禮行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II(1992)

서운길, 1994, 『韓國密敎思想史研究』, 불광출판사.

엔닌 지음, 김문경 역주, 2001,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도서출판 중심.

임상선 편역, 1990,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하마다 고사쿠 지음, 신영희 옮김, 2008, 『발해국 흥망사』, 동북아역사재단.

宋基豪, 1992, 「渤海佛敎의 展開過程과 몇 가지 特徵」, 『伽山 李智冠스님 華甲紀念 論叢』.

林碩奎, 1995, 「東京大所藏 渤海佛像의 現狀과 性格」, 『발해건국 1300주년』, 발해건국 1300주년 기념 사업회.

林碩奎, 1999, 「크라스키노 사원지의 佛像」, 『강좌미술사』 14호(高句麗·渤海 研究 II), 한국미술사연구소.

文明大, 1999, 「渤海 佛敎彫刻의 流波와 樣式 研究」, 『강좌미술사』 14호(高句麗·渤海 研究 II), 한국미술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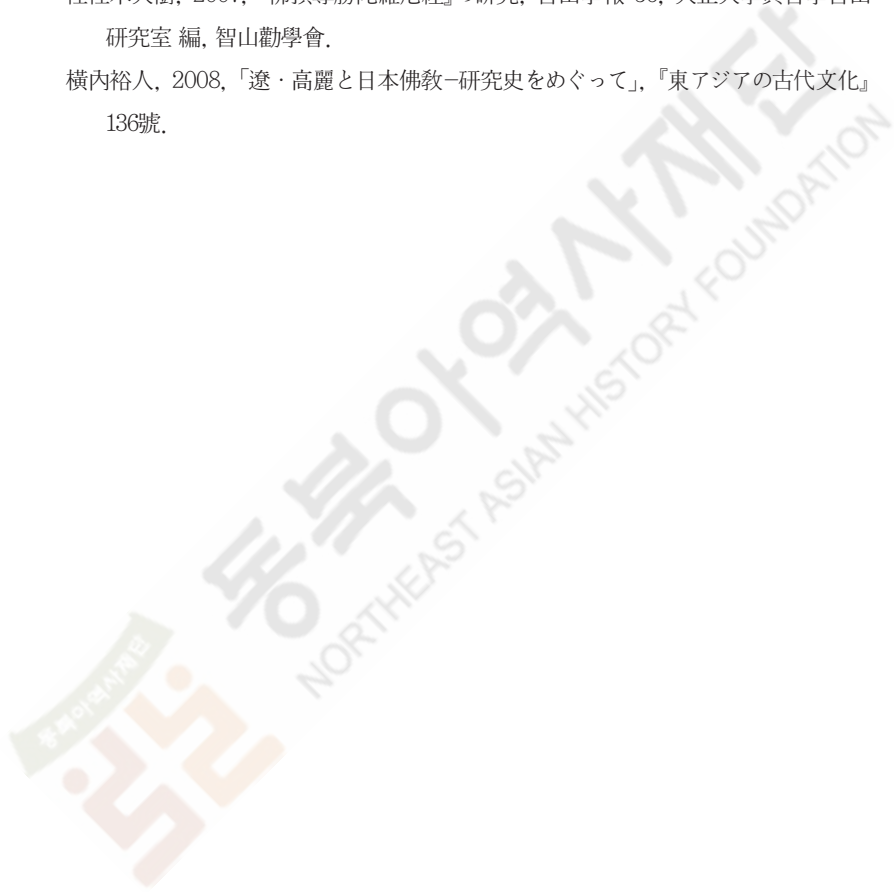
崔聖銀, 1999, 「渤海(698~926)의 菩薩像 樣式에 대한 考察」, 『강좌미술사』 14호(高句麗·渤海 研究 II), 한국미술사연구소.

金永德, 1999, 「佛頂尊勝陀羅尼經에 관한 연구」, 『한국불교학』 25, 한국불교학회.

변순미, 2005, 「불정존승다라니경의 의미 해석-망월사 『진언집』의 실담법자를 중심으로」, 『인도철학』 제18집, 인도철학회.

崔聖銀, 2007, 「渤海 佛敎彫刻의 새로운 考察-中國, 日本 古代彫刻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高句麗 研究』 26.

- 井上以智爲, 1938, 「五臺山佛教の展望」, 『支那佛教史學』 2-1.
- 干潟龍祥, 1970, 「佛頂尊勝陀羅尼經諸傳の研究」, 『密教研究』 68號.
- 佐和隆研, 1973, 「石山寺の歴史と文化財」, 『佛教藝術』 94號.
- 河上洋, 1987, 「東北アジア地域の佛教-渤海を中心として」, 『大谷大學史學論究』 1.
- 佐佐木大樹, 2007, 『佛頂尊勝陀羅尼經』の研究, 智山學報 56, 大正大學眞言學智山
研究室 編, 智山勸學會.
- 横内裕人, 2008, 「遼・高麗と日本佛教-研究史をめぐっ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36號.



[ABSTRACT]

A study on *Gaguyunghumbuljeongjonseungdaranigi* in
Ishiyama temple

Lim, Seoggyu

This paper infers the status quo and characteristics of *Gaguyunghumbuljeongjonseungdaranigi* (meaning script attached by stories with Usnisa Vijaya Dharani) Sutra Ishiyama temple possesses (the “Ishiyama temple version”), the reason why Balhae handed it to Japan and background why it was kept in Ishiyama temple.

Ishiyama temple version was the first *Gaguyunghumbuljeongjonseungdaranigi* handed to Japan in 861 by the 27th special envoys to Japan led by Lee, Geo-jeong. This paper surmises that special envoys visited Japan to pay Balhae’s respects to deceased Montoku, Japanese emperor, and that they brought this scripture in a hope for all sins of Emperor Montoku to disappear and for him to live eternally in the paradise.

Ishiyama temple version is very important in grasping Esoteric Buddhism of Balhae. However, there were few statues of the Buddha and materials related to the Esoteric Buddhism and it is hard to investigate relics in China at first hand. In this context, studies should be conducted after gathering more data.

Materials related to Balhae in Japan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One is materials that were gathered during an investigation in line with a colonial policy start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other is materials related to direct exchange between Balhae and Japan from

the 7th century to the early 10th century. The former consists of roof tiles and statues of the Buddha kept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Tokyo while the latter is made up of only *Gaguyung humbuljeongjonseungdaranigi* in Shiga-ken Otsu-si Ishiyama temple. This script is the only buddhist relic handed to Japan through direct exchange between Balhae and Japan, and has great significance in understanding hidden aspects of Balhae's Buddhism.

keywords

Balhae, Usonisa Vijaya Dharani Sutra, Ishiyama temple, Lee Geo-jeong, Esoteric Buddhism

德富蘇峰의 동아시아 인식

- 청일전쟁부터 한국병합 시기를 중심으로 -

방광석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교수

I. 머리말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 1863~1957)는 '대일본제국'의 흥망과 운명을 같이한 대표적인 언론인이자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으로 그는 역사학자이기도 했다. 아카데미즘 사학자는 아니었으나 『近世日本國民史』 등 수많은 역사저술을 통해 대중에게 큰 영향을 끼친 '민간사학자'였다.

도쿠토미의 생애는 주로 언론인으로서 활동한 전반기와 역사서술에 매진한 후반기로 나뉜다. 도쿠토미는 메이지 중기의 논단을 국수주의와 양분하는 '평민주의'의 주창자였다. 그는 1886년 『將來之日本』을 발표함으로써 '메이지 신시대'의 대변자로서 논단에 지위를 확립하고 상경해 본격적인 언론활동을 시작했다. 신분적 제약이 있었던 '자유민권운동'에 반발하며 구미국가와 같은 평민사회를 지향하는 '평민주의'의 가치를 내걸었던 것이다. 1887년에 창간한 종합잡지 『고쿠민노토모[國民之友]』는 정부의 귀족적 歐化主義와 국수주의에 대

※ 투고일 : 2009년 9월 30일, 심사일 : 2010년 2월 18일, 게재확정일 : 2010년 2월 28일.

비되는 ‘평민적’ 歐化主義를 지향해 청년층의 압도적인 인기를 받았고 1890년에는 『고쿠민신문[國民新聞]』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도쿠토미는 청일전쟁을 계기로 ‘대외팽창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삼국간섭에 의한 遼東반도 還付가 제국주의로의 ‘전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시기부터 도쿠토미는 국권주의적 경향을 더욱 드러내며 정권에 접근했다. 가쓰라 타로[桂太郎] 등 유력정치가의 신임을 얻어 御用思想家라는 평판을 받았다. 이후 가쓰라파의 입장에서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며 번벌정권을 옹호하여 정당과 민중의 반발을 샀다. 1910년 일본의 한국병합이 이루어지자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요청을 받아 『京城日報』의 감독으로 조선에 부임해 1918년까지 조선인 ‘교화’의 논진을 펼쳤다. 그러나 1913년 가쓰라가 사망하자 현실정치에서 손을 떼고 50대의 나이에 역사저술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메이지유신 지도자들의 전기류를 꾸준히 편찬하는 한편 장기간에 걸쳐 『近世日本國民史』를 신문에 연재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는 A급 전범 용의자로 지명되어 자택연금을 당하기도 했다.

역사가로서 도쿠토미의 업적은 ① 1880년대 이후 『國民之友』 시기의 업적, ② 메이지[明治] 지도자들의 전기, ③ 『近世日本國民史』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 밖에 역사수필이나 사론에 해당하는 저작을 상당수 남겼다. 도쿠토미의 생애 전반기에는 봉건제도를 타파한 메이지유신을 근대적 입장에서 높이 평가하는 저술이 눈에 띈다. 그러나 청일·러일전쟁을 거치면서 ‘평민주의’에서 ‘제국주의’로 선회해 대외팽창론을 주도했다. 현실정치에 거리를 둔 1910년대 후반 이후 도쿠토미는 황실중심주의, 국체론으로 기울었다. 그러한 입장에서 메이지 지도자들의 傳記를 편찬했고 『近世日本國民史』를 저술했다. 『近世日本國民史』(전 100권)는 1918년부터 그의 사후인 1962년까지 지속적으로 집필, 간행된 것으로 그 내용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에서부터 메이지 시기까지 이르는 방대한 저술이다. 여기에서 그는 메이지유신을 ‘혁명’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그의 사관은 황실중심주의 및 영웅주의이며 일본국가의 우월감과 제국주의적 관점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언론인이자 역사가로서 근대 일본의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친 도쿠토미의 동아시아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청일전쟁 이후 국가주의, 제국주의의 입장으로 선화한 도쿠토미가 조선과 중국 등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전개하였는지 추적하려고 한다.

도쿠토미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논저가 발표되었는데, 주로 그의 언론활동과 정치언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民友社와 『國民之友』, 『國民新聞』에서의 활동과 기사를 분석하여 그의 '평민주의', '제국주의론' 등 정치사상을 검토한 것이 대부분이다. 도쿠토미의 對外觀을 다룬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국가에 대한 인식이 주 검토대상이고,¹⁾ 그의 동아시아 인식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²⁾ 그러나 도쿠토미가 한국의 식민지화 등 일본의 대외침략 논리를 제공하는 데 미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의 동아시아 인식에 대한 해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도쿠토미의 동아시아상

- 1) 宮本盛太郎, 1983, 「德富蘇峰の「轉校」とイギリス」, 『知識人と西歐』第二版, 蒼林社; 澤田次郎, 1996a, 「ウィルソンの國際理想主義と德富蘇峰の反應」, 『法學政治學論究』 29, 慶應義塾大學; 澤田次郎, 1996b, 「太平洋戰爭と德富蘇峰のアメリカ觀」, 『法學政治學論究』 30, 慶應義塾大學; 澤田次郎, 1996c, 「日露戰爭後をめぐる德富蘇峰のアメリカ觀」, 『法學政治學論究』 31, 慶應義塾大學 등.
- 2) 도쿠토미의 동아시아 인식에 관해 일본 학계에서는 杉井六郎, 1970, 「德富蘇峰の中國觀-とくに日清戰爭を中心として」(明治期の日本と中國), 『人文學報』 通號 30,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나중에 『德富蘇峰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77에 게재); 藪田謙一郎, 2001, 「德富蘇峰の見た清末中國」, 『曙光』 12; 神谷昌史, 2002, 「文明・大勢・孤立-德富蘇峰における「支那」認識」, 『大東法政論集』 10 등의 기존연구가 있는데, 연구범위가 주로 청말 중국 인식과 제국주의론에 한정되어 있다. 국내에서 발표된 관련 연구로는 朴羊信, 1993, 「19·20세기 전환기 일본에서의 「제국주의」론의 諸相-서양사상과의 관련에서」, 『일본역사연구』 제9집; 朴羊信, 2001, 「청일전후 일본 지식인의 대외인식론-陸羯南과 德富蘇峰을 중심으로」, 『東洋學』 제31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야가사키 히데노리, 2001, 「21세기 일본의 선택-대일본주의인가? 소일본주의인가?」, 『국제정치논총』 41-3; 鄭大成, 2004, 「德富蘇峰テキストにおける「朝鮮」表象-日本型オリエンタリズムと植民地主義」, 『日本言語文化』 제5집; 米原謙, 2008, 「4개의 전쟁과 일본 내셔널리즘의 변용-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를 소재로」, 『한국문화』 41 등이 있으나 대부분 청일전쟁 이후 도쿠토미의 제국주의론을 소개하거나 대외팽창론을 강조해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鄭大成的 논문은 도쿠토미의 조선상을 텍스트의 언설 분석을 통해 통시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도쿠토미의 조선 인식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된다.

혹은 동아시아 인식을 청일전쟁부터 한국병합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 도쿠토미가 ‘제국주의’ 사상을 견인하면서 직접적인 견문 등을 통해 동아시아 인식을 심화시키고 구체화시켜 나갔다고 보기 때문이다.

II. ‘평민주의’에서 ‘제국주의’로

도쿠토미는 1863년 3월 15일 구마모토[熊本]현 미나마타[水俣]의 郷士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이이치로[猪一郎]였고 소호[蘇峰]는 그의 아호로 1887년 잡지 『國民之友』를 창간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구마모토는 원래 일찍이 서양문명이 유입된 곳으로 많은 학자와 문화인을 배출했다. 그는 부모 밑에서 「三國志」, 「太閤記」, 「漢楚軍談」, 「唐詩」 등을 배웠고 아홉 살 때부터는 한학자 가네사카 시스이[兼坂止水]의 사숙에 들어가 사서오경을 공부했다. 열 살이 되면서 구마모토 현립 洋學校에서 들어가 미국인 교사 젠스(Leroy Lancing Janes, 1837~1909) 밑에서 공부했고, 젠스로부터 교토 도시샤[同志社]의 니이지마 조[新島襄]를 소개받아 열세 살 때 도시샤에 입학했다. 그는 니이지마의 인격에 감화를 받았으나 기독교에 입교하지는 않았고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과 『구마모토신문(熊本新聞)』, 『유빈호치신문(郵便報知新聞)』 등의 기사를 탐독하면서 신문기자로서의 꿈을 키워갔다. 특히 세이난[西南]전쟁 때 종군기자로 크게 활약한 『도쿄마이니치신문』의 후쿠치 겐이치로[福地源一郎]에게 매료되었다고 한다.³⁾

도쿠토미는 도시샤 졸업을 1개월 정도 앞둔 1880년 5월 도쿄로 가기 위해 학업을 중단했다. 도쿄에 가서 후쿠치를 만나 신문기자로서의 꿈을 펼치려 했

3) 도쿠토미의 생애와 國民新聞의 창간과정에 관해서는 德富猪一郎, 1935, 『蘇峰自傳』, 中央公論社; 米原謙, 2003, 『德富蘇峰-日本ナショナリズムの軌跡』, 中公新書; 정일성, 2005, 『일본군국주의의 괴벨스-도쿠토미 소호』, 지식산업을 참조.

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도쿄에 도착하니 후쿠치는 무명서생인 그를 만나주지도 않아 낙담 끝에 후쿠오카로 낙향했다. 신문기자의 꿈을 일단 접은 도쿠토미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1882년 3월 자신의 집에 오에기주쿠[大江義塾]라는 사설 학교를 개교했다. 그의 나이 겨우 19살 때였다. 그는 기존의 학교 교육을 비판하고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청년이라고 강조하며 '독립의 기상'을 키우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았다.

오에기주쿠를 운영한 지 3년만인 1885년 그는 『19세기 일본의 청년과 교육』이라는 책을 집필했다. 앞으로 사회의 대세를 결정하는 청년의 동향을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자비출판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배포했는데, 뜻밖에도 『도쿄게이지잡지[東京經濟雜志]』 등에 소개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그를 높이 평가한 사람은 같은 구마모토 출신의 고위관료인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였다. 도쿠토미의 평판은 이노우에를 통해 널리 전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용기를 얻은 도쿠토미는 1886년 5월 그의 운명을 건 저작 『將來之日本』을 집필했다. 그는 스펜서의 진화설, 밀의 공리설, 맨체스터학파의 자유방임주의, 요코이 쇼난[横井小楠]의 평화사상 등 당시 그가 알고 있던 지식을 총동원해 이 책을 저술했다. 이 책에서 도쿠토미는 '武備主義'와 '생산주의'를 대조하며 논리를 전개했다. 군사형 사회가 되면 정권은 소수에게 돌아가고,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며 군대가 모델이 되는 강박적인 사회가 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산업형 사회에서는 인심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사회는 계약에 바탕을 둔 평화를 기초로 결합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즉 일본은 무비, 귀족, 완력주의를 벗어나 역사의 대세에 따라 생산, 평민, 평화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론지었다.⁴⁾

이러한 내용의 『將來之日本』은 출판되자마자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 이에 고무된 도쿠토미는 1886년 12월 오에기주쿠의 문을 닫고 가족과 함께 도쿄로 이주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1887년 2월 민우사[民友社]를 설립하고 잡지 『國民之友』를 창간했다. 이 또한 인기가 높아 창간 당시 월 1회 발

4) 『將來之日本』(植手通有 編, 1974, 『德富蘇峰集』, 明治文學全集 34, 筑摩書房).

행하던 것을 10월부터는 월 2회로 늘리고 1889년 1월부터는 월 3회 발간했다. 이 『國民之友』의 성공을 바탕으로 도쿠토미는 일간지의 창간에 나섰다. 일간지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는 민유사의 수익금과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약 5천 엔의 자본금으로 히요시마치[日吉町]의 건물을 사들여 사옥으로 삼고 다른 신문이 이용하던 인쇄소를 이용했다. 이렇게 해서 1890년 2월 『國民新聞』이 창간되었다. 창간 당시 지면은 4~6면이었고 발행부수는 5,000에서 1만 부였다. 당시로서는 큰 신문에 속했다. 도쿠토미는 어릴 적부터의 꿈인 신문기자의 꿈을 신문사 경영이라는 형태로 실현시켰고 언론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힘겨운 과정을 거쳐 탄생한 『國民新聞』은 ‘독립신문’, ‘중류, 평민주의’를 표방했다. 이는 신문사의 주의주장을 명확히 갖고 중류사회와 평민층을 대변하는 신문을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도쿠토미는 자신이 개혁의 최선봉이라고 자부하고 네 가지의 개혁을 내세웠다. 첫째는 정치개혁, 둘째는 사회개혁, 셋째는 문예개혁, 넷째는 종교개혁이었다. 그중에서도 정치개혁을 가장 중시해 메이지유신을 주도한 사쓰마[薩摩], 조슈[長州] 출신자가 주도하는 ‘변법정치’ 타파를 강경하게 주장했다.

이 시기 도쿠토미가 품고 있던 생각은 영국을 모델로 한 근대화였다. 즉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 정치적으로는 의원내각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산업형 사회의 도래라는 역사관이 있었다. 이 역사관에서 나오는 것은 산업화에 의한 상공계급의 발달과 그 사회적 주도권의 확립이다. 이러한 구상은 ‘中等社會’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의회정치에서는 구 자유당과 개진당에 의한 ‘진보당 연합’이라는 주장으로 전개된다. 도쿠토미는 학자가 주장하는 입헌정치가와 운동가가 주장하는 동양식 창업가라는 정치가상을 모두 부정하고 학자와 실무가를 겸비한 개혁정치가라는 정치가상을 제시했다.⁵⁾

그런데 실제 정치과정은 도쿠토미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가 기

5) 『將來之日本』(植手通有 編, 1974, 『徳富蘇峰集』, 明治文學全集 34, 筑摩書房, 51~54쪽.

도한 진보당 연합이 결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당세력과 평민이 결합하는 ‘중등사회’ 구상도 야당이 농민과 상인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그 균열이 심화되었다. 결국 도쿠토미는 ‘장래의 일본’에 대한 전망을 상실하고 그가 주장하던 평민주의도 퇴색되어 버리고 말았다.

평민주의를 둘러싸고 자신의 신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고심하고 있던 도쿠토미에게 전환점이 된 것은 1894년에 발발한 청일전쟁이었다. 청일전쟁을 향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쿠토미는 『國民新聞』의 창간 당시 표방했던 ‘평민주의’의 이념을 접고 정부에 대한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 신문보도의 내용에서 국익을 앞세우는 ‘제국주의’⁶⁾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1894년 5월 ‘대외강경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自主的外交』라는 소책자를 펴냈으며 『國民新聞』의 사설에 「조선에 군대를 보내야 한다」⁷⁾는 출병론을 주장했다. 6월 초에는 『國民之友』에 “국가를 팽창시키는 결정적 요소는 인구증가이다. 일본인은 어떠한 기후에도 적응할 수 있는 팽창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일본 국민 최대의 라이벌은 더위에 약한 서구 제국의 국민이 아니라 중국인이다”⁸⁾라는 「일본국민 팽창성」을 발표하고 제국주의 논리를 노골적으로 전개했다.

도쿠토미가 평민주의를 포기하고 ‘제국주의’로 나아간 것은 時流에 앞서 나가려는 그의 성향이 크게 작용했지만, 반면 평민주의에 대한 사상적 신념이 확고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애초에 주 독자층으로 겨냥한 중류계층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정당이나 정부 쪽에 흡수되었던 점도 이유로 작용했다. 그는 창간 당시 편집 목표를 ‘중류 평민계층’을 중심으로 “천하국가의 일을 생각하되 一身一家를 잊지 않고, 일신일가를 생각해 천하국가를 잊지 않는다”는 ‘일신일가’와 ‘천하국가’를 결합한 국민정신의 구현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국가 장래가 걸렸다고 본 청일전쟁을 옹호하는 쪽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6) 도쿠토미는 제국주의를 ‘세계의 대세’로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 변화를 “평민주의에서 제국주의로 진화했다”고 표현했다. 德富猪一郎, 1915, 『蘇峰文選』, 民友社, 514쪽.

7) 『國民新聞』, 1894, 5, 31.

8) 『國民之友』 제228호, 1894. 6, 3.

Ⅲ. ‘평화적 팽창주의’와 동아시아

그렇다면 청일전쟁 시기 도쿠토미는 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그의 아시아 인식은 중국이나 조선 등 아시아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고찰이 아니라 서양 국가들과의 대비를 통해 형성되었다. 도쿠토미는 『自由道德及儒教主義』(1884)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미국과 영국 두 나라는 가장 자유로운 나라이다. 支那와 인도 두 나라는 옛날에는 가장 인의도덕이 높았고 특히 근래에 가장 전체적인 나라이므로 인도, 支那야말로 무엇보다도 도덕의 세계이고 미국과 영국이야말로 가장 험악하고 부도덕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다. 도덕을 자랑스러워하는 支那와 인도는 자유가 결핍되어 있고 또 도덕도 결핍되어 있다. 영국과 미국은 자유의 진보와 함께 도덕도 진보한 것은 결코 다룰 수 없는 사실이다.…… 청교도가 도덕의 인민이고 인도, 支那 등이 부도덕한 나라라는 것은 어찌 의심할 것이나, 오직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도덕이 있는 것이다. 자유 없으면 도덕이 없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유교주의의 경험에 비추어 그러하다는 것을 믿는다.…… 2천년 동안 支那 인민의 지덕을 부패시킨 유교주의를 통해 우리 메이지의 改進黨 인민의 지덕을 부패시키려 하는가.⁹⁾

이것은 유교주의, 특히 중국의 개혁을 막아온 학문사상을 비난한 것이다. 즉, 유교주의가 아시아의 진보를 가로막고 부패시켰다고 보았다. 나아가 도쿠토미는 “이미 동양에는 하나의 주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주인이란 즉 영국이다”¹⁰⁾라고 까지 주장한다. 철저히 힘의 논리, 문명의 논리로 아시아를 인식하고 있다. 파워폴리틱스를 바탕으로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대외정책을 논했던 것이다. 그는 조선 문제에 관해서도 전통적 조공책봉관계, 즉 淸朝와의 脣

9) 『徳富蘇峰集』, 明治文學全集 34, 筑摩書房, 46~49쪽.

10) 『將來之日本』(植手通有 編, 1974, 『徳富蘇峰集』, 明治文學全集 34, 筑摩書房).

齒輔車의 관계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러시아를 강하게 의식해 조선을 중국에서 떼어내는 ‘독립국’화, 나아가서는 보호국화를 생각했다.¹¹⁾ 따라서 그가 말하는 ‘조선의 독립’이란 “조선을 위한 독립이 아니라 일본의 독립을 위한 독립”¹²⁾이었던 것이다.

도쿠토미는 서양세력,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위기감을 전제로 군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평가했다. 1888년 11회에 걸쳐 『國民之友』에 연재한 논설 「일본의 국방을 논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支那는 풍부한 나라이다.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그러나 그 인민은 애국심이 적고 독립심이 적고 특히 군사에 있어서는 매우 쓸모가 없는 인민이지만 대저 참을성이 강한 인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나를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또한 지나를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대체로 일본에서는 한때 지나를 경멸하는 풍이 크게 일어난 것의 반동으로 최근에는 빈번히 지나를 존경하는 생각이 부족해졌다. 일본 인민은 처음으로 지나를 내려보고 그 진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나를 가리켜 매우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로 청국 급일의 상황을 잘 모르는 논의이다. 만약 일본에게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북방의 인국 러시아이다.¹³⁾

우리나라는 군사상 항상 지나를 상대로 비교하는데 …… 우리 국권의 신축상 우리 國利의 손해득실상 항상 우리 머리를 누르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청국이 아니라 서양열강이 아닌가. 대저 일국을 세운 이상 홀로 청국만이 아니라 서양 각국도 아울러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가령 일단 일이 벌어져 중국이나 조선에 이긴다 해도 이로 인해 일본이 강국으로 천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¹⁴⁾

이렇듯 도쿠토미가 중국이나 조선 등 주변 동아시아 국가를 인식하는 바탕에는 서양열강과의 대결의식이 깔려 있었다. 물론 이 단계에서 중국에 대한 팽창론

11) 『國民之友』 제8호, 1887. 9. 15.

12) 『國民之友』 제232호, 1894. 7. 13.

13) 『國民之友』 제26호, 1888. 7. 20.

14) 『國民之友』 제36호, 1888. 12. 21.

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지는 않았지만 유교주의를 기축으로 진보를 가로막는 중국 보수주의의 고루함을 지적하면서 그의 동아시아상은 점차 부정적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당시 일본 지식인 사이에 확산되어 갔다.

도쿠토미는 청일전쟁 직전 「好機」라는 글을 통해 “호기란 얻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쉽다.…… 호기란 말할 필요도 없이 청나라와의 개전이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팽창적 일본이 팽창활동을 달성할 수 있음을 뜻한다”¹⁵⁾며 청나라와의 一戰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자 “청일전쟁은 정부와 군대만의 전쟁이 아니라 ‘국민적 전쟁’이다. 국민은 대외정책의 원동력이다. 국민 개개인은 잠재적 병사이고 국가의 명예와 위신을 높이는 일은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이다”라고 외치며 국민의 전쟁 참여를 선동했다.¹⁶⁾

청일전쟁을 앞두고 도쿠토미의 언설은 점차 강경해졌다. 이것은 당시 주도적 지식인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당시 일본 지식인들은 청일전쟁이 열강으로부터 일본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았다. 도쿠토미도 구미열강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유럽 나라들도 전쟁을 통해 그 지위를 인정받고 국가 이익과 영광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시작되자 일본 언론은 앞다투어 중군기자를 전투지역에 파견하며 열광적인 지지를 보였다. 청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 언론인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전쟁에 ‘大義’가 있다고 보았다. 도쿠토미나 民友社도 다르지 않았다. 『國民新聞』도 20여 명의 중군기자를 파견해 승전소식을 전했다. 도쿠토미는 청일전쟁을 ‘문명과 야만의 전쟁’으로 보았다. 이것은 ‘탈아론’을 주창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열강의 식민지배 논리와 동일한 논법으로 청일전쟁 도발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일본에 대한 구미열강의 차별적인 시각을 없애겠다는 발상이었다. 도쿠토미는 「세계의 公敵」¹⁷⁾이라는 사설에서 “청나라는 문명의 적,

15) 『大日本膨脹論』(『徳富蘇峰集』, 明治文學全集34, 筑摩書房, 249~251쪽).

16) 「市民と兵士」, 『國民新聞』, 1894. 7. 28.

17) 『國民新聞』, 1894. 9. 9.

人道の 적이므로 이를 토벌하는 것은 義戰이다”라고 주장하며 전쟁을 찬양했다.¹⁸⁾ 이러한 ‘탈아론’적 논리에서는 아시아는 일본 팽창의 대상으로만 비추어졌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구미열강에 대항하는 측면은 무시되었다.

또한 도쿠토미는 6월 초 「일본국민의 팽창성」¹⁹⁾이라는 논설을 발표해 일본인에게 인종적으로 팽창의 자질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인은 어떠한 기후에도 적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으며 팽창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이 국민팽창에 있어 최대의 라이벌은 더위에 약한 구미 각국의 국민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논했다. 이러한 주장에 특별한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전쟁을 긍정하기 위해 사용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다케코시 산사[竹越三叉]도 『支那論』에서 ‘커다란 일본’의 실현은 ‘국민의 팽창성’에 기인하는데, 그 가장 어려운 적은 ‘지나인종’이라며 팽창론을 전개한다. 그는 멜서스의 인구증가론을 차용해 62년 뒤에 일본 인구가 두 배에 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어딘가에 이민할 곳을 발견하지 않으면 일본은 멸망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²⁰⁾

청일전쟁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그 뒤 삼국간섭으로 인한 요동반도의 반환은 도쿠토미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전쟁 승리로 인해 도쿠토미는 일본도 구미국가와 같은 ‘제1등국’이 되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을 것이다. 삼국간섭은 그러한 도쿠토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 “遼東 還付는 몸도 마음도 모두 타 재로 변한 일대 치욕이었다. 10년, 20년, 아니 100년 뒤가 되더라도 기어코 설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했다. 언론계를 비롯한 지식층에서 ‘臥薪嘗膽’이 국민적인 슬로건이 되었고 ‘군비확충론’이 비등했다. 청일전쟁 이전부터 주전론을 펼쳐온 도쿠토미는 『國民新聞』을 통해 연일 군비확충만이 굴욕을 씻

18) 이러한 전쟁긍정론은 도쿠토미와 같은 국가주의자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도 “지나는 社交律의 파괴자이고 人情의 害敵이며, 야만주의의 보호자이다”라고 했으며, 전쟁 전에는 일본의 문명개화를 무원칙적인 구화주의로 비판했던 구가 가쓰난[陸羯南]도 전쟁발발 후에는 청국을 ‘동양의 일야만국’이라고 비난했다(『國民之友』 제234호, 1894. 10).

19) 『國民之友』 제228호, 1894. 6. 3.

20) 米原謙, 2003, 앞의 책, 116쪽.

을 수 있다며 군비증강과 정치지도자의 분발을 촉구했다.

청일전쟁 이후 구미에서는 黃禍論의 바람이 급속히 불기 시작했다. 황화론은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일본의 국력과 발언권이 높아져 그동안 아시아를 무대로 펼쳐진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이 크게 위협받은 데서 비롯되었다. 1895년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과거 유럽을 휩쓸었던 오스만터키나 몽골과 같은 황색인종이 또다시 발호하면 유럽문명 또는 기독교문화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럽열강은 일치단결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황화론은 러일전쟁 때 최고조에 달했다. 러일전쟁의 전세가 일본으로 기울자 구미 언론은 러일전쟁을 인종대결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도쿠토미는 황화론을 부정하며 “이는 일본을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 동일하게 본데서 비롯된 오해라며 러일전쟁은 인종이나 종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일본인은 서양인과 같은 길을 걸어왔으며 일본을 무조건 아시아적이라고 뭉뚱그려 동일시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²¹⁾고 주장했다.

도쿠토미는 무엇보다 일본이 ‘아시아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제국과 국민에 대한 모든 시기, 질투, 공포와 혐오는 ‘아시아적’이라는 문자에 포함되어 있다. 이 어찌 위협천만한 단정이 아니냐”²²⁾고 경고했다. 일본을 아시아로 보는 것은 구미의 차별과 편견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는 東亞를 아군으로 황인종을 이끌고 백인종에 대항하는 자가 아니다. 歐洲人보다 앞서 아시아 정벌을 도모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일본은 그럴 야심이 없다. 이 전쟁은 오로지 자위를 위한 것이며 문명 열강과 보조를 같이해 문명세계가 공유하는 慶福을 얻으려 한 것”²³⁾이라고 말한 데서 그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도쿠토미는 아시아란 호칭으로 조선이나 중국과 동일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²⁴⁾ 후쿠자와가 『탈아론』에서 주장했듯이 일본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위치

21) 「我が國民の抱負」, 『國民新聞』, 1904. 4. 17.

22) 「黃禍論の反響」, 『國民新聞』, 1904. 6. 26.

23) 위와 같음.

24) 米原謙, 2000, 「膨脹する‘大日本’-日清戦争後の徳富蘇峰」, 『阪大法學』 50-4,

해 있지만 더 이상 아시아가 아니라 서양과 다름없는 문명국가라는 것이다. 구미열강에 대해 일본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르다는 또 다른 차별의식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황화론에 대해 고노에 아쓰마로[近衛篤麿] 등을 중심으로 興亞論이 대두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쿠토미는 이러한 아시아주의적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고 아시아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일본을 어려운 처지에 내모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국주의'를 주장했다. 자신이 말하는 '제국주의'는 침략주의나 무단주의가 아니라 '평화적 팽창주의'라고 강조한다. '평화적 제국주의'는 “무역을 통해, 생산을 통해, 교통을 통해, 식민을 통해 일국의 이익을 확충하고 민족의 발달을 기하는” 것이고 군비는 이 평화적 팽창을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²⁵⁾ 그러나 제국주의 시대에 주장된 도쿠토미의 '평화적 팽창주의'는 결국 침략을 위한 논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뒤의 일본의 대륙 침략과정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IV. 문명론적 동아시아 인식의 전개

이렇듯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며 형성된 '제국주의'론과 '평화적 팽창주의'론에서 도쿠토미는 오로지 일본의 팽창 대상으로서 동아시아를 인식하였는데, 그러한 인식은 이후 어떻게 변모 또는 구체화되었을까?

56~62쪽.

25) 「帝國主義의眞意」, 『國民新聞』 사설, 1899. 3. 24. '평화적 팽창주의'는 이후 '아시아 먼로주의'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에 대한 분석은 神谷昌史, 2002, 앞의 글; 中村尙美, 1991, 「德富蘇峰의「アジア主義」」, 『社會科學討究』 37-2; 米原謙, 2000, 위의 글; 李京錫, 2003, 「德富蘇峰의亞細亞モンロー主義」, 『早稻田政治公法研究』 73 등 참조.

청일전쟁 이후 도쿠토미의 동아시아 인식은 조선보다는 주로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일본의 경쟁국으로서 나중에는 팽창의 대상으로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조선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에 의해 국권을 침탈당하고 식민통치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도쿠토미는 1906년 5월부터 장기간 중국 여행에 나섰다. 중국을 직접 견문하면서 자신의 중국 인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제국주의자' 도쿠토미는 이 여행을 통해 '興國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국민국가를 아직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냈다.

도쿠토미의 눈에 비친 중국상을 보면, 먼저 清朝 중국에는 국가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일본인이 갖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인은 '文弱'하며 이기적이고 공공심이 부족해 국가의식과 국민의식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支那에는 家は 있지만 國은 없다. 지나인에게는 孝는 있지만 忠은 없다는 것은 支那通의 驚句이다. 오늘날 지나인에게 국가적 관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래에도 국가적 관념 비슷한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바뀌 말하면 지나인에게 근대적 의미에서 국가적 조직이 있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²⁶⁾는 것이다.

그는 특히 중국의 文弱을 강조한다. “지나의 문약은 예나 지금이나 방어에 급급하고 進攻을 등한히 하는 것을 보아도 충분히 증명된다. 만리장성을 보면 잘 알 수 있다”²⁷⁾고 한다. 당시 중국은 '新政'이 행해지던 시기였다. 도쿠토미는 중국이 확실히 변화의 도상에 있으며 '각성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으나, 중국인은 국가 관념이 전통적으로 부족한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국가로서 중국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중국인의 특징으로서 '斷念哲學'을 언급한다. 중국인은 “상하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단념철학을 갖고 있다. 그들은 쉽게 단념하지 않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되면 마음을 완전히 바꿔 단념한다. 사형을 당할 때 일단

26) 德富猪一郎, 1906, 『七十八日遊記』, 民友社, 232쪽.

27) 德富猪一郎, 1906, 위의 책, 241쪽.

형장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깨끗이 단념하고 미련을 남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쿠토미는 이것이 이해타산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단념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문약하여 언제나 수동적 방어를 하는 것은 어떠한 동기에서 나오는가. 지나인에게는 正邪의 표준이 없고 이해타산이 있다. 무슨 일도 손해를 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무사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 같은 세상물정을 모르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유리한 상황에서도 당초부터 머리를 숙이고 힘이 센 자에게는 처음부터 싸우지 않는다. 불가항력 앞에서는 일체 복종하는 것이 신조”라고 파악했다. 원래 중국인은 스스로 일을 꾸미지 않고 무슨 일에도 수동적이지만 이해관계가 걸리면 “그들은 언젠가 피가 끓는다고 보았다. 중국인에게 ‘利’는 실로 ‘종교’이며 그 ‘利’의 범위는 매우 좁다. 결국 중국인에게서 ‘공리’, ‘공공심’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도쿠토미의 주장이다.²⁸⁾

그러나 도쿠토미가 중국의 잠재적 가능성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중국에서 ‘가장 먼저 감명을 받은 것은 중국 인구가 가진 힘’이라고 한다. “支那를 여행하고 실로 숫자의 위대한 세력에 놀랐다. 그리고 아무리 열강이 지나를 못살게 굴거나 괴롭히더라도 여전히 유력한 것은 필시 숫자 때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²⁹⁾고 말한다. 그리고 공공심이 부족하고 이기적이며 국가관념이 결여된 중국인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참고 ‘번식’하는 ‘독립자주의 인민’이므로 ‘중국은 국가로서는 미약하더라도 인종으로서의 유력하다’는 주장을 끌어낸다.³⁰⁾ 따라서 당시 청조가 실시하는 新政이 성공해 중국이 입헌정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보급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을 통해 국가적 관념을 함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도쿠토미는 조선을 경유해 중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소략하나마 조선에 대한 인상도 남기고 있다. 그는 부산에서 시작해 서울, 인천, 평양을 여행했는

28) 德富猪一郎, 1906, 앞의 책, 242~246쪽.

29) 德富猪一郎, 1906, 앞의 책, 66쪽.

30) 藪田謙一郎, 2001, 앞의 글, 66쪽.

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조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철도변 각지의 번성함을 보면 일본 측의 입장에서 조선은 ‘興國임에 틀림없다’, “일한 협약이 8도의 인민에게 똑같이 평등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人道를 위해 무엇보다 행운이다. 조선도 箕子 이래 처음으로 정치다운 정치를 맞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감부의 조선 ‘보호통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³¹⁾

도쿠토미는 1910년 9월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요청으로 신문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 조선으로 건너왔다. 그는 데라우치와 총독부 기관지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고 『京城日報』의 경영과 인사권을 모두 갖는 ‘감독’으로 위촉됐다. 도쿠토미가 사장이 아니라 감독으로 위촉된 것은 『國民新聞』 사장인 그가 도쿄를 장기간 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자신이 데리고 있던 『國民新聞』의 이사 겸 정치부장 요시노 다자에몬[吉野太左衛門]을 사장으로 앉혔다. 따라서 실제로는 『京城日報』의 최고경영자 역할을 했으며 데라우치 총독에게 식민통치의 행정 전반에 조언하는 정책고문 역할을 했다.

한국병합 이후 도쿠토미의 조선에 대한 인식은 『京城日報』에 연재한 「조선 통치의 要義」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병합을 일본 내셔널리즘의 한 도달점으로 인식한 도쿠토미의 식민통치 구상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선병합은 우리들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물러날 수 없는 대세이다. 40여 년의 새로운 경험과 2천 수백 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었다. 우리들은 우선 자위 때문에 또 조선 때문에, 한편으로는 극동과 세계 평화를 위해 메이지유신 이래 여러 가지 방법을 시험해 왔고 이와 함께 수많은 대가도 치렀다. 공동보호와 고문제도를 거쳐 마침내 통감정치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 조선병합은 일본민족의 처지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유일한 길이다. …… 통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조선인에게 일본의 통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식민통치로 자기에게 이익이 따른다고 생

31) 德富猪一郎, 1906, 앞의 책, 6~19쪽.

각하게 하고, 셋째는 통치에 만족하여 기꺼이 복종케 하고 즐겁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힘뿐이다.³²⁾

즉,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병합을 정당화하고, 통치의 방법을 제시한 다음 한국병합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며, 만약 조선인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무력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선인에 대한 멸시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조선의 정치사는 음모의 역사이고, 봉당의 싸움이 조선처럼 극심한 나라는 드물다. 세계에서 악정을 꼽으라면 조선밖에 없다. 조선인은 매우 게으르다”³³⁾며 조선인에게 자치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사회를 ‘야만’으로 보는 뿌리 깊은 멸시감과 차별감을 바탕으로, 문명국가 일본에 의한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침략의 논리가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³⁴⁾

도쿠토미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두 번째 중국 여행에 나섰다. 그의 동아시아 인식의 변화를 여행 뒤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번 여행은 1917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역시 조선을 거쳐 만주로 접어든 뒤 북중국과 남중국을 순방했다. 먼저 그는 문명론의 입장에서 중국인을 평가한다.

오늘날의 지나인은 문명의 대표자 자격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여전히 문명의 제조자의 후예로서 존중해야 한다. …… 만일 지나인의 결점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蒙昧野蠻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문명이라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원래 日新의 과학에 있어서는 支那문명이 구미문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른바 人文의 개발에 있어서는 先秦문명은 모든 문명과 비교해 유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현재의 지나인도 사람에 대해 세상을 대하는 智巧에 있어서는 세계의 촌사람인 일본인이 미치지 못한다. …… 요컨대 지나인은 오히려 문명에 식상한 인종이다. 지나는 문명중독국이다. 단지 日支親善이라는 공

32) 『京城日報』, 1910. 10(德富猪一郎, 1915, 『兩京去留誌』, 民友社에 수록).

33) 위와 같음.

34) 이에 관해서는 鄭大成, 2004, 앞의 글, 300~305쪽 참조.

언만으로 그 환심을 사려는 것은 매우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³⁵⁾

도쿠토미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중국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만일 진정으로 日支친선을 실행하려 한다면 적어도 세 가지 요소를 구비해야 한다. 첫째는 힘이고, 둘째는 이익이다. 셋째는 사상 및 감정”이라고 본다. 먼저 힘이란, “일본의 힘으로 지나를 철저히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은 자국의 힘을 걸고 지나를 극동의 국제정국에서 지지하는 임무에 임하고 또 당할 수 있는 결심과 실력을 지나인에게 향해 관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日支친선의 전제로서 우리 군비의 충실은 한시라도 방심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익이란, “일본이 지나보다 이익을 취할 뿐만 아니라 지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日支 양국민 사이에 이익을 공동하는 것이다. 공동이란 상호간 이익의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³⁶⁾ 셋째로 사상 및 감정이란, “日支 양 국민 사이에 공명하는 점을 찾는 것이다. …… 진정으로 양국민의 사상, 감정상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는 유대를 만드는 것이다. …… 힘은 지나인이 가장 부족한 것이다.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힘이다. 힘의 福音은 지나 감화의 첫 번째이다. …… 지나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안심하기에 족하면 된다”³⁷⁾고 보았다.

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침략의 긍정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열강의 일원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비상시에는 일본 단독의 힘으로 支那의 安危存亡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각오가 없을 경우에는 ‘힘의 복음’도 또한 일종의 공포일 뿐이다”³⁸⁾라며 중국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강조한다.

도쿠토미의 중국인에 대한 낮은 평가는 청조가 멸망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나인은 사대주의자이며 유력한 위세에 대해서는 무저항자이다. 아니 오히려 이 위세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빈틈없는 實利者이다. 그

35) 徳富猪一郎, 1918, 『支那漫遊記』, 民友社, 391~392쪽.

36) 徳富猪一郎, 1918, 위의 책, 393쪽.

37) 徳富猪一郎, 1918, 앞의 책, 394쪽.

38) 徳富猪一郎, 1918, 앞의 책, 395쪽.

런데 우리 힘을 가지고 지나인을 충분히 신뢰시키고 안심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한다. 그 해답으로 중국에 대한 ‘프로파간다(선전)’의 부족을 들고, “일본인은 왜 지나인에게 사상 및 감정의 교육을 하지 않는가, 왜 日支 양국의 관계를 분명히 고백하고 지나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立脚할 곳을 각오하게 하지 않는가” 라고 일본정부에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한다.³⁹⁾

결국 도쿠토미는 중국은 아직 제대로 깨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지나 쪽에서 관찰한다면 그들은 불행하게도 아직 지나 자신의 입장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고, 따라서 지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經綸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요컨대 그들은 아직 전혀 각성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또 완전히 각성된 것도 아니다. 半醒半睡 상태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는 주장이다.⁴⁰⁾

한편으로 전략적으로 중일관계를 밀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支那로 하여금 만일 다른 나라와 결탁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일본과 결탁해야 할 것이다. 아니 그 필요 유무를 떠나서 대일본 관계는 지나의 입장에서 보아 매우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⁴¹⁾

그리고 자급자족의 면에서 일본은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자급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구문제와 식량문제는 조선병합으로 인해 약간의 융통이 생겼다. 그렇지만 경제적 자급자족은 단지 지나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日支관계는 國運消長の 관계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국가사활의 관계”라고 파악했다.⁴²⁾

즉, 도쿠토미는 과거의 문명국 중국이 현재는 자립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낮게 평가하고 일본의 국가적 이익관계의 측면에서 중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일본의 중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39) 德富猪一郎, 1918, 앞의 책, 412쪽.

40) 德富猪一郎, 1918, 앞의 책, 413~414쪽.

41) 德富猪一郎, 1918, 앞의 책, 415쪽.

42) 德富猪一郎, 1918, 앞의 책, 417~418쪽.

V. 맺음말

도쿠토미는 청년 시절부터 항상 시세를 염두에 두고 시세의 대세에 앞서 나가려는 자세를 취했다. 藩閥政治에 대하여 ‘평민주의’의 기치를 내걸었으나 실현의 전망이 보이지 않자 이를 포기하고 청일전쟁을 계기로 ‘제국주의’로 나아갔다. 국익을 우선시하고 정부보다도 강경하게 대외팽창론을 전개했으며, 심지어 일본국민은 팽창성을 지니고 있다는 논리로 전쟁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청일전쟁 이후 도쿠토미의 ‘脫亞論’에 근거를 두고 동아시아 인식을 전개했다. 서양문명을 절대적인 가치로 떠받들고 아시아에서 일본만이 구미와 같은 ‘문명’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중국과 조선 등은 기본적으로 야만적이어서 스스로 문명화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구미열강과 일본의 팽창의 대상으로만 인식했다. 즉,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구미열강의 침략에 대항하는 동일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측면은 무시되고 일본은 서양과 같은 문명을 구비하고 있어 ‘아시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도쿠토미의 동아시아 인식은 직접적인 견문을 통해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는 러일전쟁 직후인 1906년과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17년 두 차례에 걸쳐 장기간 중국을 여행했다. 그 사이 ‘지나분할론’에서 ‘지나친선’론으로 대외정책론은 변모를 보였으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중국인에게는 근대적인 국가의식이 없다든가 중국은 ‘문약’하고 개인의 ‘이해관계’만 앞세워 스스로 개혁의 가능성이 없다고 파악했다. 다만 중국은 국토의 면적으로 보나 인구면에서 보나 대국이므로 그 잠재력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조선에 관해서도 조선은 매우 부패하고 조선인은 게으르므로 스스로 ‘문명화’할 수 없으며 시대의 대세로 보아 일본에 의한 병합은 어쩔 수 없다고 보아 식민통치를 정당화했다. 그 밑바탕에는 조선사회를 ‘야만’사회로 보는 멸시감과 차별의식이 뿌리 깊게 깔려 있었다. 따라서 일본에 의한 ‘문명화’를 강조하며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해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문명화’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인식은 당시 일본정부나 대부분의 일본 지식인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도쿠토미는 ‘제국주의’ 국가 일본의 전략을 미리 제시하고 그것을 선도하려고 하였으며 정치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대외정책론을 변화시켜 나갔다. 그는 꾸준히 일본의 대외팽창을 합리화하고 이론화하며 일본제국주의와 운명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사료〉

- 德富猪一郎, 1906, 『七十八日遊記』, 民友社.
 德富猪一郎, 1915, 『兩京去留誌』, 民友社.
 德富猪一郎, 1918, 『支那漫遊記』, 民友社.
 德富猪一郎, 1935, 『蘇峰自傳』, 中央公論社.
 植手通有 編, 1974, 『德富蘇峰集』(明治文學全集 34), 筑摩書房.
 神島二郎 編, 1978, 『德富蘇峰集』(近代日本思想大系 8), 筑摩書房.
 伊藤隆·酒田正敏 編, 1982~87, 『德富蘇峰關係文書』(近代日本史料選書 7-1~3), 山川出版社.
 『國民之友』, 『國民新聞』

〈단행본〉

- 米原謙, 2003, 『德富蘇峰—日本ナショナリズムの軌跡』, 中公新書.
 杉井六郎, 1977, 『德富蘇峰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有山輝雄, 1992, 『德富蘇峰と國民新聞』, 吉川弘文館.
 花立三郎, 1982, 『德富蘇峰と大江義塾』, ぺりかん社.
 和田守, 1990, 『近代日本と德富蘇峰』, 御茶の水書房.

〈논문〉

- 宮本盛太郎, 1983, 「德富蘇峰の‘転校’とイギリス」, 宮本盛太郎, 『知識人と西歐』 第2版, 蒼林社.
 渡部昇一, 1997, 「歴史家としての德富蘇峰」, 渡部昇一, 『國語のイデオロギー』, 中央公論社.
 梅津順一, 1990, 「文明開化と日本—福澤諭吉と德富蘇峰」, 『青山學院女子短期大學紀要』 44.
 梅津順一, 2006, 「德富蘇峰と「力の福音」: 『將來之日本』から『時務一家言』へ」, 『聖學院大學論叢』 19-1.
 米原謙, 2000, 「膨脹する‘大日本’—日清戦争後の德富蘇峰」, 『阪大法學』 50-4.
 梶田明宏, 1986, 「帝國議會開設以前における德富蘇峰の政治構想」, 『日本歴史』 第453.

- 梶田明宏, 1993, 「德富蘇峰における言論と政治-思想と行動の原型をめぐって」, 福地 惇・佐佐木隆 編, 『明治日本の政治家群像』, 吉川弘文館.
- 朴羊信, 1999, 「19·20세기 전환기 일본에서의 '제국주의'론의 諸相-서양사상과의 관련에서」, 『일본역사연구』 제9집.
- 朴羊信, 2001, 「청일전후 일본 지식인의 대외인식론-陸羯南과 德富蘇峰을 중심으로」, 『東洋學』 제31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杉井六郎, 1970, 「德富蘇峰の中國觀-とくに日清戦争を中心として」(明治期の日本と中國), 『人文學報』 30.
- 松本三之介, 1963, 「德富蘇峰『時代の流れと言論人』」, 朝日ジャーナル 編, 『日本の思想家』 2, 朝日新聞社.
- 松本三之介, 1981, 「平民主義の思想像-德富蘇峰」, 『明治精神の構造』, 日本放送出版協會, 新NHK市民大學講座 8.
- 藪田謙一郎, 2001, 「德富蘇峰の見た清末中國」, 『曙光』 12.
- 神谷昌史, 2001, 「'東西文明調和論'の三つの型-大隈重信・德富蘇峰・浮田和民(政治學篇)」, 『大東法政論集』 9, 大東文化大學.
- 神谷昌史, 2002, 「文明・大勢・孤立-德富蘇峰における'支那'認識」, 『大東法政論集』 10.
- 야가사키 히데노리, 2001, 「21세기 일본의 선택-대일본주의인가? 소일본주의인가?」, 『국제정치논총』 41-3.
- 요네하라 겐[米原謙], 2008, 「4개의 전쟁과 일본 내셔널리즘의 변용-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를 소재로」, 『한국문화』 41.
- 李京錫, 2003, 「德富蘇峰の亞細亞モンロー主義」, 『早稻田政治公法研究』 73.
- 柴崎力榮, 1983, 「德富蘇峰と京城日報」, 『日本歴史』 425.
- 柴崎力榮, 1991, 「日清戦争を契機とする德富蘇峰の轉換について-海軍力と國際情報への着目」, 『大阪工業大學紀要』人文社會篇 36-1.
- 齋藤洋子, 2005, 「德富蘇峰の"The Far East"について」, 『社學研論集』 5, 早稻田大學.
- 齋藤洋子, 2005, 「日清戦争後の德富蘇峰-「變節」問題と歐米漫遊」, 『ソシオサイエンス』 11, 早稻田大學大學院社會科學研究科.
- 鄭大成, 2004, 「德富蘇峰テキストにおける「朝鮮」表象-日本型オリエンタリズムと植民地主義」, 『日本言語文化』 제5집.
- 中村尚美, 1992, 「德富蘇峰の'アジア主義」, 『社會科學討究』 108 (37-2).

- 澤田次郎, 1996, 「ウィルソンの國際理想主義と徳富蘇峰の反應」, 『法學政治學論究』 29, 慶應義塾大學.
- 澤田次郎, 1996, 「太平洋戰爭と徳富蘇峰のアメリカ觀」, 『法學政治學論究』 30, 慶應義塾大學.
- 澤田次郎, 1996, 「日露戰爭後をめぐる徳富蘇峰のアメリカ觀」, 『法學政治學論究』 31, 慶應義塾大學.



[ABSTRACT]Tokutomi Soho's Views on East Asia: Focused on era from
the Sino-Japanese War to the annexation of Korea

Bang, Kwangsuk

The study examines the views on East Asia held by Tokutomi Soho (1863~1957), an influential journalist and historian in modern Japan. This study focuses on his views of East Asian countries like China and Korea especially from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 to the annexation of Korea (1910), when he shifted to nationalistic and imperialist logics.

Tokutomi's views on East Asia were related to the *Datsuaron* (Advocacy of Escape from Asia) He argued that Japan equipped with Western civilization could be separated from its East Asian neighbors like China and Korea, which were still barbaric and lacked the ability to transform themselves into civilized countries. Then, China and Korea were seen not so much a part of alliance with Japan in resistance against the inroad of Western powers as an object of Japanese expansionism. As an influential journalist, Tokutomi played a leading role in promoting these imperialist views.

Such Tokutomi's views remained unchanged even after his firsthand contacts with China and Korea. He travelled China for a long time in 1906 (right after the Russo-Japanese War) and again in 1917 (right after the World War I). Although, he subscribed to the policy of friendly relation with China, rescinding the idea of dividing China, he repeated

his unchanging views on China that the Chinese lacked modern consciousness of nation, and that they were imbued with debilitating literary values and private personal interests, which hindered them from reforming their country and society.

With regard to Korea, he maintained that Koreans were so corrupt and lazy that they were unable to achieve civilization on their own, thus justifying its annexation by Japan. In justifying Japan's aggression against Korea by its role of civilizing mission, lied his deep sense of disdain and discrimination against Korea, which remained uncivilized to his eyes.

The views of Tokutomi were also shared by contemporary Japanese leaders and intellectuals. He tried to be an initiator in proposing a variety of imperialist foreign policy suited to changing circumstances. His views on East Asia were in line with the course of Japanese imperialism, maintaining consistency in rationalizing and theorizing the expansionism of Japanese empire.

keywords

Tokutomi Soho, views on East Asia, the Sino-Japanese War, the annexation of Korea, the Peaceful expansionism, *Datsuaron* (脫亞論), the theory of civilization

小田省품의 교과서 편찬활동과 조선사 인식

최혜주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I. 머리말

일제가 조선에서 실시한 교육목표는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어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삼고, 조선인을 동화시켜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데 있었다. 조선인을 동화시키는 문제는 교육을 통해 조선민족을 순량한 신민으로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를 위해 교육전문가를 초빙하여 교과서 편찬을 통해 식민교육을 추진해갔다.

○ 오다 쇼고[小田省품, 1871~1953]는 미쓰지 주조[三土忠造]의 후임으로 대한제국 정부의 초빙에 응해 학부 서기관으로 내한하여 식민교육을 창시하고 오랫동안 문교행정의 중추에서 교과서 편찬을 주도했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 창설을 준비하고 예과부장과 법문학부 교수로 조선사를 강의하며 식민관료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기초를 다지고 식민사관을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하다.

※ 투고일: 2010년 1월 26일, 심사일: 2010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 2010년 2월 28일.

이 글에서는 첫째, 총독부 학무국의 관료인 오다의 정책구상이 실제 교육정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검토한다. 그가 병합 이후 제1차 조선교육령(1911)과 제2차 조선교육령(1922)을 거치며 교과서 편찬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고찰하는 것은 식민교육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둘째, 경성제대 교수가 되어 조선사학을 가르치고 조선사 연구를 위해 어떠한 학회활동을 했는지 살펴본다. 경성제대에서 조선사를 가르친 교수들은 조선사를 왜곡시킨 중추기관인 조선사편수회의 핵심 멤버들이었다. 오다를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총독부의 식민정책을 추종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했는지 검토한다. 셋째, 조선사 관련 학회활동과 조선사편수회 활동을 통해 나타난 조선사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조선사를 어떻게 왜곡시켜 식민사관을 만들어냈는지 분석한다.

지금까지 오다의 사상과 내한활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다만 오다와 관련하여 경성제대에 대한 연구,¹⁾ 학무국과 교과서에 대한 연구,²⁾ 재조일본인의 조선연구 단체인 조선고서간행회와 조선연구회, 그리고 조선사편수회에 관한 연구³⁾에서 약간 언급이 있을 뿐이다. 식민사관 창출을 위해 활동한 인물에 대한 연구는 일제 식민사학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오다의 대표적 저술을 자료

-
- 1) 이충우, 1980, 『京城帝國大學』, 다락원; 장세운, 1992, 「경성제국대학의 설립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정규영, 1998, 「경성제국대학의 설립과정」, 『논문집』 35, 청구교육대학교; 정선이, 2002, 『경성제국대학연구』, 문음사; 稻葉繼雄, 2004, 「京城帝國大學豫科について」, 『九州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紀要』 7; 박광현, 2005, 「경성제국대학 안의 '동양사학」, 『한국사상과 문화』 31; 박광현, 2009, 「식민지 '제국대학'의 설립을 둘러싼 경합의 양상과 교수진의 유형」, 『일본학』 28.
 - 2) 이명화, 1992,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기구변천과 기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久保田優子, 2002, 「朝鮮總督府初期の日本語教育政策」, 『九州産業大學國際文化學部紀要』 23; 장신, 2006,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 교과서 편찬」, 『역사문제연구』 16.
 - 3) 최혜주, 2005a, 「일제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최혜주, 2005b, 「한말 일제하 釋尾旭邦의 내한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金性玟, 1989, 「조선사편수회의 조직과 운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로 분석하고 총독부는 물론 관련 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당시의 각종 신문·잡지에 실린 자료도 활용하여 오다의 교과서 편찬 활동과 왜곡된 조선사 인식의 문제점을 밝혀 보려고 한다. 다만 오다의 경성제대 교수 활동과 학맥 형성이 일제강점기의 조선사 연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지면관계상 별도로 검토하려고 한다.

II. 총독부 학무국에서의 관료활동과 교과서편찬사업

1. 오다의 약력과 저술활동

오다는 1871년 5월 2일 미에[三重]현 시마[志摩]군 도바[鳥羽]정에서 사족 아리마 무무치[有馬百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오다가 태어난 미에현에는 이세[伊勢]신궁이 있다. 이세신궁은 일본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시조신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와 역대 천황의 조상신을 제사지내며 국가신도의 정점이 된 곳이다. 이 지역에는 1882년에 이세신궁의 祭主였던 구니노미야 아사히코신노[久邇宮朝彦親王]의 습습에 따라 하야시자키[林崎]문고에 진구코가쿠간[神宮皇學館]이 설립되었다. 당시의 문명개화 풍조에도 일본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 곳이다. 오다는 이런 국학적 분위기가 감도는 곳에서 태어나 1887년 진구코가쿠간에 입학하지만 바로 퇴학하여 國民英學會, 東京英語學校에서 수학한 뒤, 1891년 제일고등중학교에 입학했다.

1896년 7월 제일고등학교 대학예과 제1부를 졸업하고 도쿄제대 사학과에 입학한다. 그는 쓰보이 구메조[坪井九馬三](서양사)·호시노 히사시[星野恒](국사)·구리다 히로시[栗田寛](국사)·미카미 쓰기오[三上次男](동양사)·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철학)·쓰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郎](고고인류학)·다나카 요시나리[田中義成](국사)·나카 미치요[那珂通世](동양사)·하

야시 다이스케[林泰輔](조선사)·오세 진타로[大瀬甚太郎](교육사)·리스(역사학)·라프카디오 현[小泉八雲](영문학)에게 수학했다. 오다의 조선사 인식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음 세 사람의 학문경향을 살펴보자.⁴⁾

먼저 호시노 히사시[星野亘]는 『國史眼』(1890)을 시게노 야쓰쓰구[重野安綱]·구메 구니다케[久米邦武]와 함께 국사과 교재로 저술했다. 태정관수사국에서 간행한 『日本史略』(1877)을 개정한 것이다. 『일본서기』와 『고사기』를 근거로 스사노오[素盞鳴尊]가 조선에 건너가 지배자가 되고, 이나히노미코토[稻飯命](이하 이나히)가 신라왕이 되는 신화를 사실처럼 서술하여 일선동조론의 원형을 만들었다. 또한 진구[神功]황후의 삼한정벌과 임나일본부 설치를 서술하여 고대 한일관계를 일본이 지배한 식민의 역사로 왜곡했다. 시게노와 구메가 필화사건으로⁵⁾ 대학을 떠나기 전후, 구리다 히로시[栗田寛]와 구로가와 마요리[黒川眞頼] 등이 문과대학 교수로 부임해 국학계통 역사가가 중심이 된다. 1882년에 설립된 皇典講究所, 神宮皇學館도 국학자 중심의 기관으로 국수주의적 동향이 나타났다.⁶⁾ 전술한 것처럼 오다가 이곳을 잠시 다닌 적이 있다.

나카 미치요[那珂通世]는 제일고등학교와 도쿄고등사범학교 교수를 지내면서 1896년 도쿄제대 문과대학 강사로 일본·중국·조선 역사를 담당했다. 그는 「朝鮮古史考」라는 논문⁷⁾을 통해, ① 단군 문제를 승도의 날조로 나온 망탕한 것으로 보고, ② 이나히[稻飯命]에 해당하는 자는 박혁거세로, ③ 고대 일본의 남선경영과 임나일본부설을 사실상 기록했다. 또한 ‘동양사의 창시자’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는 도쿄제대 고전강습과 출신으로 청일전쟁 직전

4) 최혜주, 2010, 「근대 일본의 한국사관과 역사왜곡」,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5) 최혜주, 2003, 「메이지시대의 한일관계 인식과 일선동조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7.

6) 工藤雅樹, 1979, 『研究史 日本人種論』, 吉川弘文館, 138쪽; 工藤雅樹, 1980, 「〈日鮮同祖論〉の史學史的意義」, 『關晃先生還曆記念 日本古代史研究』, 吉川弘文館.

7) 『史學雜誌』 5면 이후 18회나 연재되었으며, 그 목적은 1. 조선고사사적이고, 2. 조선 낙랑현대대방고, 3. 맥인고, 4. 고구려고, 5. 삼한고, 6. 백제고, 7. 신라고, 8. 가라고, 9. 삼국문화고.

『조선사』(1892)를 저술하여 일본의 조선 침략을 합리화하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했다.⁸⁾ 조선이 기자부터 천여 년 동안 지나인의 견제를 받았으며 神代부터 일본이 조선보다 우세한 것을 강조했다. 단군에 대해서도 그 설이 황당하여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한다.⁹⁾ 단군은 스사노오의 아들 이다케루노미고토[五十猛](이하 이다케루)이며, 소시모리[曾尸茂梨]에 있었다는 『일본서기』의 주장을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신라 왕자 아메노히보코[天日槍](이하 아메노)가 나라를 동생 知古에게 양보하고 귀화한 것¹⁰⁾과 이나히[稻飯命]가 '신라의 國主'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오다는 대학시절에 이러한 일선동조론과 남선경영설을 주장하는 교수들에게 배우고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오다는 1899년 도쿄제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9월에 나가노[長野]현 사범학교 촉탁교원으로 교육계에 들어간다. 1900년 야마구치[山口]현 하기[萩] 중학교 교유, 도쿠시마[德島]현 사범학교 교장, 나라[奈良]현 우네비[畝傍]중학교 교장을 지냈다. 1908년 대한제국의 학부 초청으로 내한할 당시 제일고등학교(도쿄제대 예비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편집국에 와서 교과서 편찬사업에 종사하게 된다. 이후 그의 대표약력과 저술을 간단하게 살펴본다.¹¹⁾

첫째, 학무국 재직 시기. 1910년 병합과 함께 총독부가 설치되자 학부가 내무부 소속 학무국으로 재편되었다. 1911년 3월 31일 관제로 학무국에는 학무과와 편집과·관측소를 두었다. 3·1운동 이후 새로 부임한 사이토 총독은 8월 19일 총독부관제를 개혁하여 내무부 산하였던 학무국을 총독부 직속으로 승격시켜 식민교육이나 교화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실행했다.¹²⁾ 오다는 1910년

8) 야야시는 『朝鮮史』를 간행하기 이전인 1887년 5월과 12월에 「朝鮮文藝一班」, 1890년 1월 「任那考」, 다음해 12월 「加羅の起源」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朝鮮史』는 개국에서 근세까지 태고, 상고, 중고, 근세의 4시기로 구분하여 집필할 예정이었지만, 제3기의 중고사까지만 서술했다. 1901년 6월 『朝鮮近世史』 2권을 간행하고, 나아가 1912년 8월에 『朝鮮通史』 1권을 간행했다.

9) 林泰輔, 1892, 『朝鮮史』, 吉川半七 藏版, 卷之 1 제2편 제1장 開國ノ起源, 19쪽.

10) 林泰輔, 1892, 위의 책, 제2편 제4장 三韓ノ建國, 24쪽.

11) 朝鮮新聞社, 1935, 『朝鮮人士興信錄』, 73쪽; 阿部薰, 1935, 『朝鮮功勞者明鑑』, 民衆時論社, 535쪽.

12) 학무국에 대해서는 이명화, 1992, 앞의 글 참조.

학무국의 편집과장으로 교과서 편찬사업을 주도하고, 보통학교교원검정위원(1910), 경성전수학교장 사무취급(1913),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심사관(1915), 조선교육연구회 간사·평의원(1916)이 되었다. 중추원 편찬과장 사무취급(1918)으로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에 종사하고, 조선민사령과 민적법 개정조사위원·내국인교원양성소 교사(1920)를 겸했다. 한편 학무국은 1921년 10월 고적조사과를 신설하여 박물관, 고적조사사업, 고사사고건축보존, 명승천연기념물보존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다. 오다는 구관과 제도 조사위원과 고적조사과장(1921)을 2년간 겸임하면서 조선의 고적·유물·구관·제도조사와 함께 고문화를 연구했다. 이후 총독부 시학관으로 학무국 편집과장을 1924년까지 근속하게 된다. 이 시기 『조선사요략』(1915), 『조선총독부편찬 교과서개요』(1917)를 간행했다.

둘째, 경성제대 재직 시기. 1923년 11월 경성제대 창설위원회에 참가하고 조선사학회를 조직한다. 이듬해 경성제대 예과개교준비 사무취급, 예과부장에 취임하여 조선사와 수신을 강의하고, 10월에는 학무국 편집과장을 그만둔다. 조선사편수회 위원(1925), 釜山府史 편찬고문·경성제대 법문학부 교수(1926)로 조선사학 제2강좌를 맡고 朝鮮史學同攷會의 평의원이 되었다. 1927년 京城府史 편찬위원회 고문, 범태평양회의 조선대표를 맡고, 京城讀史會를 결성하여 활동한다. 이왕직 실록편찬위원이 되어 청구학회를 설립했다(1930). 경성제대를 퇴직하고, 법문학부 강사로 위촉된다(1932). 『조선사강좌 이조정쟁약사』(1923), 『경성제국대학예과개설에 대하여』(1924), 『朝鮮文廟及陞庶儒賢』(1924), 『조선사강좌 조선교육제도사』(1924), 『조선사대계 최근세사』(1927), 『朝鮮支那의 문화연구』(1929), 『조선반도의 역사』(1930), 『조선소사』(1931)를 간행했다.

셋째, 저술활동 시기. 중추원과 이왕직에서 고종·순종실록을 편찬하면서 저술활동을 했다. 1933년 중추원의 구관과 제도조사 사무를 위촉받고, 경성제대 강사를 그만둔다. 4월 1일 이왕직 실록편찬사업에 종사하고, 회계과에 근무한다. 12월 총독부 박물관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 위원이 되었다. 1935년 3월 실록편찬위원을 그만두고 잔무취급이 되었다. 1939년 숙명여자전문학교 교

장과 국민총력 조선연맹의 위원을 지낸 뒤 1945년 일본으로 귀국했다. 『조선 문화사상에서 본 충남』(1933), 『辛未 洪景來亂의 연구』(1934), 『시정25년사』(1935), 『朝鮮役과 加藤清正』(1936), 『朝鮮陶磁史文獻考』(1936), 『增訂 朝鮮小史』(1937), 『德壽宮史』(1938), 『시정30년사』(1940), 『昌德宮李王實記』(1943), 『德壽宮李太王實記』(1943)를 간행했다.

이처럼 오다가 재조일본인으로 활동한 생애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내한해서 총독부 학무국의 관료로 교과서편찬사업에 17년간 종사하면서 교원을 양성하고, 둘째, 식민관료 양성을 위해 경성제대 교수로 조선사연구 관련 학회활동을 주도했으며, 셋째, 퇴직 후에는 촉탁으로 구관제도와 고적 조사활동, 실록편찬과 역사서 저술활동을 했다.

오다는 ‘황국’의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는 곳에서 태어나 그런 사상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도쿄제대에서는 근대적 학문방법으로 무장한 국학적 분위기에서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은 교육일선에서의 현장경험을 살려 대한제국 학부와 총독부의 학무국에서 교과서편찬사업에 종사하여 식민교육의 기초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그가 학부, 나아가 총독부 학무국의 관료로서 어떤 방침을 갖고 교과서 편찬사업에 임했는지 알아본다.

2_ 학무국의 교과서 편찬사업

먼저 오다가 내한하기 이전 학부의 교과서 편찬상황은 다음과 같다.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관제 및 이사청관제’가 공포되어 이듬해 2월 이토 통감 밑에 서기관 다와라 마고이치[表孫一]가 학정사무를 장악하고,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에 따라 학부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차관)가 되었다. 통감부는 新制 보통학교 체제가 갖추어지자 새로운 교과서 편찬을 서둘렀다. 당시 학부에는 시데하라 다이러[幣原坦](학정참여관), 우에무라[上邨正巳](통역관), 와다세 쓰네기치[渡瀬常吉],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가 근무하고 나머지는 교과서 편집촉탁이었다.¹³⁾ 시데하라를 이어 1897년 도쿄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내한하여 학정참여관이 된 미쓰지[三土忠造]가 재임했을 때에는 사무관 다나카[田中玄黃],

마쓰미야 슌이치로[松宮春一郎], 우에무라, 고스기[小杉彦治] 및 서기 2명, 기수 1명 등 8명이 일어독본, 지리, 역사, 산술, 이과, 수신 등의 교과서 편찬에 참여했다.¹⁴⁾ 이후 미쓰지는 1908년 제10회 중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학부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오다가 그의 후임으로 왔다.

오다의 내한 동기는 도쿄제대 선배인 학부차관 다와라와 서기관 구마모토 시게키치[隈本繁吉]와의 인연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구마모토는 1908년 학부 서기관 겸 관립한성외국어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학부정책을 담당하고, 병합 이후 초대 학무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역대 학무국장은 대개 도쿄제대의 법과 출신이 차지했다. 1910년 이후 학무국 편집자가 1942년 11월 편수과로 개칭되기 전까지 교과용도서의 편집·반포·검정·인가와 민력 편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오다는 이 학무국에서 1924년까지 교과서편찬사업의 책임을 맡은 편집과장이었다.

다음 오다가 전임자의 인수를 받아 교과서를 편찬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06년 8월에 보통학교령이 발표되어 급하게 보통학교용 교과서를 만들었다. 미쓰지는 약 반년 동안 국어, 한문, 일어교과서를 만들고, 산술, 이과에 대한 개정작업을 해야 할 때 도쿄로 귀국하게 되었다. 일본인으로 학부에서 처음 교과서를 편찬하기 시작한 시대하라 이래 미쓰지를 거쳐 오다에게 보통학교 교과서 편찬사업이 계승된 것이다. 오다는 미쓰지가 편찬한 보통학교 교과서를 개정할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시 다와라 차관의 의사는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신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 만일 실패해서 일본의 신교육은 소용없다고 하는 평판을 받는다면 일본으로서는 국위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장래 교육을 개선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신교육은 상당한 힘을 들여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장소는 전 반도에 걸쳐서 도청의 소재지, 기타 가장 신교육이 필요한 지방을

13) 최혜주, 1998, 「시대하라[幣原坦]의 고문활동과 한국사연구」, 『국사관논총』 79.

14) 大垣丈夫, 1906, 「韓國의 新學政」, 『大韓自強會月報』 2.

선택하여 공립보통학교를 설치하고 내지에서 우수한 교원을 골라 초빙해서 이들을 각 보통학교의 교감으로 실제 교육에 임하게 한 것이다. …… 다와라 차관은 간절하게 혼화를 하고, …… 어떤 지방에서는 순사 부부가 아니면 내지인이 아무도 없는 곳까지 가서. ……¹⁵⁾

학부가 얼마나 보통학교 교육에 사활을 걸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오다는 공립보통학교의 학생들이야말로 “반도의 교육보급과 문화선전의 ‘달걀’이고 근본”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보통학교 교감은 일본인이 한 사람도 없는 지방에 나가 불편을 감수하며 일본어가 통하지 않는 조선인 사이에서 생도만이 아니라 생도를 통해 가정에까지 감화를 주는 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나는 현시 반도교육의 왕성한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일시동인의 위세(천황의 위세)를 감사하게 받드는 동시에 반도 신교육의 선구자가 된 사람들의 노고와 희생적 정신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¹⁶⁾고 말했다.

오다가 병합 전의 교육 문제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첫째, 각종학교의 배일 분위기와 배일 교과서였다. 이 때문에 통감부는 1908년 사립학교령을 발표하여 학부에서 편찬하지 않은 모든 교과서는 학부의 인가를 받게 했다. 둘째, 학부행정에서 수천의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지도 감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조선교육령이 발표되기까지 학부국에서 주의한 것은 ① 학부편찬 교과서 중 고칠 교재에는 교수법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② 사립학교에서 인가한 교과서의 내용 지구 등에 부적당한 부분이 많이 생겼으므로 교수상 주의를 준다. ③ 새로운 교과서를 어떻게 편찬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령 발표 후의 근본방침으로 조선교육은 내지와 같이 ‘교육에 관한 칙어(이하 교육칙어)’에 따라 ‘新附의 국민’을 교육할 것과 국어 교육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정했다.

먼저 오다는 데라우치 총독과 직접 의견을 나누고 내지에서 ‘教育勅語’의

15) 京城電氣株式會社, 1939, 『今昔三十年座談會』, 26~27쪽.

16) 和田八千穂, 1945, 『朝鮮教育の回顧』, 『朝鮮の回顧』, 近澤書店, 113~114쪽.

해석본을 여러 종류 조사하여 도쿄제대 교수 시게노[重野安繹]의 해석을 근거로 언한문역 해석본을 만들어 배포했다. 그리고 국어 문제는 데라우치 총독에게 요청하여 대만 출장을 통해 국어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대만 국어학교의 야마구치 기이치로[山口喜一郎]를 조선에 불러 국어 문제를 연구하게 했다. 또 병합 후 초대 편집관인 다치카라 노리도시[立柄教俊]와 공동연구를 통해 “조선의 국어교수는 종래와 같이 번역주의가 아닌 직접법으로 물품, 동작을 아동에게 직감시켜 국어를 익히게 한다”는 방침으로, 가능한 한 조선인에게 쉬운 가나 사용법을 결정했다.¹⁷⁾

오다는 병합 후 가장 곤란했던 사항은 첫째, 교과서가 시세에 적합하지 않게 되고, 또 구 학부에서 편찬한 것조차 구한국 황실기사가 부적절하게 된 점, 둘째, 국어(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은 아동에게 바로 문부성의 소학교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고, 또 문부성의 검정을 받은 내지출판 중등제학교용 교과서도 바로 반도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지적한다.¹⁸⁾ 그래서 총독부에서는 초등교육 외에 중등교육에서도 수신, 국어, 한문, 역사, 지리 등 국민성 양성에 관계있는 교과서 편찬이 급무임을 통감하고 편찬사업에 착수했던 것이다.

이에 학부국에서는 먼저 <구 학부편찬 보통학교 교과서 및 구 학부검정급 인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교수상의 주의 및 자구정정표>를 관공립, 사립학교에 배포하여 구 학부편찬 교과서를 정정 출판했다. 이때 교과서 편찬방침으로 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¹⁹⁾

- ① 보통학교 교과서는 조선교육령 및 보통학교 규칙에 준거하여 편찬한다.
- ② 조선어 및 한문독본을 제외하고 모두 국어로 기술한다.
- ③ 국민성 양성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교과목 중에 주의할 점은, 첫째, 조선은 내지 대만 등과 같이 우리 국가의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한다.

17) 小田省吾, 1935, 「併合前後の教科書編纂に就て」, 『朝鮮及滿洲』 335, 38~40쪽.

18) 和田八千穂, 1945, 「朝鮮の回顧」, 앞의 책, 118~119쪽.

19) 小田省吾, 1917, 『朝鮮總督府編纂教科書概要』, 4~6쪽.

둘째, 우리 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하는 것을 알게 한다. 셋째, 조선인이 일본제국의 신민으로 세계 일등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황실의 은택에 의한 것이므로 황실을 존중하여 국가에 진력할 길을 알게 한다. 넷째, 실용근면을 주로 하여, 공리 공문을 피한다.

- ④ 국어독본 중에 본방 역사지리를 가르치고, 조선어 및 한문독본 중에 조선지리의 개요를 가르친다.
- ⑤ 국어독본 권7, 8에 문어를 게재하고, 산술, 이과, 농업 등은 모두 구어로 할 것
- ⑥ 문장은 평이하게 하여, 필기 보충하는 폐단을 피할 것
- ⑦ 분량은 문부성 국정교과서보다 조금 많게 하고, 각 과에 연습문제를 붙일 것
- ⑧ 조선에서 제 학교의 교사는 조선인교사로 국어에 정통한 자가 적으므로 교수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할 것
- ⑨ 각 권 처음에 서언과 권말에 부록을 붙여 스스로 공부하기에 편리하게 할 것

오다는 교과서 편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신서와 국어독본이라고 생각했다. 이 두 책은 1922년 역사가 정식교과로 채택되기 전까지 역사 관련 사항을 교수한 과목이다. 국체관념 교육과 일본어 교육 문제가 증시된 편찬방침을 살펴보면 먼저 수신서는 기본적으로 ‘教育勅語’(1890)²⁰⁾와 ‘戊申詔書’

20) 1911년 메이지천황이 조선총독에게 내린 교육칙어의 원문(조선어 역)은 다음과 같다. 朝鮮教育研究會, 1918, 『朝鮮教育研究會雜誌』 임시증간호, 38~39쪽. 식민지 조선에서의 교육칙어에 대한 이해는 駒込武의 『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合』(岩波書店, 1996) 참조.

“朕이 惟건대 我皇朝皇宗이 國을 肇호심어 宏遠호고 德을 樹호심어 深厚호지라 我臣民이 克히 忠호고 克히 孝호야 億兆一心으로 世世히 關美를 濟함은 此我國體의 精華이니 教育의 淵源도 또호 實로 此에 存호도다 爾臣民은 父母에게 孝호고 兄弟에게 友호며 夫婦相助호고 朋友相信호며 恭儉으로 己를 持호고 博愛로

(1908)에 근거했다. ‘교육칙어’는 일본교육의 이념을 천황의 칙어에 의해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유교의 삼강오륜에 근거하여 천황에 대한 충성심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한다. ‘무신조서’는 러일전쟁 이후 농촌이 피폐해지면서 사회주의, 개인주의에 의한 ‘사상악화’가 문제되었을 때 황실을 중심으로 ‘근검’, ‘관민협력’, ‘상하 일치’하여 천황제하의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²¹⁾ 각 관청이나 소학교에서 봉독회가 열릴 때 ‘교육칙어’와 함께 암송되어 큰 영향을 미쳤다. 오다는 이에 근거하여 수신교과서 편찬의 특별 주의사항으로 다음을 지적한다.²²⁾

① 국민도덕의 중추인 충효관념 양성에 중점을 둔다. 교재의 각 권에 ‘천황’과 ‘부모의 은혜’를 넣어 군부의 은혜를 빨리 알게 한다. ② 천황폐하, 황후폐하, 메이지천황, 쇼우겐[昭憲]황태후의 성덕을 매 권에 ‘奉謁’하고, 御製·御歌(천황이 만든 和歌)도 넣어 황실의 은택이 흥대함을 알게 한다. 특히 메이지천황이 조선인민에게 내린 은혜를 생도의 뇌리에 각인시킨다. 천황의 하사금으로 공립보통학교의 기초가 설립된 것, 금상천황이 황태자 시절에 조선에 행계하여 보통학교에 하사금을 내린 것, 조선의 두 차례 大喪에 구휼금을 내린 것을 특기하여 구체적으로 은택의 두터움을 알게 하고 연월과 금액을 교사용에 상기시켜 교수에 정확을 기한다. ③ ‘교육칙어’는 조선교육의 기본이나 의의가 심원하므로, 보통학교 생도에게는 어구해석을 하지 말고, 취지를 실행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최종학년에 사용할 책 권4의 권두에 칙어 전문을 봉제하고, 권말에 그 대의를 ‘奉釋’하여 대략을 이해하도록 한다. ④ 효도에 대해서도 충

衆에 及하며 學을 修하고 業을 習하여야 知能을 啓發하고 德器를 成就하며 進호야 公益을 廣히하고 世務를 開호며 常히 國憲을 重히하고 國法을 遵호며 一旦에 緩急이 有호거든 義勇으로 奉公호야써 天壤無窮의 皇運을 扶翼호지어다 是와 如히호면 獨히 朕의 忠良호 臣民일뿐안이라 또足히써 爾祖先의 遺風을 顯彰호리라 斯道는 實로 我皇朝皇宗의 遺訓이시니 子孫과 臣民이 俱히 遵守호것인바 此를 古今에 通호야 謬치안이호고 此를 中外에 施호야 悖치안이호지니 朕은 爾臣民과 俱히 拳拳服膺호야 咸히 其德을 一케호기를 庶幾호진더.”

21) 石川一三夫, 1996, 「地方改良運動と地方體制の再編」, 『中京法學』 30, 240~241쪽.

22) 小田省吾, 1917, 앞의 책, 8~12쪽.

군과 같이 매권 게재하지 말고, 예화도 내지인 외에 조선인의 사적을 선택하여 인상 깊게 한다. ⑤ 국체에 관해서는 권3, 권4에서 만세일계의 천황을 ‘奉戴’하고 보조의 융성, 천양과 함께 끝이 없음을 밝힌다. ⑥ 조선인에게 필요한 諸德, 예를 들면 정직, 근면, 검약, 저축, 청결, 위생 등은 적당하게 각 권에 배당하고, 조선인의 미풍을 장려할 것은 상노, 경사 등이고, 폐풍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미신, 유타, 실업천시에 대해 조사해서 넣는다. ⑦ 예화는 각 도에 조회하여 지방의 모범인물 사적을 조사하여 채용한다. 외국인에 관한 것은 일체 넣지 않는다. ⑧ 교수시 국어사용 문제다. 즉 수신서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칙어’와 ‘무신소서’에 근거하여 천황에 대한 충성심과 국체관념을 주지시켜 천황제 군국주의를 알게 하는 일이었다.

두 번째로 국어독본의 편찬방침은 ① 표음적 가나법을 사용하여 모어를 달리하는 조선인 아동이 쉽게 배우게 한다. ② 번역 교수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직접 교수한다. ③ 회화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모든 학과를 국어로 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한다. ④ 조선인에게 곤란하거나 잘못되기 쉬운 발음을 조사하여 발음에 유의한다. ⑤ 문체는 권7 전반까지 구어체로 하고 후반부터 평이한 문어체로 한다. ⑥ 국어독본의 내용은 수신서와 더불어 품성도야, 국민성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유의한다. 본방역사지리의 대요를 넣는다. ⑦ 내지·조선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전설·사회를 골라 국민적 사상양성을 도와 주는 데 힘쓰고, 근세 일본의 국력발전 사실과 일한병합 사정을 기술한다. 또 닌도쿠[仁德]천황의 仁政,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眞]의 충성도 기재한다. ⑧ 부록으로 권7에 본방 행정구역도를 넣어 영토관념을 명확하게 하고, 권8에 신대 御略系 및 天皇御歷代表를 넣어 황통이 連綿함을 알리고 이와 함께 본방 지리역사 교재에 참고한다. 즉 국어독본에서는 일본어 사용과 조선인의 사상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교재로 만들어 병합을 정당화하고 조선인을 황민화하는 일에 주력한 것을 알 수 있다.

오다는 여러 차례의 교원강습회에서 재조선 교육자의 사명은 내지인이나 조선인이란 장벽을 제거하고 모두 ‘대일본국민’이란 확신을 안겨 주는 일이라고 역설한다. ‘소요사건’(3·1운동)의 발생도 이러한 의식의 결여에서 원인을

찾았다.

역사상 밀접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일선 양 민족의 결합과 같이 한층 이것을 친밀 농후하게 하여 국가의 기초를 공고하게 하고, 이로써 우리 제국의 사명을 완전하게 할 각오가 있기를 요구한다. (중략) 양자는 이미 서로 합하여 한 국민이 되었다. 아직 완전히 한 민족이 되지 못한 것은 불과 언어 풍습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²³⁾

따라서 '소요사건'의 원인이기도 한 조선인의 역사적 오해를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특히 한일병합을 도요토미[豊臣秀吉]의 雄圖가 실현된 것으로 생각하고 조선인을 정복자 기분으로 대하는 자가 없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지 및 조선역사를 피교육자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교수하는 일인데, 서로 질시하는 감정을 양성한다면 교육이 국가에 해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심으로 접촉하는 것이며 이것이 일선인의 융합을 가져오는 교육효과이므로, 재조선 교육자는 제국의 기초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²⁴⁾

오다가 학무국에 근무한 기간은 제1차 조선교육령(1911)과 제2차 조선교육령(1922)이 발표되어 일제의 식민교육정책이 자리를 잡아간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다. 제1차 조선교육령은 병합 이후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식민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었다. 제2조에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따라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고 하여 조선인을 일본 제국 신민의 자격과 품성을 갖추도록 교육한다고 명시했다. 이 교육령은 조선인 교육을 위한 법령이었고, 이 시기 조선에 있던 일본인을 위한 교육은 본국의 법령 및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총독부는 3·1운동이 발발한 후 식민통치 방침을 변경하여 점진적 내지연장주의에 의한 문화정치를 전개했다. 1920년 12월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水

23) 小田省吾, 1919. 7, 「平和克服後の教育」, 『朝鮮教育研究會雜誌』 46, 3~4쪽.

24) 小田省吾, 1919. 7, 위의 글, 5쪽.

野鍊太郎를 위원장으로 임시교육조사위원회와 임시교과서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제도를 개정하고자 했다. 1921년 조선교육조사위원회와 교과서조사위원회가 개최되어 교과서 개정에 관한 방침을 심의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어떤 주의로 교과서를 만들 것인가였다.²⁵⁾ 이것이 1922년 2월 칙령 제19호로 제2차 교육령으로 나타나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을 동일하게 규정짓게 된다.²⁶⁾ 이를 위해 사범학교와 대학예과를 개설했지만 그 의도는 조선인에게 고등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식민교육을 담당할 교원과 식민통치를 보조할 관리를 양성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때 오다는 조선인 교육 학교에서도 내지인 교육 학교와 같은 동일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에 대해, 아직 조선 사정이 그 정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어보급과 풍속습관이란 점에서 조선 사정에 적합한 교과서를 편찬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제2차 교육령의 신교과서 편찬방침에 대해 첫째, 실제 국어 상용자와 비상용자 간에 실력 차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째,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특수 편찬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²⁷⁾ 이런 방침의 결과 1922년도에 나온 보통학교 교과서는 19종 32책, 고등보통학교 교과서는 4종 10책, 여자고등보통학교 교과서는 2종 7책으로 합계 25종 49책이 되었다.

이상에서 오다가 미쓰지의 후임으로 내한하여 병합 이후 제1차 조선교육령과 제2차 조선교육령을 거치며 교과서 편찬사업의 책임자로 활동한 것을 살펴 보았다. 그는 내선융합을 위한 동화주의 식민교육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국제교육을 중요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칙어’와 ‘무신조서’에 근거하여 천황과 국제관념을 조선인에게 각인시켜 ‘대일본국민’으로 만들기 위해 수신서와 국어독본 등을 편찬했다.

25) 小田省吾, 1924. 6, 「朝鮮の教育に就て」, 『朝鮮』 110.

26) 小田省吾, 1922. 3, 「新教育令の公布と教科書に就て」, 『朝鮮』 85, 128~129쪽.

27) 小田省吾, 1922. 2, 「新教科書は斯う云ふ方針で編纂した」, 『朝鮮教育』 7-5, 1~4쪽.

Ⅲ. 조선사 연구와 조선사편수회 활동

오다는 1919년 3·1운동 이후 ‘일선융화’를 위해 조선사를 일반에게 이해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확신에서 1923년 조선사학회를 조직하고 조선사강좌를 열었다. 조선사학회는 ‘조선사 연구와 보급’을 위해 사이토 총독의 계획에 따라 문화통치를 표방한 산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총독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관변적 성격을 가지며, 학회 임원이나 구성원의 면모를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다. 학회의 임원진 구성은 아리요시 주이치[有吉忠一] 정무총감을 총재로 하고 오다가 학무국 편집과장으로 회장을 맡았다. 고문은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동척총재), 가와무라 다케시[川村竹治](만철사장), 미노베 슌키치[美濃部俊吉](鮮銀總裁), 박영효, 이완용,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경성제대 교수) 등이다. 이 밖에도 중추원, 조선사편수회, 박물관, 학무국 등의 총독부 국장을 망라했다. 이 학회는 매일 1회 조선사강좌를 개최하고 1년 예정으로 조선사를 분담 집필하기로 했다. 강사진은 경성제대 교수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오다는 조선사학회의 강좌집필과 강연회 등을 주도했다.

조선사학회는 『조선사강좌』(1924)와 『조선사대계』(1927)를 간행했다. 오다는 이 가운데 『조선사강좌』의 일반사(상세사, 최근세사)와 분류사(조선교육제도사, 이조정쟁약사), 특별강의(경성의 文祿役 일본군 諸將陣地の 고증)를 담당했다. 『조선사대계』에서는 일반사와 최근세사를 저술했다. 조선사학회는 이 대계를 발행한 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후술하는 京城讀史會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²⁸⁾

오다는 1925년 조선사편수회의 위원이 되는데,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계기의 하나는 1919년의 3·1운동에서 찾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박은식이 독

28) 박결순, 2004, 「제3장 일제하 일인의 조선사연구 학회와 역사(고려사)왜곡」, 『식민지 시기의 역사학과 역사인식』, 경인문화사, 104~106쪽.

립운동의 일환으로 상해에서 활발하게 한국사 연구와 저술활동을 했기 때문이다.²⁹⁾ 이와 같이 일제는 한국인의 민족의식이 고양됨과 항일운동에 당황하여 식민사관에 입각한 조선사를 재구성할 필요를 느껴, 1922년 조선사편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1923년 1월 8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내용은 편찬강령에 대한 것으로 편찬의 형식·구분·체제·문체와, 사료의 수집범위와 출판문제 등이었다. 1차 회의 둘째 날 제기된 문제는 단군조선의 시기구분에 대해서였다. 이에 대해 정만조와 이능화·어윤적 등은 단군을 경시하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구로이타·이나바 등의 답변은 ‘삼국이전’이란 명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오다는 “명칭은 언제나라도 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단군에 대한 기록을 무시했다.³⁰⁾ 2차 위원회는 6월 12일 중추원에서 개최되어 민간소장의 사료수집 방법에 대해 협의했다. 이후 1924년 12월 23일에 5차 위원회가 열린 것을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관제를 공포하고 1925년 6월 6일 칙령 제218호로 조선사편수회로 기구를 확대 개편했다.

이렇게 조선사편수회 관제가 공포되자 시모오카[下岡忠治] 정무총감은 회장에 취임하여, 6월 25일자로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홍희를 수사관으로 임명하고, 7월 20일에는 이완용(중추원 부의장), 박영효(중추원 고문), 권중현, 시노다 하루사쿠[篠田治策](이왕직 차관), 오다(총독부 사무관), 이마니시(교토제대 조교수)를 고문과 위원으로 임명하여 조직을 완료했다. 이 사업의 편찬을 주관하고 체계를 세운 사람은 도쿄제대 교수 구로이타[黑板勝美]였다. 그는 일본 사학계의 대가로 도쿄제대에서 20년 간 『대일본사료』, 『대일본고문서』를 편찬한 경험이 있었다. 총독부는 조선사를 일본사의 일부분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사 전공의 전문가를 데려온 것이다. 그리고 편찬업무를 주도한 사람은 간사로 있던 이나바였다. 그는 만선사관을 주장하여

29) 박은식은 1914년 『安義士重根傳』과 『韓國痛史』를 완성하여 이듬해 간행했으며, 1918년에는 『발해사』, 『金史』를 역술하고 『李僞傳』을 저술했다. 1919년 『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저술하기 시작해 이듬해 간행하였다.

30) 朝鮮史編修會, 1986,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시인사, 27~30쪽.

조선사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타율성 이론을 주장한 인물이다.³¹⁾

1925년 10월 8일 1차 위원회가 개최되어 사이토 총독의 훈시를 마친 뒤 사료채방과 사료정리, 편찬준비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2차 위원회가 있는 다음 해인 1928년 7월 18일에는 고문과 위원의 간담회가 열려 위원들이 책임을 갖고 편수작업의 실정을 파악하고 감독하는 사항이 강조되었다. 이후 9차에 걸쳐 열린 위원회를 통해 편찬형식과 구분, 편찬체제, 편찬방침, 편수작업의 실정파악과 감독, 인쇄일정 등을 의논하고 결정했다.³²⁾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사료총간』의 목록과 단군 문제에 관한 회의내용이다. 전자는 7차 회의에서 구로이타가 출판이 시급한 목록을 작성하여 배포하면서 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오다는 “대체로 ‘文祿의 역(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관한 것이 많으므로, 조금 다른 분야를 집어넣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오다가 문제로 지적할 정도로 사료목록에 양난의 관련 사료가 많이 들어간 것은 도요토미의 치적을 드러내고 외침에 시달린 패배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8차 위원회에서 단군과 기자사항에 대한 취급을 문제로 제기했다. 즉 최남선이 “단군과 기자 항목은 조선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회 편찬의 『조선사』에서는 그것을 수록하게 되어 있는 제1편에 割註인가 頭註로밖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나바 간사는 “편년체 형식으로는 그것을 집어넣을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 확실한 연대가 없으므로 저희들도 고심하던 나머지 결국 수록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구로이타도 “단군·기자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신화적인 것으로 …… 편년사로서는 취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다는 “옛날 편년사에서는 이를 ‘외사’로 따로 취급한

31) 이만열, 1976, 「일제 관학자들의 식민사관」, 『한국의 역사인식』 하, 창작과비평사.

32)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1938)에 따르면 1차(1925. 10. 8), 2차(1927), 3차(1929. 12. 23), 4차(1930. 8. 22), 5차(1931. 8. 25), 6차(1932. 7. 21), 7차(1933. 8. 14), 8차(1934. 7. 30), 9차(1935. 7. 5) 회의가 열렸다. 위원회의 회의 장소는 8차 회의 때 총독부에서 열린 것을 제외하고 전부 중추원에서 열렸다.

예가 있으므로 ‘별편’으로 하여 편찬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³³⁾

이 논쟁에서 드러난 것은 편년체라는 원칙하에 단군·기자 사항을 서술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점과 단군과 기자는 ‘역사적 인물’이 아닌 ‘신화’라고 못 박은 점이다. 오다는 『동국통감』에서 ‘외기’로 취급한 것을 들어 단군조선을 부정하여 상고사를 없애려는 역사왜곡을 드러냈다. 10년 예정으로 추진된 조선사 편찬작업은 16년이나 걸려 『조선사』(35권), 『조선사료총간』(20종), 『朝鮮史料集眞』(3집)을 간행하고 1938년에 사업을 완료했다.

이 밖에도 조선사편수회 안에 朝鮮史學同攷會가 설치되었고 오다는 평의원을 맡았다. 조선사학동고회는 1926년 조선사편수회 회원들이 조직하고 『조선사학』을 간행했다. 『조선사학』은 1월부터 7월호까지 발행하고 중단되었다. 이 학회 조직은 고문에 구로이타[黑板勝美], 명예회원에 李軫鎬(학무국장), 평의원장 이나바[稻葉岩吉](편수관), 서무회계감독에 오노 도쿠조[小野德三](서무회계주임), 평의원에 이마니시 류·오다 쇼고(이상, 경성제대 교수)·이나바[稻葉岩吉](편수관)·후지타[藤田亮策]·洪熹(이상, 수사관)·鄭僑源·야마자키[山崎眞雄](이상, 간사)·나카무라[中村榮孝](촉탁, 편찬원에 시부에[澁江桂藏]·세노[瀬野馬雄](이상, 촉탁)·다카하시[高橋琢二]·쓰루미[鶴見立吉]·李丙熹(이상, 수사관보), 서기에 金鐘玉(서무계)이다.³⁴⁾ <조선사학동고회규칙>에 따르면 조선사학동고회의 목적은 ‘사학을 考究하고 조선 문화를 연구하는 것’에 두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널리 사학의 태두를 찾아 고문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사학』이 나오게 된 계기도 총독부의 조선사 편찬과 경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연구의 활성화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조선 문화의 지위는 다른 동양제국에 비하여 오히려 흥미 있는 것이라
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은 개국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퇴적한 역
사적 기록을 보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리상 관계에서 다른 제국에 비해

33) 朝鮮史編修會, 1986, 앞의 책, 65쪽.

34) 朝鮮史學會, 1926. 6, 『朝鮮史學』 6, 33쪽.

사회혁명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문화양식이 고래 심한 변화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 우리들 사학연구자가 보면 한없는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들이 조선사를 연구하는 것은 첫째로 국사를 위해서이고, 이미 국사의 일부가 된 조선사를 위해서이다. 또한 동양사 연구상에서 볼 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³⁵⁾

경성독사회는 1927년 11월 경성 永樂町에서 설립되었는데, 일본에서 경성제대 강사로 온 이치무라 산지로[市村瓚次郎](도쿄제대 명예교수)의 권유 때문이다. 도쿄제대 사학과 교수, 동문의 모임인 國史十一日會나 동양사담화회와 같이 학술적 의의를 지닌 간친회를 만들려는 의도에서였다고 한다.³⁶⁾ 즉 다마이 제하쿠[玉井是博]·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소노타[園田庸次郎](경성제대 법문학부),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조선사편수회), 고가 도쿠요시[古賀德義](용산공립중학교)가 조직했다. 처음에는 개인회원의 집에서 모이다가 이듬해 4월부터 정기적으로 매월 셋째 금요일에 경성역의 식당에서 모였다. 이 학회는 경성제대 법문학부와 조선사편수회에서 주최한 단체로 학무국과 경성부의 각급학교 교사가 회원으로 참여했다. 오다는 경성제대 교수 이마니시 류[今西龍]와 함께 장로를, 다보하시 등이 상임감사직을 맡았다. 1933년 8월 이후의 강연회 활동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오다는 1930년 이왕직의 실록편찬위원회에 위촉되고 청구학회를 설립했다. 청구학회는 5월 경성제대 교수, 조선사편수회 회원, 총독부 관리 등과 일반인도 참여한 최대 규모의 학회로 이후 10년간 활동했다. 학회의 설립목적은 “조선 중심으로 하고, 만주를 중심으로 하는 극동문화를 연구하고 보급함”에 있었다.³⁷⁾ 학회 이름을 청구라고 한 이유는 동방국의 범칭이자 고래 조선의 異名이기 때문이다. 학회사업은 ① 『청구학총』 간행, ② 연구자료 및 저술 출판, ③ 강연 및 강습회 개최, ④ 연구여행이다. 『청구학총』은 1930년 8월 이후 1939

35) 朝鮮史學會, 1926. 1, 「發刊之辭」, 『朝鮮史學』 1, 1쪽.

36) 靑丘學會, 1930. 8, 「京城讀史會記事」, 〈彙報〉, 『靑丘學叢』 1, 158~159쪽.

37) 靑丘學會, 1930. 8, 「靑丘學會の創立」, 〈彙報〉, 『靑丘學叢』 1, 157쪽.

년 10월까지 총 30호가 간행되었다. 오다는 이 학회의 회무감독을 담당했는데, 회원도 경성제대 교수, 조선사편수회 촉탁, 총독부 수사관 등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인으로는 홍희·최남선·정만조·이창근·이능화가 평의원이고, 신석호·이병도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오다는 경성제대 교수, 졸업생, 재학생들과 경성제대사학회를 조직하여 회장을 맡아 월 1회 예회를 열고 『경성제대사학회보』를 간행했다. 당시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사학강좌는 국사학 2, 동양사학 2, 조선사학 2, 서양사학 1의 7개 강좌가 설치되었다. 이미 19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재학생이 22명에 달하게 되자 사학연구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조직하게 된 것이다. 오다는 창간사를 게재하여 “연구는 우리의 사명이다. 연구적 정신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연구정신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사·동양사·조선사·서양사를 하나로 한 연구기관을 조직하여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극을 주려고 했다.³⁸⁾

1932년 경성제대를 퇴임한 오다는 강의를 계속하면서 중추원의 구관과 제도조사 사무를 위촉받아 구관을 조사하고 왕조실록을 편찬했다. 그리고 6월 경성에 있는 중등학교 지리·역사를 담당하는 교원들을 중심으로 조선역사지리학회를 창립했다. 창립목적은 지리·역사 양과의 학적 연구 및 교육진흥을 조성하고 아울러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두었다. 사업내용은 연구회, 강습회 및 강연회, 실지답사, 연구발표,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실로 지리·역사 양과의 교육은 여러 의미에서 중시되고 있고, 특히 반도에서는 특수한 의의를 가지며, 항상 식자의 주의를 끌고 있었다. 현재 그 임무를 맡고 있는 전 조선의 동지가 서로 모이고, 나아가 일반 동호의 인사를 규합하여 지리·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관청 기타 단체에도 널리 연락을 취하여 그 목적 달성에 힘쓰려고 하는 의도는 매우

38) 靑丘學會, 1931. 8, 「京城帝大史學會報の發刊」, 〈彙報〉, 『靑丘學叢』 5, 209~210쪽.

시의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회장은 오다, 지리부장은 지질조사소장 다테이와[立岩巖](총독부 식산국), 역사부장은 오타니[大谷勝眞](경성제대 교수), 간사장은 용산공립중학교 교유 고우가[高賀德義], 서무간사는 경성공립상업학교 교유 스즈키[鈴木文康], 회계 간사는 용산공립중학교 교유 스즈키[鈴木駿太郎]이다.

이처럼 오다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활발한 학회활동을 벌이면서 조선사 편찬활동을 하게 된다. 식민사학을 대표하는 학회의 주요 멤버의 한 사람으로 식민사학을 전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특히 오다는 각급 학교의 교사들이 많이 참여한 조선역사지리학회의 회장으로 그들이 역사교육 현장에서 식민사학을 전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렇게 편찬된 조선사 내용에 대해 다음 절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IV. 조선사 인식과 역사왜곡

오다가 조선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목적은 ‘일선융화 결합’을 위한 필요에 서였다. 즉 “조선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조선 그 자체를 이해하는 所以다. 또 조선을 이해하는 것은 조선에서의 모든 사업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자물쇠다”라고 생각했다.⁴⁰⁾ 그는 영원한 내선의 융화결합을 도모하고 공존공영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역사를 연구하고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다음에서 그의 역사인식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고대사와 당쟁사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거기에 나타난 식민사관의 성격을 검토한다.

39) 靑丘學會, 1932. 8, 「朝鮮地歷學會の創立」, 『靑丘學叢』 9, 171~173쪽.

40) 朝鮮史學會, 1923. 5, 「朝鮮史講座 發刊の辭」, 1~3쪽.

1_ 고대사 인식

오다의 고대사 인식은 기본적으로 반도와 ‘支那’는 종속적 관계가 영속했으며,⁴¹⁾ 특히 반도의 북부는 ‘支那’의 영향을 받은 것이 심하고, 남부는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타율성론에 근거했다.⁴²⁾ 그리고 조선사를 어디서부터 서술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인데, 자신이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고대사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하나는 반도와 내지가 가장 관계가 깊었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종래 조선사에서 이 점을 간과하여 일본 역사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조선의 고대사가 ‘支那’ 고사에 의해 서술되고 후세의 고려시대에 편저된 것을 이용하여 하등 근거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⁴³⁾

먼저 오다가 경성제대 교수로 있으면서 저술한 『조선사대계』(1927)에 나타난 고대사 인식에 대해 살펴보자. 이 책은 경성제대의 조선사 강의와 조선사에 관심 있는 일본인은 물론 각급학교의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에도 이용되었다. 그의 왜곡된 조선사 인식이 미친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단군 인식에 대해 보면, 그는 “단군조선이 반도 고대사의 한 시기를 구획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⁴⁴⁾ 즉 근거로 ① 지나의 근본사료에 보이지 않는다. ② 확실한 기사는 위만조선에서 시작한다. ③ 기자건국이 마치 반도 전체의 개국인 것처럼 말하고, 이것을 정통으로 보는 견해는 지나 승배에서 나온 것이라고 제시한다. 그러면서 단군전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고려시대에 일반에게

41) 小田省吾, 1927, 「總序」, 〈上世史〉, 『朝鮮史大系』, 2쪽.

42) 小田省吾, 1927, 「緒言」, 〈上世史〉, 『朝鮮史大系』, 1쪽.

오다는 1910년 7월 병합에 관한 중대한 담판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선일보사 주최로 열린 하기강연회에서 ‘삼한정복의 역사를 일본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日本が三韓を統治せし年數と其治績』, 『朝鮮講演』 1, 47~49쪽). 그리고 1915년 5월에 개최된 공립보통학교 내지인교원강습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강연을 하고 있다(『조선역사』, 『公立普通學校 教員講習會講演集』, 1915, 11).

43) 朝鮮史學會, 1923, 「朝鮮史講座の要項」, 『一般史講義 上古史』, 1~2쪽.

44) 小田省吾, 1927, 「제2장 支那統治以前の北鮮 제1절 總說」, 『朝鮮史大系』, 31~33쪽.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당시 고려 사정을 견문한 서공의 『선화봉 사고려도경』에도 단군에 관한 기록이 없고, 『삼국사기』에도 없는 것이 그 이유라고 지적한다. 만약 단군의 일이 일반에게 알려졌다면 박식한 김부식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오다는 단군전설의 구성은 원래 따로 존재한 묘향산 산신의 연기와 평양선인의 전설이 抱合해서 만들어진 평양의 개벽연기 전설이라고 평한다.⁴⁵⁾ 그리고 고려시대에 주몽을 신성시하여 단군의 아들이라고 본 것은 몽고의 압박을 받은 시대 반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다의 주장에 따르면 단군은 한 지방전설에 불과하며,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가 “단군은 본래 旃檀의 정령이다. 단군은 조선국의 祖先이 아니고 고구려 일국의 조선으로 그 나라의 승려배가 가작한 인물”이라고 말한 것에 동감을 표해 승도의 날조로 왜곡했다.

다음 신라의 건국에 대한 인식이다. 임나일본부가 설치되기 이전 남부지역은 일본인에 의해 통치되었다고 본다. 석탈해는 일본인이며 多婆那國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단바[丹波](현재의 교토)설이 타당하고, 시조 때부터 4대왕을 섬긴 瓠公은 일본인이라고 주장한다.⁴⁶⁾ 일본세력이 한반도에 수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먼저 일본 신화상의 스사노오[素戔鳴尊]가 아들 이다케루[五十猛命]를 데리고 한국에 왕래한 것을 든다. 또 승신천황 때 임나국이 일본에 처음 조공을 했고, 신라 왕자 아메노[天日槍]가 수인천황 때 귀화했다고 본다.⁴⁷⁾

진구황후가 신라를 親征한 것은 조선의 역사가 중에 『삼국사기』에 분명한 기록이 없는 것을 방패로 신라가 일본에 복속한 사실을 부정하려는 자가 있지

45) 小田省吾, 1927, 「제4장 高句麗族의興起 제4절 高句麗의南下'檀君傳說에對して」, 위의 책, 91~109쪽.

46) 小田省吾, 1927, 「제5장 日本府設置以前の南鮮 제3절 新羅의建國とその初期」, 위의 책, 132쪽.

47) 小田省吾, 1927, 「제6장 日本の勢力樹立 제1절 内鮮交通と最初の幸」, 위의 책, 143쪽.

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다.⁴⁸⁾ 그리고 일본의 남선경영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신라·백제의 복속과 임나의 경영은 어느 것이나 진구황후 재위 중의 사업이었고, 실로 우리 국사 및 조선사에 일 신기원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낙동강·섬진강 사이에서 가라제국의 지방 즉 대개 금일의 경상남도를 평정한 것은 종래 신라에게 협박당해 구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한 제 소국을 통할하여 이것을 보호하고, 일면에는 신라·백제의 복속을 확실하게 하여 역시 이것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 제국의 번속적 예의 수행을 감독한 것이다. 이들 제국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것이나 內官家라고 칭한다.⁴⁹⁾

또한 신라가 임나를 침략하고 있는 사이에도 일본에 조공한 것은 사실이며, 임나가 멸망한 뒤에도 오랫동안 조공선을 보내 공손한 뜻을 표해 일본의 노여움을 피하려 한 사실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⁵⁰⁾ 한편 오다는 내선교통에 관한 신화와 전설을 거론하면서 상고시대부터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음을 밝히는 글을 쓰고 있다.⁵¹⁾

첫째, 스사노오의 渡鮮신화: 아마테라스[天照大神]의 남동생 스사노오의 소행이 난폭하여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때 스사노오는 아들 이다케루[五十猛神]를 데리고 신라국에 내려 소시모리라는 곳에 살았다. 소시모리란 조선반도의 어느 곳인지 수수께끼지만, 경주설(惟良高尚, 幣原坦), 낙랑설(建內繁繼), 춘천설(星野恒), 가야산설(和田雄治)이 있다고 소개한다.⁵²⁾

48) 小田省吾, 1927, 「제2절 神功皇后の新羅親征」, 앞의 책, 148쪽.

49) 小田省吾, 1927, 「제3절 日本の南鮮經略」, 앞의 책, 152쪽.

50) 小田省吾, 1927, 「제7장 加羅諸國の滅亡」, 앞의 책, 166쪽.

51) 小田省吾, 1923, 10, 「古代に於ける内鮮交通傳説について」, 『朝鮮』, 33~40쪽.

52) 小田省吾, 1944, 3, 『朝鮮公論』 372, 32~33쪽.

曾戶茂梨는 1940년대가 되면 '내선의 발상지'라는 측면에서 성역화가 추진된다. 『조선공론』은 1943년 12월에 특집호를 편성해서 이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동조론은 황국의 도를 체득하는 첩경”이라는 인식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오다는 素盞鳴尊을 반도에서 숭배하는 데는 이론이 없

둘째, 아메노[天日槍] 전설: 아메노는 반도인으로 처음 일본에 귀화한 신라 인이며 그의 자손도 내지에서 번영했다. 이 전설은 『고사기』에는 應神천황조에 기록되었고, 『일본서기』에는 거슬러 垂仁천황 때다.

셋째, 호공전설: 신라 초기의 중신이 일본에서 온 것은 양자의 관계가 上代에서 얼마나 밀접했는가를 나타낸다.

넷째, 석탈해 전설: 신라 4대왕 석탈해가 그의 중신 호공과 함께 일본인이 라는 것은 크게 주목할 만하다.

다섯째, 연오랑·세오녀 전설: 이 전설의 줄거리는 아메노 전설과 비슷하다.

다음 오다는 데라우치 총독을 기념하는 魯庵기념재단에서 『朝鮮小史』(1931)를 발행하고, 1937년 『증정 조선소사』로 증보 간행했다. 이 책은 상세·중세·근세·최근세로 나누어, 상세에는 고조선과 사군, 삼한과 삼국, 신라의 흥기, 백제 및 고구려의 멸망, 신라일통시대, 신라의 쇠망을 서술했다. 중세는 고려의 창업과 성시, 외척의 전횡과 무인의 발호, 고려와 몽고, 고려의 말로를 서술하고, 근세는 조선의 창업, 조선의 성시, 사회와 봉당, 임진·정유의 난, 정묘·병자의 난, 당쟁의 적폐, 문운부흥과 세도정치를 서술했다. 최근세에는 대원군의 정치, 일한병합, 총독정치를 서술했다.

『조선소사』의 서평을 쓴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는 이 책이 일반 중등학교의 조선사 교과서로 적합하다고 평했다. 그 이유는 하야시[林泰輔]의 『朝鮮通史』 이래 20년 만에 나온 호저로 평이한 문장과 타당한 서술이 돋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⁵³⁾ 오다는 『증정 조선소사』를 간행하면서 은사인 하야시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계승하여 고대 일본의 세력이 한반도에 뻗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조선소사』에 없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충했다.

예를 들면 ① “반도의 석기시대 유물이 쓰시마[對馬], 잇키[壹岐]는 물론 북규슈[九州], 주구쿠[中國], 기나이[畿內], 간토[關東]에 이르는 각 지방의 유물

지만 춘천지역을 성지로 결정하는 것은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주장했다. 素盞鳴尊을 반도에서 떠받들고 ‘신국 일본’의 관념을 반도민에게 배양시키는 것이 더욱 긴절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53) 靑丘學會, 1932, 2, 『朝鮮小史』, 〈書評〉, 『靑丘學叢』 7, 140~141쪽.

과 비슷한 것이 많은 것은 그 사이에 문화적 관계가 밀접한 것은 물론, 고대에 교섭이 깊었던 것을 나타낸다.”⁵⁴⁾ ② 단군에 대해서는 “이 전설은 지금부터 650년 전, 고려의 승려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지만, 정사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것을 헤아리지 않는다. 평양에 현존하는 기차릉, 승령전, 송인전은 어느 것이나 후세에 설정된 것이다.”⁵⁵⁾ ③ 임나에 대해서는 “임나는 경상남도 김해에 해당하며, 일본에서는 이것을 ‘미마나’라 부르고, 그 시조를 김수로라고 했다. 임나는 일찍이 송신천황 때 사신을 보내 內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나라에는 나중에 일본부가 설치되어, 가라제국은 그 통할 아래에 있었다.”⁵⁶⁾ ④ 신라에 대해서는 “이 나라가 일본과 상고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일본신화 및 쌍방의 전설에 따르면 분명하다. …… 석탈해는 倭國의 동북 1천 리에 있는 多婆那國에서 왔다.”⁵⁷⁾ ⑤ 진구황후의 親征에 대해서는 “광개토왕비문의 내용을 가지고 국사에 보이는 진구황후의 신라 친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신후의 친정은 광개토왕보다 조금 이전, 즉 서기 4세기 반경이었고, 당시 고구려는 세력이 점점 강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진구후는 신라를 정벌해서 확실하게 우리나라에 복속시켰다.”⁵⁸⁾ ⑥ 광개토왕비문에 대해서는 “일본은 고구려와 대항한 백제를 돕고, 미약한 신라의 경역에는 군대를 보내 지지하여, …… 고구려와 싸운 것도 광개토왕비문에 보이고 있다. 광개토왕, 장수왕에 이어 80여 년간 반도 경략에 힘을 다했지만, 신라, 백제가 다항히 그 침략을 면해, 기타의 한족 제국도 존재를 보존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로지 일본의 보호에 의해서였다.”⁵⁹⁾ 고 지적했다.

● 이와 같이 오다는 조선이 상고시대 이래 지나와 일본의 지배를 받아 왔다고 보는 타울성론⁶⁰⁾과 상고시대 內鮮의 교류가 밀접했음을 강조하는 일선동조

54) 小田省吾, 1937, 「石器時代の朝鮮半島」, 『增訂 朝鮮小史』, 1~2쪽.

55) 小田省吾, 1937, 위의 책, 「檀君傳說」, 3쪽.

56) 小田省吾, 1937, 앞의 책, 「三韓」, 6쪽.

57) 小田省吾, 1937, 앞의 책, 「新羅」, 7~8쪽.

58) 小田省吾, 1937, 앞의 책, 「三國と新羅との關係」, 11~12쪽.

59) 小田省吾, 1937, 앞의 책.

60) 小田省吾, 1927, 「제9장 韓國의 併合」, 『朝鮮史大系 最近世史』, 252~253쪽.

론에 근거하여 일본이 조선보다 우세했음을 주장한다. 단군은 평양지방의 전설에 불과하며, 임나일본부 설치와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신라 석탈해왕은 일본인으로 이해하고, 일본에 유리하게 광개토왕비문을 해석하여 보충했다. 오다는 내선 양국의 역사에서 가장 유쾌한 것은 두 나라의 관계가 항쟁의 역사로 시작되지 않고 아메노 전설, 석탈해 전설과 같은 혈연관계 전설 또는 친밀한 평화적 교통전설을 가지고 있는 점이라고 말한다.⁶¹⁾ 그리고 조선시대에 반도에 영주하는 투화왜인이 많아져 그들이 반도인과 혼인하여 혈속적으로 혼화되어 금일에는 완전히 양자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1940년대 내선일체의 황민화 정책이 강조되고 있을 때 오다는 두 나라의 혈연관계를 강조하는 일선동조론을 주장하고 이것이 말할 수 없이 기쁜 현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⁶²⁾

2. 당쟁사 인식

오다의 고대사 인식에 보이는 식민사관의 타율성론, 일선동조론과 함께 조선사 인식의 특징은 당쟁사 서술을 통해 당파성론을 주장하는 데 있다. 『李朝政爭略史』(1923)에서 당쟁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당파가 사회와 결혼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고, 『辛未 洪景來亂의 연구』에서 홍경래난까지도 무리하게 중앙의 당쟁과 연결시켰다. 『이조정쟁약사』는 조선사학회에서 주최한 조선사강좌의 강의용으로 작성한 글이다. 먼저 이를 당쟁의 원인, 정치적 영향, 사회적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본다.⁶³⁾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조선을 사대적이고 타율적인 국가로 묘사한다. “한국의 상하는 사대의 구투를 벗지 못하고 당을 만들고 배제를 일삼아, 서민은 도탄에 고통받고 독립국다운 실을 거두지 못했다. 그 사이를 틈타서 외국의 빈 곳을 엿보고 제멋대로 하려는 자가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 제국이 어쩔 수 없이 국운을 걸고 일청·일리의 양 전역을 감행하여, 다행히 빛나는 전과를 얻게 되었다.”

61) 小田省吾, 1941. 2, 「內鮮血緣關係 1」, 『內鮮一體』, 2~4쪽.

62) 小田省吾, 1941. 2, 위의 글, 34~35쪽.

63) 당쟁의 원인과 전개에 대한 설명은 오다가 1933년 충청남도 교육회에서 한 강연회

첫째, 당쟁의 원인은 종래 선조 때 심의겸과 김효원의 반목질사에서 일어난 것을 당파의 기원으로 삼는 설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오다는 기원을 遠因과 近因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遠因은 ① 유학파가 그 주변과 충돌한 데 있다. “무오사화같이 사류 가운데 화를 입은 자가 많았고 나중에도 이러한 의욕이 반복되었다. 사회는 이미 일종의 붕당싸움에서 나온 참극이다. 다만 당쟁과 다른 점은 사회의 성질이 영속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② 외척분쟁과 왕권의 쇠미에 있다. “폐주 연산주 이래 朝士 간에 일어난 항쟁과 왕권의 쇠미는 당파의 분쟁을 양성하게 만든 주요한 원인이다.” ③ 제도상의 결함에 있다. “심의겸, 김효원이 반목하게 된 것은 銓郎에 관한 사사로운 원한에 있다. …… 조선의 중앙정부 조직은 변태적이고, 銓郎은 더욱 심한 경우다. 이런 변태적 제도는 당파를 양성시킨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근인은 ① 사류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이준경이 죽을 때 유차를 올린 것을 보면 동서분당이 일어난 선조 8년보다 3년 전의 정세이다. 당시 얼마나 사림의 사상이 악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② 심의겸과 김효원이 반목질시킨 것에 있다고 보았다.

둘째, 당쟁의 정치적 영향은 선조 8년 동서분당 이래 조선시대의 마지막까지 33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셋째, 당파의 사회적 영향은 ① 일반민심에 미친 영향이 사회 각 계급을 이반시켰고, 붕당싸움은 倫常을 크게 깨뜨렸다. ② 당파가 결혼에 미친 영향으로 노소분당 이전에는 다른 당파 사이에도 통혼을 했지만, 분당 후에는 노·소·남인 사이에 통혼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종래 당쟁의 원인은 심의겸과 김효원의 반목설, 박제경의 『朝鮮政鑑』(1886)에서의 書院說, 시데하라[幣原坦]의 『韓國政爭志』(1907)에 나타난 서원 부정설이 있다. 그러나 오다는 이 설을 반박하고 무오사화 때부터 이미 당쟁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했다. 그 폐해는 330여 년간 당쟁의 분열 속에 일반민심과 각 계급을 이반시켰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이 천주교박해문제나 흥경래난까지도 당쟁과 연관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에서도 볼 수 있다. 충청남도 교육회, 1933, 『朝鮮文化史上より見たる忠南』, 26~38쪽.

오다는 1801년의 천주교박해사건은 시벌 양파의 싸움에서 비롯되어 결코 간단한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것을 증명하는 유력한 사료로 황사영백서를 들고 있다.⁶⁴⁾ 신유박해는 정조가 죽고 순조가 11세로 왕위에 오르게 되자 정순왕후가 수렴정치를 하면서 벽파가 정권을 장악하여 천주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난 것이다. 남인 시파 가운데 천주교인이 많았던 때문이다. 그런데 오다는 그 근거로 황사영백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제1단에는 박해 상황을 기술하고, 제2단에는 당파의 존재를 말하여 박해가 일어난 진정한 원인이 당파 싸움에서 나온 것을 통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⁶⁵⁾ 즉 신유박해가 붕당 간의 파쟁에서 발생했음을 구명하는 데 주 사료로 황사영백서를 이용하여, 당파성론에 입각한 견해를 제시했다.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난도 그 원인을 당쟁과 연결시켰다. 오다는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 원인으로 서북인이 문무 고관에 등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서북인이 등용되지 않았던 이유로는 첫째, 평안·함경도는 남부에 비해 문화의 보급이 크게 떨어져 결출한 인물을 배출하지 못했다. 둘째, 선조 이후 당쟁이 성행하자 서북인 가운데 일당의 牛耳를 잡고 서북인을 이끌 선배가 없었던 점을 들고 있다. 즉 당쟁이 심각하게 되었을 당시 당파에 뿌리를 갖지 못한 서북인이 중앙정계에서 활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순조 때부터 노론의 독점무대가 되어 동양 최초의 18년간은 노론 중의 벽파 천하였기 때문에 서북인은 완전히 절망의 지경에 잠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침 이 시기에 홍경래 반란이 발발한 것은 참으로 무리가 없는 일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홍경래 반란의 원인은 이조의 서북인에 대한 특별한 정책의 결과라고는 보기 어려우나, 사실상 사백 년간 서북인의 불우 실망이 그 소인을 이룬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리고 일이 이에 이르게 한 것은 중기 이후 당쟁의 영향에 의한 것이 크므로 이 점에서 관찰하여 이것 역시 이조 당쟁의 여파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생

64) 小田省吾, 1930. 8, 「李朝朋黨を略叙して天主教迫害に及ぶ」, 『靑丘學叢』 1, 1~2쪽.

65) 小田省吾, 1931. 6, 「朝鮮最近世上の天主教」, 『彙報』, 『靑丘學叢』 6, 178쪽.

각한다.⁶⁶⁾

또한 오다는 홍경래의 가계와 남양홍씨를 분석하면서 노론 벽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거병을 성공시켜 남양홍씨의 세력을 만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홍경래가 과연 그러한 의도를 가졌는지 확실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질적인 당쟁의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난이 일어난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⁶⁷⁾ 한편 다년간 봉당정치의 결과로 일어난 중앙정부의 기강퇴폐와 지방민정의 부패가 인민의 원한을 사고 일반군정이 이완된 점은 홍경래난이 일어나게 만든 보조적 원인이라고 인식했다.⁶⁸⁾

V. 맺음말

오다는 37년 동안 재조일본인으로 살면서 교과서 편찬사업과 경성제대 설립 준비를 통해 식민교육의 기초를 만들고 식민사관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그의 활동 가운데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무국의 편집과장으로 교과서 편찬사업의 책임자로 활동한 점이다.

둘째, 경성제대 예과부장과 법문학부 교수로 제국대학 창설을 주도한 점이다.

셋째, 조선사 연구와 집필활동을 통해 식민사관의 원형을 만들어 전파시킨 점이다.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갖는 오다의 생애와 활동은 도쿄제대에서 근대적 학

66) 小田省吾, 1934, 「제1절 本亂の原因 A. 原因 1. 所謂西北人に對する李朝の政策と黨爭」, 『辛未洪景來亂の研究』, 小田記念事業會, 9~10쪽.

67) 小田省吾, 1934, 「2. 洪景來の家系と南陽洪氏」, 위의 책, 19쪽.

68) 小田省吾, 1934, 「3. 多年の黨爭と國政の廢弛」, 앞의 책, 20쪽.

문방법으로 무장한 국학적 분위기에서 받은 사상적 영향이 기초가 되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진정 국가의 번영을 위해 해야 할 행위는 천황에 봉사하는 것이고, 천황에 대해 충성하는 이유는 국가를 위한 애국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⁶⁹⁾라고 하여, 일본의 국체인 천황제를 조선에 부식시키는 데 일생을 바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교과서 편찬사업을 중시한 것은 ‘내선융합’을 위한 동화주의 식민교육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국제교육을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교육칙어’와 ‘무신조서’에 근거하여 천황과 국제관념을 조선인에게 각인시켜 ‘대일본국민’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의 조선사 연구 및 저술활동도 ‘일선융화’를 위해 조선사를 일반에게 이해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확신에서 이루어졌다. 식민교육에서 교과서는 황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적 역할을 하고 경성제대는 식민통치의 중요한 문화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생각하면 그의 역할이 가볍지 않았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조선사 저술은 3·1운동 이후 한국인의 항일운동에 대항하여 식민사관에 입각한 조선사를 재구성할 필요에서 나왔다. 일선동조론에 근거하여 단군을 부정하고 상고시대 조선의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북부지역은 支那의 지배를 받아 왔다는 타울성론이 만들어졌다. 나아가 조선의 멸망원인도 일본의 침략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파성론에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함이었다. 궁극적으로는 ‘일선융화와 결합’을 위한 필요에서였다.

69) 小田省吾, 1939. 5, 「我が國體の特異性と朝鮮學者の認識」, 『朝鮮』 288, 25~26쪽.

참고문헌

〈자료〉

『靑丘學叢』, 『朝鮮史學』, 『朝鮮史大系』, 『內鮮一體』, 『朝鮮及滿洲』, 『文教の朝鮮』, 『朝鮮地方行政』, 『朝鮮教育研究會雜誌』, 『朝鮮』, 『朝鮮教育』.

〈단행본〉

京城電氣株式會社, 1939, 『今昔三十年座談會』.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年記念誌編輯委員會, 1974, 『紺碧遙かに』.
 京城帝國大學 編, 1926, 『京城帝國大學一覽』, 京城帝國大學.
 工藤雅樹, 1979, 『研究史 日本人種論』, 吉川弘文館.
 駒込武, 1996, 『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合』, 岩波書店.
 小田記念事業會, 1934, 『辛未洪景來亂の研究』, 小田先生頌壽紀念會.
 小田省吾, 1917, 『朝鮮總督府編纂教科書概要』.
 小田省吾, 1924, 『京城帝國大學豫科開設に就て』, 京城印刷所.
 小田省吾, 1937, 『増訂 朝鮮小史』, 京城大阪屋號書店.
 阿部薰, 1935, 『朝鮮功勞者明鑑』, 民衆時論社.
 朝鮮史編修會, 1986,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시인사.
 朝鮮新聞社, 1935, 『朝鮮人士興信錄』.
 忠清南道 教育會, 1933, 『朝鮮文化史上より見たる忠南』.
 和田八千穂, 1945, 『朝鮮の回顧』, 近澤書店.
 이충우, 1980, 『京城帝國大學』, 다락원.
 정선이, 2002, 『경성제국대학연구』, 문음사.

〈논문〉

工藤雅樹, 1980, 「〈日鮮同祖論〉の史學史的意義」, 『關晃先生還曆記念 日本古代史研究』, 吉川弘文館.
 久保田優子, 2002, 「朝鮮總督府初期の日本語教育政策」, 『九州産業大學國際文化學部紀要』 23.
 稻葉繼雄, 2004, 「京城帝國大學豫科について」, 『九州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紀要』 7.
 石川一三夫, 1996, 「地方改良運動と地方體制の再編」, 『中京法學』 30.

- 金性玟, 1989, 「조선사편수회의 조직과 운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 박결순, 2004, 「제3장 일제하 일인의 조선사연구 학회와 역사(고려사)왜곡」, 『식민지 시기의 역사학과 역사인식』, 경인문화사.
- 박광현, 2005, 「경성제국대학 안의 '동양사학」, 『한국사상과 문화』 31.
- 박광현, 2009, 「식민지 '제국대학'의 설립을 둘러싼 경합의 양상과 교수진의 유형」, 『일본학』 28.
- 이만열, 1976, 「일제 관학자들의 식민사관」, 『한국의 역사인식』 하, 창작과비평사.
- 이명화, 1992,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기구변천과 기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 장세윤, 1992, 「경성제국대학의 설립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 장신, 2006,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와 교과서 편찬」, 『역사문제연구』 16.
- 최혜주, 1998, 「시대하라[幣原坦]의 고문활동과 한국사연구」, 『국사관논총』 79.
- 최혜주, 2003, 「메이지시대의 한일관계 인식과 일선동조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7.
- 최혜주, 2005a, 「일제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 최혜주, 2005b, 「한말 일제하 釋尾旭邦의 내한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 최혜주, 2010, 「근대 일본의 한국사관과 역사왜곡」,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ABSTRACT]

Compilation of textbooks and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by Oda Shogo

Choi, Heajoo

For 37 years in Korea, Oda laid foundation for colonial education and created the colonial view of Korean history, through compilation of textbooks and the establishment of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His roles were: 1) taking charge of compilation of textbooks as head of compilation division in the Bureau of Education; 2) leading the establishment of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as head of preparatory course thereof and as professor of department of law and literature; and 3) creating the prototype of colonial view of Korean history and propagating it through the study of Korean history and writing.

It was due to his realization of the urgency of assimilationist colonial education for Japan–Korea assimilation and was for the purpose of national identity education that he thought highly of compilation of textbooks. For such purpose, based on the “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 and the “Imperial Rescript of 1908,” he tried to create “subjects of the Japanese Empire” out of Koreans by indoctrinating Koreans with the concept of emperor and national identity. His study of Korean history and writings resulted from by his conviction that “Japan–Korea assimilation” requires making the general public understand Korean history. Considering that textbooks played an

educating role of creating imperial subjects and that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played an important cultural role of colonial rule, his roles were not insignificant.

Also, his writings of Korean history were necessitated by the restructuring of Korean history on the basis of colonial historical view as opposed to Koreans' anti-Japanese struggles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He denied the existence of Tangun based on the theory of Japan-Korea common origin, and advocated the theory of Koreans' heteronomy that in ancient times southern Korea was colonized by Japan while northern Korea was ruled by China. Further, he attempted to explain the fall of Choson Dynasty not through Japanese invasion but through the theory of Koreans' factionalism. For Oda, the ultimately purpose was to serve the "assimilation and combination of Japan and Korea."

keywords

Oda Shogo, Japanese in Choson, Compilation of textbooks,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the theory of the same ancestor between Japan and Choson, The view of colonialism

영어권 중국사 개설서에 보이는 한국 관련 지도의 실태 분석

계승범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I. 머리말

이 글은 영어로 출판된 중국사 개설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지도들 가운데 한국 관련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례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 준비했다. 제목에는 비록 개설서라고 명시했지만, 반드시 개설서만 조사했다는 뜻은 아니다. 개설서 수준을 넘는 연구서일지라도,¹⁾ 한국 관련 지도를 포함하고 있다면 입수하는 대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런데도 굳이 제목에 '개설서'라고 명시한 이유는 제목을 중국사 관련 '단행본'이라고 할 경우에, 미처 구하지 못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서의 개체 수가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영어로 출판된 중국사 관련 개설서를 중심으로 하되, 한국 관련 지도를 포함하는 연구서들도 일부 포함했다.

※ 투고일: 2010년 1월 27일, 심사일: 2010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0년 2월 28일.

1) 여기서 말하는 '연구서'는 註가 명시된 학술전문도서를 말한다. 단, *Cambridge History of China* 시리즈는 비록 각주가 일부 있지만, 개설서로 분류했다.

영어로 쓰인 중국사 개설서의 지도에 관심을 둔 이유는 서구 학생들의 머리에 이미지로 저장되는 지도의 시각적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학에서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세계역사 코스 가운데 동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은 대개 중국사나 일본사 또는 동아시아사를 택한다. 한국사를 독립강좌로 개설하는 학교는 매우 적은 편이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설 수준의 강좌 이름에는 대개 'survey'나 'civilization'이 포함되며, 수강생 수도 대개 100명을 넘어, 어떤 경우에는 200명을 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할 마음으로 듣는다기보다는 필수선택 과목인 탓에 들으므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잘 치르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각종 교과서에 담겨 있는 전달체계 중에서도 지도처럼 일러스트화 되어 있는 정보의 전달효과는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그런 교과서에 삽입된 지도에 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한국왕조들이 어떻게 표시되는가는 매우 중요하며, 어떤 개설서를 교과서로 공부하는가에 따라 비록 같은 영어권 학생일지라도 한국에 대한 지식이나 인상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더욱이 중화인민공화국(PRC)의 '동북공정'의 연구대상은 비록 동아시아 무대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 홍보대상은 영어권 세계무대로까지 외연을 넓히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어권 세계 학계의 중국사 개설서 실태를 미리 살핌으로써, 예상되는 미래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 첫 일환으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영어로 출판된 중국사 개설서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지도들 가운데 한국 관련 지도들을 총괄적으로 살피고, 그 실태와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 파악하여 국내 학계에 보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조사 내용과 방법

어떤 면으로는 이 연구 조사 작업 자체가 단순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지도 작성 기법과 표기 및 경계선 표시 등 다양한 조사와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경계선 표기 실태: 이 글에서 검토할 내용은 먼저 지도에 나타난 경계(국경선) 표기 실태이다. 물론 근대적 국경 개념이 정착하기 이전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는 국경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만일 차이나(China)의²⁾ 어떤 국가의 영토를 지도에 그리면서 분명한 증거도 없이 한반도를 그 나라의 영토로 표시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류 왜곡이 된다. 비슷한 예로, 몽골제국의 영토를 지도로 그리면서 어떤 개설서는 한반도 전체를 몽골의 영토로 그리는가 하면, 어떤 개설서는 한반도에 고려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비록 근대적 개념의 국경선은 아닐지라도 전통시대의 역사지도에서도 경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해당 지도의 판도가 형성된 시기나 상황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가의 문제도 짚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3세기 중엽(244)에 魏가 고구려에 침입해 고구려의 도읍인 환도성을 점령한 바 있으며, 10세기 초(1010)에는

2) 이 글에서는 ‘중국’이라는 용어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고, 대신에 지정학적 공간 개념으로 차이나(China)라는 용어를 쓸 것이다. 이렇게 용어에 신경 쓰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너무 다양하여 오히려 모호한 탓에, 역사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논의는 계승범, 2009,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53~57쪽 참조. 또한 조사대상인 영어권에서는 모두 ‘China’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China’라는 영어권 단어를 ‘中國’이라는 동아시아어로 기계적으로 바꿀 때, ‘China’의 의미에서 잃는 것이 있고, ‘중국’의 의미로 인해 추가되는 것이 있다. 다른 말로, ‘China’와 ‘중국’의 교집합에 들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의 제목에는 비록 ‘중국’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본문에서는 되도록 ‘차이나’라는 용어를 쓸 것이다. 이는 ‘한국’과 ‘코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한국의 경우에는 초기 고대시기를 제외하면, 영토적 공간으로 보나, 문화적 동질성으로 보나, 인종적으로 보나 ‘한국’과 ‘코리아’ 사이의 간극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그러나 ‘중국’과 ‘차이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遼(거란)가 고려에 침입해 개경을 잠시 점령한 바 있고, 17세기(1637)에도 淸(만주)이 조선에 침입해 한양을 점령한 바 있는데, 모두 도성을 일시적으로 점령했다가 곧 퇴각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해당 제국의 판도를 지도에 그리면서 정확한 시기나 설명을 명기하지 않은 채 (이들테면, ‘3세기 중엽 위나라의 최대 판도’ 따위의 캡션 설명도 없이) 고구려·고려·조선의 영토를 위·요·청의 영토에 일률적으로 포함시킨다면, 이는 단순히 논란의 여지 차원을 넘어 그 자체로 오류요 왜곡이 된다. 따라서 지도상의 경계표시는 매우 중요하고도 첨예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경계 문제는 비단 국경선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영예권 학계의 차이나 역사 전공자들이 차이나와 한국의 경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 역할도 할 수 있다. 사실 차이나 역사를 전공한 서양 학자들 중에는 한국사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경우가 많으며, 지도에 국경을 표시할 때에도 정확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대충 그려 넣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뿐만 아니라 지도상의 국경표시는 차이나 왕조와 한국왕조 사이에 2000년 가까이 있어 왔던 조공책봉 관계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도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요즘 ‘동북공정’에서 조공국의 독립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책봉국(황제국)의 일부로 억지로 포함시키는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지도상에 보이는 국경표시 실태는 그 지도를 작성한 학자가 시대별로 조공책봉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는 지도상의 국경선 문제는 차이나 측 기록에 많이 나오는 屬國·藩國·藩屬·藩屏 또는 外國의 개념 문제와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에 국내의 관련 학계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한국 이름의 로마자 표기 실태: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지도상에 등장하는 한국왕조들 이름의 로마자 표기 실태이다. 예를 들어, 비록 한반도에 근거를 둔 왕조를 지도상에 사실대로 나타낼 경우에도 그 이름을 표기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왕조가 분명함에도 그 이름을 한국어 발음으로 읽어 표기하지 않고, 중국어 발음으로 읽어 표기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고려를 'Koryŏ'로 표기하지 않고 'Kao-li'로 표기한 사례가 이에 속한다. 압록강을 'Yalu River'라고 표기하는 것과 같이, 어떤 지리적 명칭이 이미 중국어 발음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상태라면, 차이나 역사 개설서인 만큼 굳이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한국왕조의 이름을 중국어 발음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사전지식이 거의 없는 영어권의 대학생과 일반인들에게는 심각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런 독자들에게까지 만일 '동북공정' 내용이 미치게 되면, 그들은 손쉽게 수긍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관련 이름의 로마자 표기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표기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음으로써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로 발해의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데, 만주 일대를 唐의 영토로 표시함으로써 발해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발해의 정체성과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그래도 마땅히 표기해야 할 나라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 행위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분석 틀: 이 조사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의 분석을 위해 다양한 통계표를 사용할 텐데, 통계표의 구체적인 양식과 분석 방법은 다음 절에서 실례를 들어가며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다만, 분석 틀을 미리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 제시한 경계(영토) 문제와 로마자 표기 문제를 좀 더 세분하여 통계처리할 것이다. 이를테면 같은 경계 문제라고 해도, 한국의 왕조별로 사례수를 조사함으로써 어떤 시대 어떤 나라의 경우가 왜 자주 문제가 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자 표기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왕조별로 통계를 뽑으면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제가 있는 지도를 담은 저서들이 주로 언제 출판되었는지 살필 것이다. 이는 19세기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150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한국 관련 지도 표기에 시기별로 어떤 흐름이나 변화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북공정'이 본격화된 2000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전후해서 혹시라도 어떤 두드러진 변화가 읽히는지 여부

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제가 있는 지도가 주로 어느 시대에 많이 편중되는지도 조사할 것이다. 분석하기에 앞서 세울 수 있는 가설로는 근현대 시대를 다루는 지도에서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을 것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근대 이후로는 국경이나 경계 의식이 고조되어, 곧바로 국가 간의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폭발성이 강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근대 중에서도 특히 어떤 시기에 문제가 두드러지는지 통계를 통해 확인하고, 그 이유도 아울러 살필 것이다.

Ⅲ. 문제지도의 전체 현황

개설서를 기본 조사대상으로 삼되 연구서도 일부 포함해, 검토대상으로 삼은 단행본은 모두 166종이다. 개설서이지만 한국 관련 지도를 포함하지 않은 것들은 조사는 하였으며³⁾ 문제지도의⁴⁾ 통계처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제외했다. 이 166종을 조사해 파악한 실태와 그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 1〉은 우선 문제지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그 현황을 전체 지도 개수와 전체 단행본 개수와 대비해,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좋도록 표의 내용을 구분했다. 통계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사 가능한 단

3) 이 연구를 위해 참고한 모든 도서 정보는 이 글의 말미에 첨부한 「조사대상 목록」을 참조.

4)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도들을 이 글에서는 일단 ‘문제지도’로 통칭한다. 여기에는 오류 여부가 확실치는 않더라도 의심이 가는, 그래서 학계의 논의가 필요한 지도까지 포함된다. 단, 원 간섭기의 고려를 몽골제국의 영역에 포함시킨 지도들은 일단 제외했다. 또한 ‘Sea of Japan’을 명시한 지도들도 이 글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어 일단 제외했다. 이 문제는 추후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관련 개설서의 지도들을 조사할 때 다룰 예정이다.

〈표 1〉 조사 단행본별 한국 관련 지도의 실태

구분	조사 단행본 수	한국 관련 지도 포함 단행본 수	한국 관련 지도		문제지도	
			개수	권당 평균*	개수	비율(%)
개설서	102	88	435	4.3	127	29
연구서	64	64	133	2.1	34	26
합계	166	152	568	3.4	161	28

* 조사 단행본 대비 평균. 평균과 비율은 반올림

행본들을 최대한 조사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단행본들도 많을 것이다. 그래도 전체 조사대상이 100종을 훨씬 넘는다는 점은 중요하다. 100종이 갖는 의미는 지대한데, 일단 100종을 조사하게 되면, 비록 누락된 자료가 있을지라도, 통계자료를 뽑아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분석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도 좋겠기 때문이다.

〈표 1〉을 일견할 때, 우선 한국과 관련되거나 한반도를 포함하는 지도가 개설서와 연구서 한 권당 각각 4.3개와 2.1개로 차이를 보이지만, 개설서와 연구서를 가리지 않고 보면, 각 권당 대략 한국 관련 지도를 3점 이상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왕조들의 활동무대였던 한반도와 만주가 차이나 방면의 왕조들과 긴 국경선을 오랜 기간 동안 접한 데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 측에서 볼 때 분명히 오류이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지도가 전체 지도의 4분의 1을 넘어 28%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개설서와 연구서가 문제지도의 비율에 근소한 차이를(29%와 26%) 보이기는 하지만,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이는 전공 주제에 대해 연구서를 집필한 저자이건, 자기 전공을 넘어 개설서를 집필한 저자이건, 모두 한국 역사에 관한 지식이 그다지 높지 않거나, 관심도 높지 않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지도들을 유형별로 구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표 2〉는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일견할 때 경계(영토) 관련 문제지도가 압도적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개설서와 연구서가 문제지도의 유형별 비율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주목할 만한 차이는 아니다. 따라서 합계한 결과를 보면, 문제지도 가운데 57%는 국경선 표기상에 문제를 드러낸다. 특히 한 지도에 경계 문제와 로마자 표기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지도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경계표기에 문제를 보이는 지도는 전체 문제지도 161점 가운데 101점(92+9=101)으로, 약 63%에 이른다.

〈표 2〉 문제지도의 유형별 실태

구분	문제 지도 수	경계		로마자 표기		경계/로마자*		모호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설서	127	74	58	28	22	9	7	16	13
연구서	34	18	53	7	21	0	0	9	26
합계	161	92	57	35	22	9	6	25	16

* 한 지도에 경계선과 로마자 표기 문제를 동시에 보이는 지도

로마자 표기의 경우에도 개설서와 연구서 사이에 별다른 차이는 보이지 않는데, 한 지도에 경계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지도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로마자 표기에 문제를 보이는 지도는 전체 문제지도 161점 가운데 44점(35+9=44)으로, 약 27%에 이른다. 이는 앞서 살핀 경계 관련 문제지도의 경우(63%)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연구서 저자 이견, 개설서 저자이견 모두 한국 관련 지명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거나, 인식은 있더라도 한국어 발음에 따른 로마자 표기에 익숙하지 않음을 시사해 준다.

그런가 하면 한국 관련 지도의 내용이 애매모호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할 소지가 높은 지도들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 '모호'로 분류했는데, 도합 25점의 지도가 발견되어, 전체 문제지도 가운데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16%를 차지한다. 모호한 지도의 실례는 5절에서 지도와 함께 상세히 제시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유의 지도도 간과할 수 없다.

IV. 경계 관련 문제지도의 국가별 현황과 분석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시대별·국가별로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표 3>을 만들었다. 이를 일견할 때, 문제지도 사례가 고대로 올라갈수록 많고, 근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사라진 점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이는 국경 개념의 強弱이나 자료의 多寡面에서 시대별로 큰 차이가 있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고대 가운데서도 고조선에서 漢四郡에 이르는 시기에 문제지도가 집중되어 있는 점이 눈에 쉽게 들어온다. 이는 한사군의 위치 비정과 이후의 변화 양상에 대해 서구 학자들이 중국이나 일본 학자들이 집필한 오래된 개설서 수준의 자료에 주로 의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고조선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사례들을 관련 지도를 직접 보며 차례대로 살펴보자.

먼저, 고조선은 戰國 가운데 하나인 燕과 국경을 접하고 수시로 전쟁을 벌였는데, 『史記』에 따르면 서력기원전 4세기 무렵에 燕이 고조선을 치고 요동군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당시의 요동을 현재의 요동으로 볼지라도 燕의 동쪽 경계가 압록강 이남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연의 최대 판도를 그릴 경우라도 그 동쪽 한계를 최대로 압록강까지 그려야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데 연의 영토가 압록강 이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린 지도가 적지 않다. <지도 1>은 연과 고조선의 경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 북부 전체를 연의 영토에 포함한 셈이며, <지도 2>는 明刀錢의 출토를 근거로 삼아 대략 청천강 이북을 연의 영토로 그렸다. <지도 3>은 이보다는 문제의 정도가 덜하지만, 그래도 평안북도 해안 지대를 연의 영토로 그린 점에서는 앞의 지도들과 같다. 특히 이 지도는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에 실린 지도이기에 그 영향력은 보다 크다 하겠다.

이런 식의 오류는 後代의 지도로 그대로 이어져 고조선과 秦·漢의 경계 표시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특히 기원전 138~126년으로 한정된 <지도 4>

〈표 3〉 경계(영토) 관련 문제지도의 국가별·시기별 현황

시대구분	한국국가	상대편 국가	사례 수		
고대	고조선*	燕	10	43	74
		秦	3		
		漢	3		
	한사군	漢·魏	27	14	
	고구려	魏	4		
		前燕·後燕	4		
		北魏	1		
		唐	0		
	백제	북방세력	5	6	
		魏(대방군)	4		
		야마토	2		
신라	唐	2	2		
발해	唐	9	9		
중세 (근세)	고려	遼	4	13	27
		金	9		
		元	0		
	조선	明	7	14	
		淸	7		
근대	대한제국	淸	1	1	1
	일제강점	滿洲國	0		
현대	북한	中國(PRC)	1	1	1
전체(합)			103		

* 고조선에 위만조선 포함

* 한 지도에 복수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사례 수는 〈표 2〉의 합계 수치보다 많음

는 위만조선(전 196~108)이 아직 건재한 시기임에도 한반도 북부 전체를 한의 영토에 포함함으로써 그 오류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이런 문제지도들에 비해, 〈지도 5〉는 역사 기록에 비교적 충실하게 그린 정확한 지도라 할 수 있어 앞의 것들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한사군 관련으로는 한사군 자체에 논쟁이 많은 만큼 문제지도 사례수도 가장 많다. 낙랑군을 중심으로 한 한사군 관련 문제지도를 유형화하면, <지도 6>이나 <지도 7>과 같이 한반도 전체를 한의 영토로 그린 것과, <지도 8>이나 <지도 9>처럼 낙랑군의 남방한계선 안에 현재의 경기도 내지 전라도 일대를 모두 포함한 지도로 대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지도 10>과 같이 한반도 전체 지도를 제시하고 한사군의 위치까지 엉터리로 표기해, 한강 이남의 삼한(辰國)의 존재를 크게 왜곡한 지도도 있다.

이런 오류는 단지 차이나 역사를 전공하는 서구 학자들의 무지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문적 게으름에도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집필하는 책의 지도를 그릴 때 한국사 관련 영어책을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는데도 그런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가 하면 이는 낙랑군·대방군이 삼한의 토착세력과 맺고 있던 관계의 실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낙랑군과 그 주변 토착사회의 정치적 수장 사이의 관계 여하에 따라, 낙랑군이나 대방군의 영역을 지도상에 표기할 때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내 학계의 보다 적극적인 연구 축적이 요망된다.⁵⁾

어쨌든 한사군으로부터 파생된 이런 문제들은 한이 망한 후에 등장한 魏의 영토를 그리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도 11>과 <지도 12>처럼 위의

5) 영어권의 연구서로는 Hyung Il Pai, 2000, *Constructing "Korean" Origins: A Critical Review of Archaeology, Historiography, and Racial Myth in Korean State-Formation Theo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참조. 최근 수년간의 국내 연구로는 尹龍九, 2004, 「三韓과 樂浪의 교섭」, 『韓國古代史研究』 34, 한국고대사연구회; 金泰植, 2004, 「伽倻와 樂浪」, 같은 책; 文昌魯, 2004, 「新羅와 樂浪의 關係-新羅史에 보이는 '樂浪'의 實體와 그 歷史의 意味를 중심으로」, 같은 책; 강중훈, 2004, 「백제의 성장과 對中國郡縣 關係의 추이-『삼국사기』 백제 본기 초기기록의 '樂浪' 관련 기사의 검토를 겸하여」, 같은 책; 김수태, 2004, 「漢城百濟의 성장과 樂浪·帶方郡」, 『百濟研究』 3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고조선계와 한(漢)계의 중족 융합을 통한 낙랑인의 형성』, 사계절; 김창석, 2009, 「한일학계의 고대 한중관계사 연구동향과 과제」,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등 참조.

영토를 그리면서 낙랑의 중심지인 평양 일대는 물론이고, 백제의 중심지인 한강 일대와 심지어 호남지역까지 포함한 지도들이 적지 않게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도 13>과 <지도 14>처럼 비교적 정확히 그린 지도도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국내 및 동아시아 학계에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 경향도 한 원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 기록을 불신할 경우, 백제의 초기 한성시대의 역사가 불안해지고, 그 빈 공간(한강 유역)을 대방군이 채울 소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도 11>~<지도 14>는 국내 학계에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고구려의 경우를 보자. <표 3>에 따르면, 고구려 관련 문제지도는 모두 14건인데, 唐과의 경계에서 문제를 보이는 지도를 찾지 못한 점이 의외라면 의외이다. 이는 당의 해외원정 및 고구려와의 오랜 전쟁은 서구 학계에도 익히 알려져 있기에, 비교적 정확한 지도를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지도 15>는 국내의 역사책에서도 흔히 볼 법한 지도이며, <지도 16>은 당의 방어 시스템을 지도상에 나타냈는데, 요동 일대에 'Koreans'라고 표기함으로써 그곳이 고구려 영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고구려인이 곧 한국인임을 명시한 셈이다.

고구려 관련 문제지도는 당이 아니라, 魏 및 前燕·後燕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추세를 읽을 수 있다. <지도 17>에는 위가 한반도 북부와 남만주 일대를 모두 아우른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아마도 丘儉의 침입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관구검이 곧 철수했고, 이후 고구려가 건재한 점으로 볼 때, 구체적인 시기나 상황을 명시하지 않은 이런 유의 지도는 오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도 18>과 <지도 19>는 전연 및 후연과의 경계에서 심각한 오류를 보이는데, 요동에 더하여 한반도 북부 일대까지 모두 전연이나 후연의 영토인 것처럼 그려져 있어, 고구려의 존재 자체가 무시되고 있다. 이런 지도는 저자의 의도라기보다는 무관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지도 20>에 보이듯이, 고구려와 北魏 사이의 경계는 비교적 정확한 편인데, 그래도 <지도 21>처럼 요동의 일부를 북위에 포함한 문제지도가 없지는 않다.

한편 고구려와 관련해서는 비단 차이나 방면의 왕조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북쪽에 위치했던 왕조나 정치세력과의 경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송화강 유역 부여의 존재 및 고구려의 부여 병합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지도 22>는 그 한 예로, 5~6세기 무렵의 아시아 지도를 그리면서 고구려의 머리 부분(송화강 유역)을 짝둑 잘라내어, 한국인이 보기에는 매우 낮설게 보이며, 이는 심각한 오류이다. 이는 <지도 23>에 보이듯이 비단 부여(Fu-yü)의 존재 때문만이 아니라, <지도 24>에 보이듯이 말갈(Mohe)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의 ‘동북공정’ 문제를 고려할 때, 말갈이 다수를 점한 발해의 문제와 관련되기에, 이런 지도에 대해서는 어느 학자 개인이 아니라 학계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발해를 한국어 발음으로 로마자 표기한 유일한 예가 바로 <지도 24>라는 점이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발해를 표기한 거의 모든 지도가 중국어 발음을 따라 표기한 점을 감안할 때, 말갈 문제에 대해 국내 학계의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⁶⁾

한국의 고대 삼국 가운데 차이나 방면의 왕조와 국경을 접한 나라는 주로 고구려였기에,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는 문제지도 사례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앞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지도 11>이나 <지도 12>와 같이 초기 백제 문제가 명쾌하게 풀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백제의 영토를 지도상에 나타내는 데 <지도 23>에서 보듯이, ‘임나일본부’설의 영향을 받은 서구 학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선을 그어 한반도 남부를 일본(야마토)의 영토로 그린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도를 그린 저자들은 예전의 책에만⁷⁾ 의존했을 뿐, 이 주제에 대해 새로운 공부를⁸⁾ 전혀 하지 않았음

6) 논문 수는 적지 않으나, 아직 단행본 급은 극히 적어, 문안식, 2003, 『한국 고대사와 말갈』, 해안 등 두어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7) Yoshi Kuno, 1937, *Japanese Expansion on the Asiatic Contin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17~254.

8) Walter Edwards, 1983, “Event and Process in the Founding of Japan: The Horserider Theory in Archaeological Perspective,”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 9, No. 2(Summer), pp. 265~295; William Farris, 1996, “Ancient

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그러면 신라는 어떻게? 삼국시대의 신라는 차이나 방면의 왕조와는 직접 국경을 접할 일이 없었고, 나당전쟁 이후 통일신라 시기에도 당과 특별한 일이 없어, 지도상의 오류가 없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도 25>처럼 통일신라(한반도) 전체를 당의 영토에 포함시킨 지도가 있는가 하면, <지도 26>처럼 신라를 당에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경계선을 그어 구분한 지도도 있다. 그러가 하면 <지도 27>처럼 당의 판도를 그리되 'tributary regions'라고 표시한 한반도에 Koreans라고만 적음으로써 왕조국가로서의 신라의 존재를 은근히 무시한 지도도 있다. 특히 전체 지도의 표현상, 한반도 전체가 마치 당에게 정복된 것처럼 나타났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지도들이 서구 학계에서 양산된 데에는 당이 신라를 '일방적으로' 계림도독부로 삼았다는 (실제로 통일신라의 왕들은 당으로부터 '도독'의 책봉도 받았음) 점이 큰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 같다. 따라서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에 대해 국내 학계의 정치한 연구가 절실하다 하겠다.⁹⁾

발해의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발해와 국경선 문제를 야기할 나라라면 唐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지도는 모두 경계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발해의 존재를 아예 지도상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도 28>과 <지도 29>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정확한 시기의 명시 없이 당의 판도를 그리면서 막연히 만주 일대 전역을 당의 판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해라는 이름을 지도상에 표기하더라도 거의 다 한국어 발음

Japan's Korean Connection," *Korean Studies*, V. 20, pp. 1~22; Chongsik Lee, 1983, "History and Politics in Japanese-Korean Relations: The Textbook Controversy and Beyond,"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pp. 78~89.

- 9) 최근의 관련 연구로는 김한규, 1999, 『한중관계사 I』, 아르케, 298~338쪽; 권덕영, 2006, 「羅唐交涉史에서의 朝貢과 冊封」,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김종복, 2006, 「南北國의 冊封號에 대한 기초적 검토」, 『역사와 현실』 61, 한국역사연구회;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등을 꼽을 수 있으나, 나당관계의 실상이 다층적이기에 명쾌한 설명은 여전히 쉽지 않다.

인 Parhae가 아니라, 중국어 발음인 Po-hai(Bohai)로 표기하는 현실도 발해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국내 학계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유일하게 Parhae라는 표기를 명시한 지도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앞에서 보았던 <지도 24>이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는 발해는 한국어 발음으로 표기했지만, 말갈(Mohe)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괄호 안에 Parhae라고 씌으로써 발해가 말갈 국가임을 단정하고 있다. 'Bohai'에 'Tungus Kingdom'이라는 부연 설명을 붙인 <지도 30>도 마찬가지 사례이다. 이런 점은 발해의 역사적 정체성(historical identity)과 인종적 정체성에 대해 국내 학계의 정치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보여준다.¹⁰⁾

고려의 경우는 어떨까? <표 3>을 볼 때 고려와 관련해 의아한 것은 몽골(元)과의 경계에 대한 문제지도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다만, 그것은 1270년 이후의 고려(한반도)를 元의 영토에 포함시킨 지도들을 이 글에서는 일단 문제 지도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도 31>이나 <지도 32>처럼 몽골제국의 판도를 그리면서 고려를 분명한 외국으로 명시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지도 33>처럼 한반도 전체를 몽골제국에 포함해 그리는 것이 대세이다. 이는 원과 고려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말로 원과 고려 사이에 유지된 조공·책봉 관계의 실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해당 전공자들의 보다 정치한 연구와 설명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¹¹⁾

10) 단행본의 경우에, 발해사 전반에 대해서는 송기호, 1995, 『渤海政治史研究』, 일조각; 김종복, 2009,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등을, 발해의 건국 주체세력에 대해서는 임상선, 1999,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신서원을, 발해사 관련 쟁점들에 대해서는 韓圭哲 외, 2000, 『渤海史의 綜合的 考察』,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이효형, 2009, 『동아시아의 발해사 쟁점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재단을,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중국의 발해사 연구: 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참조.

11) 張東翼, 1994, 『高麗後期外交史研究』, 일조각; 沈載錫, 2002, 『高麗國王 冊封研究』, 해안; 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익주, 2009, 「고려·몽골 관계사 연구 시각의 검토-고려·몽골 관계사에 대한 공시적, 통시적 접근」, 『한국중세사연구』 27 외에도 많은 연구가 있으나, 고려와 몽골제국(元)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고구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려의 경우에도 경계 문제가 두드러지는 시기는 대개 초기에 해당된다. 특히 고려와 거란 사이의 분쟁에서 강동6주(평안북도 서부해안지대)는 거란의 1차 침입 때(993) 徐熙(942~998)의 담판을 통해 고려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이후에도 거란과 고려 사이에 강동6주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끊이지 않았으나, 실제로 점유한 쪽은 주로 고려였다. 그런데 강동6주를 고려의 영토로 표기한 지도는 매우 적다. <지도 34>에 보이듯이 강동6주 지역, 더 나아가 평안북도 전역, 곧 청천강 이북을 모두 거란의 영토로 나타낸 지도가 대세를 이룬다.

이런 오류는 <지도 35>에 보이듯이 금과 고려의 경계를 그리는 데에도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나는가 하면, 심지어 <지도 36>(1973)처럼 한반도 전체를 금의 영토로 그린 얼토당토않은 지도도 있다. 특히 <지도 35>(2006)와 그와 비슷한 지도를 그린 저자들은 <지도 37>이 수록된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1994)조차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지도를 그린 무지함과 무책임함을 스스로 드러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비교적 국경이 분명해지므로 오류문제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 또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 먼저 조선과 명 사이에는 <지도 38>처럼 조선의 한반도 전역이 명의 영토로 표시된 어처구니없는 지도가 있다. <지도 39>도 비록 한반도 전체가 지도상에 보이지는 않지만, 명과 조선의 국경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평안도와 황해도)가 명의 영토인 것처럼 그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도 40>과 <지도 41>처럼 마치 명의 영토가 만주 일대를 모두 아우르고 연해주 해안까지 뻗었을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지도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명의 기록에 보이는 衛를 실제의 영토로 오해한 데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겠다.¹²⁾ 특히 <지도 41>은 명의

12) 明은 요동과 만주 일대에 衛라는 군사행정 단위를 100여 개 이상 설치했는데,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遼寧省 밖에 위치했던 모든 위는 겉으로는 명에 편입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여진 부족장들의 독립적인 정치체였다.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530~539쪽 참조. 뒤에 후금을 건국하는 누르하치의 建州衛도 그런 독립체 중 하나였다. 明代 만주 지역의 衛에

영토를 압록강 이남에까지 표기함으로써 분명한 오류를 드러낸다. <지도 42>처럼 정확한 지도와 비교해 볼 때, 이런 문제지도들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런 현상은 조선과 청의 경계표시에도 대체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지도 43>과 같이 조선(한반도) 전체를 청의 판도에 포함한 어처구니없는 지도가 있는가 하면, <지도 44>처럼 조선의 북방 경계를 고려시대의 그것처럼 평안도 해안지대에서 잘라버리고 그 以東과 함경도 일대를 청의 판도에 포함시킨 지도도 있다. <지도 45>는 조선과 청의 경계를 아예 청천강으로 표기한 사례이다. 이런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오류 지도를 버젓이 그려 출판하는 저자들은 자신의 무식함과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것 외에도, ‘제국’의 주변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일천한 ‘현대판 제국’ 학자들의 오만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지도 46>처럼 비교적 정확한 지도와 비교해 볼 때 더욱 크게 드러난다.

이로써 본다면 어떤 공간지대가 아니라 분명한 선으로서의 국경이 공고해지기 이전, 곧 전근대 차이나 관련 지도에 너무나도 많은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의 문턱에서 국권상실의 아픔을 겪고, 또한 그 후유증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역사책에 보이는 이런 지도들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절실하다 하겠다.

대해서는 Frederic Wakeman, Jr., 1985, *The Great Enterprise: The Manchu Reconstruction of Imperial Order in Seventeenth-Century China*, Vol. 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3~37도 아울러 참조.

V. 로마자 표기와 모호한 지도의 현황과 분석

이번에는 로마자 표기상의 문제를 살펴보자. 상세한 분류와 實例는 <표 4>에 제시했다. 이를 일견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느 특정 시기나 왕조 이름에 관계없이 로마자 표기상의 문제가 거의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고조선에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국왕조의 이름이 중국어 발음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된 사례가 보인다. 심지어 차이나 방면의 왕조와 직접 경계를 접한 시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백제와 신라도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된 사례가 적지 않다.

<표 4> 문제가 되는 로마자 표기 관련 사례들

국명과 지명	한국어 발음표기	중국어 또는 일본어 발음표기 사례	
국명	고조선	Ko Chosŏn	Chao-Hsien(Korea)
	辰(삼한)	Chin(Samhan)	Chen
	부여	Puyŏ	Fu-yŭ, Fuyu
	고구려	Koguryŏ	Kao-li
	백제	Paekche	Pai-chi
	신라	Silla	Sin-lo, Xinluo, Hsin-lo
	발해	Parhae	P'o-hai, Po-hai, Bohai, Pohai
	고려	Koryŏ	Kao-li, Gaoli, Kaoli
	조선	Chosŏn	Chaoxian, Chōsen, Chosen, Chaohsien
지명	서울(한양)	Sŏul	Sŏul, Jingcheng, Hancheng
	평양	P'yŏngyang	Ping-yang, Lolang, Dingxiang, Pingrang
	부산	Pusan	Fusan
	의주	Ŭiju	I-chow
	개경	Kaegyŏng	Kaicheng
	원산	Wŏnsan	Gensan(Yuanshan)
	청진	Ch'ŏngjin	Seishin(Qingjin)

〈표 2〉에서 확인한 것처럼 한 지도에서 경계와 로마자 모두에서 문제를 보이는 지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계는 비교적 정확히 그리고도 로마자 표기에서 문제를 보인 지도도 적지 않다. 한 예로, 5~6세기 무렵 선비족이 세운 北魏의 판도를 그린 〈지도 23〉에서는 고구려·백제·신라의 로마자 표기를 각각 Kao-li·Pai-chi·Sin-lo로 하였다. 특히 이 지도는 당시 한반도의 서남부 일대(지금의 전라남도 지역)를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고는 “Region of Japanese influence”라고 표기함으로써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임나의 위치를 아무런 고증 없이 편의적으로 표시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로마자 표기에서 논란의 여지가 큰 사례는 단연 발해의 경우이다. 唐의 판도를 그린 〈지도 47〉에서 발해와 신라의 강역을 비교적 정확히 표시하고서도 발해를 Po-hai로 표기한 것은 좋은 예이며, 이런 사례는 〈표 4〉에 보이듯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다만 발해의 로마자 표기 문제는 발해국 및 말갈의 정체성 문제와 직결되는 탓에, 중국어 발음에 따른 로마자 표기를 무조건 오류라고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학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망된다 하겠다.

한편, ‘조선’의 표기에서 〈지도 50〉처럼 중국어 발음을 따른 Chaoxian과 일본어 발음을 따른 Chōsen을 둘 다 표기하면서도, 정작 한국어 발음인 Chosŏn이라는 표기는 없이 괄호 안에 Korea라고만 표기한 지도도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지도가 1999년에 출간된 책에 실려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도시 이름을 중국어 발음에 따라 로마자 표기할 예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지도를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의주를 I-chow로, 평양을 Ping-yang으로, 서울을 Söul로 표기한 경우¹³⁾를 들 수 있다. 이 책의 출판연도가 1901년임을 감안한다면, 당시 대한제국에 대한 단순한 무지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오히려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책에서도 비슷한 오

13) E. H. Parker, 1901, *China: Her History, Diplomacy and Commerce from the Earliest Times to the Present Day*, London: John Murray, p. 81.

류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한 예로, 한국 학계에도 널리 알려진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 1907~1991)는 한국의 도시 이름과 왕조 이름을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한 대표적인 인물로, 심지어 1992년에 출판된 개설서에 수록된 〈지도 49〉를 보면, 그의 저술 태도는 문제가 심각하다. 평양과 부산을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한 것은 그렇다 해도, 서울을 Jingcheng(京城)으로 표기한 것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지도를 그렸는지 심히 의심이 간다 하겠다. 하다못해 주위 다른 교수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저술 태도의 안일함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이 지도는 그의 사후에 출판된 1998년과 2006년판에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실려 있어 그 심각성은 더 이를 나위도 없다.

이번에는 지도 자체가 모호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지도의 사례를 살펴보자. 〈지도 50〉은 後漢代 인구분포를 지도에 그리면서 경계표시를 전혀 하지 않아, 마치 한반도 전체가 漢의 강역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지도 51〉은 차이나의 도시들을 지도에 나타내면서 역시 한국과의 경계표시를 하지 않아 오해를 야기한다. 이런 유의 지도는 이 외에도 매우 많다.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역시 낙랑군 문제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앞서 다루었던 낙랑군과 그 주변 토착사회의 관계에 대한 치밀한 이해와 그에 따른 낙랑군 영역의 설정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도 52〉는 전근대 차이나 왕조들의 강역을 하나의 지도에 표시하면서 요동과 한반도 일대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Jurchen으로 표기함으로써 마치 전근대 내내 요동과 한반도 일대가 여진족의 활동무대인 것 같은 심각한 오해를 야기한다. 이런 지도들은 솔직히 모호하다기보다는 오류라 해도 좋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하겠다. 이 또한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대상에만 관심을 둘 뿐, 그 ‘주변’ 상황에는 무지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서구 강대국 학자들의 ‘제국적’ 태도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지도 53〉은 1900년의 의화단사건을 다룬 연구서에 “Spheres of Influence in China, c. 1900”라는 제목으로 실린 지도인데, 한반도 전체가 북쪽 절반은 러시아 영향권으로, 남쪽 절반은 일본 영향권으로 그려짐으로써

사실상 한반도가 분할된 것처럼 그렸다. 또한 지도의 제목에 “in China”라고 해 놓고 한반도를 아무런 구분 없이 차이나에 포함시킨 후에 러시아 영향권과 일본 영향권으로 나눔으로써, 1900년 즈음에 한반도 전체가 마치 차이나의 일부인데, 淸國이 쇠퇴함에 따라 한반도가 러시아와 일본에게 분할 점령된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1900년 무렵이라면 청국이 이미 청일전쟁(1894~1895)의 패배로 조선에서 완전히 물러간 이후이니, 당시 한반도는 청국의 일부도 아니었을 뿐더러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는 1905년보다는 이전이므로, 국제무대에서 엄연히 독립국으로 존재하던 시기이다. 1896년부터 1903에 이르는 시기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한반도 분할 논의가 몇 차례 있기는 했으나, 그것은 실현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의 영향력이 한반도의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삼아 남북으로 분명하게 대립하는 구도도 아니었다. 의화단사건을 전공할 정도의 학자가 동시대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의심이 갈 정도로 심각한 지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이렇게 모호한 지도가 전체 문제지도의 16%를 점하는 현실은 국내 학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Ⅶ. 문제지도의 출판시기별 현황과 분석

이번에는 오류지도가 포함된 저서의 출판시기별 추이를 살펴보자. 이는 혹시라도 ‘동북공정’이 본격화된 2000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전후하여 어떤 차이를 읽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150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한국 관련 지도 표기에 어떤 흐름이나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표 5〉에 따르면, 시기별로 현재에 가까이 올수록 문제지도의 비율이 대체

〈표 5〉 문제지도가 포함된 저서의 출판 연도별 추이

시기	조사 저서 수	한국 포함 지도 개수	문제지도		문제지도 유형			
			개수	비율 (%)	경계	로마자	경계/ 로마자	모호
~1899년	4	2	1	50	0	1	0	0
1900~1949년	7	19	10	53	5	3	1	1
1950년대	8	26	13	50	8	4	1	0
1960년대	10	31	12	39	8	3	1	0
1970년대	29	90	24	27	13	3	2	6
1980년대	27	75	21	28	12	2	2	5
1990년대	28	168	41	24	24	14	0	3
2000년대	53	157	39	25	22	5	2	10
합계	166	568	161	28	92	35	9	25

로 감소하는 추세를 읽을 수 있는데, 1960년대에 그런 추세가 시작되어 1970년대에도 강하게 이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마도 닉슨독트린에 이은 美中修交 분위기와 관련하여 서구인들의 중국(PR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괄목할 만한 낙차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며, 2000년을 기점으로 해도 별다른 차이 없이 대개 20% 중후반대의 빈도로 문제지도를 꾸준히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공정’과의 상관성을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조사·천착하고, 또한 長期的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반드시 시기상의 변수만이 아니라 지도가 나타내고자 하는 시대상의 변수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어떤 시대의 판도를 그린 지도인가에 따라서도 오류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바에 따르면, 근현대 관련 지도에는 오류 빈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고고학 관련 지도도 마찬가지였다. 문제가 되는 지도의 대부분은 전 근대 역사시대 관련 지도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데, 이는 앞서 살핀 〈표 3〉과 〈표 4〉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1970년대 전반 미국

과 중국(PRC)이 수교를 맺은 시점을 전후해 급증한 중국사 관련 도서들 대부분이 근현대 관련 내용이고, 실제로 근현대 판도의 지도만 제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1960~1970년대에 나타난 문제지도 비율의 감소 현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렇지라도, 문제지도의 비율이 여전히 25%에 달하는 사실은 차이나 역사를 전공하는 영어권 학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 및 지도에 대한 꼼꼼함이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그들의 학문적 자세와 집필태도 문제 때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지식을 대개 중국과 일본의 자료나 학자들을 통해서 얻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이렇게 된 데에는 영어로 쓰인 한국사 개설서가 너무 부족한 현실도 주요 원인으로 꼽아야 할 것이다.¹⁴⁾

VII. 맺음말 – 문제점과 향후 과제

영토·국경·경제 등과 같은 말은 근대적 개념이 강하게 투영된, 심지어는 포스트모더니즘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용어로, 차이나의 황제가 곧 천자라는 의

14) 1970~1980년대에 국내의 한국사 개설서들 가운데 일부가 영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으나, 그 내용이 세계 학계와 소통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면이 있어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이기백의 『韓國史新論』(일조각, 1976)을 Edward Wagner가 번역한 *A New History of Korea*(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가 그래도 가장 널리 보급되었으나, 그것도 번역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정과 삭제 한 뒤에야 가능했다. 또한 내용과 문체가 쉽지 않아 일반 개설서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의 한국사 전공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Korea, Old and New: A History*(Seoul: Ilchogak, Publishers,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를 출판해 영어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설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되어 오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다른 개설서가 나오지 않는 실정은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식이 국제질서의 바탕을 이루었던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개별 국가의 영토나 경계보다는 오히려 천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四海라는 개념이 더 많이 쓰였다. 청이 들어선 후에 백두산정계비 문제 등 경계(영토) 관련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경계 조사의 책임을 맡은 당사자들의 문제의식이 투철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그 경계라는 것이 명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근대적 의미의 국경선을 구획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조사 연구에서 국경이나 영토를 중시한 이유는 현재 모든 개설서에 보이는 지도들이 근대적 개념의 경계로서 과거의 모든 왕조(국가)들의 강역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는 현재 중국(PRC)의 ‘동북공정’ 문제와도 불가분의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향후의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나 영토 표시에 문제를 보인 지도들을 한국의 왕조들을 중심으로 해 시기별로 묶어 보면 고조선·고구려·백제·신라·발해·고려·조선 등 거의 전 시기에 걸쳐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왕조의 상대방이었던 차이나 방면의 주요 왕조들과 그 내용을 시기별로 보면 ① 전국시대 때 燕의 동쪽 한계선 표기 현황(고조선의 서쪽 경계 설정 문제) ② 漢의 동쪽 한계선(한사군의 남방 한계와 漢代 만리장성 동쪽 끝의 위치 문제), ③ 魏의 동쪽 한계(관구검의 침입과 고구려의 영토 문제), ④ 唐의 동쪽 한계(발해의 강역과 통일신라의 강역 표시), 이 연구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으나, ⑤ 몽골제국의 강역(고려를 직할영토로 보는가, 조공국으로 보는가 문제), ⑥ 明·淸의 강역(조선을 명·청의 강역에 포함시키는 문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이는 단지 지도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공책봉 관계의 실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내 학계의 정치한 연구성과가 더 축적되어야 하리라 본다. 책봉과 조공의 의미와 시기별 실상에 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의 관심과 후원에 힘입어 최근에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그 연구들이 축적되어 큰 힘을 발휘하는 모습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런 성과를 국제무대에서 활용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한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은 차이나 역사 전공 서구 학자들에 대한 자극 차원에서, 국내 연구성과의 국제적 활용이 시급하다 하겠다.

셋째, 로마자 표기 문제를 확실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사실, 경계 문제는 자료의 부족과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국제적 경계선 개념이 그다지 명확하지 않았던 탓에 논란의 여지가 많아, 정확한 규명이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로마자 표기 문제는 반드시 짚을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국가를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여, 향후 만일이라도 이런 현실이 ‘동북공정’ 문제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라도 내게 된다면, 한국으로서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학계만의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리라 본다.

넷째, 서구 학자들이 한국과 관련해 문제지도를 양산해 내는 배경 내지는 원인(근거)의 출처를 캐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떤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미 드러난 오류들을 하나하나 잡아내어 수정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연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학계에서도 역사지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필요가 절실하다.

다섯째, 이와 관련하여 지도상의 어떤 오류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오류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므로, 그 역할을 할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국내 학계에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등교과서의 지도를 조사하거나 문제 삼은 개별 논문들이 있을 뿐,¹⁵⁾ 학계 차원의 종합적이고도 정치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학계의 분위기를 보아도, 한국의 각 왕조들이 차이나 방면의 왕조들과 어디에서 서로 경계를 접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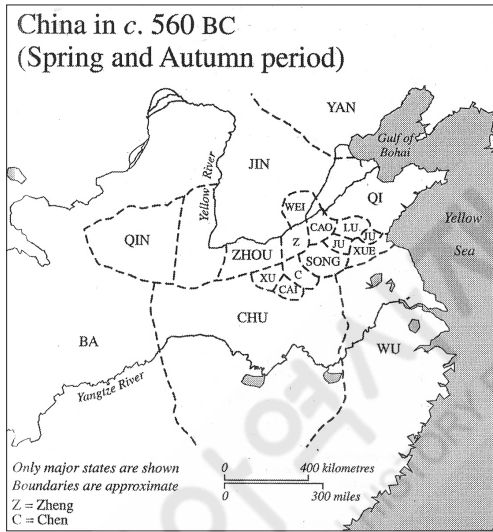
15) 최근에 발표된 것으로는 강종훈, 2008,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린 역사 지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歷史教育』 106, 역사교육연구회; 이부오, 2009, 「교육 과정 시행 이전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고대 영토사 인식의 변화」, 『忠北史學』 23, 충북대학교 사학회 등 참조.

가에 대한 관심도 그다지 높지 않고, 따라서 관련 연구성과의 축적도 충분하지 못한 형편이다. 그 결과 논증 과정이 그다지 정치하지 않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나 역사부도에 실린 지도가 마치 한국 학계의 통론인 듯이 사용되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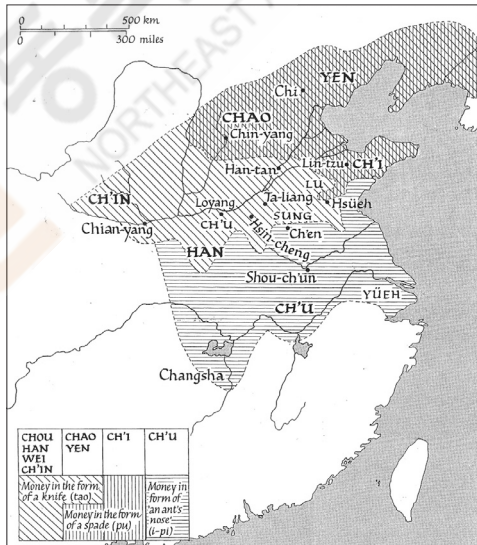
여섯째, 한국의 왕조들 가운데서도 특히 발해 관련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재차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폈듯이 발해를 하나의 국가로 표기한 지도보다 아예 표기를 하지 않은 채 唐의 판도에 포함시킨 지도가 더 많은 실정이다. 설사 표기하더라도 'Parhae'라는 한국어 발음은 거의 무시하고, 대개 중국어 발음에 따라 Pohai로 표기하는 실정이다. 발해의 역사적·인종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견해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중국사 개설서의 허다한 지도에서는 발해를 일방적으로 당(차이나)에 포함하는 현실이다. 그러면 서도 영어권 대학에서는 발해를 반드시 한국사 시간에만 다룰 뿐, 차이나 역사 시간에는 전혀 다루지 않는 현실도 아이러니하면 아이러니다. 어쨌든 발해에 대한 국내 학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연구성과도 영어로 발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어떤 주제에 대한 선점효과는 세계 학계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조사를 마친 저서는 모두 166종인데, 목록으로는 확보했으나 본 연구기간 동안 여러 이유로 형편이 닿지 않아 조사하지 못한 것도 20여 종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약 150년 사이에 영어로 출판된 중국사 관련 개설서는 앞으로도 찾으면 더 나올 것이다. 본 연구는 166종으로 일단 마무리를 짓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여 공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분석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럴 경우 그 결과물을 아예 단행본으로 묶어 학계에 보고하는 것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비단 중국사 개설서만이 아니라 영어권에서 출판된 동아시아사 개설서, 일본사 개설서, 한국사 개설서, 세계사 개설서 등으로도 조사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영어로 쓰인 자료들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서구사회의 주요 언어로 쓰인 자료들도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첨부 1〉 영어권 중국사 개설서에 보이는 한국 관련 지도의 실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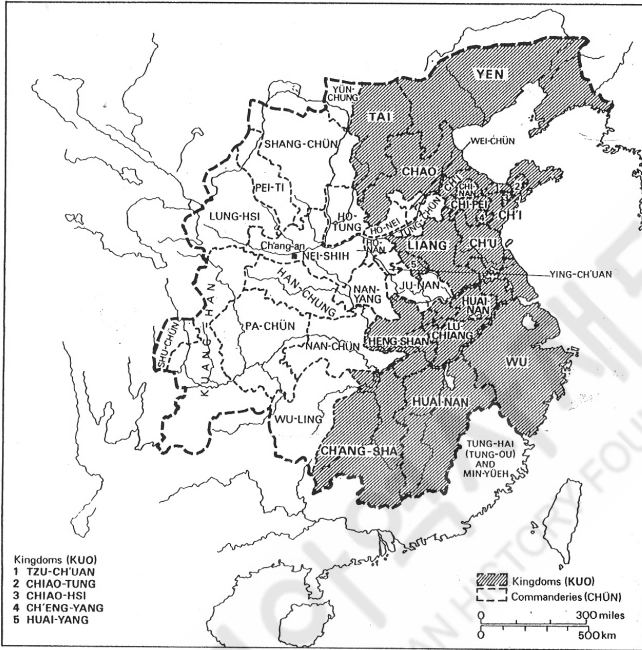


〈지도 1〉 고조선-연, Haw, 2002, 60쪽



Map 6 The distribution of the different sorts of coin in the age of the Warring States

〈지도 2〉 고조선-연, Gernet, 1972, 78쪽



Map 5. The Han empire, 163 B.C.

<지도 3> 고조선-연, CHC v1, 1986, 1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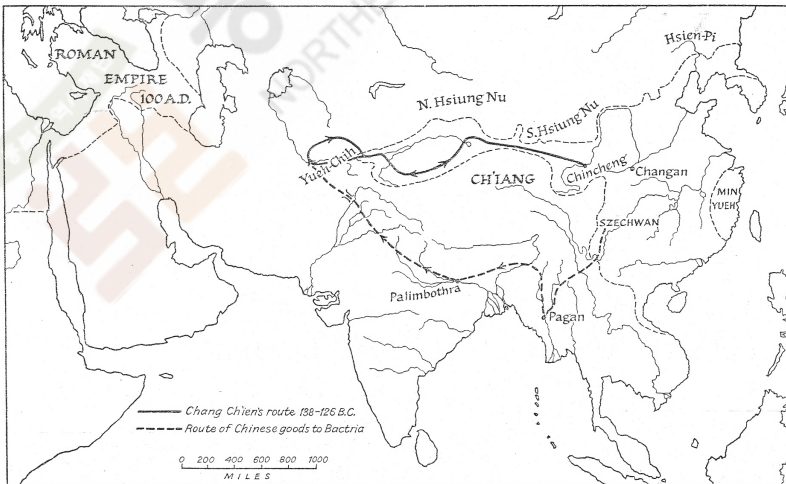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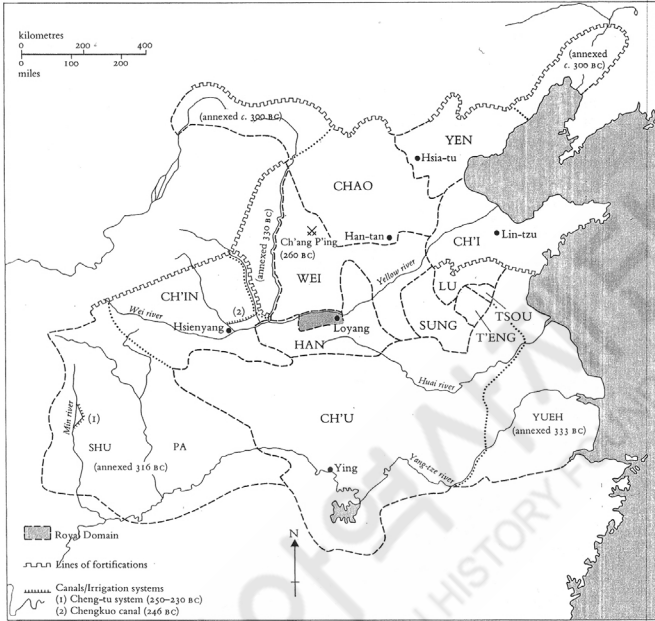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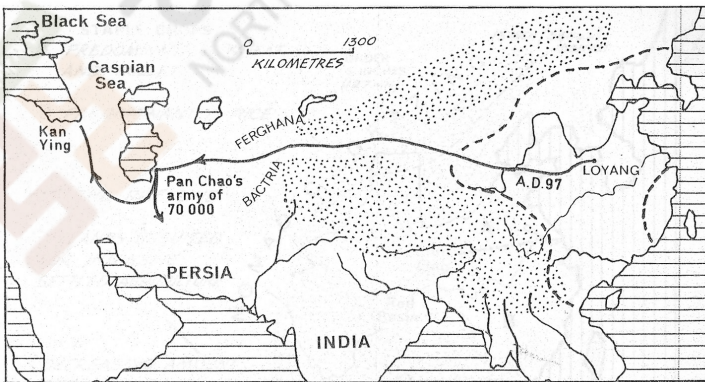
FIG. 30. Chang Ch'ien's route 138-126 B.C

<지도 4> 고조선-한, Tregear, 1965, 85쪽



Chan Kuo China (481-221 BC) The Seven States, the major contenders for supremacy, were Ch'i, Yen, Chao, Han, Wei, Ch'in and Ch'u.

〈지도 5〉 고조선-연, Cotterell, 1981, 102쪽



〈지도 6〉 한사군, Cotterell & Morgan, 1975, 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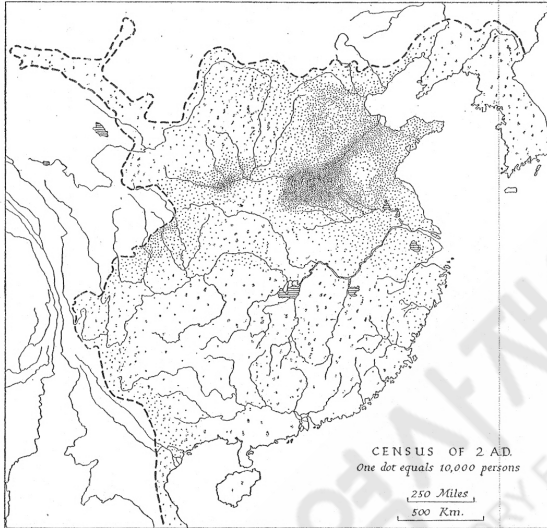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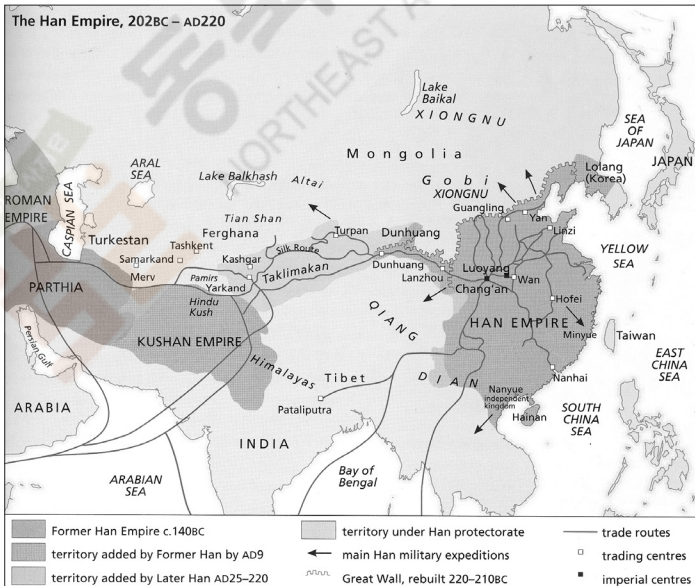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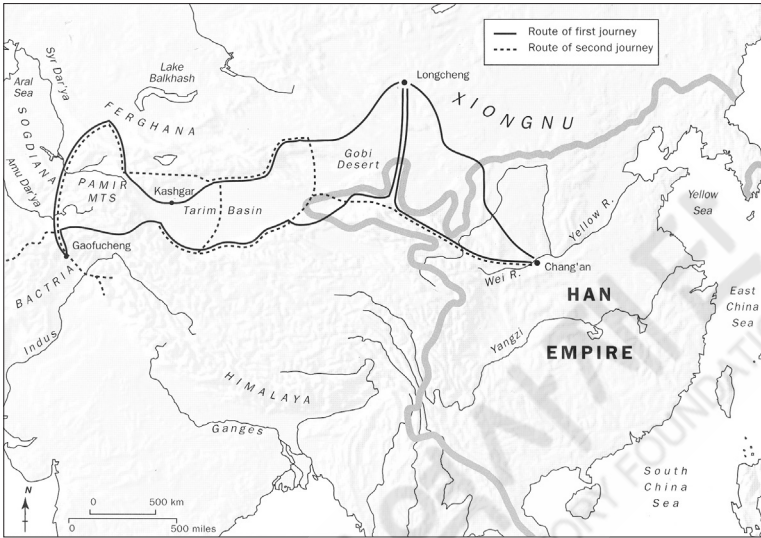
Fig. 109. Census of A.D. 2

Based on Roxby, P. M., 'China as an Entity', *Geography*, vol. xix, p. 8 (London, 1934), compiled by Wan Kwoh-ting from the statistics of the Han census rec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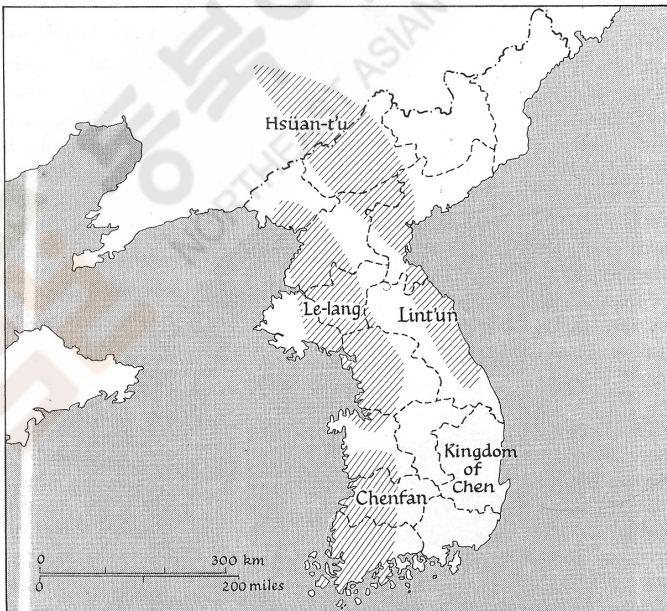
〈지도 7〉 한사군, Naval Intelligence, 1944, 317쪽



〈지도 8〉 한사군, Ebrey, 1996, 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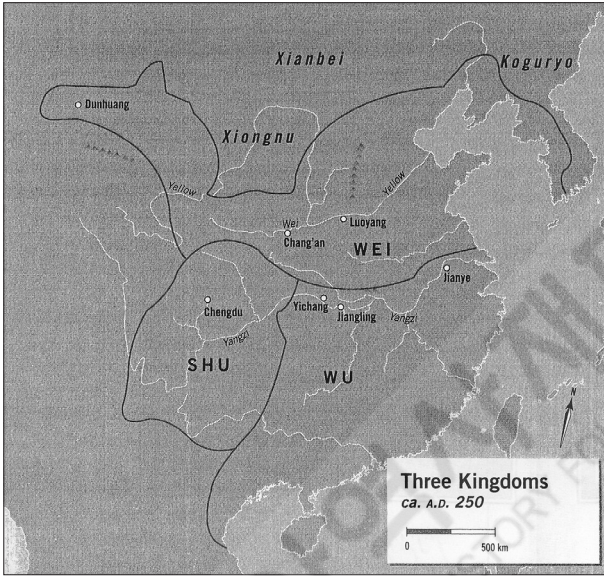


〈지도 9〉 한사군, Paludan, 1998, 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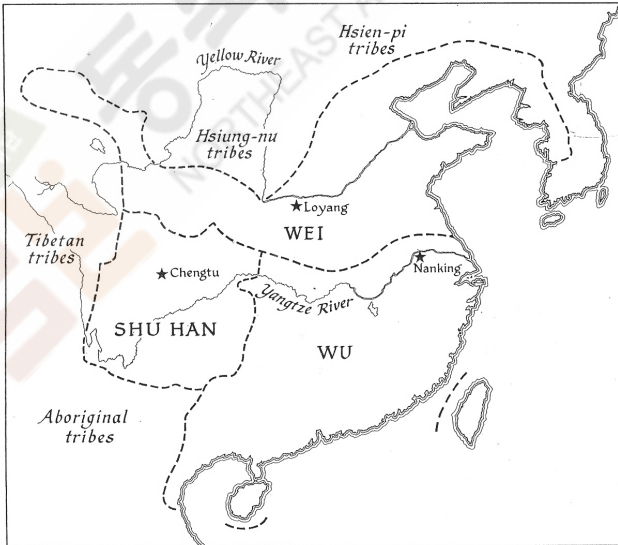


Map 8 The Han commanderies in Korea

〈지도 10〉 한사군, Gernet, 1972, 한사군, 1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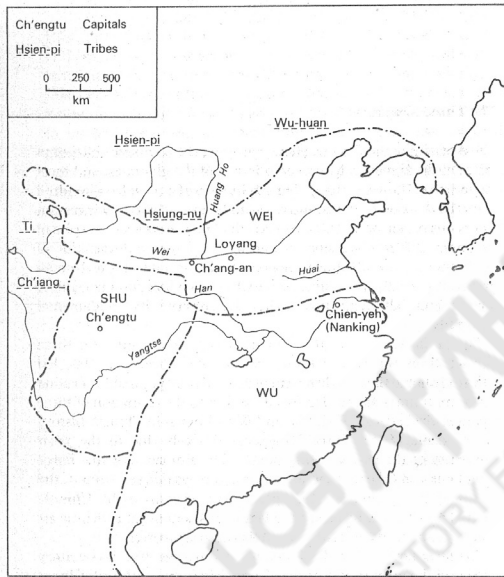


<지도 11> 한사군(위), Lewis, 2009, 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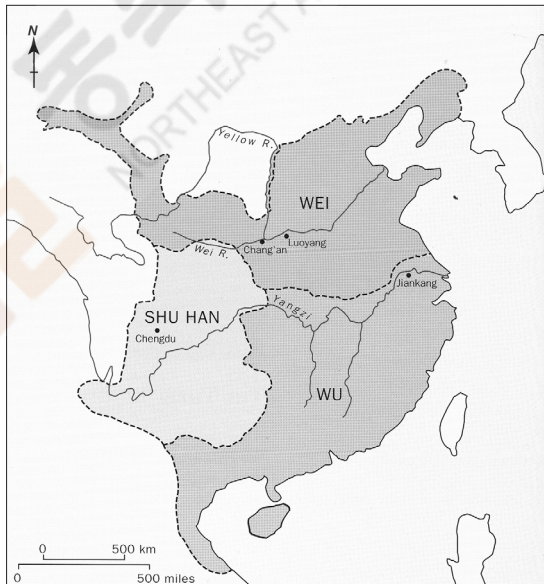
Map 4. The Three Kingdoms, c. 230

<지도 12> 한사군(위), Hucker, 1975, 1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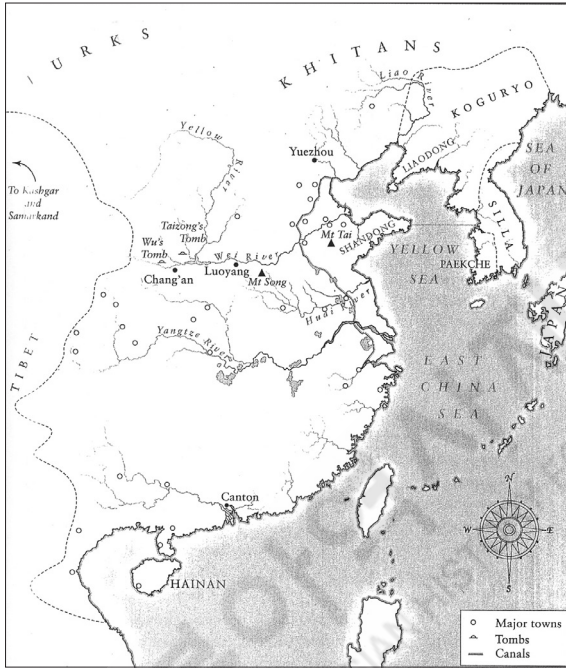


9. The Three Kingdoms, c. AD 230

<지도 13> 한사군(위), Rodzinski, 1984, 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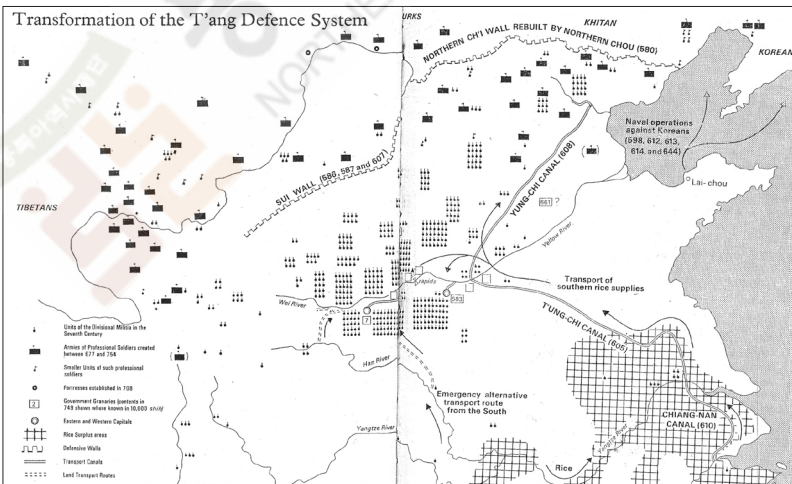


<지도 14> 한사군(위), Paludan, 1998, 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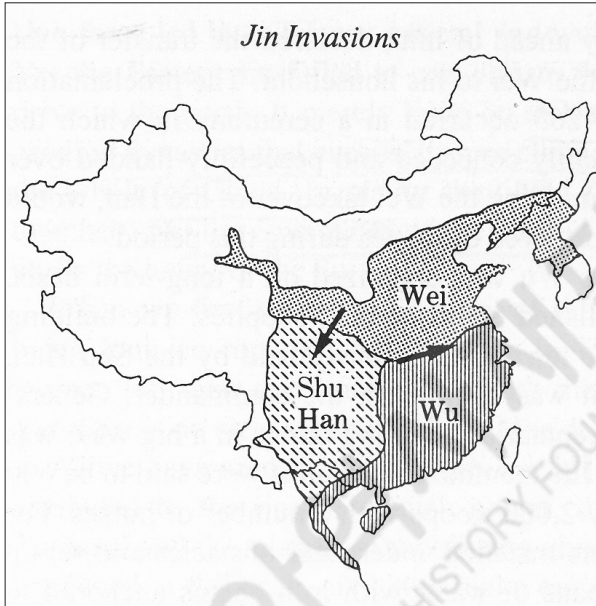
China in the seventh century.

〈지도 15〉 고구려-당, Clements, 2007, 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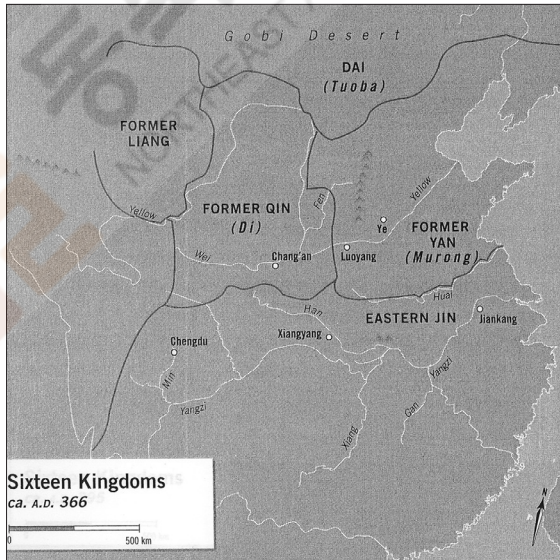


Ma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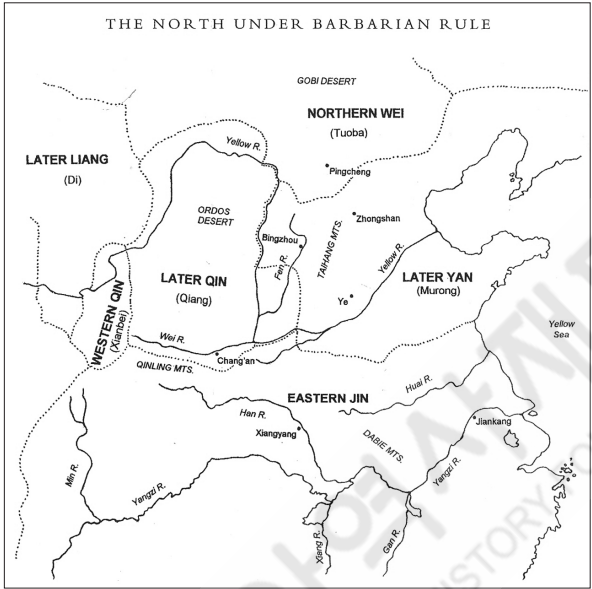
〈지도 16〉 고구려-당, Elvin, 1973, m2



〈지도 17〉 고구려-위, Huang, 1997, 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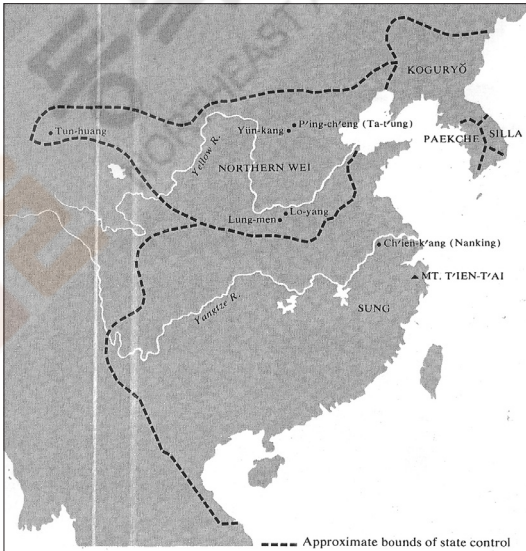


〈지도 18〉 고구려-전연, Lewis, 2009, 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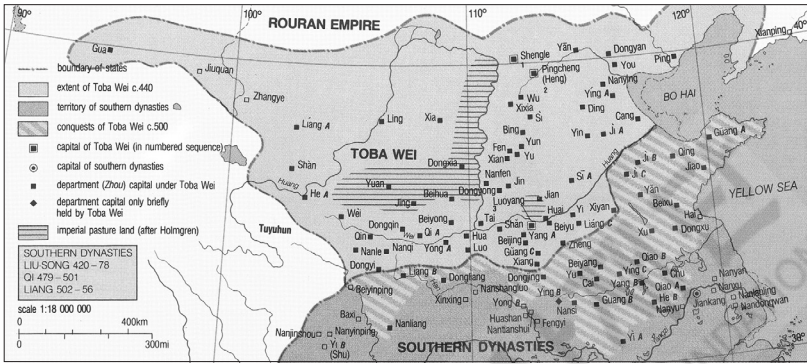
Map 7 North China in AD 395

<지도 19> 고구려-후연, Graff, 2002, 71쪽



China in the Period of Disunity (Fifth Century; Northern Wei and Sung)

<지도 20> 고구려-북위, Meskill, 1973, 680쪽



〈지도 21〉 고구려-북위, Blunden & Elvin, 1998, 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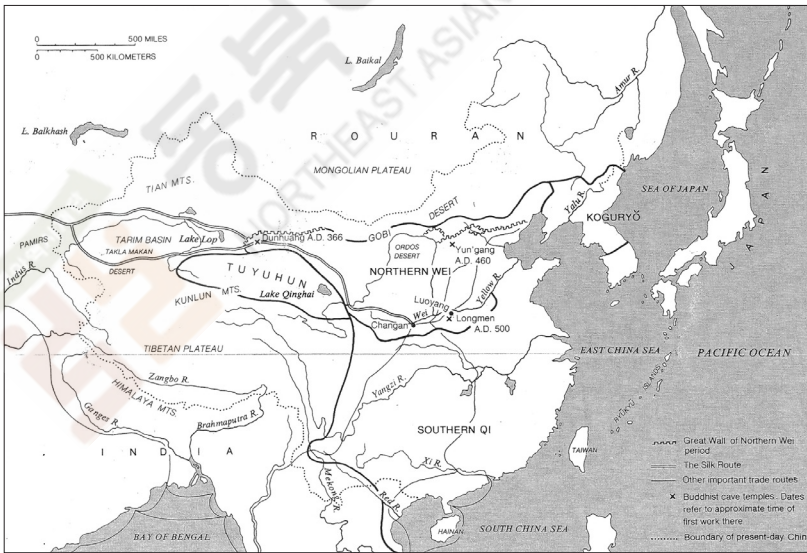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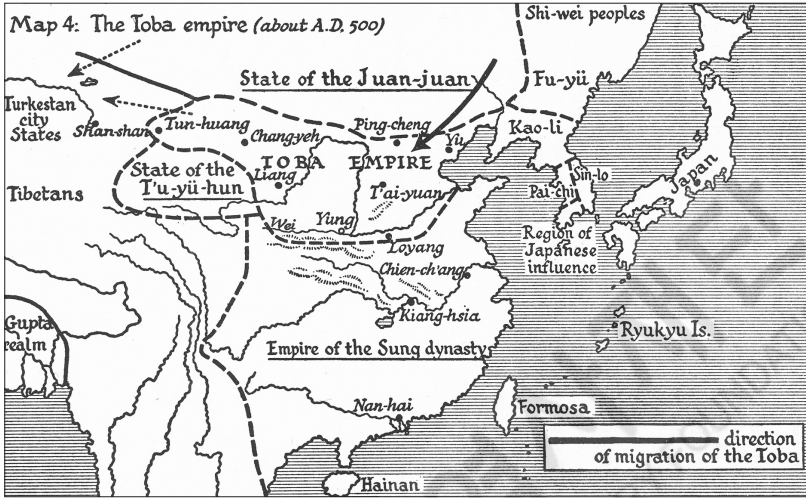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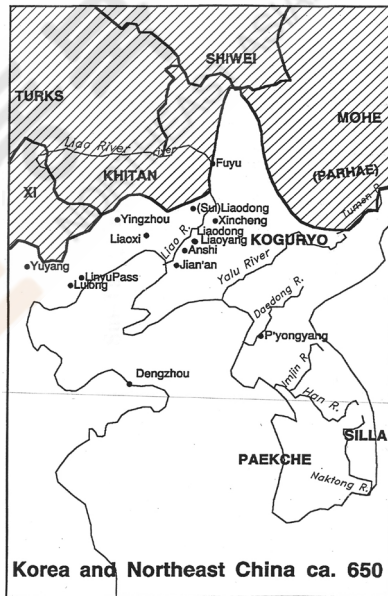


Figure 4-1 China ca. 500 A.D.

〈지도 22〉 고구려-북방, Schirokauer, 1991, 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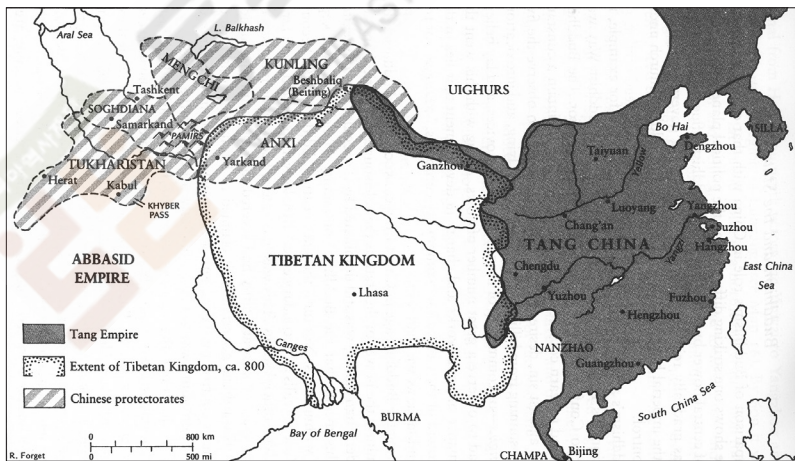
〈지도 23〉 고구려-북방, Eberhard, 1971, 141쪽



〈지도 24〉 고구려-당-북방, Pan, 1997, 20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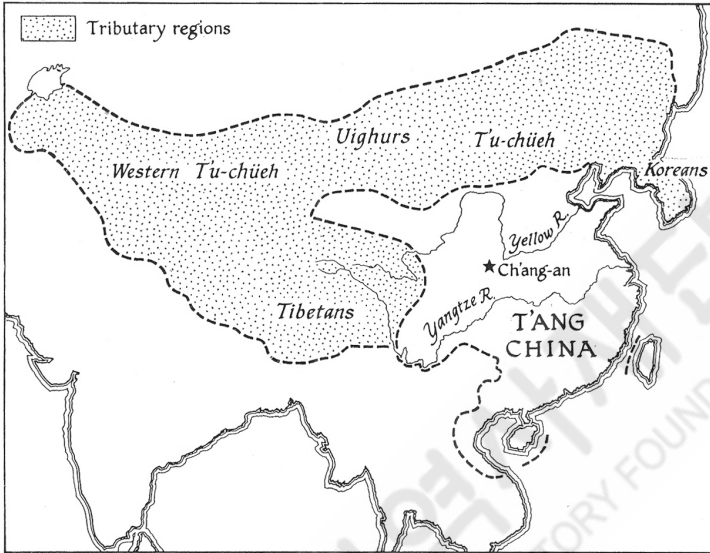


〈지도 25〉 신라-당, Pan, 1997, 1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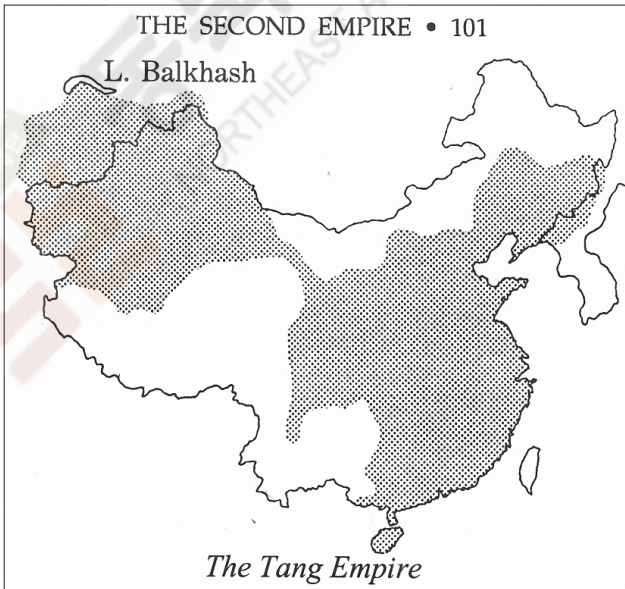


9. Tang Empire at Its Greatest Extent (Eighth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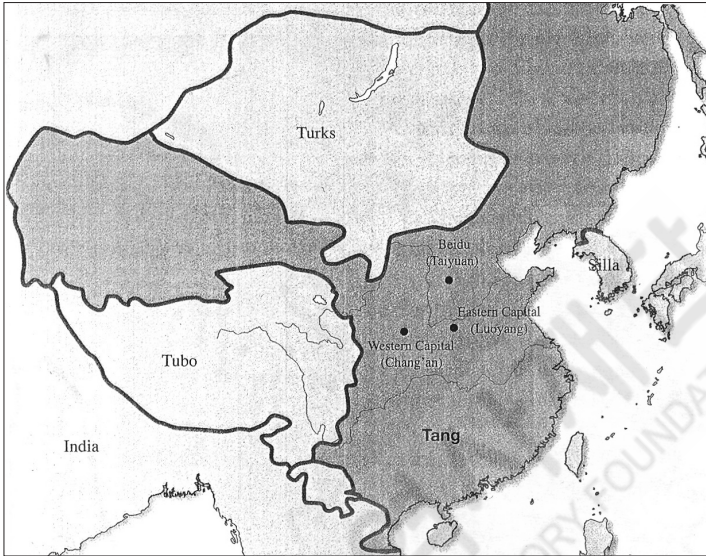
〈지도 26〉 신라-당, Fairbank, 1992, 80쪽



Map 5. The T'ang Empire, c. 700
 <지도 27> 신라-당, Hucker, 1975, 1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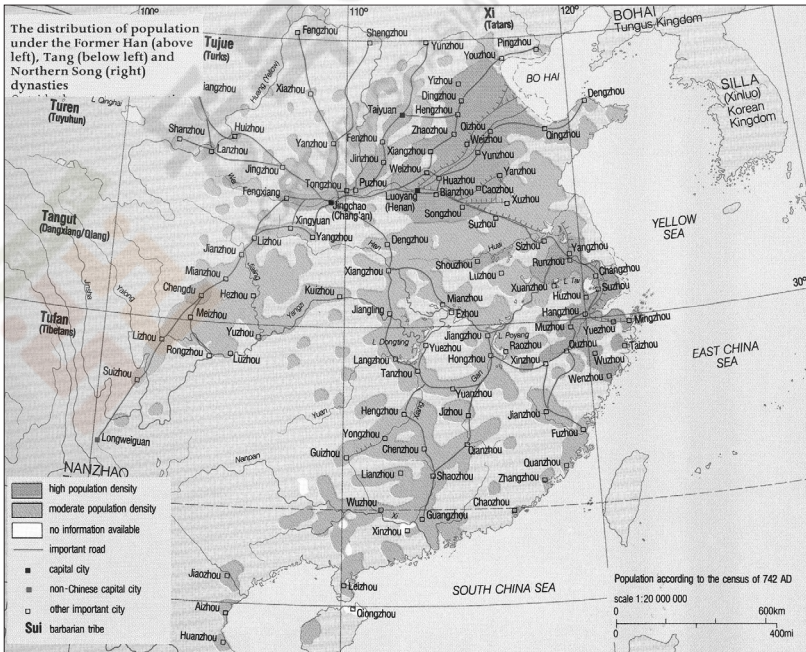


<지도 28> 발해-당, Huang, 1997, 1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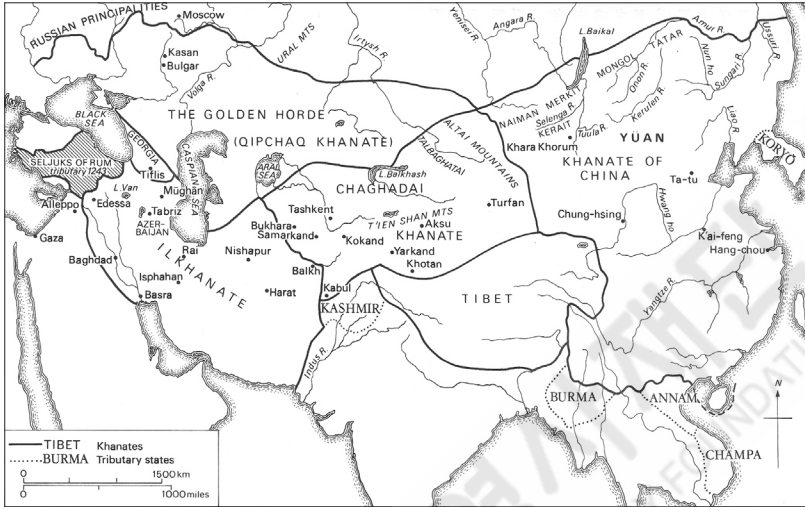


Territory of the Tang Dynasty (741)

〈지도 29〉 발해-당, Chinese Civ Centre,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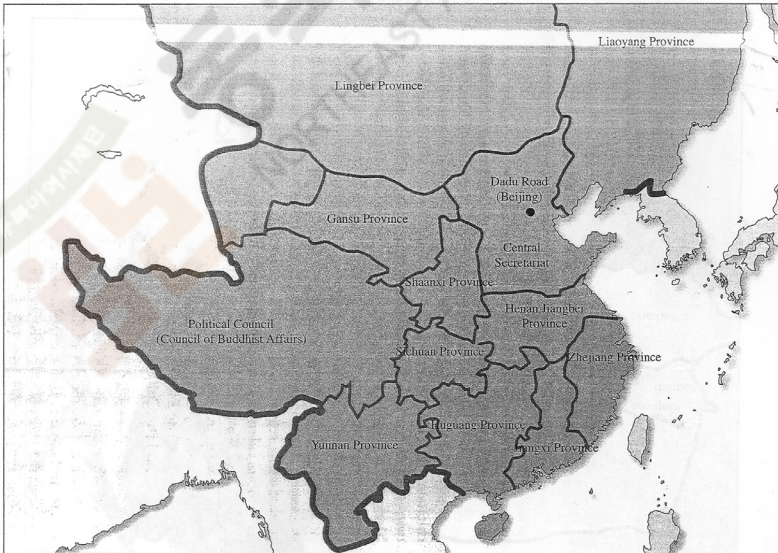


〈지도 30〉 발해 정체성, Blunden & Elvin, 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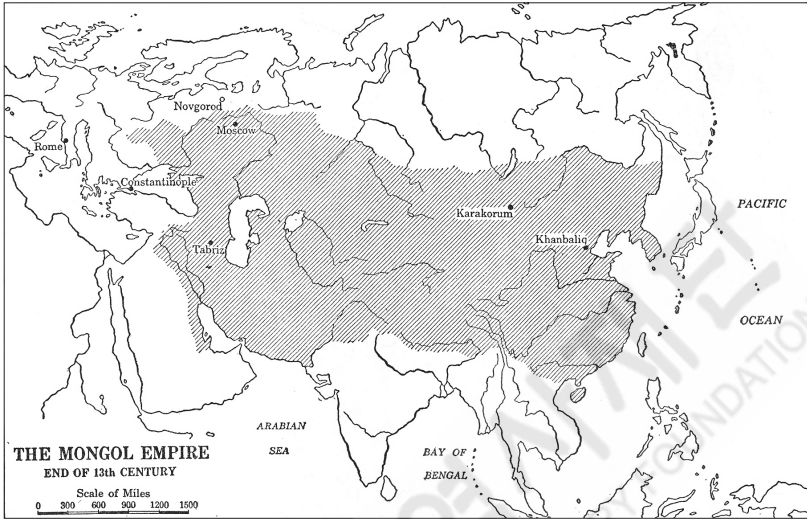
MAP 30. The Mongolian khanates

<지도 31> 고려-몽골, CHC v6, 425쪽



Territory of the Yuan Dynasty (1330)

<지도 32> 고려-몽골, Chinese Civ Centre, 2007, 90쪽



〈지도 33〉 고려-몽골, Goodrich, 1959, 17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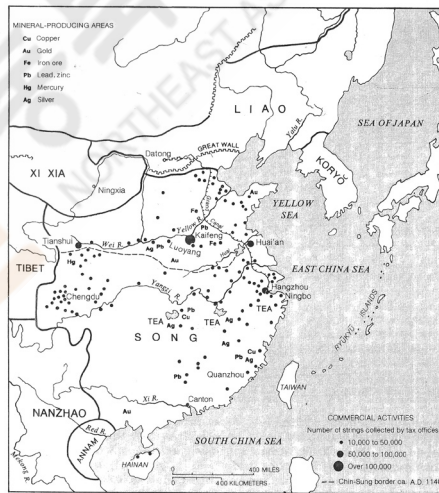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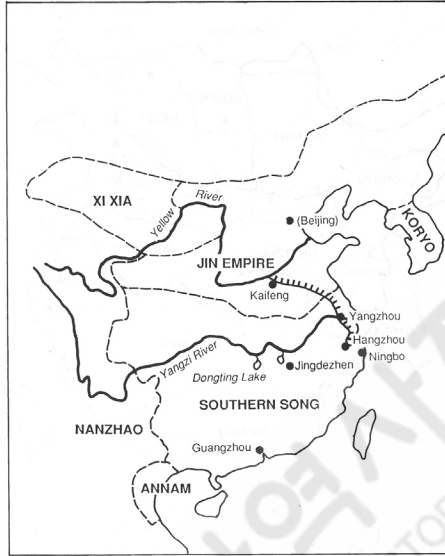


Figure 6-2 Song China—Political and Commercial

〈지도 34〉 고려-요, Schirokauer, 1991, 1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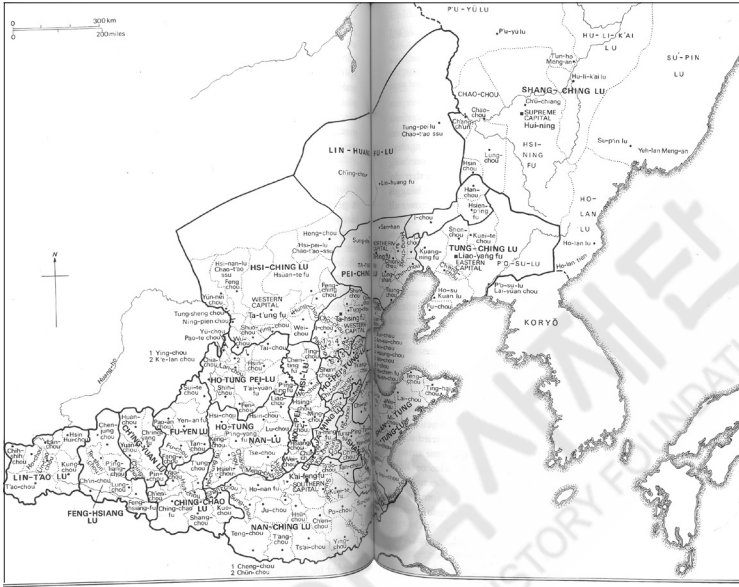
Map 4 China under the Southern Song and the Jin, c.1140

〈지도 35〉 고려-금, Roberts, 2006, xx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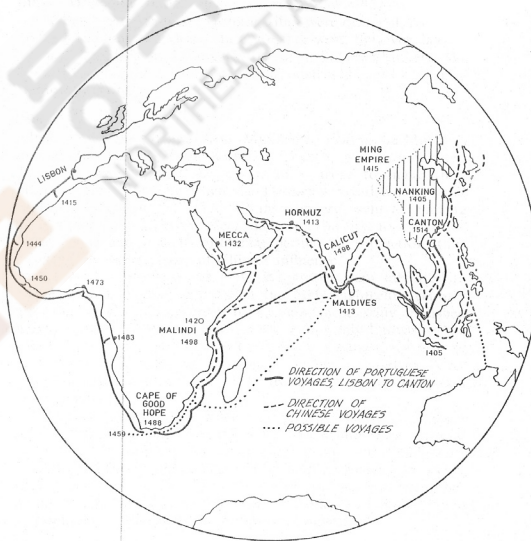
China Late in the Second Imperial Period (12th Century)

〈지도 36〉 고려-금, Meskill, 1973, 6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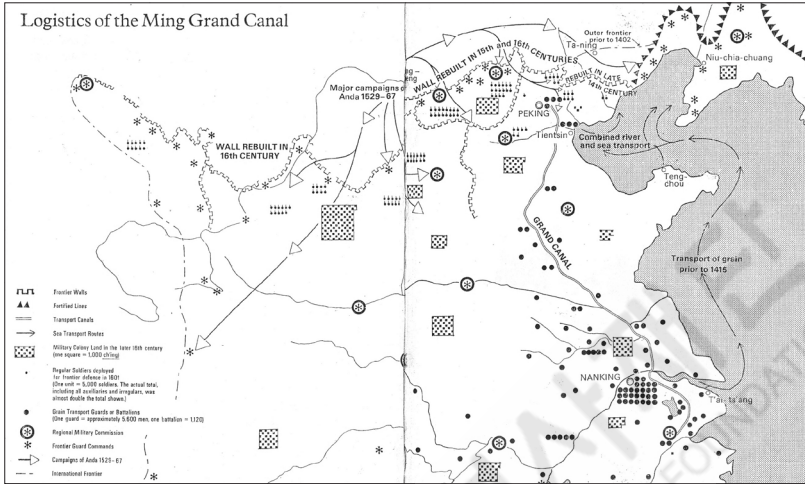
MAP 17. The Ch'in empire

〈지도 37〉 고려-금, CHC v6, 2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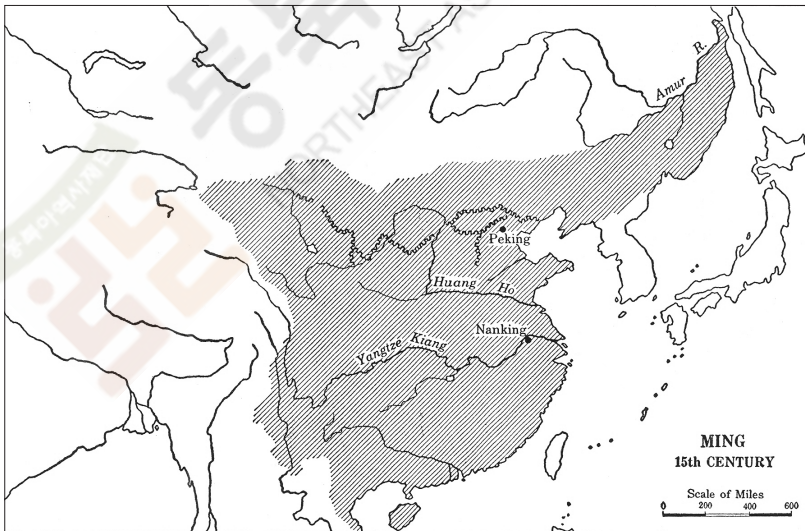
East-West maritime exploration in the fifteenth century.

〈지도 38〉 조선-명, Cotterell & Morgan, 1975, 2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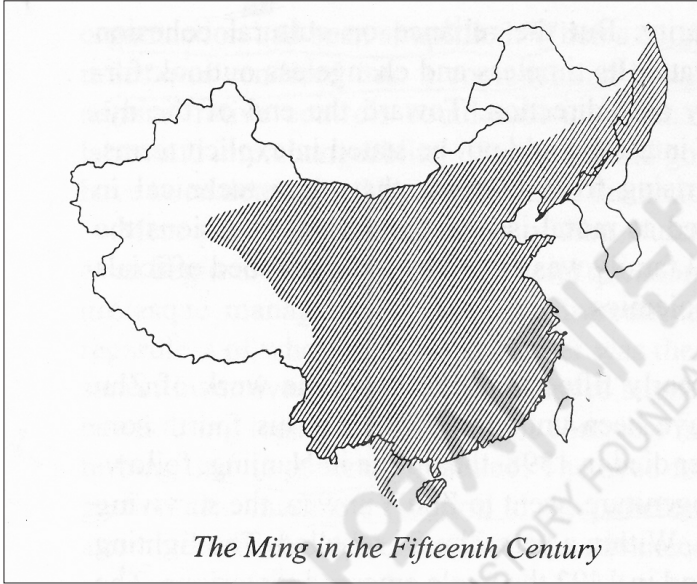


Ma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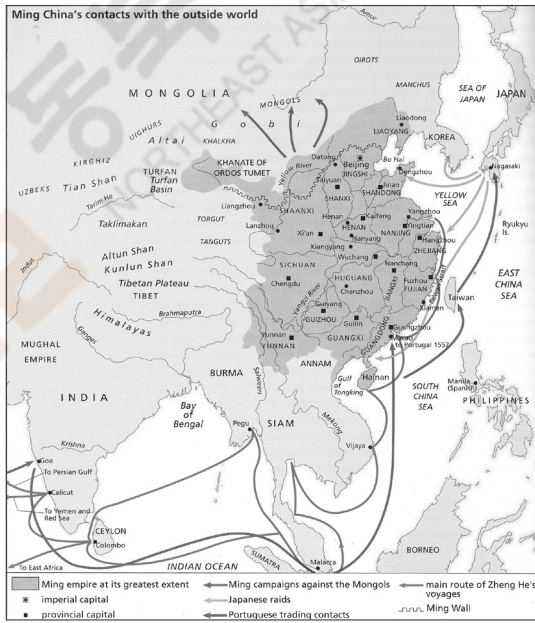
〈지도 39〉 조선-명, Elvin, 1973, m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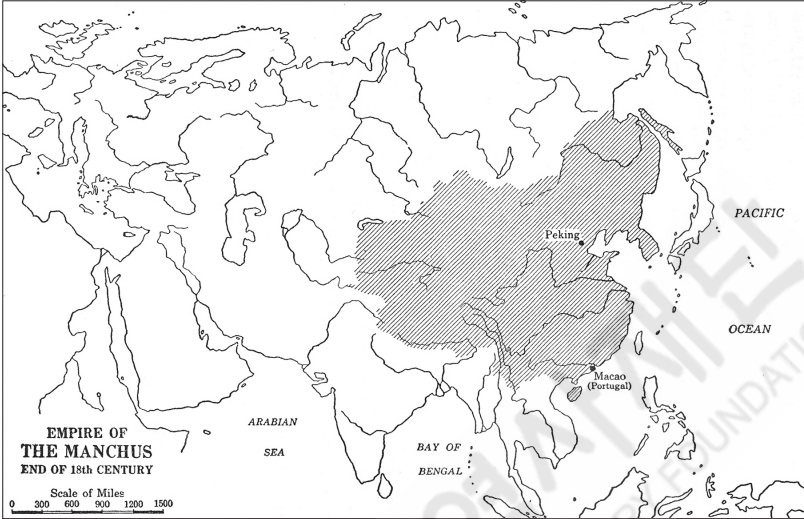
〈지도 40〉 조선-명, Goodrich, 1959, 191쪽



(지도 41) 조선-명, Huang, 1997, 176쪽



(지도 42) 조선-명, Ebrey, 1996, 19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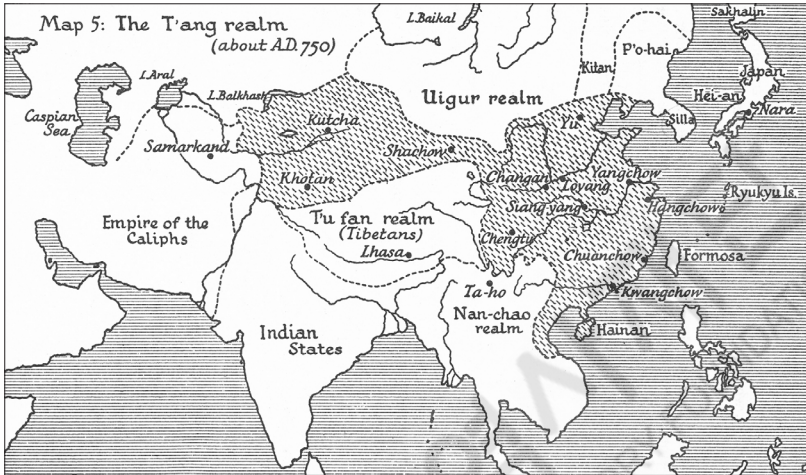


〈지도 43〉 조선-청, Goodrich, 1959, 217쪽



Map 2. Eight Banner garrisons in the Qing empire. Locations of principal garrisons around the empire at its height in the second half of the eighteenth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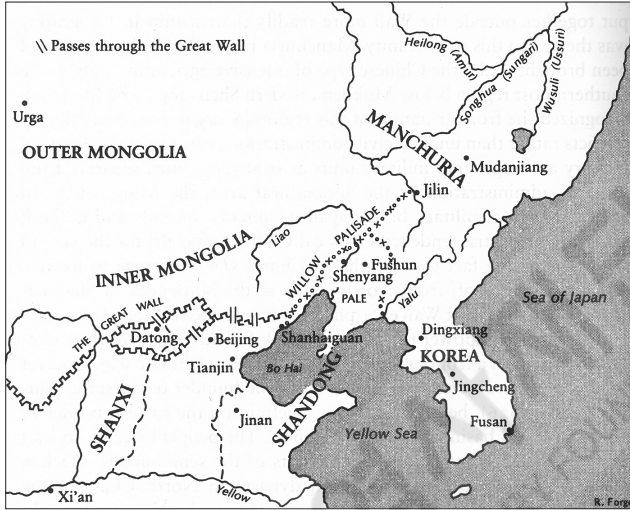
〈지도 44〉 조선-청, Elliott, 2001, 95쪽



〈지도 47〉 로마자(발해), Eberhard, 1971, 1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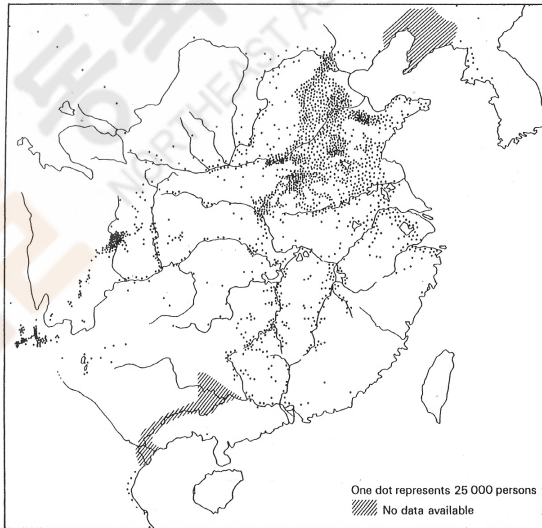


〈지도 48〉 로마자-조선, Mote, 1999, 694쪽



19. Rise of the Manchus

〈지도 49〉 로마자, Fairbank, 1992, 144 2쪽



Map 11. The population of China, A.D. 140
After H. Bielenstein. *BMFEA* 19 (1947).

〈지도 50〉 모호, CHC v1, 1986, 242쪽



<지도 51> 모호, Cotterell & Morgan, 1975, 289쪽



<지도 52> 모호, Morton & Lewis, 2005, 49쪽



〈지도 53〉 모호(대한제국), Preston, 2000, XI

〈첨부2〉 조사대상 목록

(1) 한국 관련 지도 포함 개설서 (지도 숫자 중 문제지도 숫자)

Bai, Shouyi, ed., 1982, *An Outline History of China*,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1개 중 0개.

Becker, Jasper, 2000, *The Chinese*, New York: The Free Press, 2개 중 0개.

Blunden, Caroline and Elvin, Mark, 1998, *Cultural Atlas of China*, revised edition, Abingdon: Andromeda Oxford Limited, 18개 중 10개 = 경제 4 + 로마자 6.

Boulger, Demetrius Charles, 1898, *The History of China*, New York: Books for Libraries Press; reprinted in 1972, 1개 중 0개 (Chinese Empire and Japan이라는 큰 지도에 Korea를 분명히 표기).

Britannica Inc., 2008, *The Britannica Guide to Modern China: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the World's New Economic Giant*, London: Running Press, 1개 중 0개.

China Reconstructs Press, 1988, *Chinese History from Primitive Society Down Through the Qing Dynasty*, Beijing: China Reconstructs Press, 3개 중 1개 = 경제 1.

Chinese Civilisation Centre, 2007, *China: Five Thousand Years of History and Civilization*, Hong Kong: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Press, 10개 중 4개 = 경제 2 + 로마자 1 + 경제/로마자 1.

Cotterell, Arthur and Morgan, David, 1975, *China's Civilization: a Survey of Its History, Arts, and Technology*,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7개 중 7개 = 경제 4 + 모호 3.

Cotterell, Arthur and Yap, Yong, 1975, *The Early Civilization of China*, New York: G. P. Putnam's Sons, 9개 중 3개 = 경제 2 + 모호 1.

Curtin, Jeremiah, 1908, *The Mongols: A History*,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reprinted by Cambridge: Da Capo Press, in 2003, 1개 중 1개 = 로마자 1.

Dernberger, Robert F., et al, eds., 1986, *The Chinese: Adapting the Past, Building the Futur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Center for Chinese

- Studies, 2개 중 0개.
- Eberhard, Wolfram, 1950, *A History of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개 중 2개 = 로마자 1 + 경제/로마자 1.
- Eberhard, Wolfram, 1960, *A History of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개 중 1개 = 경제/로마자 1.
- Eberhard, Wolfram, 1971, *A History of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6개 중 2개 = 경제 1 + 로마자 1.
- Ebrey, Patricia Buckley, 1981, *Chinese Civilization and Society: A Sourcebook*, New York: The Free Press, 1개 중 0개.
- Ebrey, Patricia Buckley, 1996, *The 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of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개 중 2개 = 경제 1 + 로마자 1.
- Eichhorn, Werner, 1969, *Chinese Civilization: An Introduction*, London: Faber and Faber, 1개 중 1개 = 로마자 1.
- Fairbank, John King, 1992, *China: A New History*, 2nd edition,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4개 중 2개 = 로마자 2.
- Fairbank, John King and Goldman, Merle, 1998, *China: A New History*, 2nd edition,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2개 중 4개 = 경제 2 + 로마자 1 + 모호 1.
- Fairbank, John King and Goldman, Merle, 2006, *China: A New History*, 2nd edition,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0개 중 2개 = 경제 1 + 로마자 1.
- FitzGerald, C. P., 1950, *China: A Short Cultural History*, New York: The Cresset Press, 5개 중 2개 = 경제 2.
- FitzGerald, C. P., 1969, *The Horizon History of China*, New York: American Heritage Publishing Co, 4개 중 2개 = 경제 2.
- FitzGerald, Patrick, 1978, *Ancient China: The Making of the Past*, Phaidon, 3개 중 0개. (한나라에 요동 포함 안 됨).
- Gamer, Robert E., 2003, *Understanding Contemporary China*, 2nd edition,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1개 중 0개.
- Gernet, Jacques, trans. by Foster, J. R., 1972, *A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개 중 2개 = 경제 1 + 경제/로마자 1.

- Gernet, Jacques, trans. by Foster, J. R., 1982, *A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개 중 5개 = 경제 2 + 로마자 1 + 경제/로마자 1 + 모호 1.
- Gernet, Jacques, 2008, *A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2nd e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4개 중 1개 = 경제/로마자 1.
- Goodrich, L. Carrington, 1959, *A Short History of the Chinese People*, 3rd edition,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Publishers. 10개 중 6개 = 경제 6.
- Grosier, Abbe, 1899, *General Description of China*, London(1899 이전?). 1개 중 1개 = 로마자 1.
- Hansen, Valerie, 2000, *The Open Empire: A History of China to 1600*, New York: Norton, 10개 중 1개 = 모호 1.
- Harrison, Henrietta, 2001, *Chin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개 중 0개.
- Harrison, John A., 1972, *The Chinese Empir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2개 중 1개 = 모호 1.
- Haw, Stephen G., 1990, *China: A Cultural History*, London: B. T. Batsford Ltd. 5개 중 1개 = 경제 1.
- Haw, Stephen G., 2002, *A Traveller's History of China*, 3rd edition, London: Cassell. 6개 중 1개 = 경제 1.
- Hsu, Immanuel C. Y., 1970, *The Rise of Modern Chin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개 중 0개.
- Hsu, Immanuel C. Y., 1990, *The Rise of Modern Chin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개 중 0개.
- Huang, Ray, 1997, *China: A Macro History*, New York: M. E. Sharpe. 8개 중 4개 = 경제 4.
- Hucker, Charles O., 1975, *China's Imperial Past: An Introduction to Chinese History and Cultur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7개 중 2개 = 경제 1 + 모호 1.
- Hucker, Charles O., 1978, *China to 1850: A Short Hist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개 중 0개.
- Kennelly, S. J., M., trans., 1908, *L. Rechart's Comprehensive Geography of the Chinese Empire and Dependencies*, Shanghai: T'usewei Press. 1개 중 1개 =

- 로마자 1.
- Kublin, Hyman, *China*, 1972,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7개 중 1개 = 경계/로마자 1.
- Lane, George, 2006, *Daily Life of the Mongol Empire*, London: Greenwood Press. 1개 중 0개.
- Latourette, Kenneth Scott, 1934, *The Chinese: Their History and Culture*, 2nd edi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개 중 0개.
- Latourette, Kenneth Scott, 1956, *The Chinese: Their History and Culture*, 8th printing,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2개 중 0개.
- Loewe, Michael, 1966, *Imperial China: The Historical Background to the Modern Ag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3개 중 2개 = 경계 1 + 로마자 1.
- McAleavy, Henry, 1967, *The Modern History of China*,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개 중 0개.
- Meskill, John, 1973, *An Introduction to Chinese Civilization*, Lexington, Massachusetts: D. C. Heath's and Company. 1개 중 0개.
- Meskill, John, ed., 1973, *An Introduction to Chinese Civiliz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7개 중 2개 = 경계 2.
- Michael, Franz, 1986, *China through the Ages: History and a Civilization*, London: Westview Press. 1개 중 0개.
- Morton, W. Scott and Lewis, Charlton M., 1980, *China: Its History and Culture*, New York: Lipincott & Crowell Publishers. 1개 중 0개.
- Morton, W. Scott and Lewis, Charlton M., 2005, *China: Its History and Culture*, 4th edition, New York: McGraw-Hill. 2개 중 1개 = 모호 1.
- Mote, F. W., 1999, *Imperial China, 900-180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7개 중 3개 = 로마자 3.
- Meyer, Milton W., 1978, *China: An Introductory History*, Totowa: Littlefield, Adams and Co. 1개 중 0개.
- Meyer, Milton W., 1994, *China: A Concise History*, Lond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 1개 중 0개.
- Murowchick, Robert E., ed., 1994, *China, Gradles of Civilization: Ancient Culture, Modern Land*,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7개 중 0개.

- Naquin, Susan and Rawski, Evelyn S., 1987, *Chinese Society in the Eighteenth Centu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개 중 1개 = 모호 1.
- Naval Intelligence Division, 1944, *China Proper Vol. I: Physical Geography, History, and Peoples*: Naval Intelligence Division. 11개 중 5개 = 경계 5.
- Paludan, Ann, 1998, *Chronicle of the Chinese Emperors: The Reign-by-Reign Record of the Rulers of Imperial China*, London: Thames & Hydsion. 7개 중 1개 = 경계 1.
- Parker, E. H., 1901, *China: Her History, Diplomacy and Commerce from the Earliest Times to the Present Day*, London: John Murray. 4개 중 2개 = 경계/로마자 1 + 모호 1.
- Prawdin, Michael, 2009, *The Mongol Empire: Its Rise and Legacy*, 4th edition, London: Aldine Transaction. 1개 중 0개.
- Pye, Lucian W., 1984, *China: An Introduction*, 3rd edi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개 중 0개.
- Roberts, J. A. G., 1996, *A History of China: Prehistory to c. 1800*, Alan Sutton Publishing Limited. 6개 중 3개 = 경계 2 + 로마자 1.
- Roberts, J. A. G., 1999, *A History of China*, London: MacMillan Press LTD. 3개 중 1개 = 경계 1.
- Roberts, J. A. G., 2006, *A History of China*, 2nd edi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3개 중 1개 = 경계 1.
- Rodzinski, Witold, 1984, *The Walled Kingdom: A History of China from 2000 BC to the Pres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1개 중 3개 = 경계 1 + 로마자 1 + 경계/로마자 1.
- Ronan, Colin A., 1978, *The Shorter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개 중 1개 = 로마자 1.
- Rozman, Gilbert, ed., 1981, *The Modernization of China*, New York: The Free Press. 9개 중 4개 = 경계 4.
- Schirokauer, Conrad, 1991, *A Brief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Publishers. 11개 중 3개 = 경계 2 + 로마자 1.
- Shaughnessy, Esward L., 2005, *China: Empire and Civi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5개 중 0개.

- Spence, Jonathan D., 1990, *The Search for Modern China*, New York: Norton, 11개 중 0개.
- Spence, Jonathan D., 1999, *The Search for Modern China*, 2nd edition, New York: Norton, 14개 중 0개.
- Swaine, Michael D. and Tellis, Ashley J., 2000,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 Past, Present, and Future*, Washington D.C.: Rand, 12개 중 3개 = 경계 3.
-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 1, *The Ch'in and Han Empires 221 B.C. - A.D. 220*, 198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7개 중 6개 = 경계 4 + 모호 2.
-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 3, *Sui and T'ang China 589-906*, 197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개 중 1개 = 로마자 1.
-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 199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개 중 4개 = 경계 2 + 로마자 1 + 모호 1.
-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 7, *The Ming Dynasty 1368-1644*, 198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개 중 0개.
-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 8, *The Ming Dynasty 1368-1644*, 199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개 중 0개.
-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 9, *The Ch'ing Empire to 1800*, 200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개 중 0개.
-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 10, *Late Ch'ing 1800-1911*, 197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개 중 0개.
-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 11, *Late Ch'ing 1800-1911*, 198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개 중 0개.
-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 13, *Republican China 1912-1949*, 198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개 중 0개.
-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 14, *The People's Republic 1949-1965*, 198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개 중 1개 = 모호 1.
-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 15, *People's Republic 1966-1982*, 199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개 중 0개.

- Tregear, T. R., 1965, *A Geography of China*,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12개 중 5개 = 경계 5.
- Tuan, Yi-Fu, 1969, *China*,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2개 중 0개.
- Tuan, Yi-Fu, 2008, *A Historical Geography of China*,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2개 중 0개.
- Xu, Guangqiu, 2003, *World Eras, Vol. 7: Imperial China, 617-1644*, Framington Hill: Gale, 3개 중 1개 = 로마자 1.
- Whitaker, Donald P. and Shinn, Rinn-Sup, et al., 1972, *Area Handbook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개 중 0개.
- ☞ 88종: 435개 중 문제지도 127개 = 경계 74 + 로마자 28 + 경계/로마자 9 + 모호 16

(2) 연구서

- Barfield, Thomas, 1989, *The Perilous Frontiers: Nomadic Empires and China, 221 B.C. to A.D. 1757*, Cambridge, Massachusetts: Blackwell, 3개 중 0개.
- Benn, Charles, 2002, *Daily Life in Traditional China: The Tang Dynasty*, London: Greenwood Press, 1개 중 1개 = 경계 1.
- Carlson, Evans Fordyce, 1940, *Twin Stars of China*, 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1개 중 1개 = 로마자 1.
- Chang, Gordon G., 2001, *The Coming Collapse of China*, New York: Random House, 2개 중 0개.
- Chu, Samuel C. and Liu Kwang-Ching, eds., 1994, *Li Hung-chang and China's Early Modernization*, New York: M. E. Shape, 1개 중 0개.
- Clements Jonathan, 2004, *Pirate King: Coxinga and the Fall of the Ming Dynasty*, Sutton Publishing, 2개 중 0개.
- Clements, Jonathan, 2006, *The First Emperor of China*, Sutton Publishing, 1개 중 1개 = 모호 1.
- Clements, Jonathan, 2007, *Wu: The Chinese Empress Who Schemed, Seduced, and Murdered Her Way to Become a Living God*, Sutton Publishing, 2개 중 0개. (삼국을 정확히 표기)

- Cosmo, Nicola di, ed., 2009, *Military Culture in Imperial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개 중 0개.
- Cosmo, Nicola di and Wyatt, Don J., eds., 2003, *Political Frontiers, Ethnic Boundaries, and Human Geographies in Chinese History*, London: RoutledgeCurzon, 1개 중 1개 = 로마자 1.
- Cotterell, Arthur, 1981, *The First Emperor of China: The Greatest Archeological Find of Our Tim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3개 중 0개.
- Crossley, Pamela Kyle, 1997, *The Manchus*, Blackwell Publishers, 2개 중 0개.
- de Hartog, Leo, 2006, *Genghis Khan: Conqueror of the World*, London: TTP. 1개 중 1개 = 로마자 1.
- Delgado, James P., 2008, *Khubilai Khan's Lost Fleet: In Search of Legendary Armad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4개 중 0개. (Koryo 표기 문제)
- Dien, Albert E., 2007, *Six Dynasties Civiliz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개 중 2개 = 모호 2.
- Dreyer, Edward L., 1995, *China at War, 1901-1949*, London: Longman, 5개 중 0개.
- Dreyer, June Teufel, 1976, *China's Forty Millions: Minority Nationalities and National Integra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개 중 0개.
- Elliott, Mark C., 2001,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개 중 1개 = 경제 1.
- Elleman, Bruce A., 2001, *Modern Chinese Warfare, 1759-1989*, London: Routledge, 1개 중 0개.
- Elvin, Mark, 1973, *The Pattern of the Chinese Pa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3개 중 1개 = 경제 1.
- Fairbank, John King, ed., 1968,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개 중 0개.
- Fairbank, John King, 1979, *The United States and China*, 4th ed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개 중 0개.

- Fenby, Jonathan, 2008, *Modern China: The Fall and Rise of a Great Power, 1859 to the Present*, New York: HarperCollins. 2개 중 0개.
- Fravel, M. Taylor, 2008,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hina's Territorial Dispu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개 중 0개.
- Graff, David, 2002, *Medieval Chinese Warfare, 300-900*, London: Routledge. 5개 중 3개 = 경제 2 + 모호 1.
- Hardy, Grant and Kinney, Anne Behnke, 2005, *The Establishment of the Han Empire and Imperial China*, London: Greenwood Press. 2개 중 1개 = 경제 1.
- Harrison, Henrietta, *Inventing the Nation: China*, London: Hodder Arnold. 1개 중 0개.
- Hay, John, 1973, *Ancient China*, London: The Bodley Head. 1개 중 0개.
- Hensman, C. R., 1968, *China: Yellow Peril? Red Hope?*, London: SCM Press LTD. 2개 중 0개.
- Hessler, Peter, 2006, *Oracle Bones: A Journey between China's Past and Present*, HarperCollins Publishers. 1개 중 0개.
- Higham, Robin and Graff, David A., 2002, *A Military History of China*, Cambridge: West View Press. 5개 중 0개. (명의 영토에 요동이 빠짐)
- Jenner, W. J. F., 1992, *The Tyranny of History: The Roots of China's Crisis*, London: The Penguin Press. 1개 중 0개.
- Kao, Ting Tsz, 1980, *The Chinese Frontiers*, Palatine, IL: Chinese Scholarly Publishing Company. 2개 중 0개.
- Kierman, Frank A and Fairbank, John K., eds., 1974, *Chinese Ways in Warfa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개 중 1개 = 경제 1.
- Kuhn, Philip A., 1990, *Soulstealers: The Chinese Sorcery Scare of 1768*,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개 중 0개.
- Lane, George, 2004, *Genghis Khan and Mongol Rule*, London: Greenwood Press. 4개 중 0개.
- Lattimore, Owen, 1951,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 Boston: Beacon Press. 3개 중 0개.
- Lattimore, Owen, 1962,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 Boston: Beacon Press. 4

- 개 중 1개 = 로마자 1.
- Lewis, Mark Edward, 2007, *The Early Chinese Empires: The Qin and Han*,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6개 중 4개 = 경계 4.
- Lewis, Mark Edward, 2009, *China between Empires: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0개 중 6개 = 경계 3 + 모호 3.
- Lovell, Julia, 2006, *The Great Wall: China against the world, 1000 BC-AD 2000*, New York: Grove Press, 3개 중 0개.
- Man, John, 2004, *Genghis Khan: Life, Death, and Resurrection*, New York: Thomas Dunne Books, 3개 중 2개 = 경계 2.
- Morgan, David, 2007, *The Mongols*,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Publishing, originally published in 1986, 1개 중 0개.
- Onon, Urgunge, 2001,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The Life and Times of Chinggis Khan*, Surrey, UK: Curzon, 1개 중 0개.
- Pan, Yihong, 1997, *Son of Heaven and Heavenly Qaghan: Sui-Tang China and Its Neighbors*, Western Washington, 2개 중 2개 = 경계 2.
- Perce, Scott, Sapiro, Audrey, and Ebrey, Patricia, eds., 2001, *Culture and Power in the Reconstitution of the Chinese Realm, 200-60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개 중 1개 = 모호 1.
- Preston, Diana, 1999, *The Boxer Rebellion: The Dramatic Story of China's War on Foreigners That Shook the World in the Summer of 1900*, New York: Berkley Publishing Group, 1개 중 1개 = 모호 1.
- Pullyblank, Edwin G., 1955, *The Background of the Rebellion of An Lu-Sha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개 중 2개 = 로마자 2.
- Rawson, Jessica, 1980, *Ancient China: Art and Archeology*, London: Harper & Row Publishers, 1개 중 0개.
- Reischauer, Edwin O., trans., 1955, *Ennin's Diary: 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the Law*,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개 중 1개 = 로마자 1.
- Rossabi, Morris, ed., 1983,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개 중 0개.
- Rossabi, Morris, 1988, *Khubilai Khan: His Life and Tim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개 중 0개.
- Saunders, J. J., 2001, *The History of the Mongol Conquest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4개 중 1개 = 모호 1.
- Smith, Richard J., 1983, *China's Cultural Heritage: The Ch'ing Dynasty, 1644-1912*, Boulder: Westview Press. 1개 중 0개.
- Tao, Jing-shen, 1976, *The Jurchen in Twelfth-Century China: A Study of Sinicizatio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개 중 0개.
- Tsai, Shih-Shan Henry, 2001, *Perpetual Happiness: The Ming Emperor Yongle*,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개 중 0개.
- Turnbull, Stephen, 2003, *Genghis Khan and the Mongol Conquests, 1190-1400*, New York: Routledge. 1개 중 1개 = 모호 1.
- Turnbull, Stephen, 2007, *The Great Wall of China, 221 BC-AD 1644*, New York: Osprey Publishing. 1개 중 0개.
- Vohra, Ranbir, 1987, *China's Path to Modernization: A Historical Review from 1800 to the Present*,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개 중 0개.
- Waldron, Arthur, 1990, *The Great Wall of China from History to My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개 중 0개.
- Watson, William, 1974, *Ancient China: The Discoveries of Post-Liberation Chinese Archaeology*, London: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1개 중 0개.
- Wood, Frances, 1998, *No Dogs and Not Many Chinese: Treaty Port Life in China 1843-1943*, London: John Murray. 1개 중 0개.
- Worthing, Peter, 2007, *A Military History of Modern China: from the Manchu Conquest to Tian'anmen Square*, London: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3개 중 0개.
- Zarrow, Peter, 2005, *China in War and Revolution, 1895-1949*, New York: Routledge. 3개 중 0개.

☞ 64중: 133개 중 문제지도 34개 = 경계 18 + 로마자 7 + 경계/로마자 0 + 모호 9

(3) 한국 관련 지도 없는 개설서

- Adshead, S. A. M., 1988, *China in World History*, London: Macmillan Press.
- Bai, Shouyi, ed., 2005, *An Outline History of China*, Revised edition,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 Boulger, Demetrius Charles, 1893, *A Short History of China*, London: W. H. Allen and Co. Limited.
- Jian Bozan, Shao Xunzheng, and Hu Hun, 1981, *A Concise History of China*, 2nd edition,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 Chang, Kuei-yung, et al., 1977, *Chinese History Vol. 1: General & Ancient History*, Taipei: China Academy.
- Gowen, Herbert H. and Hall, Joseph Washington, 1926, *An Outline History of China*,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 Grousset, René, 1953, *The Rise and Splendour of the Chinese Empi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su, Immanuel C. Y., 1975, *The Rise of Modern China*, 2n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su, Immanuel C. Y., 1983, *The Rise of Modern China*, 3r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ruger, Rayne, 2003, *All under heaven: a complete history of China*, Hoboken: Wiley.
- Kung, Charles C., et al., 1978, *Chinese History Vol. 2: Middle Ages*, Taipei: China Academy.
- Li, Dun J., trans., 1975, *The Civilization of China: from the Formative Period to the Coming of the Wes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MacGowan, J., 1897, *A History of China: from the Earliest Days to the Present*,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and Co., LTD.
- Wang, Tseng-Tsai, et al., 1978, *Chinese History Vol. III: Modern Period*, Taipei: China Academy.

참고문헌

- 강중훈, 2004, 「백제의 성장과 對中國郡縣 관계의 추이-『삼국사기』 백제본기 초기 기록의 ‘樂浪’ 관련 기사의 검토를 겸하여」, 『韓國古代史研究』 34, 한국고대사연구회.
- 강중훈, 2008,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린 역사 지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歷史教育』 106, 역사교육연구회.
- 계승범, 2009,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중국의 발해사 연구: 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 권덕영, 2006, 「羅唐交涉史에서의 朝貢과 冊封」,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 김수태, 2004, 「漢城 百濟의 성장과 樂浪·帶方郡」, 『百濟研究』 3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김종복, 2006, 「南北國의 冊封號에 대한 기초적 검토」, 『역사와 현실』 61, 한국역사연구회.
- 김종복, 2009,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 김창석, 2009, 「한일학계의 고대 한중관계사 연구동향과 과제」,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 金泰植, 2004, 「伽倻와 樂浪」, 『韓國古代史研究』 34, 한국고대사연구회.
- 김한규, 1999, 『한중관계사 I』, 아르케.
-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 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부.
-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문안식, 2003, 『한국 고대사와 말갈』, 혜안.
- 文昌魯, 「新羅와 樂浪의 關係-新羅史에 보이는 ‘樂浪’의 實體와 그 歷史的 意味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34, 한국고대사연구회.
- 송기호, 1995, 『渤海政治史研究』, 일조각.
- 沈載錫, 2002, 『高麗國王 冊封 研究』, 혜안.
-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고조선계와 한(漢)계의 종족 융합을 통한 낙랑인의 형성』, 사계절.
- 尹龍九, 2004, 「三韓과 樂浪의 교섭」, 『韓國古代史研究』 34, 한국고대사연구회.

- 이기백, 1976, 『韓國史新論』, 일조각.
- 이부오, 2009, 「교육 과정 시행 이전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고대 영토사 인식의 변화」, 『忠北史學』 23, 충북대학교 사학회.
- 이익주, 2009, 「고려·몽골 관계사 연구 시각의 검토-고려·몽골 관계사에 대한 공시적, 통시적 접근」, 『한국중세사연구』 27.
- 이효형, 2009, 『동아시아의 발해사 쟁점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임상선, 1999,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신서원.
- 張東翼, 1994, 『高麗後期外交史研究』, 일조각.
- 韓圭哲 외, 2000, 『渤海史의 綜合的 考察』,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Duncan, John, et al., 1990, *Korea, Old and New: A History*, Seoul: Ilchogak, Publishers,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 Edwards, Walter, 1983, "Event and Process in the Founding of Japan: The Horserider Theory in Archaeological Perspective,"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9, No. 2 (Summer).
- Farris, William, 1996, "Ancient Japan's Korean Connection," *Korean Studies*, Vol. 20.
- Kuno, Yoshi, 1937, *Japanese Expansion on the Asiatic Contin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e, Chongsik, 1983, "History and Politics in Japanese-Korean Relations: The Textbook Controversy and Beyond,"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Pai, Hyung Il, 2000, *Constructing "Korean" Origins: A Critical Review of Archaeology, Historiography, and Racial Myth in Korean State-Formation Theo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agner, Edward, trans., 1984, *A New History of Kor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akeman, Jr., Frederic, 1985, *The Great Enterprise: The Manchu Reconstruction of Imperial Order in Seventeenth-Century China*, Vol. 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BSTRACT]

An Examination of Korea-Related Maps Seen
in the Survey Books of Chinese History Written in English

Kye, Seungb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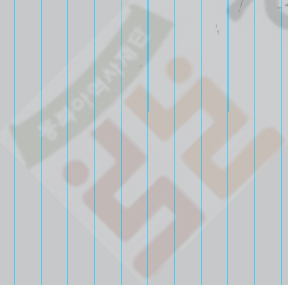
This article looks at Korea-related maps included in the English survey books of Chinese history published since the nineteenth century. From 166 books examined, 568 maps included either Korean states or the Korean peninsula. Out of those 568 maps, 161 maps, about 28%, show something arguable, if not incorrect, regarding Korea. They can thus be placed under the category of 'problematic maps.' Looking at those 161 problematic maps more closely, 101 maps (63%) have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borders between Korean and Chinese states. Forty-four maps (27%) demonstrate problems in romanizing Korean state and city names, not with Korean pronunciations but Chinese or Japanese. Also, the maps depicting states in earlier times tend to produce relatively more problematic maps than those of the modern times. In terms of the publication years, problematic maps tend to be found more easily from books published before the 1960s-70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ere normalized in 1972. Yet the rate is still approximately 25% or above. This article analyzes some possible reasons for such errors, including th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Sino-Korean relations based on the tribute system and ignorance and indifference of western scholars of Chinese history in Korean history, to name a few.

keywords

Border, Romanization, Old Chosŏn, Han commanderies, Puyŏ, Koguryŏ, Malgal, Mohe, Paekche, Silla, Koryŏ, Northeast Project



자료 소개



1998~2007년도 고고 발굴조사 보고 『발해상경성』*

황용순 | 중국 연변대학 박사연구생

I. 중국의 발해 고고연구

중국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에서는 2009년 7월에 '1992~1995년도 발해 묘장 고고 발굴보고'인 『寧安虹鱒魚場』과 '1998~2007년도 고고 발굴조사 보고'인 『渤海上京城』을 출판하였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발간하는 『考古』 2009년 제6기에는 발해 유적지의 조사발굴 성과를 특집으로 실었으며, 보고내용은 ①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와 돈화시 문물관리소가 공동으로 조사발굴·보고한 『吉林敦化市六頂山墓群 2004年發掘簡報』(주제어: 길림, 육정산묘군, 토갱묘, 석구묘, 발해국), ②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와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이 공동으로 조사발굴·보고한 『吉林琿春市八連城內城建築基址的發掘簡報』(주제어: 길림, 팔련성유지, 내성건축지, 발해국), ③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와 연변 조선족자치주 문물관

※ 투고일: 2009년 11월 25일, 심사일: 2009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2010년 2월 28일.

*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 2009년, 『발해상경성』, 문물출판사.

리위원회 관공실이 공동으로 조사발굴 보고한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주제어: 길림, 용해묘구, 왕실묘장, 발해국)이다. 그중에서 '발해 왕실 묘장 발굴'에 관하여는 2009년 8월 25일 국내 일간지에 일제히 대서특필로 보도된 바 있다.

발해 왕실묘장이 발굴된 용해묘구는 8세기 후반기에서 9세기 전반기의 중요한 왕실귀족묘지로, 1980년에는 발해 제3대 문왕 대흠무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의 묘가 발굴되었다.¹⁾ 그 이후로 조사와 발굴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2004년도와 2005년도의 2차에 걸친 조사발굴을 통하여 용해묘구의 묘장 형제는 대형석실묘(M2·M3·M9·M11·M12)와 중형석실묘(M4·M5·M6·M7), 대형전실묘(M8·M15)와 대형전실탑묘(M1·M10) 그리고 묘지 위에 대형 건축물이 있는 동봉이혈전곽묘(M13, M14)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M12는 발해 제3대 문왕 효의황후묘이고, M3은 제9대 간왕 순목황후묘임이 밝혀졌다. 묘장은 이미 대부분 도굴되었지만, 여전히 도기, 삼채기, 금기, 옥기, 동기, 철기, 건축구조물과 묘지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²⁾

중국 국가문물국에서 발간하는 『文物』 2009년 6월호에는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에서 발표한 『渤海上京城第四階段考古發掘主要收穫』이 소개되었는데, 1998~2007년 10년에 걸쳐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가 국가문물국의 지시를 받아 조사발굴한 발해 상경성의 고고학적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³⁾ 그리고 이어서 7월에 『발해상경성』이 정식으로 출판되었다. 『발해상경성』은 상·하권과 별책부록으로 구성되었으며, 발굴보고의 원문이 666쪽, 사진도판이 412쪽이다.

본고에서는 『발해상경성』의 원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하며, 원문의

- 1)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 「渤海貞孝公主墓發掘清理簡報」, 『社會科學戰線』第1期.
- 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第6期, 23~39쪽.
- 3)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6, 「渤海上京城第四階段考古發掘主要收穫」, 『文物』, 51~61쪽.

내용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주석과 참고문헌은 『발해상경성』 원문의 주석과 참고문헌을 그대로 옮겼다.

II. 발해 상경성의 조사발굴 간사

발해 상경성⁴⁾은 唐代 발해국의 도성으로, 문헌상의 명칭은 渤海王城⁵⁾이고, 발해가 오경제도를 시행한 후 上京龍泉府⁶⁾라 칭하였다. 遼代 문헌에는 忽汗城⁷⁾으로 칭했고, 契丹이 발해를 멸하고 東丹國을 세운 후 天福城⁸⁾이라 개칭하였다.

발해 상경성에 대한 조사와 기록은 清代에 대학사 阿桂가 편찬한 『滿洲源流考』(1778년에 완성)에 실리기 시작하여, 清末에는 역사지리학자인 曹廷杰 등의 현지 조사연구와 고증⁹⁾이 있었다.

1842년, 러시아 한학자 비추린(Bichurin)은 『中華帝國記』를 출판하면서 둘레가 15km이며 金上京의 유지로 추정된다고 기술했다.

1857년, 러시아 한학자 파블로비치 바실레프(Pavlovitch Vasilev)는 『滿洲記』를 출판하면서, 『許亢宗奉使行程錄』에 근거하여 동경성은 발해국의 상경성이라고 했다.

1883년, 曹廷杰은 淸 정부의 지시로 동북변방을 조사하러 가던 중 동경성

4) 학술계에서는 일반적으로 ‘渤海上京龍泉府遺址’라고 칭하지만, 상경용전부는 하나의 커다란 行政建制이며, 그 아래는 龍·湖·渤의 3州로 나뉘고, 嶺縣은 최소한 9개이다. 본 보고에 언급된 범위는 城址를 중심으로 하였으므로, 최소의 개념인 ‘渤海國上京城遺址’로 하였다.

5) 『新唐書』地理志, 引賈耽; 『邊州入四夷道里記』.

6) 『新唐書』渤海傳.

7) 『遼史』太祖記.

8) 『遼史』太祖記.

9) 주요 저서는 張縉彦, 『寧古塔山水記·東京』; 張賁, 『白雲集·東京』; 楊賓, 『柳邊記略』; 吳兆騫, 『秋菴集』; 吳振臣, 『寧古塔記略』 등이다.

유지를 지나게 되고, 1887년에 간인된 『東三省與地圖說』에 동경성 유지는 발해 상경성 유지라고 명확히 밝혔다.

1909년, 일본 학자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는 상경성의 고고조사를 하고, 보상화문전 등 유물을 수집하였으나 상세한 보고를 남기지는 않았고, 그 조사성과는 1913년 출판된 『滿洲歷史地理』에 수록되었다.

1921년, 『寧安縣志』가 완성되면서 발해 상경성의 기록이 풍부해졌고, 현지에 실린 '唐代渤海國上京龍泉府圖'는 최초로 현대 측량법을 이용한 실측도가 되었다. 이 실측도는 지금은 이미 사라진 지물 표기도 그대로 남아 있어 상당히 높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도 1).

1927년, 일본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는 발해 상경성에 관한 조사내용을 『滿蒙之探查』에 기록했다.

항일전쟁시기를 거치고 건국 초기 60년대부터 흑룡강성 문물기구에서는 '中·朝연합고고조사팀'을 구성하고 발해 상경성과 그 주변의 발해 유적을 조



〈도 1〉 발해국상경성용천부 전도(동아고고학회, 1939년 繪製, 原載 『동경성』)

사발굴·연구하면서, 1964년 10월에 상경성 조사를 통하여 외곽성과 궁성의 형제, 범위, 성내의 시가지와 궁전, 관서, 절터 등 건축 유지의 기본 분포상황을 확인하였다.

1966년, 북한에서 부분적인 발굴성과를 발표하고, 1971년 『渤海文化』를 출간하였다.¹⁰⁾

1997년,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는 고고발굴 보고인 『六頂山與渤海鎮』을 출간하였다.¹¹⁾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인 1981~1985년, 우선 흑룡강성 문물고고공작대가 상경성 주변 조사를 하였고, 이어서 흑룡강성 문물고고공작대, 목단강지구 문물관리참, 영안현 문물관리소가 공동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발해 상경성용천부의 궁성 정남문지(오봉누), 3호 문지, 제1호 궁전 및 그 동서 장랑, 성벽지 등을 발굴하였고,¹²⁾ 궁성평면도를 새로이 완성하였다.¹³⁾

1985~1991년, 발해 ‘상경성유지박물관’ 건설에 발맞추기 위하여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는 단속성으로 상경성 황성 관아지를 발굴하였다.

1997~2007년,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는 국가박물관의 지시에 따라 ‘渤海上京城考古’를 중점항목으로 하여 발해 상경궁성을 위주로 심도 있는 발굴을 진행하였다. 발굴에 앞서 ‘渤海上京城址發掘規劃’을 제정하였고, 궁성 제2호 궁전의 서측에 영구적인 발굴포방좌표기점(동경 129°08′31.3″, 북위 44°07′57″, 해발 310.2m)의 매설을 시작으로 10년간의 고고발굴을 통하여 본 보고서의 고고자료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¹⁴⁾

10) 朝鮮社會科學院, 1966, 『中國東北地方遺蹟發掘報告』, 朝鮮社會科學院出版社; 朱榮憲, 1971, 『渤海文化』, 朝鮮社會科學院出版社.

1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7, 『六頂山與渤海鎮—唐代渤海國的貴族墓地與都城遺址』,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2) 黑龍江省文物考古工作隊, 1985a, 「渤海上京宮城2·3·4號門址發掘簡報」, 『文物』第11期; 黑龍江省文物考古工作隊, 1985b, 「渤海上京宮城第一宮殿東·西廊廡發掘清里發掘簡報」, 『文物』第11期;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87, 「渤海上京宮城內房址發掘簡報」, 『北方文物』第1期.

13) 朱國忱·金大順·李硯鐵, 1996, 『渤海故都』, 黑龍江人民出版社.

14)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 2009, 앞의 책, 3~14쪽.

Ⅲ. 발해 상경성에 대한 발굴보고

본서에서는 ‘1998~2007년도 발해 상경성에 대한 고고 발굴조사 성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면서 그에 따른 결론을 제시했다.

(1) ‘제2호 궁전기지’ 발굴보고는 본서의 26~227쪽에 실려 있으며, ① 발굴 경과, ② 보존상황과 지층퇴적, ③ 형제와 결구, ④ 출토유물, ⑤ 소결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제2호 궁전유지 평면도와 단면도 17면, 제2호 궁전유지에서 출토된 文字瓦 탁본 145종, 선과 부호가 새겨진 字符瓦 탁본 18종, 그 외 대량의 출토유물 탁본과 실측도면이 보고되었다.

궁성 중심구 내에는 5좌의 대전이 있고, 남에서 북으로 중축선상에 배열되어 있어, 배열 순서에 따라 1~5호로 구분하였다. 제2호 궁전은 궁성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궁전으로 殿, 掖門, 廊廡 등의 건축물로 구성되었다. 1999년 7~10월에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는 길림대학 고고학과와 목단강시 문물관리참과 공동으로 제2호 궁전유지와 그 양측 액문을 최초로 발굴하였고, 2004년 5~11월에 제2호 궁전 전면의 낭무지를 발굴하였으며, 2005년 5~6월에는 동·서 액문과 낭무의 연결부를 발굴하였다. 발굴 정리된 주요 유적은 제2호 궁전유지와 궁전의 동서 액문지 및 궁전 앞의 동·남·서 낭무지와 각 유적을 이어주는 석장과 석장의 문지이다. 궁전은 전당을 중심으로 하고 양측의 액에 문을 하나씩 설치했으며, 전당과 액문, 낭무는 석장으로 연결하여 일체화했다. 제2호 궁전유지에서는 비교적 많은 유도건축장식이 출토되었는데 치미와 獸頭, 套獸 장식이며, 와당은 대부분 회도제이고 유도와당이 극히 적다. 출토유물 중 ‘品位, 客, 末’자가 새겨진 靑靛制版位는 파손되어 완전하지는 않지만, 발해국이 당의 조의제도를 도입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자는 결론을 내렸다.¹⁵⁾ 이외에 대량의 석기와 철기 및 금동불상 2존과 玉杖首가 출토되었다.

15)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 2009, 앞의 책, 227쪽.

(2) ‘제3·4호 궁전건축군기지’ 발굴보고는 본서의 228~431쪽에 실려 있으며, ① 발굴경과, ② 보존상황과 지층퇴적, ③ 유적, ④ 출토유물, ⑤ 소결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제3·4호 궁전건축군유지 평면도와 단면도 25면, 제3·4호 궁전건축군유지에서 출토된 文字瓦 탁본 99종, 선과 부호가 새겨진 字符瓦 탁본 7종, 그 외 대량의 출토유물 탁본과 실측도면이 보고되었다.

제3호 궁전은 궁성 중축선상의 가장 북쪽의 높은 대지 위에 축조하였고, 기둥배치와 양측의 낭무건축구조를 보면 제3호 궁전은 朝堂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본다. 제4호 궁전은 형제상 전면의 3좌 궁전과 다르게 낮은 대지 위에 축조되었고, 주전과 동·서배전 3부분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규모가 작으며, 減柱 건축형식을 취하여 실내에 기둥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북쪽의 굴뚝구조는 난방설비가 완벽했음을 설명하므로, 궁전의 전체 풍격이나 구조에서 전면의 3좌 궁전과 기능상의 변화를 준 것이다. 이는 이미 발굴된 서침전¹⁶⁾의 형제와 기본적으로 같고, 『동경성』의 보고에 근거하면 주전의 실내에 구들과 연도의 흔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4호 궁전건축군은 한 조의 前殿後寢의 건축형식으로, 전체적인 배치는 발해국의 초기 도성인 길림 서고성, 팔련성의 궁성내 건축배치와 기본적으로 같으나, 길림 서고성과 팔련성은 제1호와 제2호 궁전건축이 없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제3·4호 궁전건축은 발해 초기 궁성의 핵심 건축물임을 설명한다고 본서에서는 밝혔다.¹⁷⁾ 제4호 궁전의 정면에서 삼채유수두가 출토되었고, 북쪽의 굴뚝부분에서는 청회도수두가 출토되었다. 방전, 장방전과 전제구조물 등이 출토되었고, 그중 보상화문도안의 방전은 정중앙에 목단을 위주로 한 보상화를 배치하고 주변은 측면과 여섯 꽃잎의 작은 보상화로 장식을 하였고, 보상화 장식 사이 공간에 ‘典和毛’ 3자가 새겨진 방전도 출토되었다. 제3·4호 궁전건축군유지에서 출토된 동기 중 비교적 주목되는 것은 금칠을 한 장식품으로 형태도 상당히 정교하고 아름답다.

1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7, 앞의 책.

17)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 2009, 앞의 책, 430, 431쪽.

(3) '제5호 궁전기지' 발굴보고는 본서의 432~486쪽에 실려 있으며, ① 유지 개황과 발굴경과, ② 제5호 궁전 원락문지, ③ 제5호 궁전기지, ④ 출토유물, ⑤ 소결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제5호 궁전유지 평면도와 단면도 8면, 제5호 궁전유지에서 출토된 문자와 탁본 29종, 선과 부호가 새겨진 자부와 탁본 2종, 그 외 출토유물 탁본과 실측도면이 보고되었다.

제5호 궁전유지의 조사발굴은 2001년 8~10월에 전면 시작되어, 제5호 궁전유지와 전북 측의 塼址를 발굴하였다. 2002년 7~9월에는 臺基包壁과 踏道를 정리하고, 원락문지를 발굴하였다. 제5호 궁전 원락문지는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었으므로 지층 파괴가 비교적 심하고, 정리된 유적은 문의 대기와 동서 양측의 석장과 부속 방지와 주초 등이다. 제5호 궁전은 궁성 중축선상의 가장 북부에 있는 대형 건축이고, 단독의 원락 내에 위치하고 있다. 초석의 배열 상태로 보면 전면의 3좌 궁전처럼 사용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취한 감주건축법을 쓰지 않은 2층의 누각건축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¹⁸⁾ 제5호 궁전은 궁성 북부의 2개의 각루와 함께 어울려 '品'자형 배열로 보이는데, 그 주요 기능은 제5호 궁전 이북의 궁성지역에 대한 수비와 경계를 위함이다.¹⁹⁾

(4) '제50호 궁전기지' 발굴보고는 본서의 487~527쪽에 실려 있으며, ① 유지 개황과 발굴경과, ② 지층퇴적, ③ 건축결구, ④ 출토유물, ⑤ 소결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제50호 궁전유지 평면도와 단면도 6면과 출토유물 탁본과 실측도면이 보고되었다.

발해 상경성은 郭城과 중축선 북중양의 皇城, 宮城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성과 궁성 사이는 가로로 열린 도로로 궁성은 동·중·서 3구역으로 구분이 된다. 제50호 궁전 건축유지는 동구에 속하며, 동구 남부에는 水池와 假山 등 유적이 있고, 북부는 석장으로 격리된 단독 원락이다. 제50호 궁전유지는 궁성과 대각선 중심지에 있고, 위치상 가장 중요한 제2호 궁전유지와 같은

18)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 2009, 앞의 책, 485쪽.

19)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 2009, 앞의 책, 486쪽.

가로 선상에 있는 중요 궁전건축의 하나이다. 이 궁전의 건축형제는 隋의 仁壽宮과 唐의 九成宮²⁰⁾ 제3호 유지와 매우 유사하고, 발해 왕실귀족의 연회와 유희의 장소였다.²¹⁾

(5) ‘황성 남문기지’ 발굴보고는 본서의 528~545쪽에 실려 있으며, ① 보존상황과 작업정황, ② 지층퇴적, ③ 형제와 결구, ④ 출토유물, ⑤ 소결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황성 남문유지는 황성 남 성벽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상경성의 남북 중축 선상에 있으며, 북면은 궁성 정남문과 마주하고 있는데, 궁성 정남문과 430m 거리이다. 황성 남문유지는 상경성의 기타 문과는 달리 단독건축이고 규모가 작지만, 전체 구조는 매우 풍격이 있는 성문의 형제를 갖추었는데, 상경성은 성문의 축조가 서로 구별되면서도 서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황성 남문유지는 당의 장안 황성 남문의 含光門²²⁾의 형제와 구조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써 발해국이 도성 축조에서 중원 당조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음을 본서에는 밝히고 있다. 황성 남문유지에서는 대량의 홍소토 퇴적과 불에 탄 기둥 및 불에 탄 지면 등이 발견되었고, 이로써 황성 남문은 화재로 소멸된 것으로 판정했다.²³⁾

(6) ‘곽성 정남문기지’ 발굴보고는 본서의 546~571쪽에 실려 있으며, ① 발굴경과, ② 보존상황과 지층퇴적, ③ 건축결구, ④ 출토유물, ⑤ 소결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곽성 정남문유지 평면도와 단면도 7면과 출토유물 탁본과 실측도면이 보고되었다.

곽성 정남문유지는 상경성 곽성 남단과 궁성 내궁전 중축선의 연장선이 교

2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8, 『隋仁壽宮·唐九成宮』, 科學出版社, 51쪽.

21)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 2009, 앞의 책, 527쪽.

2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西安唐城工作隊, 1987, 「唐長安皇城含光門遺址發掘簡報」, 『考古』第5期.

23)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 2009, 앞의 책, 545쪽.

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상경성 남향의 문호로서 발해국의 禮意之門이므로 상경성의 건축체계 중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북으로는 발해진 興隆寺와 약 400m 거리에 있고, 광성 정남문은 중앙정문과 동서측문, 측문과 중앙문지를 연결하는 연결석장으로 구성된 삼문일체의 구조이다. 출토유물 중 특이사항은 생활용구인 철로 주조한 罽頭와 도금한 佛手이다.

(7) ‘광성 정북문기지’ 발굴보고는 본서의 573~610쪽(하권)에 실려 있으며, ① 발굴경과, ② 보존상황과 지층퇴적, ③ 건축결구, ④ 출토유물, ⑤ 소결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유지의 분포도와 평면도, 단면도 5면, 출토유물의 탁본과 실측도면이 보고되었다.

광성 정북문유지는 상경성 광성 북원의 중부에 위치하고, 상경성과 북부성 외부와의 교통의 문이며, 1998년 6~11월과 1999년 7~11월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와 목단강시 문물관리참, 영안시 문물관리소와 발해상경유지박물관이 공동으로 고고발굴을 진행하였다. 정북문유지는 발굴 전에 東沙고속도로의 일부였고, 지층퇴적은 심하게 파손되었다. 광성 정북문은 중앙정문, 동서양측문으로 되어 있고, 중앙정문과 양측문은 서로 연결되어 구성된 건축구조이다. 전체 유지의 동서길이는 52.12m, 남북너비는 30.8m이고, 대지 사용 높이는 0.75m이다. 출토유물은 도기, 철기, 동기, 석기 등이고, 그중 도기와 철기의 수량이 비교적 많다. 12종의 문자와가 출토되었고, 유도기는 치미와 수두장식이 출토되었다.

광성 정북문유지의 발굴은 발해 상경성의 用門제도, 도성의 건제와 건축형식에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당시기의 도성은 장안과 낙양과 같은 주요 성문의 통행법처럼 하나의 성문 누각 아래 약간의 문도를 설치했는데, 발해국 상경 정북문은 낮은 성벽으로 중앙문 기지와 양측 성문을 서로 연결한 조합식 건축이다. 성문구조의 구체적 건축법은 발해국과 중원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발해정권은 수당 문화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변화와 창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8) '제1호가 기지' 발굴보고는 본서의 611~619쪽(하권)에 실려 있으며, ① 보존상황과 작업정황, ② 제1호가 기지와 양측유적, ③ 출토유물구, ④ 소결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제1호가 유지 평면도와 단면도 8면과 출토유물 탁본과 실측도면이 보고되었다. 발해 상경성의 제1호가는 朱雀大街라고도 칭했고, 황성 남문과 광성 정남문을 관통하는 중축의 대로이다. 전체 길이는 2195m이고, 제1호가는 황성 남문 앞에서 동서방향의 6호가와 T형으로 만나게 된다. 발해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건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장안성의 御路는 배수명구가 있지만, 발해 상경성의 제1호가 유지에는 이러한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제1호가는 배수시설은 없지만, 빗물은 도로 중심에서 도로 양측으로 흐르고 방장이 있어 막아주며,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지세를 이용하여 남쪽으로 흘러내리므로, 이러한 도로 구조상의 배수방식은 은폐된 배수구라고 볼 수 있으며, 상경성 시민의 생활을 연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²⁴⁾

이상의 발굴보고 외에, 성벽 건축구조와 412쪽에 달하는 유지와 출토유물 관련 천연색 사진도판이 하권 후반부에 소개되었고, 대형 도면이 별책부록으로 동시에 출판되었다.

발해시기의 도성유적은 주로 목단강 중하류지구, 해란강 하곡평원, 도문강 하류 훈춘분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상경성은 목단강 중류의 광대한 평지에 자리 잡고 있다. 이번에 출판된 『발해상경성』은 발해의 도성제도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발해국의 발전변화와 발해 강역구분의 근거가 되는 성터의 대대적인 발굴보고이다.

최근 국내외의 끊임없는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역사연구에 눈부신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각국의 조사발굴 보고의 공개와 발표는 그동안의 국제정세와 지리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던 연구자들의 역사자료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고 있으며, 발굴조사 성과를 기초로 하여 세부적인 편년체제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발해상경성』과 같은 발굴조사 보고는 한국의 발해사

24)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 2009, 앞의 책, 619쪽.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며, 한국 학자들에 의한 구체적인 번역과 심도 있는 분석작업과 연구가 수행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09, 「吉林琿春市八連城內城建築基址的發掘簡報」, 『考古』第6期.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 2009, 「吉林敦化市六頂山墓群2004年發掘簡報」, 『考古』第6期.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第6期.
- 방학봉, 1998, 『발해불교유지와 유물』, 서경문화사.
- 宋玉彬, 2009, 「渤海都城故址研究」, 『考古』第6期.
- 정영진, 1999, 「정효공주 무덤의 건축 년대와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발해사연구』제 8권, 연변대학출판사.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渤海上京城第4階段考古發掘主要收穫」, 『文物』第6期.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9.7, 『渤海上京城』, 文物出版社.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9.7, 『寧安虹鱒魚場』, 文物出版社.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제 1·2 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요성과 실의 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가지 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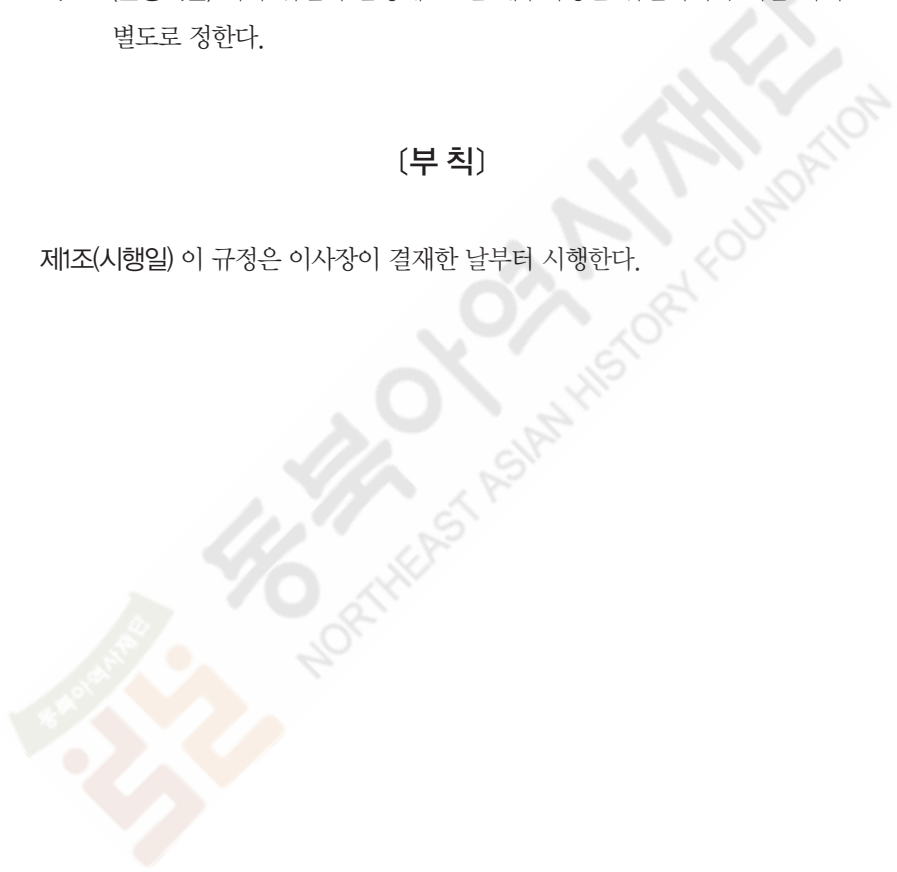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제1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연구실장이 수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 실무총괄 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 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요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자”, “연도”, “위의 글(책)”, “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자”, “연도”, “앞의 글(책)”, “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 .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 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癡,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요시 인용 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7호(2010. 3)

초판 1쇄 인쇄 2010년 3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0년 3월 31일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7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